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언론정보학박사 학위논문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정치커뮤니케이션 모형의 제안 -

2020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하 나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

- 통합적 정치커뮤니케이션 모형의 제안 -

지도교수 양 승 목

이 논문을 언론정보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이 하 나

이하나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이용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택적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분한 뒤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는 선택적 정보 이용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선택적 정보 이용이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부정적 감정,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선택적 정보 이용의 원인과 결과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제안하고자 했다.

먼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보 이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선행 요인으로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셜 미디어 친구들과의 정치적·사회적 동질성과 네트워크 규모는 선택적 정보 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SNS 뉴스피드나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소셜 미디어 친구로부터 내용적으로 풍부한 정보와 함께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중 일부를 전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루어지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으로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과 함께 정보 환경의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나 부정적 감정,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와 같은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과 함께 이견에 대한 노출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의 공유를 통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선택적 정보 이용이 특정 이슈에 대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분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선택적 정보 이용은 정치적 태도나 분

노 이외에 정치적 참여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는 정치적 참여 행동을 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로 구분하고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이 미치는 직접 효과와 태도와 분노를 경유한 간접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이 이용자의 개인내적(intrapersonal) 특성인 이슈 관여도와 이념 극단성, 관용과 이용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들의 조절효과에 대해 추가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개인내적 특성은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이나 이견에 대한 수용과 관련이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적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검토해 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만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SNS와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이슈(‘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와 관련된 정보 이용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이슈를 이용해(2 매체 X 2 이슈) 총 4개의 케이스를 구성한 뒤, 각 케이스의 분석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다중 매개효과 분석, 다집단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동질성은 뉴스 다양성을 매개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선택적 회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태도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긍정적인 영향과 교차 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에 대한 선택적 노출의 긍정적인 영향과 모든 정치적 참여 행동에 대한 선택적 회피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태도 극단성과 분노 중에서는 이슈에 대한 분노만이 소셜 미디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슈와 매체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파적 이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 있는 케이스에서 의견 균형성은 교차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선택적 노출은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반면 비정파적 이슈이자 공중보건 이슈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와 관련된 케이스에서 의견 균형성은 선택적 회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차 노출은 분노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SNS에 한하여 의견 균형성에 대한 네트워크 동질성의 부정적인 영향, 선택적 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규모의 긍정적인 영향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조절 효과에 대해 보면, 이슈 관여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 관련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동질성과 교차 노출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카카오톡 관련 케이스에서 선택적 회피와 온라인/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극단성은 정파적 이슈 관련 케이스에서 교차 노출과 태도의 관계를 조절하였고, 관용은 SNS 관련 케이스에서 뉴스 다양성과 선택적 노출의 관계를 조절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 관련 케이스에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 효과가 있었으며, SNS 관련 케이스에서 선택적 회피와 소셜 미디어 활동의 관계에 조절 효과가 있었다.

이 연구는 개인이 속해 있는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로부터 비롯되는 정보 다양성, 그리고 정보 이용 이후 행동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서 형성되는 이용자 개인의 태도 및 분노, 나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 정치적 참여에 이르기까지 선택적 정보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의 선택적 정보 이용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이 지닌 의미에 대해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동질성은 언제나 뉴스 다양성을 매개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또한 정보 다양성 역시 선택적 정보 이용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며, 특히 교차 노출에 있어 의견 균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했다.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전체 케이스에

서 공통적으로 정치 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것은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와 같은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슈 관여도, 이념 극단성, 관용, 연령이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로에 조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이론적 함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본문에 서술하였다.

주요어 : 소셜 미디어, 선택적 정보 이용, 네트워크 특성, 정보 다양성, 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 태도 극단성, 분노, 정치 참여
학 번 : 2010-30064

목 차

제 1 장. 문제 제기 ····· 1

제 2 장. 이론적 논의 ····· 6

제 1 절. 소셜 미디어와 정보 이용 ····· 6

1. 정보에 대한 노출 ····· 6

2. 소셜 미디어와 정보 노출 ····· 11

제 2 절. 소셜 미디어와 선택적 정보 이용 ····· 17

1.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 ····· 18

2.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 ····· 22

3. 네트워크 특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 ····· 26

4. 소셜 미디어 정보 이용의 맥락 ····· 30

5. 개인 내적 요인과 선택적 정보 이용 ····· 37

제 3 절. 소셜 미디어와 정치적 참여 ····· 52

1.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 ····· 52

2.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양극화 ····· 62

3. 태도와 정치적 참여 행동 ····· 67

4. 분노와 정치적 참여 행동 ····· 71

5.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정치 참여 ····· 75

제 4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 78

1.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설정 ····· 78

2. 연구 모형 ····· 90
제 3 장. 연구방법 ····· 96
제 1 절. 조사 절차 ····· 96
1. 표본 선정 ····· 96
2. 소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 ····· 96
제 2 절. 주요 변인의 측정 및 구성 ····· 100
1.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 ····· 100
2. 정보 다양성 ····· 103
3. 개인 내적 특성 ····· 105
4. 선택적 정보 이용 ····· 107
5. 태도 극단성 ····· 111
6. 분노 ····· 112
7. 정치적 참여 행동 ····· 113
8. 통제변인 ····· 116
제 3 절. 자료 분석 방법 ····· 118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118
2. 다중 매개효과 분석 ····· 119
3. 다집단 분석 ····· 121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123
제 4 장. 연구 결과 ····· 125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 125
제 2 절. 주요 변인의 특성 ····· 130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130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131
제3 절.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검증 ····· 132
1. 분석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 132
2. 분석 2: 다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 147
3. 분석 3: 다집단 분석 결과 ····· 150
4. 분석 4: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 156
제 4 절. 주요 결과 정리 ····· 161
1. 케이스 간 공통 결과 ····· 161
2. 이슈 별 공통 결과 ····· 164
3. 매체 간 공통 결과 ····· 167
4. 케이스 별 매개효과 특징 ····· 169
5. 개인 내적 특성과 연령의 역할 ····· 172
제 5 장. 종합 논의 및 결론 ····· 176
제 1 절.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 175
1. 정보 다양성 영향을 주는 요인 ····· 177
2.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 178
3. 태도 극단성과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81
4.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 181
제 2 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 182
1. 연구의 함의 ····· 182
2.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190

참고문헌 ····· 194

[부록 1] SNS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219
[부록 2] KKO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220
[부록 3] SNS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221
[부록 4] KKO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 222
[부록 5] SNS1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 223
[부록 6] SNS1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 223
[부록 7] KKO1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 224
[부록 8] KKO1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 224
[부록 9] SNS2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 225
[부록 10] SNS2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 225
[부록 11] KKO2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 226
[부록 12] KKO2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 226
[부록 13] SNS1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 227
[부록 14] KKO1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 229
[부록 15] SNS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 231
[부록 16] KKO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 233
[부록 17] 개인 내적 특성과 연령대 고·저 집단 측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 235
[부록 18] SNS1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36
[부록 19] KKO1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37
[부록 20] SNS2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38
[부록 21] KKO2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39
[부록 22] SNS1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40
[부록 23] KKO1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41
[부록 24] KKO2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42
[부록 25] SNS1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43
[부록 26] SNS2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44
[부록 27] KKO2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245

[부록 28] SNS1 40대 이하·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 246
[부록 29] KKO1 40대 이하·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 247
[부록 30] SNS2 40대 이하·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 248
[부록 31] KKO2 40대 이하·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 249
[부록 32] 설문지 ····· 250

표 목 차

[표 1] 설문조사 과정 ····· 100
[표 2] 이슈1과 이슈2에 대한 사후 태도 점수 ····· 112
[표 3] 주요 변인의 신뢰도 ····· 117
[표 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5
[표 5] 케이스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태도 구분 ····· 128
[표 6] 케이스별 최종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29
[표 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 131
[표 8] 케이스별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 135
[표 9] 연구 결과의 요약 ····· 146
[표 10]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 149
[표 11] 태도와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 150
[표 12] 이슈 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152
[표 13]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153
[표 14]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 154
[표 15] 40대 이하·50대 이상 집단의 다집단 분석 결과 ····· 156
[표 16] 총 정보 이용량 저 집단 기준 고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57
[표 17] 교차정보 추구 저 집단 기준 고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 158
[표 18]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 ····· 170
[표 19] 분노의 매개효과 ····· 172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모형 ····· 95
[그림 2] SNS1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 139
[그림 3] KKO1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 139
[그림 4] SNS2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 140
[그림 5] KKO2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 140
[그림 6] 구조모형 분석 결과 종합 ····· 162
[그림 7] 이슈1 관련 케이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종합 ····· 165
[그림 8] 이슈2 관련 케이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종합 ····· 166
[그림 9] SNS 관련 케이스 구조모형 분석 결과 ····· 168
[그림 10] KKO 관련 케이스 구조모형 분석 결과 ····· 169

제 1장. 문제 제기

2019년 가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정보와 견해가 개인의 마음속을 벗어나 사회적 관계 위로 조심스럽게 드러났다. 법무부 장관 자격 논란은 가족과 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이어졌고, 관련된 정치적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와 그것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고 재생산되었다. 정치 이야기는 불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깨지고, 자신의 생각을 소셜 미디어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늘었으며, 이로 인해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소셜 미디어 친구들과의 정치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소셜 미디어는 정치적 견해가 같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광화문과 서초동 촛불 집회와 같은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인증하고, 응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소셜 미디어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의 영역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정치의 양극화와 분열이 드러나는 매개체가 되었다.

소셜 미디어는 시민의 소통 방식을 바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게 하거나 비슷한 생각의 사람들과의 소통만 도울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하는데, 그 이유는 미디어에서의 정보 이용이 기본적으로 '선택적'이기 때문이다. 소셜 미디어에는 다양한 의견과 뉴스가 공유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 정보를 선택해 읽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셜 미디어 친구들이 공유하는 정보만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셜 미디어에서 에코 챔버나 필터 버블, 양극화와 같은 유유상종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있고(Aruguete & Calvo, 2018; Bessi, 2016; Pariser, 2011), 다른 한편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노출이 선택적이기는 하지

만 사람들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타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으며, 소셜 미디어에서의 다양한 관계를 통해 서로 다른 생각에 대한 교차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Bakshy, Messing, & Adamic 2015; Barbera, Jost, Nagler, Tucker, & Bonneau, 2015; Garrett, 2009a, 2009b).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반대로 다른 의견과 정보만을 접하고 소비하는 것인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정치 정보를 우연히 접할 수 있고, 동시에 선택적 노출을 통해 우연히 접한 다양한 내용 중 일부분만 소비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국내의 20-3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보는 게시물 가운데 1/3 정도가 뉴스에 해당되며, 이들 중 언론사 계정을 구독하는 경우는 40.3%로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별도의 구독 행위 없이, 즉 별도의 선택 없이 소셜 미디어의 뉴스피드를 통해 뉴스 콘텐츠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애·최지향, 2019). 응답자들에게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뉴스를 보는 방식에 대해 질문하자 '눈에 띄는 기사만 몇 개 정도 골라서 본다'는 응답이 68.3%로 가장 많았고, 적극적으로 '일부러 뉴스를 찾아서 본다'는 경우는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뉴스피드에서 자연스럽게 뉴스를 접하고, 그 가운데에서 일부 뉴스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은 뉴스피드를 통해 다양한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선택적 노출을 통해 일부 정보만 받아들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에서 특별히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우연히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은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44)이 지적한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정치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우연적 노출(accidental exposure)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뉴스피드에서 우연히 접하게 되는 정치 정보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Heiss & Matthes, 2019; Lee & Kim, 2017; Lu & Lee, 2019; Weeks et al., 2017 등). 이들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뉴스나 정보를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모두 읽는 것은 아니며, 그 안에서 선택적 노출이 일어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연

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어떠한 이유로 특정 정보를 선택해 읽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종의 우연적 노출 단계에서 접한 정보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보 다양성은 곧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둘러싼 정보 환경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소셜 미디어 친구들의 특성과 구분되는 정보 자체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정보 환경이 얼마나 다원적이고, 양가적인지를 살펴보고, 정보 환경의 어떠한 측면이 선택적 노출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환경의 다양성뿐인가?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교류 대상과 교류 내용이 구분되며, 이 둘이 정치적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Chan, 2018; Chan, Chen, & Lee, 2019; Kwon, Moon, & Stefanone, 2015)와 같은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의 배경이자 정보 환경의 근원이 되는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환경의 특성을 서로 구분하여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은 일상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부조화를 야기하는 주요 근원이 되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은 비자발적으로 부조화에 노출된다(Festinger, 1957).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네트워크 특성은 선택적 정보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유하는 정보의 특성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 또한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정보 이용은 크게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과 교차 노출(cross-exposure), 선택적 회피(selective avoidance)로 구분된다. 전통적인 선택적 노출 개념과 인지부조화 이론, 확증 편향에서 개인이 자신의 선유성향이나 기존의 인지 체계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선호하는 경향성은 지지적 선택(supportive selection)과 방어적 회피(defensive avoidance)로 구분되는데, 이와 유사하게 소셜 미디어에서도 선택적으로 특정 정보를 '이용'하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노출' 개념과 함께 '선택적 회피' 개념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견해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교차 노출'

도 분석에 포함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보 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이 중요한 것은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와 같은 정보 이용이 시민의 정치적 태도나 부정적 감정,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의 접촉은 인지적 효과, 감정적 효과, 행동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인지적 효과란 미디어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통해 정치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사회에서 어떤 정치적 이슈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과 관련있다. 다음으로 감정적 효과는 미디어를 통해 한 개인이 정치인이나 정당, 정치 문제에 대해 정치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과 연관된다. 정치적 양극화를 다루는 연구들에서 자주 이용하는 감정적 양극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거나 정치에 대한 감정적 평가를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는 개인의 정치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인간 정치 토론이나 정보 공유와 같은 표현적 참여 행동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참여, 비공식적인 정치 활동과 제도적 정치 활동에까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가 오로지 확증 편향적인 정보 노출을 돕거나 반대로 무조건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노출을 자극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개인이 속해있는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이 결정되고 그 가운데에서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정치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인 정치 정보 이용이 이용자의 태도나 부정적 감정,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이러한 일련의 영향 관계를 통합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 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에 대해 폭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가 제안하는 통합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오랜 관심사였던 '다양성이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특성은 한 개인이 얼마나 이질적인(heterogeneous) 환경에 있는지를 보여주며, 소셜 미디어의 정보 다양성은 이용자가 인식하는 정보 환경이 얼마나 다양한지(diverse)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은 타인과의 부조화(incongruous), 혹은 의견에 대한 불일치(disagreement)와 관련된 정보 이용을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네트워크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정보에 우연히 노출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직접 선택적인 정보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원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다양성 경험이 이후 태도와 감정,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의 교류 대상(네트워크)과 교류 내용(정보)의 다양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한 우연적(accidental) 노출과 의도적(intentional) 노출 단계를 구분하여 소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세분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정치적 효과의 맥락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장. 이론적 논의

제 1절. 소셜 미디어와 정보 이용

1. 정보에 대한 노출

1) 선택적 노출

미디어에 대한 노출은 항상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Lazarsfeld et al., 1944). 특히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많은 양의 정치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지만 모든 메시지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유권자는 신문이나 라디오와 같은 다양한 미디어 중에 정치 메시지를 전달받는 미디어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선택해 보거나 듣는다. 라자스펠드와 동료들은 194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패널 연구를 통해 선거 캠페인 관련 메시지가 유권자의 잠재적 성향을 활성화(activation)하고 강화(reinforcement)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존의 태도를 바꾸는 설득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치 메시지는 선택적 노출과 의견지도자와 같은 대인관계의 영향으로 인해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진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등장한 선택적 노출 개념은 이후 일반 대중의 미디어 메시지 노출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쓰여 왔으며, 온라인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의 선택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여전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선택적 노출은 페스팅거(Festinger, 1957)가 제안한 인지부조화 이론에서 불협화음 감소를 위한 주요 매커니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에게 심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두 개의 인지 요소가 있을 때 부조화가 발생하며, 사람들은 행동이나 인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인지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부조화를 감소시키려고 한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개인에게 부조화의 존재는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기 때문에 부조화를 감소시켜 조화를 달성하려는 동기가 생길 것이고, 부조화가 발생하면 그것을 감소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부조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기본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이 이론은 한 개인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 사이에는 일관성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이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에서 페스팅거는 비일관성(inconsistency)이라는 단어 대신 논리학적 의미가 덜한 부조화(disson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일하게 일관성(consistency)라는 용어 대신 중립적 용어인 조화(consonance)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인지(cognition)라는 단어를 주위 환경이나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행동에 관한 지식이나 의견 또는 신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면서,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것은 마치 배고픔이 배고픔의 감소를 지향하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부조화의 감소를 지향하는 행동을 유발하는 선행조건이라고 보았다. 즉, 한 개인에게 인지부조화가 있을 때 사람은 부조화를 줄이거나 그것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방향으로 동기화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조화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인지요소들과 일치하는 새로운 인지 요소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부조화를 증가시키는 정보는 피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한편 선택적 노출은 때로 메시지 노출 성향이 자신의 기존 태도를 확증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불리기도 한다. 확증 편향은 기존의 신념이나 기대에 편향된 방식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으로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주장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Nickerson, 1998).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고,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선택적 노출과 인지부조화의 회피와 연결된다.

선택적 노출과 인지부조화 이론, 확증 편향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선유성향이나 기존 인지 체계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하려 하고, 반대로 자신의 선유성향이나 인지와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려 한다는 경향성

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크게 지지적 선택(supportive selection)과 방어적 회피(defensive avoidance)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보 추구 이론의 관점에서 한 개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선택적 노출은 지지적 선택에 해당되는 반면, 개인이 인지적 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인지적 균형 상태를 추구한다고 보는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은 방어적 회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양승목, 1993). 선택적 노출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한 개인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서 각각 특정 정보를 선택하는지, 반대로 회피하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선유성향이나 신념,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에는 전혀 노출되지 않는가? 이와 관련해 시어즈와 프리드만(Sears & Freedman, 1967)은 라자스펠드 등(Lazarsfeld et al., 1944)이 제안한 선택적 노출 개념을 비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시어즈와 프리드만은 선택적 노출 개념이 '사실상의 선택성(de facto selectivity)'을 의미한다고 지적하였고, 선택적 노출을 다룬 실험연구 검토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보에 대해 선호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호도가 없거나 지지하지 않는 정보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정보 노출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지하는 정보만을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회피한다고 가정한 인지부조화 이론이나 선택적 노출 개념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선택적 노출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은 교육과 사회 계층, 정보의 효용, 이전의 노출 경험 등에 따라 지지하지 않는 정보에도 자발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선택적 노출과 같이 지지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심리적 선호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선호하기도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정보를 선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짐크(Ziemke, 1980)는 시어즈와 프리드만의 연구 질문이 잘못된(misstated)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호도가 '항상'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에서' 선택적 노출이 이루어지는가에 있다고 보았다. 짐크는 선택적 노출을 방어적 회피를 제외한 지지적 선

택에 국한해 재정의 하고, 지지적 선택이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하트와 동료들(Hart et al., 2009)은 메타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기존 태도, 신념, 행동과 관련해 정보 선호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자신의 태도에 부합하는 정보를 그렇지 않은 정보보다 더 선택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고, 선택적 노출 과정에서 자신의 태도를 지키려는 방어적 동기와 정확하게 사실을 인지하려는 정확성 동기 등이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리하자면 선택적 노출은 일부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항상 자신의 기존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만을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우연적 노출

지금까지 살펴본 선택적 노출과 인지부조화 이론은 주로 개인의 선택성을 중심으로, 특정 정보에 자발적으로 접근하거나 회피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선택에 의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지부조화를 증가시키는 정보를 '비자발적'으로 접하는 상황이 있으며, 자신의 선유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정치 정보를 '우연히'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해 라자스펠드와 동료들, 그리고 페스팅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정보나 이견에 대한 교차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페스팅거(Festinger, 1957)는 사람들은 보통 부조화를 증가시키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회피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보고, 이를 '새로운 정보에 대한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첫 번째는 우연히 접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이유로 접하는 경우, 세 번째는 강제로 접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우로, 페스팅거는 한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은 개인이 갖는 인지부조화의 주요 근원이 된다고 보았다.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과 일상적 접촉을 통해 상호작용하

게 되는데, 사회적 관계를 통해 비자발적으로 부조화가 발생하고, 이를 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부조화의 크기는 타인의 의견과 얼마나 다른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처럼 사회적 의견 불일치(social disagreement)에 기인한 부조화의 경우 정보를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나 타인의 의견을 바꾸거나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방법을 통해 부조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et al., 1944) 역시 대인관계에 의해 마음의 준비 없이 다양한 정치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들은 선거 기간 동안의 정치 정보 접촉이 시민의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접촉의 우연성과 목적 의식에 대해 언급하였다. 만약 특정한 목적을 갖고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정치 메시지를 접하는 경우에는 메시지 수용에 영향을 주는 특정한 마음 상태(mental set)를 갖게 되고, 정파성을 가진 개인은 자신이 동의하는 정치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읽고, 동의하지 않는 정치 메시지는 외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아무런 목적 없이 갑자기 정치적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비의도적, 혹은 우연한 접촉은 메시지 전달에 보다 효과적인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평소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교차노출을 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특히 선거 기간이나 정치적 토론이 활발한 시기에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정치 이야기를 피하기가 어렵고, 대인 접촉의 영향력이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메시지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미디어에서의 우연적 노출(accidental exposure)과 비슷하게 레스토랑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일종의 우연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빈번히 이루어지게 되고 이 경우 원래 가지고 있던 심리적 방어기제가 미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견을 포함한 정치 메시지 전달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et al., 1944)은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비교할 때, 대인관계의 범위가 훨씬 더 크고, 공식적 미디어의 영향력에 비해 대인관계의 영향력이 심리학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우연한 정치 메시지 접촉이 선거 참여에 잠재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견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인접촉은 공식적 커

뮤니케이션 미디어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를 회피하는 선택적 노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지지하지 않는 정보에 자발적으로 교차 노출하는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연히 노출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택적 노출 개념은 실제 그러한 현상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거친 이후, 어떠한 조건에서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노출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야기하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 개인이 정치 뉴스를 읽거나 보기 위해 매스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선택적 노출 개념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Bryant & Miron, 2004; Stroud, 2008; Sunstein, 2009).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 노출은 현재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노출 개념의 논의에서 등장하는 지지적 선택과 방어적 회피, 교차 노출,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정보 노출이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정보 노출의 원인과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소셜 미디어와 정보 노출

소셜 미디어는 개인 간 사적 대화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동시에 뉴스의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서 국내 응답자가 뉴스에 접근하는 주된 경로로 온라인 뉴스(83%)와 TV(67%)에 이어 소셜 미디어(26%)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이는 종이신문(19%)보다 높은 이용률이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중에서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38%)에 이어 카카오톡(28%)과 페이스북(22%)이 뉴스 이용 경로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선호·김위근, 2019). 이처럼 일반적인 뉴스 이용 경로로 소셜 미디어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의 경우에는 정보

원으로서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연구한 <인포데믹 탐색하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6개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응답자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나 뉴스를 얻기 위해 온라인(85%)과 TV(65%)에 이어 소셜 미디어(51%)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아란·이소은, 2020). 빠르고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털 뉴스와 종합적이고 정리된 뉴스를 제공하는 TV에 이어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현재 중요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적인 뉴스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보원으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아마도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 자체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이용자의 역할 역시 중요하며, 이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 이용이 갖는 보다 중요한 특징일 것이다. 싱어(Singer, 2014)의 지적과 같이 소셜 미디어가 개별 뉴스를 네트워크에 전파함으로써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용자는 수용자나 이용자를 넘어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것이다. 전통적 미디어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는 미디어가 제공하는 기사를 읽는 데에 머물렀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전달 받고, 전파함으로써 이용자이자 곧 생산자가 되었다. 소셜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의 이용자 참여형 소셜 뉴스 전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기 표현은 새로운 오락이 되고, 정보를 소비할 뿐 아니라 정보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주체'로 역할 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나 정보 이용은 기존의 미디어 이용과 다른 사교적 관계의 일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관계의 맥락 속에서 정보가 제공되고,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선택적 노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정치 정보의 원천으로서 신문의 역할이 작아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소셜 미디어의 대인 연결망을 통해 정치 정보를 접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 먼저 소셜 미디어에

서 이용자들의 동질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일종의 반향실(echo chamber)이 형성될 것이라는 시각, 소셜 미디어의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필터버블(filter bubble)이 존재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Pariser, 2011). 이러한 시각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언론사를 찾는 것(Iyengar & Hahn, 2009)과 같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기존 신념을 확인하는 정보만을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Sunstein, 2009)와 연결된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서 파편적이거나 양극화된 이용이 있는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일부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필터버블이나 에코챔버와 같은 편향적 이용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른 정보를 소비하고, 그 결과 비슷한 성격 특성을 가진 이용자들끼리 서로 다른 분리된 공동체에서 활동하며(Bessi, 2016), 트위터에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 버블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들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정보만을 전파한다는 것이다(Aruguete & Calvo, 2018).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정보와 관계를 제공해 개인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양극화나 필터버블은 과장된 해석이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가 이념적으로 다양한 출처의 뉴스 소비를 촉진한다고 본다(Bakshy et al., 2015; Barbera et al., 2015). 소셜 미디어와 웹 검색엔진을 통한 뉴스 이용이 개인이 직접 뉴스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와 비교해 더 높은 이념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지만, 이념적 양극화와 별개로 반대편 정보에 대한 노출 수준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Flaxman, Goel, & Rao, 2016).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뉴스만을 선택하게 하지만 동시에 뉴스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 비교했을 때 더 다양한 뉴스 기사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에서 정치적 이념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극단화 될수록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반대편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긴 하지만 이데올로기의 좌, 우를 가로지르는 중심 영역 안에

서는 오히려 많은 의사소통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연구도 있다(Bright, 2018).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단절 혹은 소통의 분리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신념의 확실성 혹은 강도 때문이라는 설명으로, 트위터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는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좋아요'나 '공유'와 같은 기능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다양한 관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Messing & Westwood, 2014). 개인은 다른 외부 영향이 없으면 자신의 신념에 맞는 확증 편향적 뉴스만 소비할 수 있지만, 소셜 미디어 환경과 같이 사회적 영향과 개인의 당파적 선택성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능가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이용자의 경우, 친구나 가족이 게시한 정치적 뉴스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치 뉴스에 더 많은 청중을 끌어들여 다양한 정치적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Anspach, 2017).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입장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인해 그 내용을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신과 비슷한 견해의 이용자들과만 소통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정보만을 접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나아가 그 중에서 자신의 선호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관점, 동질적인 정보만을 접한다거나 다양한 정보를 접한다는 것 중 어느 것이 틀리고 하나만 옳다고 할 수 없다.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은 특정 정보를 실제로 읽어보기 이전에 소셜 미디어 친구들이 공유한 다양한 정보에 선택권 없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선호에 따라 특정 정보만을 편향적으로 '선택적 이용'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셜 미디어 친구가 이용자와 동질적인 견해만 공유한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내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친밀한 관계의 친구가 정치 정보를 공유하면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다르더라도

읽어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즉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은 단순히 정치적 이념 성향이나 선호에 따라 무조건 편향적인 정보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영향, 그들로부터 전달 받은 정보의 내용과 의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이용 구분은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노출을 적극적 선택적 노출(active selective exposure)과 수동적 선택적 노출(passive selective exposure)로 나눌 수 있다는 머츠와 영(Mutz & Young, 2011)의 주장과 연결된다. 이들은 온라인 환경에서 적극적인 개인은 자신의 심리적 선호에 기초해 뉴스나 정보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 구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소 수동적인 선택적 노출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선택적 노출을 개념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가 제공하는 정보를 읽는 것이 온전히 수동적 노출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관계를 맺을 때에는 상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과 별개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친구가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며,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친구에 대한 선택이 곧 그 사람이 보내오는 메시지 자체에 대한 선택과 연결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뉴스피드를 통해 이용자를 전통적인 대중 매체보다 더 정치적이고 이질적인 정보에 '노출'시키지만, 노출이 그 정보의 '소비'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별개라는 연구(Anspach, 2017)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적극적인 선택적 노출과 별개로 뉴스피드를 통한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노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에서의 정보 노출을 수동적인 노출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노출로 구분해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et al., 1944)이 정치 메시지에 대한 접촉을 우연성과 목적의식에

따라 선택적 노출과 우연적 노출로 구분한 것과 같이 인터넷에서의 정치 정보 노출도 이와 비슷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Gil de Zuniga & Valenzuela, 2011; Kim, Chen, & Gil de Zuniga, 2013; Tewksbury, Weaver, & Maddex, 2001; Weeks, Lane, Kim, Lee, & Kwak, 2017), 소셜 미디어의 뉴스피드를 통해 별다른 선택권 없이도 접하게 되는 정보와 그 정보들 중에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해 읽거나 상호작용하는 정보를 구분해, 소셜 미디어에서의 '우연한 노출'(incidental exposure)과 '선택적 노출'(selective exposure)을 구분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있다(Fletcher & Nielsen, 2018; Heiss & Matthes, 2019; Karnowski, Kumpel, Leonhard, & Leiner, 2017; Lee & Kim, 2017; Lu & Lee, 2019; Weeks et al., 2017). 인터넷에서 개인이 의도적으로 찾지 않은 정치 뉴스나 정보를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정치 정보에 '우연히' 노출될 기회가 증가하고 있으며(Kim, 2011; Lee, Choi, Kim, & Kim, 2014; Valeriani & Vaccari, 2016), 일련의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즉 우연히 마주치는 뉴스나 정보를 이용자들이 모두 읽지 않고 그 안에서 선택적 노출이 일어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인지부조화 이론과 선택적 노출 개념에 등장하는 방어적 회피 역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지지적 선택 이외에 보다 적극적인 방어적 회피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뉴스피드에 있는 정치 정보 중 자신의 견해에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와 친구관계를 끊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특정 정보에 대해 방어적 회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부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노출을 측정할 때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에 대한 노출'과 '반대되는 정보에 대한 노출'을 각각 측정하고, 나아가 '선택적 회피'(selective avoidance)를 새롭게 측정하기도 한다(Bode, 2016; John & Dvir-Gvirsman, 2015; Zhu, Skoric, & Shen, 2017). 여기에서 선택적 회피는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관계나 뉴스피드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관련 있다.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노출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동질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견해가 다른 사람과 마주칠 기회가 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정치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친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정보 이용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정치 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2절. 소셜 미디어와 선택적 정보 이용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선택적 노출 개념을 활용한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et al., 1944)은 유권자는 자신의 취향과 편향(taste and bias)에 맞는 정치 메시지를 선택하지만, 그 이전에 유권자의 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권자 개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정치 메시지가 걸러지며,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노출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인 내적 요인인 유권자의 심리학적 선유경향과 별개로 외적 요인인 유권자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소셜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접하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나아가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유권자 개인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접할 수 있는 정치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어떠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학에서 교류 대상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을 뿐, 매스 미디어 영역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매스 미디어 이용에서는 미디어로부터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미디어 컨텐츠라는 '메시지'가 중요했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교류 대상의 역할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메시지를 접하는가'와 함께 '누구와 교류하는가'가 중요해졌고, 많은 연구들이

교류 범위 혹은 교류 대상을 연구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가진 매체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달리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는 '관계'(즉 네트워크) 속에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커뮤니티나 토론 사이트, 뉴스 게시판은 익명의 다자간 메시지 교환인 반면, 소셜 미디어는 가족과 친구, 회사 동료와 선후배와 같은 지인에서부터, 친구의 친구와 익명의 누군가에 이르기까지 더 넓고 다양한 범위의 대상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교류 대상의 특성, 즉 네트워크 특성이 정보 이용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에 따라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 다양성이 결정되며, 이것이 곧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와 정보 다양성,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뜻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전통적 미디어나 인터넷 등장 이후의 미디어를 통칭하는 디지털 미디어와 구분되는, 대인 간 연결망의 형성이 가능하고 그 안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미디어를 의미한다. 전화나 편지, 이메일과 같은 대인 간 전언 매체와 구분되는 점은 교류되는 메시지와 교류 대상이 특정한 서비스 내에서 관리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김은미(2018)는 이용자와 이용자의 연결이 핵심 기제일 때는 이와 관련된 미디어를 네트워크 미디어로 볼 수 있고, 네트워크 미디어를 다시 소셜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셜 미디어는 만남과 대화, 교류 자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주 목적을 위해 다수의 이용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와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페이스북이 소셜 미디어로 시작했지만 소셜 서비스의 성격을 점점 더 많이 갖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이 특정 소셜 미디

어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하나의 소셜 미디어가 다중적인 소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미디어라는 말보다는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도 한다(김은미, 2018).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와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메시징 서비스인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은 네트워크 내에서 내용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제도인 소셜 미디어와 다면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치 기반인 소셜 플랫폼, 그러한 역할을 제공하는 소셜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사회적 관계 내에서 정보가 교환되는 소셜 서비스 혹은 소셜 플랫폼을 포함하는 미디어"로 정의하고,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따른 선택적 정보 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셜 미디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소셜 미디어가 정보 공유와 이용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셜 미디어는 종종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와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대다수의 소셜 미디어 연구들은 곧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는 가이드와이어(Guidewire) 그룹의 창업자인 크리스 쉬플리(Chris Chipley)가 2004년 한 컨퍼런스에서 블로그, SNS, 마이크로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 SNS의 이용이 대중화되면서 소셜 미디어가 곧 SNS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SNS를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와 자주 혼용하지만 사실 소셜 미디어는 SNS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SNS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있는 가운데, 보이드와 엘리슨(boyd & Ellison, 2007)은 SNS에 대해 "개인들이 특정 시스템 내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 또는 준공개적으로 만들고, 그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의 리스트가 있으며, 다른 이용자들이 맺고 있는 관계망의 리스트를 둘러보고 넘나들 수 있게 해주는 웹 기반의 서비스(211쪽)"라고 정의했다. 그리

고 이후 자신들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여, “SNS는 이용자들이 식별 가능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둘러보고 이동할 수 있는 관계를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소비, 생산, 상호작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화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9쪽)”이라고 정의했다(Ellison & boyd, 2013). 이들의 정의에서 강조되는 것은 프로필과 관계의 목록, 그리고 관계와 콘텐츠를 가로지르는 이용으로, SNS의 프로필은 이용자가 제공하는 상태 업데이트나 가입 그룹과 같은 활동 보고, 태그와 같이 다른 이용자가 제공하는 컨텐츠 등의 동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친구 목록의 경우 공개적으로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연락처 목록을 플랫폼 내에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관계 자체를 표시하고, 검색을 통해 공통의 친구를 발견할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와 관계 간의 이동은 SNS 이용 초기에는 팔로워와 친구 목록을 통한 이동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해시태그나 외부 콘텐츠 링크를 통해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된 이동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엘리슨과 보이드(2013)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SNS가 확산되고 진화함에 따라 무엇을 SNS로 볼 것인지는 점차 어려워지며, 정의 중 일부분은 다른 종류의 소셜 미디어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메시징 서비스인 카카오톡의 경우 사진이나 글, 음악으로 자신의 프로필과 상태를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개인 연락처 목록을 바탕으로 친구 목록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범위의 타인과 교류가 가능하며, 뉴스 링크나 해시태그를 이용해 SNS와 같은 콘텐츠 간 이동 역시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SNS의 특징과 연결되고, 그래서 카카오톡을 SNS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카카오톡의 경우 개인의 친구 목록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공유가 어렵다는 점, 개별 채팅방을 벗어나 뉴스피드와 같이 보다 통합적이고 공개적인 콘텐츠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SNS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한편 소셜 미디어는 등장 시기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방형 시스템과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

다(김은미·이동후·임영호·정일권, 2011; 신소연·이상우, 2012; 심홍진·황유선, 2010; 이정권·최영, 2015; 이창호·정낙원, 2014; 최영·박성현, 2011; Davenport, Bergman, Bergman, & Fearrington, 2014; Hughes, Rowe, Batey, & Lee, 2012; Phua, Jin, & Kim, 2017b). 김은미 등(2011)이 구분한 소셜 미디어 발전 과정을 보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점점 개방적인 관계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은 SNS를 기술 발전 과정에 따라 크게 3기로 나누었는데, 국내의 '아이러브스쿨'(I love school)과 해외의 '클래스메이트'(Classmates)와 같이 학연을 중심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인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주력한 인맥 관리형 서비스를 1기로, '마이스페이스'(My space), '페이스북'(Facebook), '싸이월드'(Cyworld)와 같이 1기에 비해 개방적으로 인맥을 맺을 수 있는 서비스를 2기로, 그리고 앞선 서비스들보다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와 '미투데이'(Me2day)와 같은 마이크로블로그형 서비스를 3기로 구분한 바 있다.

초기의 소셜 미디어가 학연 중심의 관계였다면 페이스북은 학연이나 지연을 벗어나거나 지인의 지인과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좀 더 개방적인 특징이 있다. 다만 여전히 페이스북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완전히 개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후 트위터의 등장으로 서로의 합의 없이도 상대방의 정보를 보고 댓글을 달거나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개방적인 관계 맺기가 가능해졌다(심홍진·황유선, 2010). 이후 등장한 '카카오톡'과 '라인', '스냅챗'과 '위챗' 등의 메시징 서비스는 이전과는 또 다른 변화를 보인다. 이들은 초기의 소셜 미디어처럼 기존에 오프라인 상에서 알고 있던 지인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폐쇄형 소셜 미디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화번호가 등록된 사람들을 바탕으로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러한 관계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정보 교환이 독립된 채팅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가 개방형인가 폐쇄형인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각 소셜미디어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종류, 혹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오프라인 인맥 중심의 SNS이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면 상대적으로 폐쇄형 소셜미디어로 분류되고, 반대로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 형성이 자유로우면 개방형 소셜미디어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구조가 폐쇄적인지, 개방적인지에 따라 이용자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것은 곧 소셜 미디어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와 연결된다.

2.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네트워크 특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어포던스(affordanc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어포던스는 사물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특성으로(Gibson, 1979), 사용자에게 일련의 조작 방식으로 제공되며 디지털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능동성은 미디어의 어포던스에 따라 발현될 수 있다(이재현, 2003). 미디어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어포던스, 즉 행동유도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교환되는 메시지의 내용과 교환 방식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와 관계망을 형성할 것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김은미, 2018).

소셜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어포던스는 소셜 네트워크의 개방성이나 폐쇄성, 관계의 대칭성이나 비대칭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처럼 이용자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누구를 대상으로 소통하는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정보를 주고 받는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 앞서 검토한 소셜 미디어의 공통적인 특징인 프로필과 관계의 목록 역시 일종의 소셜 미디어 어포던스로 이용자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나아가 네트워크에 대한 이용자 인식에도 영향을 주어 교환되는 정보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오프라인 인맥 중심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소셜 미디어의 경우 가입할

때 기입하는 학교나 직장,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와 같은 항목이 네트워크의 범위와 폐쇄성, 관계의 대칭성을 결정하게 되며, 기존에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 소통하고, 일방적인 관계 형성이 자유로운 소셜 미디어의 경우 자신의 취향과 관심이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관계의 비대칭성을 결정하게 된다. 즉 소셜 미디어의 경우 각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어포던스에 따라 이용자가 형성할 수 있는 관계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은 그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공유할 수 있는가와 연관된다. 개방형 시스템 내에서는 '팔로잉'(following)하기만 하면 상대방의 정보를 구독할 수 있는 환경으로 소셜 미디어에 올린 정보를 익명의 다수가 볼 수 있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내면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보성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Kwak, Lee, Park, & Moon, 2010). 개방적 구조의 소셜 미디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비대칭적 관계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는 정보성 글을 많이 올리는 데 유용한 것이다.

이와 달리 상호 수락에 의해 형성되는 폐쇄적 네트워크 내에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집단적 규범과 의견을 준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동료 압력이 보다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만약 공동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경우 네트워크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있다(Stavrositu, 2011; Chan, 2018). 또한 자신과 비슷하고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높은 수준의 상호 사회적 영향력(mutual social influence)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McPherson, Smith-Lovin, & Cook, 2001), 대립되는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 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동일하게 폐쇄적인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만약 정보를 읽는 독자가 한정적이라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초점이 맞춰진 글이 공유될 수 있다(boyd & Ellison, 2007). 이미 알고 있는 가까운 친구들과 비공개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내용을 올릴 수 있으며(김은미 등, 2011), 스냅챗과 같이 개인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관계를 맺는 매우 개인

적이면서 폐쇄적인 네트워크의 경우 소셜 미디어 친구에 대한 신뢰가 높고 감정적인 유대가 깊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Phua et al., 2017b). 즉 소셜 미디어의 개방성과 폐쇄성은 정보의 공개 정도와 관련이 있으면서, 동시에 정보가 얼마나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에 따라 교환되는 정보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어포던스는 소셜 미디어 종류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라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공유되는 정보가 달라져 정치적 효과의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렌주엘라와 동료들(Valenzuela, Correa, & Gil de Zuniga, 2018)은 어포던스의 차이를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종류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달라진다고 보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의 정보 공유와 정치 참여 과정을 살펴보았다. 페이스북의 경우 친구 관계를 맺는 어포던스는 상호 승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간의 관계는 대칭적이며 기존의 지인 관계나 잠재적 유대 관계와의 연결과 관련이 있는 반면 트위터의 경우 관계 형성에 상호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에서는 강한 유대 관계가, 반대로 트위터에서는 약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며 이러한 관계의 차이는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따른 정보 이용과 정치 참여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에서는 강한 유대 관계로부터 얻은 정보 이용이 항의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트위터는 약한 유대 관계로부터 정보를 얻은 경우 항의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셜 미디어에 따라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다르고,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를 폐쇄성이나 개방성이 아닌 관계의 규모나 강도, 유사성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특성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이질성, 약한 유대 관계와 같은 특성이 뉴스에 대한 우연적 노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리와 김(Lee & Kim, 2017)은 미국의 전국 규모 설문조사를 이용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크기를 응답자의 소셜 미디어 친구 수로, 네트

워크 이질성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빈도로 측정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약한 관계의 비율은 소셜 미디어 친구들 중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친구의 비율로 측정해 이러한 소셜 미디어의 구조적 특성이 '뉴스를 찾지 않더라도 뉴스를 자주 접하는 빈도', 즉 우연적 뉴스 노출(incidental exposure to news)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이질성과 약한 관계의 비율이 우연적 뉴스 노출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더 이질적인 네트워크를 가질수록 비의도적으로 뉴스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크기는 우연적 뉴스 노출과 관련이 없었는데,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네트워크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네트워크 형태가 우연적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매체 사용 변인, 정치적 특성 변인 모두 우연적 뉴스 노출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의 사회 심리적 특성보다 이용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이질성이 우연적 노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서 네트워크의 경계가 약화될 경우 이질적인 의견에 대한 우연적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Brundidge, 2010). 소셜 미디어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정치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정치적인 커뮤니케이션 공간 사이의 사회적 경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정보 교환을 통해 정치적 차이(difference)에 우연히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Kim, 2011)은 소셜 미디어 사용 그 자체는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정보에 대한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셜 미디어 이용이 많을수록 더 많은 메시지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메시지 교환의 증가가 정치적 차이에 대한 노출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소셜 미디어는 개인의 정치적 지향과 관계없이 정보 교환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우연적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정치적 이견에 대한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가 우연히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 따라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폐쇄성, 대칭성과 비대칭성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특성과 정보 다양성은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과도 관련이 있다. 즉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우연히 접하게 되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정보 이용의 효과와도 밀접히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의 선행 요인으로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다양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3. 네트워크 특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은 선택적 정보 이용과도 관련이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사회적 관계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는 것은 선택적 정보 이용 중 선택적 노출뿐 아니라 교차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먼저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이 선택하는 정치 정보는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친구들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에 의해 교차 노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메싱과 웨스트우드(Messing & Westwood, 2014)는 실험 연구를 통해 소셜 미디어의 정보 노출과 관련 있는 사회적 관계와 정파성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유사한 소셜 미디어 인터페이스에서 정치 뉴스에 대한 '좋아요'의 표시를 사회적 지지로, 뉴스 출처를 정파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표시의 유무가 선택적 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좋아요' 표시가 없는 경우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선택적 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좋아요' 표시가 있는 경우 자신의 정치 성향과 불일치하는 정보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좋아요'와 정보 출처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정치 성향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정파성보다 사회

적 관계의 영향력으로 이용자들이 이견 노출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회적 영향력은 특히 낯선 사람이 아닌 친숙한 사람일 경우 더 강력해질 수 있다(Anspach, 2017). 메싱과 웨스트우드(Messing & Westwood, 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좋아요'의 표시로 제시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러한 '좋아요'와 같은 숫자와 별개로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가상의 뉴스피드에 제공되는 뉴스를 공유한 사람을 피험자의 실제 친구나 가족으로 표시해 선택적 노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아무런 정보 출처가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정치 뉴스를 반대되는 입장의 뉴스보다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치 뉴스 게시자를 제시했을 때에는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친구와 가족이 게시한 정치 뉴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을 할 때,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이 교차 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게시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감이나 동질성으로 인해 이견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친구를 통해 접하게 된 이질적 정치 정보는 교차 노출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회피하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개인은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정보나 상대가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는 관계를 연결하는 기능과 함께 관계를 거부하거나 끊는(unfriend 혹은 unfollow) 기능을 제공한다. 페이스북에서 부담스럽다고(burdensome) 생각되는 대상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심리적 경험과 이용 행동에 대해 살펴본 연구(Okdie, & Wirth, 2018)에서, 이용자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부담스러운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배타적인 페이스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사회적 관계 맺기를 멈추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상호작용 파트너와 거리를 둘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만약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불편한 정치 정보를 접했을 때 무조건 교차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정보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입장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친구를 멀리하는 선택적 회피 경험은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상황에서 더 빈번히 이루어질 수 있다. 한 예로 2014년 이스라엘 가자 분쟁 기간 동안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친구를 차단하고, 동질적인 정치 성향의 친구와 선택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hn & Dvir-Gvirsman, 2015). 이들의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가진 이들은 정치적 분쟁 기간 동안 이념 차이가 원인이 되어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이견에 더 많이 노출된 경우에도 친구 관계를 더 많이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뚜렷하고,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사람일 경우 인지부조화를 피하기 위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친구와 친구 관계를 종료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만 이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념극단성이 낮고 페이스북에서 정치적 활동을 덜 하는 이용자의 경우 정치에 대해 너무 많은 글을 올리는 친구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결과였는데, 정치적으로 중도인 이용자의 경우 논쟁적인 정치 정보에 피로감을 느껴 선택적 회피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주와 동료들(Zhu et al., 2017)의 연구에서도 시위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를 제거하고, 사회적 관계를 끊음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불협화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적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2014년 홍콩 우산 시위 기간 동안 친구의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댓글이나 게시물을 숨기거나 친구 관계를 끊는 선택적 회피 경험이 있었는지 살펴보았는데, 응답자 6명

중 1명(15.6%)이 시위 기간 동안 정치적 의견 불일치로 인해 페이스북에서 뉴스피드의 일부 정치 정보를 삭제하거나 친구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시위와 같은 정치적 혼란 시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약해지며, 이견 노출의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선택적 회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정치적 혼란 시기에 개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질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좀 더 동질적이며 고립된 공동체로 만들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되는 환경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회피가 이루어질 때 오로지 정보의 이질적인 내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이질적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항상 선택적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관계를 끊을 때, 자신과 접촉이 거의 없고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나 소셜 미디어 밖에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끊은 경험이 있는 반면 동료나 친구, 가족과 같이 정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John & Dvir-Gvirsman, 2015).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의 정치적 의견 불일치는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 있지만 친숙하지 않은 소셜 미디어 친구와의 정치적 불일치는 견디기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가깝지 않은 관계는 상대적으로 쉽게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약한 유대 관계가 정치적 논쟁에서 더 취약하며(Grevet, Terveen, & Gilbert, 2014), 약한 유대 관계는 더 빨리 그 연결이 끊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토론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약한 유대 관계 중에서 자신과 매우 상이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경우 약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관계적 이익보다 소셜 미디어에서 마주치는 의견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불편한 상황 때문에 쉽게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다.

즉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가에 따라 이질적인 견해에 대한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들이 소셜 미디어 뉴스 피드에 공유하는 정보의 다양성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교차 노출이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심리적 부담감으로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경우 선택적 회피와 같은 적극적인 정보 회피를 하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선택적 회피의 대상은 약한 유대 관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네트워크 특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4. 소셜 미디어 정보 이용의 맥락

1) 소셜 미디어의 종류와 뉴스 이용

매스 미디어를 통해 언론사의 뉴스를 일방향으로 제공 받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이용자가 직접 뉴스를 선택해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용한 뉴스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지인들과 뉴스와 정치적 견해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와 관련해 김은미와 임소영, 박현아(2017)는 오늘날 뉴스 공유는 자신을 표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대화와 참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이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SNS나 카카오톡 친구로부터 일상적 안부와 함께 뉴스 링크를 공유 받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경험이 아니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때 직접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표현하는 방법이 아닌 자신이 지지하는 뉴스나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을 더 쉽고 자주 이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친구가 올린 뉴스나 정보를 통해 상대방

의 정치적 견해나 이슈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소셜 미디어 내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정보 이용 과정은 이용자가 어떠한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지, 즉 어떤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어떠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가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하고,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따른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 이에 따른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효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와 SNS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 쓰인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그 구조와 역할에 있어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 그 차이에 따라 네트워크 특성이 달라져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NS와 카카오톡은 관계를 형성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해 네트워크 개방성과 폐쇄성, 유대의 종류가 다르며, 동일한 이용자라 하더라도 어디에서 정보를 전달받느냐에 따라 정보 다양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야만 카카오톡 친구에 등록이 되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보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톡은 휴대전화의 기본 문자 메시지보다 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며, 소셜 미디어 밖에서의 교류가 전제되어야만 쉽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카오톡은 대화 상대에 따라 대화창이 구분되어 있고, 친구 목록 또한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호 폐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지인과의 의사소통은 좀 더 끈끈하고 강력한 관계 형성에 용이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과의 높은 대화 만족도가 페이스북과 차이점인 것으로 나타났다(Ha, Kim, Libaque-Saenz, Chang, & Park, 2015).

카카오톡에서는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보의 특성이 다른 SNS와 다를 수 있다. 김은미 등(2017)의 연구

에 따르면 모바일 메신저에서 대화 상대자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화 상대자와 더 친밀감을 느낄수록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뉴스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 메신저에서 이용자들은 유대 관계가 강한 소수의 친구를 대상으로 뉴스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친밀감과 자기제시 성향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뉴스를 친밀한 지인들과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모바일 메신저 문화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모바일 메신저에서 복수의 대화창을 통해 대화 상대에 따라 선택적으로 뉴스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 공유 행위가 하나의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SNS와 카카오톡은 공유되는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모바일 메신저의 경우 메시지를 전송하면 수신자인 지인이 확인한 뒤에 즉각적인 개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개인적이거나 즉각적이지 않은 비동기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Quan-Haase & Young, 2010).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이용자가 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타인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유된 정보는 오랜 시간 뉴스피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나 관리를 위한 정보보다는 지식이나 일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기에 적합하다.

이와 유사하게, 푸아와 동료들(Phua, Jin, & Kim, 2017a)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게시물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으며, 친구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이나 회신도 공개되기 때문에 다른 개인화된 소셜 미디어에서의 공유보다 이용자들이 편안함을 덜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스냅챗은 직접 수신자를 지정할 수 있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 페이스북과 비교해 상대방의 삶에 더 관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카카오톡과 SNS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해 생각해보면, 카카오톡에서 정보 공유는 SNS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친밀한 개인 간의 교류 행위이기 때문에 카오톡에서 전달 받는 정보는 집합적인 전체

네트워크 규모나 특성보다는 개인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동질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정보 다양성은 네트워크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카카오톡 친구들과의 동질성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의견 균형성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에서는 매우 가까운 상대방에게는 개인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논쟁적인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대방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는 정보를 공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카카오톡보다는 이견에 대한 노출 경험이 더 빈번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는 공공성과 사사성이 혼재하는 매스퍼스널(mass personal) 공간이지만(Baym & boyd, 2012), 소셜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공공성과 사사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톡은 사사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SNS는 공공성이 더 강한 소셜 미디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네트워크 내의 정보 환경의 다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2) 이슈의 종류와 소셜 미디어 정보 이용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에 대한 연구들은 선거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관한 연구 이외에도 일상적인 미디어 이용 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Garrett & Stroud, 2014; Johnson, Neo, Heijnen, Smits, & van Veen, 2020; Knobloch-Westerwick & Kleinman, 2012; Levendusky, 2013a, 2013b; Stroud, 2008, 2010, 2011 등). 그리고 선택적 노출 이외에 선택적 회피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정보 회피에 관심을 두고 있다(John & Dvir-Gvirsman, 2015; Zhu et al., 2017).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들이 정파적 정보에 관심을 두고 선택적 정보 이용에 대해 연구하는 가운데, 정보 이용자가 특정 이슈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면 선택적 노출은 비 정파적 주제에 대한 정보 이용에서도 충분히 나타

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건강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는 비 정파적 주제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Brenes Peralta, Wojcieszak, Lelkes, & de Vreese, 2017; Knobloch-Westerwick, Johnson, Silver, & Westerwick, 2015; Knobloch-Westerwick & Sarge, 2015). 선택적 정보 이용을 이끄는 것은 결국 개인의 정보 추구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이슈의 주제가 정파적이지 않더라도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이용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정보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제, 즉 이슈의 종류가 교차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와 같은 선택적 정보 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이슈에 대한 정보 이용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이것이 정파적 정보 이용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아가 선택적 정보 이용의 효과와 관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이슈에 대한 정보 이용이 가져오는 결과가 정파적 정보 이용의 결과와 비교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슈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19 이슈는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확인되기 이전부터 매스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염 현황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 관련 메시지에 노출될 기회가 상당히 높았고, 누구나 전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동체 내 전염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에게 개인적 관련성이 매우 높은 공중보건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 사태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에 이어 세 번째로,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매스 미디어를 통한 정보 이용 이외에 온라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이용을 매우 활발히 했다(Jang & Baek, 2019; Tausczik, Faasse, Pennebaker, & Petrie, 2012; Yoo, Choi, & Park, 2016).

대규모 감염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이슈의 정보 선택은 개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 추구와 관련이 있다.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델(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Model, RISP)에 따르면, 위험 감지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게 하고 주어진 위험 정보를 적극적으로 숙고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은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성향이 있는데, 위험 상황 속에서 개인이 가진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낄 경우 더 적극적인 정보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다(Yang, Ho, & Lwin, 2014). 새로운 감염의 발병 초기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보 욕구가 증가하고(Wong & Sam, 2010), 이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정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험 관련 정보는 위험 방지 행동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위험을 인식한 개인은 관련 정보를 폭 넓게 이용하기 쉬운 것이다(Yoo et al., 2016).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정보원 중 하나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감염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Chew & Eysenbach, 2010; Signorini, Segre, & Polgreen, 2011).

한편 미디어가 전달하는 감염병 정보는 이용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유선욱·박계헌·나은영, 2010). 미디어에서 감염 가능성과 확진자 수와 같은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 감염에 대한 심각성이나 감염 우려가 높아질 수 있으며, 나아가 위험에 대한 인지와 관련 정보 이용은 위험에 대한 걱정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서미혜, 2016). 만약 미디어를 통해 대규모 감염 대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접하게 된다면 이것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전파력이 높고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이 시급한 이슈의 경우에는 정부의 공식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는 것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부정적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충돌할 때, 개인과 사회는 모호성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혼란 시기에 개인은 미디어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Jang & Baek, 2019), 코로나19와 같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염병의 확산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정보가 모호성을 더 증가시켜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공중보건 이슈에 대한 정보 이용 연구들은 특정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 얼마나 접하였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선택적 이용을 살펴보기 위해 이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정보로 한정하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이슈 발생 초기 정부의 방역 대책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기준으로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선택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슈 선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파적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과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째는 선택적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분했을 때 소셜 미디어의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이 교차 노출과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이슈의 종류에 따라 다른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정보는 기본적으로는 공중보건과 관련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폭 넓게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정보까지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정보 환경적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정파적 이슈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정파적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과 선택적 회피는 정치적으로 대립적인 이견에 대한 수용과 거부를 의미하지만 코로나19 이슈의 경우에는 다원적 정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의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의 다양하고 균등한 정보 환경이 교차 노출과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슈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용자의 태도나 감정, 참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정파적 이슈의 경우 선택적 정보 이용이 양가적 태도의 증가나 감소와 관련이 있다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이슈는 양가적 태도보다는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위험 감소 행동과 관련이 깊다. 즉 공중보건 이슈의 경우 정보 이용이 감염 예방 관련 행동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부정적 감정과는 정적인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이 미치는 영향이 정파적 이슈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5. 개인 내적 요인과 선택적 정보 이용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 즉 네트워크 특성과 우연적 노출 단계에서 접하게 되는 정보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와 정보 환경의 다양성으로 볼 수 있는 정보 다양성에 의해서만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받게 되는가? 한 개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정보를 접하는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내적(intrapersonal) 요인의 영향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먼저 전통적으로 정치 정보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와 달리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관여 정도나 이견에 대한 열린 태도는 편향 없는 정보 이용에 도움이 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정보 이용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관심이 전제되기 때문에 이슈에 대한 높은 관여도는 균형 잡힌 정보 이용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며, 관용 또한 논쟁적인 갈등 상황에서 이질적인 견해에 대한 폭 넓은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 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연령은 미디어 이용 행태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연령에 따라 정치 정보의 습득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효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이 이념 극단성과 이슈 관여도, 관용이라는 개인 내

적 요인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의 조절 효과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이념 극단성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선택적 정보 노출을 하게 되는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연령과 성별,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et al., 1944)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함께 믿고 있는 종교, 거주 지역이라는 세 가지 변수의 값을 이용해 정치적 선유경향 지수(index of political predisposition)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선거 캠페인 메시지가 유권자의 잠재적 성향을 활성화시켜 선택적 노출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현재의 선거 관련 연구에서 정치적 선유경향 지수는 더 이상 활용되지 않지만,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정치 메시지에 대한 선택적 노출과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개인의 정파성(partisanship)은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다. 정파성은 정당에 대한 정서나 인식,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 개인의 정파성은 일시적인 정책이나 지도자의 변화와 상관 없이 유지되는 상당히 안정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Niemi, Weisberg, & Kimball, 2001) 정치학 분야에서는 정파성과 투표의 관계에 가장 많이 주목해 왔다. 언론학에서 정파성은 라자스펠드와 동료들의 연구 이후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고려되면서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함께 통제 변인으로 활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 미디어 이용과 정치 양극화의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개인의 미디어 선택과 그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선호하며(Garrett, 2013; Iyengar & Hahn, 2009; Johnson, Bichard, & Zhang, 2009;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2011; Stroud, 2008,

2010), 온라인 환경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이나 정보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견이 강할수록 그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를 찾고자 하고 이것이 곧 지지적 선택을 장려하는데(Garrett, 2009a, 2009b), 이러한 경향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치적 태도는 특히 지지적 선택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태도 강도가 높을 경우, 즉 자신의 태도에 확신이 높을 경우 선택적 노출이나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이 나타나는 것이다(Brannon, Tagler, & Eagly, 2007; Knobloch-Westerwick & Meng, 2009).

개인의 심리적 경향 중 정치성 이념 성향의 강도는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 극단성과 정치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브라이트(Bright, 2018)의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 그 자체가 아닌 정치적 성향의 강도라고 지적한다. 트위터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이념 극단성과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개인과의 교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이념 극단성이 강한 경우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개인들과 주로 소통하게 되지만, 중도적 성향의 경우 이념적 성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다른 의사소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이 구분되어 자신의 견해와 동일한 의견만 공유할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으로,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접하는 데에는 이념 성향의 차이가 아닌 개인이 가진 신념의 확실성, 즉 강도가 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치적 이념 성향이 확고할 경우 소셜 미디어 뉴스피드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치 정보를 발견했을 때, 그러한 정보를 피하고(선택적 회피) 자신의 견해와 같은 정보만을 선택해(선택적 노출) 정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 윅스와 동료들(Weeks et al., 2017)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치적 의견이나 뉴스를 우연히 마주치는 것을 '반대되는 태도에 대한 우연적 노출'(counter-attitudinal incidental exposure)로, 인터넷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정치 의견이나 뉴스를 검색하는 것을 '동일한 태도에 대한 선

택적 노출'(pro-attitudinal selective exposure)로 정의하고 전자와 후자의 관계에 정당 소속감의 강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중도적 성향의 경우 인터넷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치 정보를 우연히 접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치 정보에 대한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정당 소속감이 강한 사람의 경우 자신과 반대되는 정보에 우연히 노출된 이후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치 정보를 더 많이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 소속감의 강도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를 회피하게 하고, 반대로 자신의 견해와 같은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ode, 2016)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이념 성향이 강할수록 중도적 성향의 이용자에 비해 친구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 맺고 있는 친구들과 견해 차이를 느끼거나 친구들이 정치 정보를 많이 게시할수록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보드(2016)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 콘텐츠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이념 성향의 강도와 지나친 정치 정보에의 노출이 이용자의 거부감을 불러온다고 해석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정파성과 관련된 이념 극단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의 선택적 이용 과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념 성향의 강도는 선택적 노출뿐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선택적 회피를 이끌 수 있다는 점(Bode, 2016; Garrett, 2009a, 2009b; Iyengar & Hahn, 2009; John & Dvir-Gvirsman, 2015; Weeks et al., 2017)에서 이념 극단성이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 나아가 교차 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과정에서 개인의 이념 극단성의 조절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이념 극단성이 정보 이용의 원인과 결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 이슈 관여도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선거와 정치 이슈에 보다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다(Lazarsfeld et al., 1944). 정치적 관심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나 정치 참여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는데(Gustafsson, 2012; Knobloch-Westerwick & Johnson, 2014), 정치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곧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슈 관여도 역시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의 중요도와 관심을 나타내는 이슈 관여도는 소셜 미디어에서 무엇을 읽는가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 중에 무엇을 읽어볼지, 읽지 않고 회피할지를 결정하는 데 무의식중에 기존에 갖고 있던 관여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여도(involvement)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득되는 조건들을 이해하기 위해 주로 활용된 개념으로, “활성화된 태도와 자아 개념 사이의 연관성에 의해 유발되는 동기적 상태”(Johnson & Eagly, 1989, 290쪽)로 정의된다. 관여도는 설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념적 수준에서 세 가지 유형의 관여도(가치 관련(value-relevant), 인상 관련(impression-relevant), 결과 관련(outcome-relevant) 관여도)로 구분되는데(Johnson & Eagly, 1989), 세 가지 관여도 중 결과 관련 관여도는 어떤 사안과의 관련성이나 관심, 중요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슈 관여도로 불리기도 한다. 페티와 카시오포는 이슈 관련 관여도를 “고려 중인 태도 관련 이슈가 개인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정도”(Petty & Cacioppo, 1979, 1915쪽)로 정의한 바 있는데, 존슨과 이글리(Johnson & Eagly, 1989)는 이 개념이 메시지 수신자에게 현재 중요한 목표나 결과에 대한 이슈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를 결과 관련 관여도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결과 관련 관여도를 “이슈가 현재 중요한 목적 또는 결과와 관련 있는 정도”(Johnson & Eagly, 1989, 292쪽)로 정의하면서, 결과 관련 관여도는 강한 논거가 설득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에 더 주의를 기울여 처리하고, 이슈 관여도가 높은 경우 해당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도록 동기 부여 되며(Johnson & Eagly, 1989; Quick & Heiss, 2009), 이슈 관여도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추구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슈 관여도는 개인이 메시지에 노출되기 이전부터 이슈에 관련된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메시지 수용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선택하고 인식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oser, 1990). 이슈 관여도가 높을 경우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당 이슈와 관련된 메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며, 이슈 관여도가 낮은 경우 메시지 내용보다는 주변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Petty & Cacioppo, 1979). 이슈 관여도가 높은 경우 기존 태도가 약하거나 강한 것과 상관 없이 메시지 노출 단계에서 편향 없이 균형적인 정보 선택을 하는 반면, 이슈 관여도가 낮은 경우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하는 동기가 비교적 낮은 집단(이슈에 대한 온건 지지자)의 경우 기존의 태도와 일치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선택해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애·이종혁·정일권·최윤정, 2015).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슈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특정 정치적 이슈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폭 넓게 파악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정보에 대해 유연하고 열린 태도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보 추구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이슈 관여도가 낮을수록 자신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선택적 정보 이용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 관여도가 높을 경우, 이슈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접하기 위해 선택적 노출 뿐 아니라, 자신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를 접하는 행위인 교차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슈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용하려는 동기가 교차 노출에까지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시어즈와 프리드먼(Sears & Freedman, 1967)은 개인이 인식하는 정보의 유용성이 자발적인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보의 유용성이 클수록 관련 정보에 노출되고 싶은 욕구가 커지며, 실용적인 목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보일 경우 지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도 자발적 노

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Valentino, Banks, Hutchings, & Davis, 2009). 예를 들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선거에서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도, 정보 유용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대 후보의 정보를 찾아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접하는 교차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nobloch-Westerwick & Kleinman, 201). 이외에도 정확성 동기 역시 교차 노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Kunda, 1990). 쿤다(1990)는 정확한 판단을 하려는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주어진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과 상반되는 정보도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선택적 정보 이용에서 이슈 관여도가 중요한 것은 이슈 관여도가 선택적 노출 이후 정치적 태도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관여도에 따라 정치 정보 이용과 함께 정치적 표현 활동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Cho & Boster, 2005). 페티와 카시오포(Petty & Cacioppo, 1986)는 정교화가능성모델에서 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메시지를 처리하는 경로가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고관여 상황에서 개인은 중심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으로 인해 정교한 메시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설득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는데, 소셜 미디어 상황에서 관여도가 높을 경우 정치 정보에 대한 노출 이후 설득의 결과로 정치적 태도가 강화되거나 정치 참여 의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관여도가 낮을 경우 정치 정보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메시지에 대해 주변 경로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강력하거나 지속적인 설득 효과가 일어나기 어렵다. 즉 관여도에 따라 정치적 태도의 분극이나 정치 참여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이슈 관여도는 정보에 대한 노출 이후 태도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정애 등(2015)의 연구에서 이슈 관여도는 태도의 극단성(의견 극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뉴스 노출 후 기존의 태도가 강화되는 것(의견 확실성 강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관여도에 따라 고·저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고관에 집단에서 입장 미정자가 아닌 온건 지지자의 경우 메시지 노출 이후 태도 변화가 더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상대적으로 기존 태도가 강한 온건 지지자들의 경우 뉴스 기사와 같은 논리적이고 타당한 메시지 노출 이후 자신의 태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경우 확증편향적인 선택적 노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설득력이 강한 메시지에 노출될 경우에는 기존의 태도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이슈 관여도가 선택적 정보 이용, 그 이후의 정치적 태도나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슈 관여도와 개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슈 관여도는 적대적 미디어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에서 자주 활용된 개념으로, 적대적 미디어 효과에 대한 일부 연구들은 관여도의 조작적 정의를 의견 극단성이나 당파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Gunther, Miller, & Liebhart, 2009; Schmitt, Gunther, & Liebhart, 2004). 그러나 이슈 관여도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의견 극단성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적 관심과 중요도로 정의될 때 미디어 정보에 대한 인식이나 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슈 관여도가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의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과 정보 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효과의 조절변인으로서 관여도의 역할을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Johnson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주로 연구되어 왔던 이념 극단성이나 정치적 관심 이외에 이슈 관여도에 주목하고, 이슈 관여도가 정치 정보에 대한 노출과 회피, 교차 노출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이슈나 최근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이슈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국민의 높은 관심을 이끈 이슈의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 유의미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이슈 관여도의 조절 효과

가 이슈의 종류에 따라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념 극단성이나 정파성이 아닌 이슈 관여도가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정치적 관용

일반적으로 자신과 다른 정치적 견해에 관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정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한다(Hardy, Scheufele, & Wang, 2005; Mutz, 2002a; Pettigrew, 1997). 관용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의견이나 행동 등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관용 수준이 높은 개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공존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된다. 관용의 정신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톨레랑스'는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용어는 프랑스의 종교개혁 시기에 자신과 다른 신앙이나 사상, 행동 방식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뜻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만큼 타인의 신념 역시 중요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타인을 억압하는 불관용(不寬容)이나 타인의 신념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는 무관심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신과 다른 대상에 대한 허용이나 수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관용은 다양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본래 다양성은 획일성에 반기를 들고 나온 개념으로, 다양한 인종, 종교,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자체로 존중하자는 개념이다.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다양성'(diversity)은 인종, 민족, 나이, 성별, 종교 등과 같이 개인적 특성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일부에서는 현대 민주주의가 함의하고 있는 다원주의가 다양성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한다. 다원주의는 나와 다른 존재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는 것으로, 나는 맞고 다른 존재는 틀리다는 배타주의, 다른 존재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포괄주의나 우월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다원주의는 말 그대로 나와 다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여러 집단이 기본으로 삼는 원칙이나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다양성은 다른 문화나 배경, 나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용을 장려하며, 정치적 다양성은 정치적 신념이 다른 대상에 대한 정치적 관용과 관련이 있다. 관용이 자신과 다른 다양한 대상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관용은 다양성을 저해하는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보다는 다양한 이질적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교차 노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머츠(Mutz, 2002a)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견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교차 노출이 크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정치적 관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인지적(cognitive) 과정으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노출(교차 노출)을 통해 다른 견해에 대한 이론적 근거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것이 정치적 관용을 증가시킨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affective) 과정으로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치적 토론 내용과 범위는 개인적 관계의 질보다 덜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상당히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와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차 노출이 타인의 이질적인 견해를 받아들이는 관용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머츠(Mutz, 2002a)는 교차 노출의 결과로 관용이 증가한다는 인과 관계를 가정하였는데, 관용과 같은 시민적 자질을 갖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표현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관용은 교차 노출의 결과이자 이후 또 다른 교차 노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Mutz, 2006). 이미 한 개인 안에 형성된 정치적 관용은 그 이후의 선택적 노출이나 회피, 교차 노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관대한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와 비슷한 정보만을 추구하는 선택적 노출을 덜 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인가? 먼저 정치적 관용이 선택적 노출과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연구가 있다. 정치 웹사이트에서 선택적 노출의 예측 변인에 대해 살펴본 연구(Johnson, Zhang, & Bichard, 2008)에서 정치적 관용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향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는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

반하는 견해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온라인에서 정보를 추구할 때에는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다른 견해를 기꺼이 듣고자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견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찾아 읽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 관용이 높다 하더라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덜 추구하고, 이견을 더 많이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존슨과 동료들(Johnson et al., 2009)은 정치 블로그에 대한 선택적 노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선택적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치 관련 변인 중 정당 가입 여부, 정치적 이념 성향, 오프라인 정치 참여 경험은 정치 블로그에서의 선택적 노출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지만 정치적 관용은 선택적 노출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치적 관용이 높다는 것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선택적 노출과 부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했지만 실제 분석을 통해서는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 정치 문제나 정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방문 빈도'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 방문 빈도의 역수'를 합산하여 블로그에서의 선택적 노출을 계산하였는데, 이것은 곧 교차 노출의 역수와 선택적 노출의 합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용이 선택적 노출과 유의미한 관계에 없다고 보았지만, 선택적 노출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차 노출과 구분하여 관용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후 존슨과 동료들(Johnson, Zhang, & Bichard, 2011)은 선택적 노출과 이견에 대한 정보 회피를 구분하여 정치적 관용이 정체적 웹사이트에서의 선택적 노출과 회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들은 정치적 관용이 정치 웹사이트에서 선택적 노출 및 회피와 부적인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지만, 연구 결과 정치적 관용이 정치적 웹사이트나 메시징 서비스에 대한 의존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선택적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자신의 견해와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는 회피의 경우

관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기꺼이 듣고자 하는 견해와 적극적으로 읽고자 하는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고, 정치적으로 관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블로그, 게시판 및 정치 웹사이트 등에서 자신이 읽고 싶은 뉴스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는 관용이 선택적 노출과 부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며, 관용이 높은 개인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정보는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관용과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에서 무엇을 관용으로 볼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에서 정치적 관용이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결과는 아마도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는 문항이 인터넷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선뜻 접하겠다는 관용이 아닌, 특정 집단의 권리나 행동에 대한 허용이나 수용을 측정하는 문항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존슨과 동료들(Johnson et al., 2011)은 정치적 관용을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그룹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지,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이용해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혐오 집단에 대한 관용 측정은 정치적 웹사이트에서의 선택적 노출과 관련이 있기 힘들 것이다. 이보다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동의로 정치적 관용을 측정하는 것이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과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일권과 이준웅, 배영(2013)은 관용이 '이견 표현 허용 태도'와 '이견의 인지적 처리'가 개념적 차원에서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둘은 엄밀히 따지자면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은 정치적 관용에 대한 연구는 이견의 인지적 처리를 의미하는 이견 수렴이나 의견 공고화가 아니라, 이견 노출의 허용 여부에 중심을 두고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관용을 자신과 다른 사람, 혹은 이견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허용에 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정치적 관용을 이견에 대한 인지적 처리나 이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해 측정한다면 그것 자체가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의지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관용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거나 반대로 정치적 관용이 낮을수록 선택적 노출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견에 대한 수용 의지가 아닌 '서로 다른 사람이나 의견에 대한 너그러움이나 열린 태도'를 관용으로 보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교차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를 포함하는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 과정에서 관용의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 이용자의 연령대

정치 미디어 사용에 있어 연령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Kwak, Campbell, Choi, & Bae, 2011; Kwak, Lane, Weeks, Kim, Lee, & Bachleda,, 2018; Xenos, Vromen, & Loader, 2014). 젊은 세대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초기 채택자로, 미디어를 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관계적 도구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뉴스 미디어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내의 정치적 의견 불일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K. Thorson, 2014). 이것은 아마도 젊은 세대가 주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 정보를 접하고,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는 정치 정보를 적게 접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에서 형성된 정치적 의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이용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지난해 이루어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과 메신저, SNS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는 한국에서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연령대에 따라 그 이용 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주·심하영·정재민·양정애, 2019). 구체적으로, 20대부터 50대 연령대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률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TV 뉴스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례해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 이용률 또한 2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뉴스 매체로서 텔레비전 의존도가 높았으며, 20대 응답자들과 비교해 인터넷

과 TV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뉴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세대별로 비교했을 때에는 여전히 기존 매스 미디어 이용률이 높음을 보여준다.

세대에 따른 미디어 이용 특징은 이들의 사회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이종혁과 최윤정(2018)은 세대별 미디어 이용 특징과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현재 30대와 40대에 해당하는 88만원 세대와 IMF 세대는 네트워크화와 정보화라는 사회적 특징을 바탕으로 각각 소셜 미디어와 모바일 미디어, 인터넷과 PC 통신을 통해 가상의 네트워크를 형성한 경험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50대와 60대에 해당하는 386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민주화와 산업화 시기를 겪으면서 진보적 태도와 보수적 태도라는 상이한 사회 의식을 갖고 있지만 동일하게 신문과 방송 중심의 미디어 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미디어의 등장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세대지만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유사한 미디어 이용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곧 각 세대의 사회적 특징과 연결되어 미디어를 통한 관계 형성이나 정치 정보를 얻는 경로의 차이와 연결될 수 있다. 이종혁과 최윤정(2018)의 연구에서 세대별 종이 신문의 뉴스 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연령이 높을수록 종이 신문을 통해 정치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종이 신문 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젊은 세대의 경우 정치 뉴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뉴스 이용이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년층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나 활용성이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를 통한 정보 유통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페이스북에서의 뉴스 이용자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뉴스를 읽거나 뉴스 기사를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lynn, Huge, & Hoffman, 2012), 젊은 세대가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을 관계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달리 5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메시지와 주소록과 같은 기존 휴대전화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소수

의 앱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미·김영진, 2015).

젊은 연령층과 비교해 50-60대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 연령대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 이용은 최근 들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정치 참여 과정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먼저 민영(2019)은 노년층 유권자를 제도적, 비제도적 정치 참여로 이끄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서 노년 계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세대 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 참여의 중요한 동원 경로로 활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연구 결과 노년층이 카카오톡이나 밴드 등의 모바일 메신저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경험은 집회나 서명운동 등의 비제도적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민영(2019)은 소셜 미디어가 노년층 내부의 정치 참여 의지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증가하여 집회와 같은 비제도적 정치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노년층 유권자는 정치 정보원으로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에 가장 의존하면서, 정치적 의견 표명과 공유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이러한 이용 정도가 적극적인 유형의 정치 활동 참여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김은진(2019)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공유 방식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노인 계층의 경우 매스 미디어가 자신의 존재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카카오톡을 정치 정보 교환의 주 창구로 활용한다고 보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이용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몰입과 공감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보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카카오톡을 통한 정치적 대화와 정치 참여 경험이 노인 계층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일부 이용자들의 특징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20-40대 젊은 연령층에 비해 중년 이후 연령층의 소셜 미디어 뉴스 이용률은 여전히 낮지만,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동일 연령층

내부에서는 활발한 정치 정보 공유와 의견 표명이 존재하고, 이것이 비제도적 정치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제도권 언론에 대한 노년층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노년층은 세대 내 소통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 성향에 맞는 정보를 소비하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나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양정애·오세욱, 2018).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이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연령대를 조절변인의 하나로 설정하여 연령대에 따른 선택적 정보 이용과 효과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령대에 따라 확증편향적 정보 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와 같은 정보 이용이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나 감정,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제 3절. 소셜 미디어와 정치적 참여

1.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

1) 정보적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

소셜 미디어가 시민참여나 정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장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은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사회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집단 행동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Bode, 2012; Tang & Lee, 2013; Xenos et al., 2014). 소셜 미디어는 개인 간의 관계 형성을 돕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뿐 아니라 취미나 관심사가 같은 모르는 사람들과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치 캠페인 과정에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 이용이 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 참여에 기여할 수 있으며

(Cogburn & Espinoza-Vasquez, 2011),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정치인이나 정치권의 유명인사와 직접 친구 관계를 맺음으로써 정치적 탄원이나 정치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Tang & Lee, 2013; Vitak, Zube, Smock, Carr, Ellison, & Lampe, 2011). 실제로 소셜 미디어는 정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야기를 전파하고,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등의 형태로 정치 과정에 이용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이 정치 관련 담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장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뉴스에 비의도적으로 노출되는 경험 자체가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Heiss & Matthes, 2019; Valeriani & Vaccari, 2016). 발레리아니와 바카리(Valeriani & Vaccari, 2016)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우연적 노출(accidental exposure)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정치 정보를 접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며,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격차를 좁혀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에서 정치 정보에 대한 우연적 노출이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Kim et al., 2013)와 일치하는 것으로, 정치 관심이 낮은 개인은 소셜 미디어 친구들이 공유한 정치 정보에 더 쉽게 관심을 가지기 쉽고(Tang & Lee, 2013), 정치 관심이 낮은 상태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동일한 정치 정보를 우연히 자주 접하는 경우 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해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Knoll, Matthes, & Heiss, 2020).

물론 소셜 미디어 이용이 무조건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를 얼마나 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페이스북의 친구 수나 일반적인 이용 시간은 정치 참여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용자가 속한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을 읽는 것과 같은 정보적 이용은 정치 참여를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Valenzuela, Park, & Kee, 2009). 이와 유사하게, 길 데 주니가와 동료들의 연구(Gil de Zuniga, Jung, & Valenzuela, 2012)에서 뉴스 이용과 같은 소셜 미디어의 정보적 사용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정치 참여와 정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

한 정치 참여와의 관계는 소셜 미디어 사용 빈도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소셜 미디어의 정보적 사용에서만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추구는 더 많은 뉴스 이용과 연관되어 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지역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소셜 미디어로 사회 감시에 필요한 뉴스를 얼마나 이용하는 것이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Gil de Zuniga, Diehl, Huber, & Liu, 2019).

소셜 미디어를 정보 획득을 위해 이용하는 사람이 오락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시민 활동, 정치 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정보 획득을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정치적 행동과 같은 사회자본 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소셜 미디어를 오락적 목적으로 주로 하는 이용자들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Kee, & Valenzuela, 2009). 헤이스와 동료들(Heiss, Knoll, & Matthes, 2019)은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와 정보 접촉 경로를 구분해 정치 참여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추구와 같은 정치적 동기를 바탕으로 한 의도적(intentional) 정보 노출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오락적 동기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비정치적 동기에 따른 우연적(incidental) 정보 노출은 정치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를 접하는 두 가지 경로를 의도적 모드와 우연적 모드로 구분하고, 서로 다른 동기를 바탕으로 한 정보 노출이 상이한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 정치 참여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소셜 미디어 이용에서 다양한 정치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다양한 정보가 곧 이질적인 견해를 내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질적인 의견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다양한 관점 사이에서 타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적 활동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정치 지식을 정교화 할 수 있다(Huckfeldt, Mendez, & Osborn, 2004). 또한 네트워크의

다양한 관점은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정보 탐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Scheufele, Hardy, Brossard, Waismel-Manor, & Nisbet, 2006), 이러한 정치 지식과 정보가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 이용은 정치 참여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 이용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선택에 따라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이용했는지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 이용을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 이용(교차 노출), 자신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의 제거(선택적 회피)로 구분하고, 이러한 세 가지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

소셜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은 직접적으로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치적 표현을 더 활발히 하도록 돕고, 나아가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사용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정치적 표현을 통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정치 참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il de Zuniga, Molyneux, & Zheng, 2014). 정치적 문제에 대한 뉴스나 정보의 출처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할 의지가 높아지고(Hampton, Shin, & Lu, 2017), 이러한 정치적 토론이나 정치적 표현이 이후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뉴스나 정치적 견해를 접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에 항상 도움이 되는가? 먼저 소셜 미디어에서 자

신과 같은 견해를 접하는 것은 반대 견해나, 알 수 없는 견해를 접하는 것과 비교해 더 높은 정치적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친구들과의 견해 차이에 대한 인식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챈과 동료들(Chan et al., 2019)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같은 견해(like-minded)와 반대 견해(dissimilar), 알 수 없는 견해(unknown)로 구분하고, 이러한 정치적 네트워크가 정치 뉴스 공유나 댓글 달기와 같은 정치 참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같은 견해를 가진 네트워크의 개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뉴스 참여를 보였고, 알 수 없는 네트워크의 사람들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 정치적 견해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인식한 두 경우가 더 높은 참여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이는 정치적 동질성 혹은 이질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네트워크 내에서 정치적 소통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표현과 같은 참여적 이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정치적 이질성이나 동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용자 개인은 이질적 견해보다 동질적 견해를 접했을 때 자신과 견해가 같은 소셜 미디어 친구들과 더 활발히 정치적인 주제를 토론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 견해에 있어서의 이질성이 정치적 표현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Barnidge, Ardevol-Abreu, & Gil de Zuniga, 2018; Barnidge, Huber, Gil de Zuniga, & Liu, 2018). 바니지와 동료들(Barnidge, Huber, et al., 2018)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네트워크 이질성(network heterogeneity)으로 보고, 정치적 차이에 대한 경험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위험한(risky) 정치적 표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정치적 이질성과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 사이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20개국의 데이터를 이용했는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적인 국가의 경우 정치적 이질성과 정치적 표현 사이의 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

과에 대해 소셜 미디어가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출구 역할을 하게 되고, 정치적 견해의 이질성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같은 정치 참여를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견에 노출될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더 많이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질적 소셜 네트워크에 있을 경우, 즉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이유를 바니지 등(Barnidge, Ardevol-Abreu, et al., 2018)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 불편한 정치적 의견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수정하려는 행동(corrective action)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Barnidge & Rojas, 2014; Rojas, 2010; Sun, Shen, & Pan, 2008). 이와 관련해 썬과 동료들(Sun et al., 2008)은 만약 공적 영역에서 '잘못(wrong)'되었거나 '편향적(biased)'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적으로 정확한지(factually correct) 여부와 관계없이 올바르게 기록해야 한다(set the record straight)는 동기가 생기고, 이를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하게 되는데(E. Thorson, 2014), 이러한 설득 행동은 사람들의 의견과 관점의 변화를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무언가를 수정하는 첫 번째 행동과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정체성이 공적 담론에서 대표되지 않았다고 믿게 되면 그 정체성을 대변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정치적 이질성과 토론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정치 정보의 이질성이 정치적 표현이나 대화, 토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은 타인과 의견 불일치를 경험했을 때,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데(Mutz, 2002b),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내용을 접했을 때 만약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면 선뜻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

점을 인식하는 정도가 소셜 미디어에서의 자기 검열(self censor)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실질적 의견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Barnidge, Huber et al., 2018; Chan, 2018; Chan et al., 2019; Kwon et al., 2015). 이들 연구는 네트워크 속에서 타인과의 이질성이 정치적 의견이나 정치 관련 게시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 이질적 정치 정보가 의견 표현을 포함한 정치적 참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먼저 소셜 미디어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노출이 정치 대화와 같은 정치적 표현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다(Chan, 2018; Kwon et al., 2015; Wells et al., 2017). 페이스북에서의 정치적 불일치가 선거와 같은 논쟁적인 정치 환경에서 의견 기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챈(Chan, 2018)은 페이스북 친구가 정치적 견해에 있어 자신과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는가를 정치적 불일치(political disagreement)로 측정하고, 이러한 정치적 불일치가 페이스북에서의 공개적 정치 지지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질적 네트워크에서는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유사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동질적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자신의 정치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우정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교제에 대한 기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에 직면했을 때 기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이 감소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오프라인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할 경우 표현을 주저하게 되는 것과 관련 있다(Hampton et al., 2017).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서 네트워크 차원과 메시지 차원의 이질성 인식은 정치 참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권과 동료들(Kwon et al., 2015)은 이견(heterogeneous opinions)에 대한 노출을 부조화(incongruence)와 다양성(diversity)으로 구분해 이 둘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 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페이스북 친구들과의 정치적 이

념 성향의 일치 여부로 측정한 '정치적 불일치'는 페이스북에서의 정치적 포스팅 행위와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친구들의 정치적 게시물의 이념 성향의 비율로 측정한 '인지된 다양성', 즉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노출은 자기 검열 의지(willingness to self-censor)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기 검열 의지는 정치 게시 행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의 의견 다양성이 자기 검열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갖고, 이러한 심리적 효과가 게시 활동이라는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에서 정치 게시 행위는 정치적 표현 행동(페이스북에서 정치 관련 게시물의 수)로 측정하였고, 자기 검열 의지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와 같은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즉 페이스북에서 의견 다양성이 높을 경우, 나의 솔직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자기 검열 의지 증가), 그 결과로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 토론 네트워크에서 메시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에 노출되는 것이 반드시 정치적 표현과 같은 의사소통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Eveland & Hively, 2009; Mutz, 2002b)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치적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토론 상황에서의 이질성을 교차 압력(cross-pressure), 교차 노출(corss-cutting)의 관점에서 살펴본 머츠(Mutz, 2002b)는 반대 의견 접하기가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회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이견에 노출되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양가성(political ambivalence)을 증가시켜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신을 떨어뜨리고, 이러한 개인의 내부적 갈등에 의해 정치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자신의 견해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도적 입장이나 특정 태도가 없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양가적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양가성은 정치적 이슈나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쟁적인 신념을 의미하는데, 집합적 수준에서의 양가성은 유권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투표 행동을 장려할 수 있지만(Nir, 2005), 개인 수준에서의 양가성은 정치적 참여나 투표와 부정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의 양가적 태도가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 어려움을 주어 정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 이견을 접하는 것이 정치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책임성(social accountability)과 관련 있다. 교차 노출 상황에서 개인은 상반된 견해 중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갈등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한쪽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다. 정치적 의견의 불일치는 사회적 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하며,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회적 화합이 어렵기 때문에 이견을 가진 동료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사회적 책임성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의견 표현은 줄어들고, 정치적 대화를 회피하는 것과 같이 정치 참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교차 노출은 이질적인 의견의 논지를 이해하고 감정적 공감대를 형성해 관용이 증가한다고 보았는데, 관용과 같은 시민적 자질을 갖게 되면 자신의 주장만을 표현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Mutz, 2006).

이질적인 네트워크, 즉 다양성이 높은 네트워크가 개인 수준의 양가성을 높여 정치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질성이 높은 '위험한 토론'이 정치 참여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이블랜드와 하이블리(Eveland & Hively, 2009)의 연구 결과와 연결된다. 이들은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성의 차원을 토론의 빈도, 토론의 규모(network size), 이질성(heterogeneity)으로 나누어 각각이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토론 빈도는 참여와 정적인 관련이 있었고, 이질성이 낮은 안전한 토론 역시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 그리고 토론을 자주 하는 것이 정치 참여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 대화의 다양성은 참여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 보수적인 상대와 진보적인 상대가 함께 있을 때 토론의 결과로써 정치 참여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견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다양

한 의견을 접하게 하고, 이것이 개인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주어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불일치는 정치적 표현을 넘어 정치 참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 Heatherly, & Lee, 2016). 루와 동료들(2016)은 머츠(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 인식한 정치적 차이가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이 표현한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즉 정치적 차이에 노출될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 참여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차이에 노출되면 개인은 정치적 참여를 장려하는 데 중요한 정치적 논의를 피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교차 노출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감소시키고, 이것이 결국 정치 참여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접하고 그것을 회피하는 정보 이용은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주와 동료들(Zhu et al., 2017)은 페이스북에서 친구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선택적 회피가 거리 시위 참여 등의 비제도적 정치 참여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불일치가 시위와 같은 정치 활동에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Pattie & Johnston, 2009)와 달리, 소셜 미디어 상에 존재하는 정치적 불일치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친구 관계를 끊는 선택적 회피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정치적 견해와 접촉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한정적으로 교류하며 정치적 소속감과 정체성을 키울 수 있고, 이것이 시위 행동과 같은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형태의 선택적 회피가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친구 관계를 끊는 것과 달리 단순히 특정 정치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기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희생하지 않

으면서 선택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방법은 큰 희생 없이 단순히 심리적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으로, 특정 정치 정보를 숨기는 선택 이후 다른 정치 정보에 더 많이 관여하거나 정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선택적 회피가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는 결국 선택적 노출이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지지적이고 동질적인 네트워크 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투표나 캠페인 활동 참여, 온라인 정치 참여와 같은 정치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연구(Eveland & Hively, 2009; Valenzuela, Kim, & Gil de Zuniga, 2012)와 연결되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네트워크는 정치적 애매함을 줄일 수 있고, 이질적인 네트워크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 신념을 유지하고 보다 쉽게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어하트와 장(Gearhart & Zhang, 2015)은 소셜 미디어에서 동의하지 않는 정치 게시물을 접하게 되면 해당 게시물을 무시하거나 침묵하게 되지만, 반대로 동의하는 정치적 내용을 읽게 되면 긍정적인 의견을 게시하거나 '좋아요'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침묵의 나선 이론과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견해와 같은 정보를 볼 때 이용자는 그 견해를 지배적인 의견으로 인식해 의견 표현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신을 소수로 인식해 침묵을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2.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양극화

선택적 정보 이용은 정치적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태도나 감정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선택적 노출의 가장 큰 우려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광범위하게 퍼져 이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개인들 간의 건전한 여론 형성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Iyengar &

Hahn, 2009; Stroud, 2010; Sunstein, 2009). 물론 일부에서는 선택적 노출과 함께 시민들이 자신의 이념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 미디어를 접하기도 하며,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가 중도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선택적 노출이 민주주의에 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Fiorina, Abrams, & Pope, 2008; Prior, 2013; Webster, 2014).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셜 미디어와 정치 양극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들, 즉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이 교차 노출에 참여하는지, 아니면 필터 버블이나 에코 챔버와 같이 편향적이고 선택적인 노출을 하는지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Aruguete & Calvo, 2018; Bakshy et al., 2015; Barbera et al., 2015; Bessi, 2016; Bright, 2018; Flaxman et al., 2016; Pariser, 2011). 이들 연구는 주로 선택적 노출에 집중해 소셜 미디어에서의 양극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비록 양 극단 간에 서로 분리된 활동이 존재하지만(Aruguete & Calvo, 2018; Bessi, 2016), 동시에 교차 노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Flaxman et al., 2016), 양극단이 아닌 중도일 경우에는 교차 노출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것(Bright, 2018)을 확인하였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이념 성향이 강한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교류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이나 회피가 아닌 교차 노출은 정치적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먼저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교차 노출과 정치적 극단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뉴스 이용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탈분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다(Beam, Hutchens, & Hmielowski, 2018). 미디어에서 정서적으로 양극화 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페이스북에서의 뉴스 이용이 증가하고, 이러한 뉴스 소비가 이후의 정서적 극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빔과 동료들(Beam et al., 2018)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세 시점에 걸쳐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에서의 뉴스 이용과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정서적 분극이 덜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에서 뉴스 이용을 많이 하고,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정서적 분극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들은 추가 분석을 통해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다룬 뉴스 이용, 즉 뉴스 이용에 있어서의 교차 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정서적 분극화를 감소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정리하자면, 정서적 극단화가 낮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뉴스 이용과 교차 노출이 증가하고, 이것이 이후 정치적 극단성 완화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에서 모든 이용자가 선택적이고 당파적인 정보 노출을 하는 것이 아니며, 만약 기존의 태도가 덜 극단적일 경우 '정파적 정체성'보다 '시민적 정체성'이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Beam et al., 2018). 이러한 개인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치 뉴스를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차 노출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정서적 극단화가 감소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정치적 이견에 대한 교차 노출이 정치적 탈분극과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Kim, 2015).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 두 국가의 데이터를 사용해 개인의 선택적 노출과 태도의 양극화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두 국가 모두 개인의 선택적 미디어 이용이 극단화된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양극화 사이의 관계에서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가 갖는 역할이었다. 한국 데이터에서 신문을 이용해 더 많은 선택적 노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개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분극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견에 대한 접촉이 극단화를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극화 된 기존의 태도를 더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파적인 미디어 이용을 하는 경우 이견을 접하게 되더라도 반대 입장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이 기존의 정치적 태도를 더욱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심리학적 연구에서 개인이 부조화한 견해에 노출될 때

오히려 극단적이고 양극화된 태도를 갖게 된다는 시각과 연결된다(Wojcieszak, 2011). 자신의 견해와 같지 않은 매체 이용은 개인의 극단적인 견해나 믿음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그 반대일 수 있는데, 사회적 판단 이론에 따르면 극단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견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수정하기보다는 반격적인 정보를 근거로 자신의 태도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태도와 같은 매체를 접하는 것과 태도 불일치 매체에 노출되는 것은 독립적인 행동이라는 점(Garrett, 2009b)에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정서적 양극화와 관련해 별개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다(Garrett et al., 2014). 미국과 이스라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선택적 노출은 정서적 양극화를 촉진한 반면, 뉴스에 대한 교차 노출은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미국 데이터의 경우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정서적 양극화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견해와 같은 뉴스를 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태도에 도전적인 뉴스를 접하는 교차 노출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고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강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교차 노출의 탈분극 효과는 교차 노출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적 노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거부한다는 시각으로 자신과 다른 견해에 귀를 기울인다면 교차 노출을 통한 탈분극 효과는 나타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감정적 극단화(affective polarization), 즉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교차 노출의 감소와 관련이 있지만, 선택적 노출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있다(Heatherly, Lu, & Lee, 2017). 경쟁 정당에 대한 0-100점을 부여하는 '정서 온도계'를 활용해 감정적 극단화를 다룬 이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극단화된 태도를 가진 개인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경계를 넘는 대화, 즉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셜 미

디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분극 수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적으로 경쟁하는 견해에 대한 증오나 미움이 있을 때 이견에 대한 노출을 회피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양 극단에 있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충돌하는 다른 이용자들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이나 정보를 찾는 선택적 노출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선택적 노출이 아닌 선택적 회피를 통해 정치적 양극화가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전통적인 정파적 정보 이용과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도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양극화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교차 노출만 고려했을 때에는 교차 노출이 정치적 탈분극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약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함께 이뤄졌을 때에는 기존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에서 정서적 태도는 선택적 노출의 추구가 아닌 교차 노출의 회피, 즉 선택적 회피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 또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정치적 양극화 논의가 주로 선택적 노출과 태도 강화에만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선택적 회피와 교차 노출이 기존의 태도나 정서를 강화시키거나 반대로 약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선택적 노출 개념을 다룬 초기 연구에서 선택적 노출은 제한된 미디어 효과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견해에만 선택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디어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연구를 통해 정파적인 선택적 노출이 정치적 태도와 정서의 양극화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인의 선택적 정보 이용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디어의 영향이 개인의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와 같은 미디어 이용 방법에 따라 태도나 정서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지거나 완

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선택적 정보 이용이 개인의 태도나 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태도에 해당하는 '태도 극단성'과 정서에 해당하는 '분노' 감정을 분리하여 선택적 정보 이용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양극화된 태도나 적대적 감정이 정치적 참여 행동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지적했음에도(Miller & Conover, 2015; Johnson et al., 2020) 지금까지 이들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가 부족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보 이용이 태도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라 보고,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과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 교차 노출이 특정 이슈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부정적 감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와 함께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이 개인의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거쳐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3. 태도와 정치적 참여 행동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와 같은 주제는 선택적 노출을 자극하기 쉽다(Stroud, 2008, 2010; Sunstein, 2009). 그리고 개인의 여러 신념 중 정파성(partisanship)은 한 개인의 삶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공식적이고 반복적인 정치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당파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미디어 선택에 두드러지고 강력한 요인이 된다(Iyengar, Lelkes, Levendusky, Malhotra, & Westwood, 2019). 전통적 매체인 신문과 텔레비전 이후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에 맞는 미디어 컨텐츠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선택적 노출은 정치 참여와 같은 행동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이 가진 정치적 태도의 극화를 불러오기도 한다(Leeper, 2014; Levendusky, 2013b; Stroud, 2011).

많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시민의 선택적 노출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이 미디어 사용

패턴에 동기를 부여하며(Bennett & Iyengar, 2008), 미디어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다양성은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정보를 찾는 것은 아니며,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적 내용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언론으로부터 정치적 정보를 얻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공유하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roud, 2008). 스트라우드(2008)는 2004년 미국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미디어를 이용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개인의 정치적 신념은 개인이 정치 정보를 얻는 곳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치적 신념을 강하게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론 매체를 피하고, 자신과 동일한 견해를 공유하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파적인 선택적 노출 패턴은 정치 참여를 부추길 수 있지만 동시에 대중을 분열시킬 수 있다(Mutz, 2006; Sunstein, 2001).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인들을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 되도록 하거나, 정치적으로 더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트라우드(2008)는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는 정치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무시킨다는 점에서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극단화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스트라우드는 정파성에 기초한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극화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정파적인 선택적 노출(partisan selective exposure)이 분극화(polarization)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troud, 2010).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과 같은 정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때 보다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머츠(2006)의 시각과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한 사람의 정치적 태도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선택적 노출 이후 더 극단화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정파적인 선택적 노출을 통해 개인이 정치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에 노출되고, 기존에 갖고 있는 견해와 같은 주장을 접하게 되면서 집단적 관점을 공유하고,

자신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 받아 정치적 분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이유로, 개인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가 사회적 유용성이 있는 경우 당파적인 선택적 노출을 통해 얻은 정보를 내면화함으로써 보다 분극화 될 수 있다.

선택적 노출과 정치적 태도의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 연결되어 더 강한 양극화를 야기할 수 있다. 허친스와 동료들(Hutchens, Hmielowski, & Beam, 2019)은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기존에 개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태도가 선택적 노출을 자극하고, 선택적 노출이 다시 기존의 정치적 태도를 강화해 정서적 양극화의 나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과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조사된 패널 연구에서, 첫 번째 조사 시점에서 감정적 분극 수준이 높을수록 두 번째 시점에 자신과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이러한 동질적 정치 대화가 세 번째 시점의 정서적 양극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뉴스 매체를 선택하는 당파적인 선택적 노출 이외에 자신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동질적 정치 토론 역시 정서적 양극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질적 정치 토론의 시작점이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감정적 분극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태도가 선택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토론이 선택적 노출과 같은 역할을 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폐쇄적인 태도를 갖게 해 정치적 분극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태도와 행동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둔 많은 연구들은 종종 정치적 태도가 정치적 행동을 유도한다고 본다. 태도는 개인의 심리적인 과정과 환경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며, 동기나 개인적 특성과는 다르고 지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개념적으로는 태도와 행동이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 개인의 내면에 잠재된 태도가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가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태도와 행동의 직접적인 관계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치적 태도의 극단화가 정치 행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선택적 노출을 통해 기존의 태도가 강화된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참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Stroud, 2011), 가장 참여가 높고 정파적인 유권자 집단에서 정치 극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Levendusky, 2013b). 실제로 미국 선거에서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중도 성향의 시민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정파적 입장을 지닌 시민이었으며(Prior, 2013), 미국의 주지사 선거 기간 동안 트위터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자주 글을 쓰는 사람들은 강한 정파성과 전통적인 정치 참여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Bekafigo & McBride, 2013)에서 정치적 태도는 정치적 표현이나 투표와 같은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태도의 분극이 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 것이라는 가정은 '신념, 태도, 의도, 행동'(belief, attitude, intention, behavior)에 있어서 태도가 간접적이지만 강력한 행동의 선행 요인이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80). 여기에서 개인의 신념은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본 정보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이 특정한 정치 이슈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것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선택적 노출이나 회피, 교차 노출과 같은 선택적 정보 이용을 통해 기존의 태도를 더욱 더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태도의 극화가 정치적 표현이나 참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스틸과 제노스(Gastil & Xenos, 2010)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빈번히 등장하는 시민적 태도와 정치적·시민적 참여 사이에 인과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개인이 갖고 있는 시민적 태도가 투표나 정치적 행동, 미디어 사용이나 정치적 대화와 같은 다양한 정치적·시민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을 통해 형성된 정치적 태도가 정치 참여를 더욱 더 강하게 예측할 수도 있다. 여론을 동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견해에 직면한 경우, 불협화한 매체에 대한 노출은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변호하고 다른 견해를 반박해 정치적 활동에 기꺼이 참여하

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Rojas, 2010). 또한 반대되는 미디어에 노출될 경우 기존의 태도가 강화되어 이것이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Kim, 2019). 즉,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 등 선택적 정보 이용으로 강화된 개인의 극단화된 태도는 더 활발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나아가 투표나 집회와 같은 정치 참여를 이끄는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정보 이용의 영향을 받은 태도 극단성이 이후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고,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을 매개해 정치적 참여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 분노와 정치적 참여 행동

시민의 정치 참여를 돕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더불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합리성의 틀에서 접근해 시민의 역량이나 동기부여와 같은 요인이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정치 참여 행위를 설명하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정치적 관심, 정치적 사회화와 같은 요인에 주목해 왔다.

이에 비해 개인의 정서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지만 대상에 대한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정서적 태도가 아닌 정치나 정치인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 희망이나 긍지와 같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정서 역시 정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정당에 대한 개인의 개별 정서는 투표나 시위 활동,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통해 활발히 드러나고 있으며(Miller & Conover, 2015), 최근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정치적 이슈들은 정치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제외하고 논의할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에서 '사회적 전염'(social contagion) 과정을 통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내에 공유된 정치적 표현과 의견이 전이될 수 있고(Vitak et al., 2011), 그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 역시 네트워크 내에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별개로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인지 활동이나 행동은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개별 정서의 인지 평가 이론'(cognitive appraisal theories of discrete emotions)에 따르면 개별 정서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산물을 의미하며, 각각의 감정들은 서로 다른 행동 성향과 관련이 있다(Lazarus, 1991; Roseman, 1991; Smith & Ellsworth, 1985). 고전적으로 정서는 인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형성과 특성, 효과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졌지만(Zajonc, 1980), 이후 인지와 정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지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으로 발전하였고, '개별 정서의 인지 평가 이론'은 인지가 정서의 원인이 되며, 분노와 염려, 희망이나 긍지와 같은 개별 정서는 개인이 마주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다(이준웅, 2007).

개별 정서의 인지 평가 이론은 개인의 정서는 인지적 산물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나 정치인이 서로 다른 감정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라자러스(Lazarus, 1991)는 상황에 대한 '목표 일치성' 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부정적 정서나 긍정적 정서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어떤 상황에서 인지 평가 결과에 따라 이것이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분노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유발되는데, 그 상황의 원인이 자신이 아닌 외부에 있다고 판단되면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서 분노는 개인의 목표 실현을 방해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혹은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불쾌함을 의미하며, 분노를 느낀 개인은 목표를 방해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련의 행위를 실행할 수 있다(Lazarus, 1991).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관련해 살펴보면, 교차 노출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내용을 접하게 된 개인은 정치적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메시지나 상황으로 인해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의 결과로 만들어진 정서는 선택적 정보 이용 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Choi, 2014; MacKuen, Wolak, Keele, & Marcus, 2010; Song, 2017; Stroud, 2008; Valentino, Banks, et al., 2009). 분노는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반대되

는 의견에 대한 거부감과 연결된다(Choi, 2014). 맥킨과 동료들(MacKuen et al., 2010)은 분노를 느끼는 개인은 자신의 태도에 도전적인 정보를 찾는 경향이 적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의사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부정적 정서인 분노와 불안은 당파적 시민성, 숙의적 시민성과 각각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불안을 느끼는 개인은 정치나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폭 넓게 찾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와 반대하는 정보를 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분노를 느끼는 개인은 적은 정보를 검색하고 확신을 굽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편향된 태도 지닌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분노는 개인의 신념을 더욱 옹호하게 하고, 다른 의견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연대하게 하는 반면 불안은 대립되는 관점과 타협하려는 배려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험 연구에서 분노를 느낀 개인은 정보 검색을 종료하고, 선택적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불안을 느끼는 개인은 새로운 관점을 찾고 타협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불안과 분노를 통해 위험과 위협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이러한 감정적 이중성이 곧 선택적 노출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분노는 때로 개인의 당파성과 결합해 개방적인 정보 탐색을 방해하는 선택적 노출과 관련될 수 있으며(Weeks, 2015), 주로 같은 생각을 가진 메시지에만 노출되게 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에 대한 분노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Slater, 2007).

선택적 노출, 선택적 회피와 관련하여 분노와 두려움 등의 개별적인 감정의 잠재적인 역할에 대해 살펴본 연구도 있다. 송(Song, 2017)은 만약 선택적 회피와 선택적 접근을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분노가 선택적 접근과 회피를 동시에 증가시켜야 하지만, 선택적 노출과 회피가 서로 다른 차원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두려움이나 분노가 선택적 노출과 회피에 독립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2012년 미국 전국 선거 연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두려움과 분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선택적 노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차 노출의 경우 분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차 노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려움은 교차 노출과 유의미한 관련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노를 느끼는 개인이 보다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를 추구하게 되는 반면, 불안한 개인은 선택적 노출을 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선택적 회피에 관여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즉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가 실질적으로 서로 다른 역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Garrett, 2013; Garrett & Stroud, 2014; Jang, 2014; Knobloch-Westerwick & Kleinman, 2012; Song, 2017),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는 분노와 불안이 선택적 회피와 선택적 노출에 상이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의 정서는 정치 참여와 같은 시민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Jasper, 2011). 특히 분노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는 사회 참여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데, 여기에서 분노와 불안은 동일하게 부정적 정서로 분류되지만 정치 참여에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ddy, Feldman, & Cassese, 2007; Valentino, Banks, et al., 2009). 분노한 개인은 거리로 나가거나 재정적 지원을 보내고, 여론 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되고, 이처럼 활성화된 개인들은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숙의 과정에 저항할 수 있다(MacKuen et al., 2010). 즉 정치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개인은 숙의 과정에 참여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에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불안을 느끼는 개인은 정치 캠페인과 정치적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습관적인 단서가 아닌 다양한 단서에 의존해 투표에 임하게 된다(Marcus & MacKuen, 1993).

발렌티노와 동료들(Valentino, Brader, Groenendyk, Gregorowicz, & Hutchings, 2011)은 불안이나 열정, 분노와 같은 개인의 감정이 정치 참여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험 연구와 두 가지의 전국 규모 설문조사 연구 등 총 세 가지의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분노와 다른 감정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였는데, 연구에 따라 불안과 열정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지만, 분노는 일관되게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개인이 가진 자원은 큰 변화 없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참여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고 대신 분노와 같은 감정이 정치 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졌지만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인들에게 정치적 분노는 참여를 이끄는 동기가 될 수 있으며, 분노와 같은 개인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선택적 정보 이용이나 정치 참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분노와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개인의 부정적 정서는 분노와 불안 등 개별 정서에 따라 정보 이용이나 정치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노는 다른 부정적 정서와 달리 정치 참여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며, 특히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치 참여를 더욱 더 장려할 수 있다(Valentino et al., 2011; Valentino, Gregorowicz, & Groenendyk, 2009).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선택적 노출과 같은 확증편향적 정보 이용을 통해 높아지고, 이것이 다시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적 활동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소셜 미디어 친구 관계라는 네트워크 내에서 부정적 감정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노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인의 분노가 정치 참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정치 참여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정보 이용이 개인의 태도나 분노, 나아가 정치적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디어에서 무언가를 선택해 읽고,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미디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대화를 관찰하는 것과는 다른

효과를 가져 오는가? 숙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연구들은 정치적 토론이 다양한 비판적, 참여적 맥락에서 정치 참여와 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Kim, Wyatt, & Katz, 1999; Lu et al., 2016; Mcclurg, 2003; Pattie & Johnston, 2009; Shah, Cho, Eveland, & Kwak, 2005).

특히 미디어 이용과 정치 참여의 관계에서 정치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은 정치 대화가 갖고 있는 표현 효과가 중요하다고 본다(Gil de Zuniga et al., 2019).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대화를 관찰하는 것과 달리 자신의 관점을 구성하고 그것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 즉 정치적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바꾸도록 동기 부여하는 과정일 수 있다(Pingree, 2007). 메시지를 작성하는 발신자가 메시지를 작성하는 동안과 사회적 환경으로 메시지를 발송한 뒤 그 반응을 기대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표현의 역학 과정은 사회적 피드백이 제공되는 안정적인 사회 연결망이 있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다(Ellison, Vitak, Gray, & Lampe, 2014).

이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 인지된 참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Lane et al., 2019)가 있다. 레인과 동료들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소셜 미디어 안에서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려는 개인의 자기 제시 동기(political self-presentation motivations)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자기 제시 동기는 정치적 자기 개념(political self-concept)을 강화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정치적 자기 표현 동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적 관심(political interest), 정치적 자기 효능감(political self-efficacy), 인지된 참여(perceived participation)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반면 인지된 지식(perceived knowledge)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로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정치적 표현 행위 중, 더 높은 공적 노력이 드는 독창적인 '의견 제시'와 상대적으로 낮은 공적 노력을 요하는 '링크 공유'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자기 표현 동기를 증가시키는 반면 '좋아요'와 같은 행위는 동일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공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만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 헌신적인 행동이며, 정치적 표현으로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혹은 수동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같은 정치 표현 행위가 아닌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정치적 표현이 있을 때만이 정치적 표현 동기와 나아가 인지된 참여, 정치 관심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은 실제 정치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Eveland & Hively, 2009; Gil de Zuniga et al., 2014; Zhu et al., 2017). 페이스북에서 시위와 관련된 게시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정치적 표현은 실제 거리 시위 참여와 긍정적인 관련이 있고(Zhu et al., 2017), 시위 참여 이외의 정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이 오프라인 정치 참여와 온라인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Gil de Zuniga et al., 2014)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관한 생각을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표현은 정치 집회 참석, 시위 참여, 정치인에게 편지 쓰기 등과 같은 오프라인 정치 참여와 정치인에게 편지 쓰기나 기부, 정치 캠페인 참여와 같은 온라인 정치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정치적 표현은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치 참여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자들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대화는 표현하는 사람을 관찰자에서 참가자로 바꾸고, 이러한 전환 과정이 정치적 행동에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 대화가 정치사회적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이준웅·이종혁·이상원·황현정, 2019). 이들은 인터넷 정치 대화를 인터넷 읽기와 인터넷 쓰기로 구분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행위와 타인의 견해를 읽는 행위가 정치적 참여와 사회

집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개인차 변수와 매체 이용을 통제한 뒤, 인터넷 읽기가 정치적 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인터넷 쓰기는 사회집단 참여와 정치적 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인터넷 읽기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결국 정치적 참여를 꺼리는 반면 인터넷 쓰기를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의견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사회적 참여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소셜 미디어에서 타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치적 표현 행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 참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적 참여 행동을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참여 활동,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참여 활동으로 구분하고 선택적 정보 이용이 어떤 종류의 정치 참여 행동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제 4절.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1.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우연히 정치 정보를 접하게 된 이후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을 한다고 보고, 이를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 교차 노출로 구분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자신의 뉴스피드에 있는 게시물을 모두 읽는 것은 아니며, 그 중에서 자신의 견해와 같은 정보만을 선택해 읽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읽고 싶지 않은 정보를 숨기거나,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반대되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 구분되는 점은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를 구분했다는 점으로, 이 연구에서의 선택적 노출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호하는 지지적 선택에 한정하고자 한다. 본래 선택적 노

출은 자신의 선유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를 추구하는 지지적 선택과 상반되는 정보를 회피하는 방어적 회피를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방어적 회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행위로 관찰이 쉽지 않고, 어떤 정보를 얼만큼 회피했는지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지적 선택에 국한해 선택적 노출 개념을 살펴본 짐크(Ziemke, 1980)의 논의와 같이, 지지적 선택만을 선택적 노출로 한정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에서 지지하는 정보에 대한 선호와 함께 지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거부감이나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방어적 회피에 해당하는 정보 이용을 살펴보기 위해 새롭게 '선택적 회피' 개념을 이용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친구 관계를 취소하거나 일부 콘텐츠를 숨길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용자들은 실제로 이 기능을 이용해 보고 싶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정보를 필터링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정치 정보에 대한 거부감으로 정보 자체를 삭제하거나 정보를 올린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한 것을 선택적 회피로 정의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이 적극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차 노출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정치 정보에 대한 노출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으로 새로운 정보에 대한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차 노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연적 노출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이 이용자의 교차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택적 노출이나 선택적 회피와 별개로 교차 노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에 대한 이용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러한 선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네트워크 특성과 소셜 미디어의 정보 환경을 구성하는 정보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루어지는 소셜 미디어의 환경적 요인으로 이용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네트워크 특성과 우연적 노출 단계에서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네트워크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함께 매체의 정보 환경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 다양성을 매개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선행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의 구조적 요인이 이용자가 우연히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관련해,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이 우연적 노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정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용자가 특정 정보를 선택하거나 회피하기에 앞서 뉴스피드나 채팅방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용자 개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소셜 미디어의 친구, 즉 네트워크의 특성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소셜 미디어 이용자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작은 규모의 네트워크라면 우연적 노출을 통해 뉴스피드에서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이 낮아질 것이고, 반대로 서로 다른 견해와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폭 넓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뉴스피드를 통해 이용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은 소셜 미디어의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1-1.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의견 균형성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1-3.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뉴스 다양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1-4.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의견 균형성이 높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가 접하는 정보 환경은 정보의 출처나 내용, 관점이 다양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사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균형적이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정보만을 접한다 하더라도 (의견 균형성이 낮더라도) 뉴스 다양성이 높을 경우 한쪽 입장과 관련된 폭 넓은 주제를 접하게 되고, 다양한 시각을 담은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소셜 미디어에서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정보를 골고루 접하더라도 (의견 균형성이 높더라도) 만약 뉴스 다양성이 낮다면 이슈와 관련된 제한된 소재와 중복되는 찬반 정보만을 접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을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으로 구분하고, 두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뉴스 다양성은 특정 이슈와 관련해,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정보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의견 균형성은 내용적인 면에서의 다양성이 아닌 찬반 입장이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을 선택적 정보 이용과 연결해 보면, 뉴스 다양성이 높을 경우, 즉 평소에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나 다양한 내용의 뉴스, 자신과 다른 관점의 뉴스를 접하게 되면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기존에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를 많이 선택해 읽으면서 동시에 자신과 다른 입장의 정보도 읽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풍부하고 폭 넓은 내용을 접하게 되면서 이견을 공유하는 친구를 차단하는 선택적 회피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의견 균형성이 높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모두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연적 노출 단계에서 접하는 정보의 의견 균형성이 높을 경우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의견만을 추구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소셜 미디어에서 우연히 접할 수 있는 정치적 의견의 찬성과 반대 비율이 비슷하다면, 즉 의견 균형성이 높다면 이것은 교차 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소셜

미디어 친구로부터 찬성과 반대 입장을 골고루 접하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과 다른 견해를 담은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2. 소셜 미디어의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은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2-1. 소셜 미디어의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소셜 미디어의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소셜 미디어의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4. 소셜 미디어의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2-5. 소셜 미디어의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6. 소셜 미디어의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낮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은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크기나 이질성은 타인에 대한 이용자의 기본적인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만약 이질적인 사람들과 폭 넓게 교류할 경우 이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있어 개방적이거나 폐쇄적인 태도에 따라 소셜 미디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만의 생각이나 견해, 나아가 그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대한 수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동질성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질성이 높은 타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이

나 관점에 열린 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반대로 동질성이 높은 타인과 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차이에 폐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 경우 확증편향적인 정보 이용인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가 높고, 반대로 교차 노출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 규모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수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폭 넓은 사람들과의 교류에 거부감이 없음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규모가 작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수가 많은 경우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이견 역시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견을 회피하는 선택적 회피 역이 더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3-1.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은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3-1.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2.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3-3.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4.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5.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6.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

과와 함께 정보 다양성을 거쳐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네트워크 특성, 즉 네트워크 동질성과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3-2.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이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과정에서 뉴스 다양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3.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이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과정에서 의견 다양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다음으로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에 따라 이슈에 대한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이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당파적인 선택적 노출은 정치적 극단화와 정적인 관계에 있으며,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도 선택적 노출은 정치적 태도나 감정적 양극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교차 노출은 정치적 양극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인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는 이슈에 대한 태도 극단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차 노출은 태도 극단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 4.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은 정치적 태도 극단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4-1.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4-2. 소셜 미디어에서의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4-3.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 이용은 개인의 부정적 정서 중 분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치 정보를 접하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치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볼 경우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선택적 노출을 통해 이슈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타협되지 않는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어(Mackuen et al., 2010)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화가 나는 감정, 즉 분노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교차 노출의 경우,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지지하는 정치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정보나 지지하지 않는 정치 대상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 등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견해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접하는 것이 분노 수준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입장에 대한 정보를 직접 선택해 읽어 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슈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다.

이견을 직접 선택해 읽어 보는 것이 분노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선택적 회피의 경우 개인의 분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노를 느끼는 개인이 선택적 회피를 추구하는 것(Song, 2017)과 같이, 이견을 공유한 소셜 미디어 친구와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은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5.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은 이용자의 분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5-1.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5-2. 소셜 미디어의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 5-3.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다음은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행동을 크게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로 구분하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 활동은 정치 참여 행동과 유의미한 관계에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 참여 역시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 역시 하나의 정치 참여 행동이라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정치 참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가지 종속변인 간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태도와 감정이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부정적 감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 참여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태도 극단성과 분노가 세 가지의 정치적 참여 행동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슈에 대한 태도의 강도를 의미하는 태도 극단성이 높을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대화를 더 많이 하고,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태도 극단성은 수준 높은 정치 참여와 관련이 있으며(Stroud, 2011), 정치 참여가 높은 집단에서 정치적 극화가 가장 많이 발견되기 때문이다(Levendusky, 2013b; Prior, 2013).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6.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은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6-1.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연구가설 6-2.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연구가설 6-3.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정치적 태도와 함께 이슈에 대한 부정적 감정 역시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대상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개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와 일치하는 확증편향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정치적 행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분노를 느끼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방해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일련의 행위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Lazarus, 1991)에서 소셜 미디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7.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분노는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가설 7-1. 이슈에 대한 분노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연구가설 7-2. 이슈에 대한 분노가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연구가설 7-3. 이슈에 대한 분노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한편,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은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거쳐 간접적으로 세 가지 정치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따

라 개인의 태도 극단성과 분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이후 정치적 참여 행동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8-1.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은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 8-2.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이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과정에서 태도 극단성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8-3.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이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과정에서 분노는 매개 역할을 하는가?

또한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내적 특성이 소셜 미디어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 미치는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어떠한 정치 정보를 선택해 읽거나, 회피하는 것은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슈 관여도가 높을 경우 정치 정보에 대해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는 점에서 이슈 관여도가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 과정에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슈 관여도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 이후 정치적 참여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념 극단성은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과 관련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뿐 아니라 태도 변화에도 유의미한 조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용은 타인의 의견 표현에 대한 열린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에 이르는 경로에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세

가지 심리적 특성이 가지는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모형에 나이를 통제변인으로 두고 있지만 이와 별도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연령대에 따른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9.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10.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이념 극단성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1.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관용 수준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12..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연령대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가?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단일 이슈를 대상으로 특정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두 가지 이슈(정파적, 비정파적 이슈)에 대한 정보 이용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 이로 인한 선택적 정보 이용이 다를 수 있으며, 이슈의 경우 정파적 이슈와 비정파적 이슈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이슈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를 SNS와 카카오톡 두 가지로 구분하고, 정보 이용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로 구분하여 두 가지 매체와 이슈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어떠한 배경이나 환경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러한 선택적 정보 이용에 따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가에 있다. 즉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이 이루어지는 원인과 결과 두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속한 네트워크의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이 이용자의 정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즉 이용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요인들이 선택적 정보 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세 가지로 구분한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이 이용자의 정치적 태도 극단성과 분노 감정, 세 가지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O_1-S-O_2-R(Orientations-Stimuli-Orientations-Responses, 이하 O-S-O-R) 모델을 바탕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미디어가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초기 자극-반응(Stimuli-Response) 모델에서 시작하여, 자극과 반응 이전에 두 개의 개인적 특성(Orientations)를 넣어 구성한 O-S-O-R 모델로 발전하였고(Mcleod et al., 2002), 이후 인지적 요소 R(reasoning)을 넣은 O-S-R-O-R(Orientations-Stimuli- Reasoning-Orientations-Responses) 모델로 이어진 바 있다(Cho, Shah, McLeod, McLeod, Scholl, & Gotlieb, 2009). 초기의 자극과 반응 모델은 미디어 효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데 유용했지만, 미디어 효과는 보편적(universal)이기보다는 조건적(conditional)이라는 점(Mcleod et al., 2002)에서 미디어 효과가 모든 미디어 이용자에게 동일하고 직접적으로 일어날 것이라 가정하는 자극과 반응 모델은 미디어 효과를 단계적, 혹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제한적이었다.

맥클라우드와 동료들(Mcleod et al., 2002)의 O-S-O-R 모델은 미디어 효

과가 발생하는 '과정'에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연결 지어 미디어 이용이 이용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심리학 영역의 초기 패러다임인 자극-반응 패러다임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Markus & Zajonc, 1985)을 미디어 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의 태도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는 전통적인 자극과 반응 이론을 수정하는 것으로, 미디어 이용의 영향은 이용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이나 선유성향, 태도나 정보처리 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Mcleod et al., 2002). 실제로 미디어 이용 효과는 이용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떤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McLeod & Reeves, 1980)에서 이용자 개인의 특성과 미디어 이용, 그에 따른 이용자 특성의 변화와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O-S-O-R 모델은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디어 이용의 차별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O-S-O-R 모델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을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모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연구 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먼저 소셜 미디어 이용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는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을 모델의 O 단계에 배치하였다. 본래 O-S-O-R 모델에서 첫 번째 O는 이용자가 미디어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이용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화적, 인지적, 동기적 특성을 의미한다(McLeod et al., 2002; 2009). 이는 메시지의 '이용' 혹은 '수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일종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맥클라우드와 동료들이 제안한 미디어 이용과 관련 있는 구조적, 문화적, 인지적, 동기적 특성은 이용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선유성향과 같은 이용자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개인이 미디어에서 어떤 메시지를 이용하는지가 결정되고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메시지의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Shah, Cho et al., 2007; Sotirovic & McLeod, 2001). 전통적인 매체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이 뉴스 콘텐츠 이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정보 이

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네트워크 특성과 이러한 네트워크 특성에서 비롯되는 정보 다양성이 O-S-O-R 모형의 O인 개인적 특성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세 가지의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을 O-S-O-R 모델에서 미디어 메시지 노출과 관련 있는 자극(S)으로 보았다. 미디어 이용 과정에서 자극에 해당하는 S는 넓은 범위에서는 다양한 미디어 전반에서 특정 미디어를 선택하거나, 특정 뉴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것 등을 의미하고, 보다 좁은 범위에서는 동일한 미디어 내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택할 것인가를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개인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의 영향에 의해, 또는 그 친구들이 공유하는 정보의 영향에 의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되며, 이러한 선택적 정보 이용은 개인의 태도나 분노 감정, 정치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은 네트워트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과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으로 구성된 O의 영향을 받는 S이자 이후 또 다른 O와 R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O는 미디어 이용에 따른 후속 반응으로, 미디어 메시지에 따른 이용자의 관심이나 태도 변화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태도와 분노 감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래 O-S-O-R 모델에서 두 번째 O는 미디어 메시지의 영향을 받지만 행동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용자 개인의 특성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O는 미디어 이용자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있고(McLeod et al., 2002), 미디어에 노출된 결과로 나타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포함한다(Shah, Cho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효과 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두 이슈에 대한 태도 극단성과 분노 감정을 각각 측정하고,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태

도와 부정적 감정이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선택적 정보 이용이 개인의 태도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최종 반응에 해당하는 R은 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미디어 효과로 정치 커뮤니케이션 맥락에서는 정치적 참여가 여기에 해당 되며, O-S-O-R 모델에서 최종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 R 단계에 정치적 참여 행동인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두고 개인의 선택적 정보 이용이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개인의 태도 및 분노 감정을 매개해 거치는 간접적인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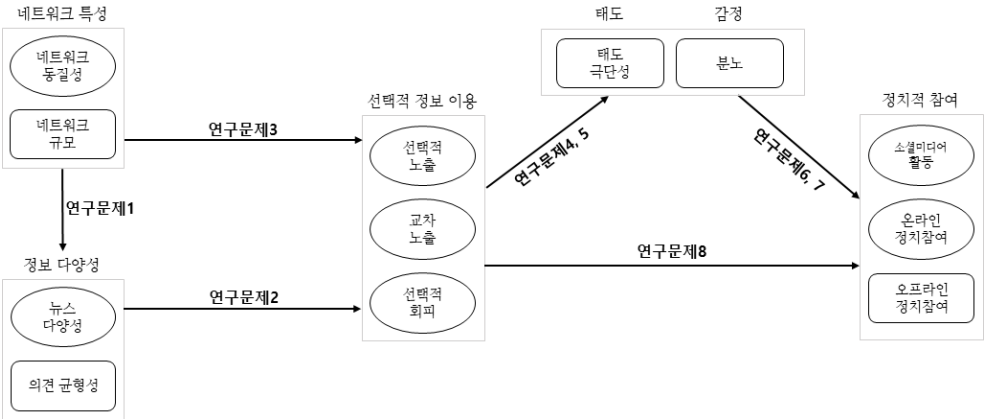
O-R-O-S 모델에 따르면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이용자가 속한 미디어 환경, 선유성향과 같은 개인적 특성은 미디어를 통한 메시지 이용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한 메시지 이용은 이용자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태도에 영향을 준 뒤 이를 통해 행동적 반응에까지 단계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동일한 미디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이용하는지, 그리고 그와 같이 서로 다른 메시지에 주목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Shah, McLeod, et al., 2007)에서 소셜 미디어 내에서의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과 그 효과를 살펴보는 본 연구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통적인 O-S-O-R 모형은 O 단계에서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심리적 특성에 보다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의 네트워크 특성을 또 하나의 이용자 고유의 특성으로 보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었던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대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속한 구조적 특성과 이들이 인식하는 정보 환경은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빼놓고 논의할 수 없는 중요한 밑바탕이 되며,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

트워크 규모)과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을 O 단계에 배치하고, 이후 미디어 이용자의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분하여 이들을 미디어 자극에 해당하는 S 단계에 두었다. 나아가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용자의 이슈에 대한 태도와 분노 감정에 미치는 영향(O)과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R)을 살펴봄으로써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 과정을 폭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한편 본래 O-S-O-R 모델에서 첫 번째 O에 포함되었던 미디어 이용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은 여전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디어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선택해 읽고, 그에 따라 태도나 분노, 정치적 참여 행동에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높고, 이것이 친환경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Holbert, Kwak, & Shah, 2003), 특정 주제나 이슈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미디어 이용과 그 효과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 미디어에서 특정 메시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이용자의 태도나 감정, 나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동적인 연결 과정이라기보다는 이용자 개인에 내재된 특성이 또한 개입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Eveland & Thomson, 2006). 본 연구에서는 메시지 이용과 태도 및 감정, 행동의 변화에는 개인이 지닌 정치적 이념 성향이나 이슈에 대한 관여 정도, 이견에 대한 관용, 나아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연령이 조절변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전반적인 O-S-O-R 모델의 조절변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지금까지의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연구 모형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 모형



주. 단일문항인 변인(측정변수)의 경우 사각형으로, 다문항으로 구성된 변인(잠재변수)의 경우 원으로 표시하였다.

제 3장. 연구방법

제 1절. 조사 절차

1. 표본 선정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활동에 대한 연구가설과 이론적 모형의 검증을 위해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료수집은 130만 패널을 보유한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업체가 보유한 패널을 대상으로 성, 연령 비율을 기준으로 할당 표본 추출을 통해 1143명을 표집 하였고,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1123명의 응답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조사가 시작되고 설문 참여 링크를 클릭하면 먼저 응답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 문항(소셜 미디어 이용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두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이용에 대해 질문해 둘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만 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단 카카오톡과 SNS 중 하나라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카카오톡과 SNS 각각의 이용에 대해 답하게 되는데, 만약 두 가지 소셜 미디어를 모두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설문 순서에 따른 응답 편향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톡과 SNS 이용 문항의 설문 순서를 랜덤 배치하고, 카카오톡이나 SNS 중 하나만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소셜 미디어에 관한 문항에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설문

카카오톡이나 SNS 중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을 소셜 미디어 이용자로 보고, 다음 단계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소셜 미디어 이용 문항은 크게 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기분 설문과 두 가지 이슈와 관련된 선택적 정보 이용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소셜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한 뒤에,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교류 대상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앱이나 이용하는 SNS 앱을 실행한 후 친구 목록을 보면서 응답하라는 안내 문구를 설문 화면에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특정 정보를 받거나 본 적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정치 정보를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정치 정보를 받거나 본 적이 있는 이용자를 선정하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정보'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된 정보'를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일반적으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노출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은 선거 상황에서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을 살펴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이자 소셜 미디어에서 활발히 공유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에 관심을 두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이슈(이하 조국 이슈)의 경우 지난해 가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청문회,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기간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공유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치 양극화와 정치 진영 간 분열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점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이라는 주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이하 코로나19 이슈)의 경우, 국내의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후 국내의 방역 대책의 전환점이 되는 31번 확진자 발생일인 2월 18일 이전까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지지와 비판의 의견이 다양하게 등장했고, 특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언론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도 다양하게 등장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 이슈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슈를 선정하여 이슈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두 가지 이슈는 각각 정파적, 비정파적 이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슈의 종류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 과정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슈 선택 과정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이슈도 고려했지만, 해당 이슈들의 경우 앞선 두 가지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적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정보를 접하거나 공유한 경험이 적을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두 가지 이슈를 설문 조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이용의 대상을 언론에서 발행한 뉴스 이외에 개인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의견을 포함하는 정보 전반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정보를 카카오톡의 개인/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적이 있거나 SNS 뉴스피드에서 본 적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선택적 정보 이용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우연히 접한 정보' 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우연히 받거나 본 적이 있는 이용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접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여기에서 응답자들이 SNS나 카카오톡에서 받거나 본 정치 정보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란 카카오톡(SNS 문항일 경우,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응답한 SNS 종류) 친구가 공유하는 뉴스, 타인의 글, 유튜브 링크를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SNS의 경우 '귀하의 SNS 뉴스피드에서 본 경험'을, 카카오톡의 경우 '귀하의 일대일/단체 채팅에서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 정보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귀하는 이와 관련된 개인 의견이나 뉴스를 받은 적/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와 관련된 개

인 의견이나 뉴스를 받은 적/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약 첫 번째 이슈에 대해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소셜 미디어 활동에 대해 응답한 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 두 가지 모두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설문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 과정에서 응답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톡 관련 문항의 경우 '카카오톡에서'라는 문구를 볼드체로 표시하고, SNS 관련 문항의 경우 응답자가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SNS의 종류가 설문 문항에 직접 표기되도록 하였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총 4개의 케이스(소셜 미디어 플랫폼 2개 × 이슈 2개) 각각에 대하여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로, 이를 위해 응답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와 그곳에서 이슈를 접한 경험에 따라 설문 문항에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문을 구성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크게 SNS와 카카오톡으로 구분하고, 두 소셜 미디어에서 두 가지 이슈(이슈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 각각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4개의 케이스를 구성(케이스1: SNS에서 이슈1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케이스2: 카카오톡에서 이슈1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케이스3: SNS에서 이슈2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 케이스4: 카카오톡에서 이슈2를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한 뒤, 케이스 별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이후 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케이스를 먼저 조국 이슈(이슈1)와 코로나19 이슈(이슈2)로 구분하고, 각각을 다시 SNS와 카카오톡으로 구분하였다. 결과 표에서 SNS와 KKO는 각각 SNS와 카카오톡, 즉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의미하며 뒤의 숫자 1과 2는 각각 이슈 번호(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 2: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이슈)를 의미한다.

<표1> 설문조사 과정

과정		설문 내용	
응답 대상자 선정		소셜 미디어 이용 여부	
1단계	1-1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용에 관한 기본 설문 - 네트워크 특성(친구 수, 친구 동질성	SNS SNS 이용에 관한 기본 설문 - 네트워크 특성(친구 수, 친구 동질성
	1-2	카카오톡을 통한 정치 정보 이용, 카카오톡 활동 - 이슈1 - 이슈2	SNS를 통한 정치 정보 이용, SNS 활동 - 이슈1 - 이슈2
2단계		• 정치 의식에 대한 설문 - 이슈 관여도, 태도, 분노 (이슈1, 이슈2) - 심리적 특성 (이념 성향, 관용) • 정치 참여에 대한 설문 - 온라인 참여 경험 - 오프라인 참여 경험 • 인구통계학적 정보 - 나이, 성별, 학력 수준, 소득 수준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치 정보 이용에 대한 설문이 끝난 뒤에는 개인의 정치 의식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게 된다. 개인의 정치 의식은 두 가지 이슈와 관련된 이슈 관여도, 과거와 현재의 태도, 분노 감정과 개인의 이념 성향, 관용과 같은 심리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한 설문이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대한 설문을 끝으로 설문조사가 종료된다. 지금까지의 설문 조사 절차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제 2절. 주요 변인의 측정 및 구성

1.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은 네트워크 규모와 동질성으로

구분하여 네트워크의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각각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가 맺고 있는 친구들을 의미하며, 응답자들이 보다 쉽게 설문에 답할 수 있도록 '귀하의 카카오톡/SNS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의 답변을 위해 카카오톡/SNS 앱을 실행한 후, 친구 목록을 보면서 응답해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하였다.

1) 네트워크 규모

먼저 네트워크 규모는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의 규모'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귀하의 카카오톡/SNS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에 대해 질문하였다. SNS 이용자 전체의 SNS 친구 수의 평균은 197.46명(*SD* = 517.359, n = 827)이었고, 카카오톡 이용자 전체의 카카오톡 친구 수의 평균은 204.3명(*SD* = 251.320, n = 1,123)이었다.

본 연구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SNS에서 이슈1(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을 받은 경우와 이슈2(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 이슈)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에서 이슈1을 받은 경우와 이슈2를 받은 경우를 각각의 케이스로 구분하고 케이스별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 케이스별 소셜 미디어 친구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케이스1(sns1)의 평균 SNS 친구 수는 233명(*SD* = 612.23, n = 441), 케이스2(kko1)의 평균 카카오톡 친구 수는 223명(*SD* = 304.526, n = 493)이었고, 케이스3(sns2)의 평균 SNS 친구 수는 216.2명(*SD* = 576.71, n = 570), 케이스4(kko2)의 평균 카카오톡 친구 수는 223명(*SD* = 304.53, n = 665)이었다. 친구 수는 로그 점수로 변환한 뒤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네트워크 동질성

다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대상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 동질성은 '소셜 미디어 친구들 사이에서 인식한 정치/사회적 가치관의 유사성'으로 정의하고, 응답자가 소셜 미디어 친구들 사이에서 경험한 차이나 유사성의 인식으로 측정한다. 네트워크 이질성의 측정과 관련해, 소셜 네트워

크(사회 연결망)의 구조적인 특징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은 네트워크를 이질적 네트워크 혹은 동질적 네트워크로 구분해 응답자가 속한 실제 지역의 인구학적 자료를 활용하거나(Brundidge, 2010; Scheufele et al., 2006),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있다(Chan, 2018; Kobayashi, 2010; Kwak, Williams, Wang, & Lee, 2005; Lee & Kim, 2017; 나은경, 2007a, 2007b).

예를 들어, 리와 김(Lee & Kim, 2009)의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Brundidge, 2010; Scheufele et al., 2006)를 이용해, 'SNS에서 당신은 정치적 이념 성향, 인종이나 민족, 종교,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이야기 하십니까?'에 대해 질문한 뒤에 각 응답의 합을 SNS 네트워크 이질성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나은경(2007a, 2007b)의 경우, 기존의 자기중심적(ego-centric) 사회연결망 평가방식(Huckfeldt et al., 2004)을 응용하여, 온라인 상황에서 구성된 사회연결망의 평가에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여 온라인 네트워크 이질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이용하는 세 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나 웹사이트에 대해 '그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접했습니까?'와 '그 커뮤니티를 방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관심, 취미, 취향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접했습니까?'에 대해 '거의 항상 언제나, 대개의 경우, 약 절반 정도, 그다지 자주는 아님, 거의 전혀 아님' 등 5점 척도를 이용해 측정하였고, 세 응답의 평균을 구해 각각을 정치적 이질성과 사회적 이질성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의 동질성을 살펴보기 위해 '응답자가 인식하는 소셜 미디어 친구와의 동질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크게 (1)성별이나 연령, 인종/민족, 종교, 직업, 주거 지역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2)정치적 이념 성향, 정당/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같은 정치적 특성, (3)도덕적 가치, 관심이나 취미, 의견이나 성향, 사고방식,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사회적 특성 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의 빈도 혹은 상호작용 여부에 대해 질문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에 네트워크의

정치적·사회적 성향의 동질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소셜 미디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응답자가 인식하는 동질성 정도를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에게 주로 이용하는 소셜 미디어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나와 정치적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 '나와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하다'에 대해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비슷하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동질성은 값이 클수록 소셜 미디어 친구들이 이용자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SNS 이용자 전체의 네트워크 동질성은 2.93(*SD* = .813, n = 827), 카카오톡 이용자 전체의 네트워크 동질성은 2.78(*SD* = 0837, n = 1,123)이었다. '정치적 이념 성향'과 '관심사나 취미'에 대한 두 문항 간 상관관계는 SNS의 경우 .482이었고, 카카오톡의 경우 .592로 나타났다.

2. 정보 다양성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환경의 다양성을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으로 구분하였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카카오톡의 개인/단체 채팅방이나 SNS의 뉴스피드에서 정치 정보를 접하는 과정에서 내용적인 면에서 풍부하고 다양한 종류의 뉴스를 접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접할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찬성이나 반대 한쪽의 의견만을 접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뉴스를 접하거나, 반대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접하지만 다양하지 않은 뉴스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을 구분하여 각각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1) 뉴스 다양성

먼저 <u>뉴스 다양성</u>은 '이슈를 둘러싼 뉴스의 출처, 내용, 의견의 다양성'으로 정의하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출처, 내용, 관점의 뉴스를 접했는지 다음 세 가지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카카오톡 일대일/단체 채팅에서 받았던 정보나 SNS 뉴스피드에서 보았던 정

보와 관련해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아주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에 대해 묻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뉴스 다양성이라는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관측변수로 세 문항의 값을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값과 평균값이 높을수록 응답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받거나 본 뉴스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SNS에서 이슈1의 뉴스 다양성은 3.27(*SD* = .792, Cronbach's α = .828, n = 613), 카카오톡에서 이슈1의 뉴스 다양성은 3.20(*SD* = .812, Cronbach's α = .811, n = 641), SNS에서 이슈2의 뉴스 다양성은 3.32(*SD* = .875, Cronbach's α = .874, n = 691), 카카오톡에서 이슈2의 뉴스 다양성은 3.27(*SD* = .883, Cronbach's α = .863, n = 814)이었다.

2) 의견 균형성

<u>의견 균형성</u>은 '이슈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입장이 균형 있게 존재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게 된 정치 정보에서 응답자가 인식하는 찬/반 입장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정보에서 찬성(임명 지지)과 반대(임명 반대) 비율은 대략 어떠했습니까?'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관련 정보에서 찬성(정부 지지)과 반대(정부 비판) 비율은 어떠했습니까?'에 대해 질문하고, 전부 반대하는 입장일 경우 0점, 전부 찬성하는 입장일 경우 1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의견 균형성은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절반 정도일 때 가장 높고, 찬성과 반대 중 한 쪽의 비율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반쯤'에 해당하는 중간 값을 6점으로, 찬성과 반대 한쪽 입장으로 갈수록 의견 균형성 점수가 1점씩 작아지고, 전부 찬성이나 전부 반대 입장일 경우 1점이 되도록 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견 균형성 값은 그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 활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견 균형성이 높고(찬반 의견이 균형 상태), 점수가 낮을수록 한쪽 입장 의견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SNS에서 이슈1의 의견 균형성은 4.121(*SD* = 1.705, n = 613), 카카오톡에서 이슈1의 의견 균형성은 4.022(*SD* = 1.692,, n = 641)이

고, SNS에서 이슈2의 의견 균형성은 4.116(*SD* = 1.649, n = 691), 카카오톡에서 이슈2의 의견 균형성은 4.025(*SD* = 1.655, n = 814)였다.

3. 개인 내적 특성

1) 이슈 관여도

이슈 관여도는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하여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슈 관여도의 측정은 선행연구(이은주, 2011)를 참고해, 이슈의 중요성과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슈 중요성은 '귀하는 다음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에 대해 질문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는 나에게 중요했다'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이슈는 나에게 중요했다' 두 문장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이슈에 대한 관심은 '귀하는 이 이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에 대해 질문하고,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와 '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에 대하여 이슈 중요성과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슈 관여도 값이 클수록 각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슈 관여도의 평균값은 이슈1의 경우 2.92(*SD* = 1.171, n = 1,123), 이슈2의 경우 3.97(*SD* = 1.037, n = 1,123)이고, 이슈 관여도를 구성하는 두 문항의 상관관계는 이슈1의 경우 .806, 이슈2의 경우 .819로 나타났다.

2) 이념 극단성

다음으로 이념 극단성은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이 보수와 진보 양 극단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측정한 뒤에 척도의 중간 값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값이 커질수록 척도의 값이 커지도록 변환하여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념 성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거나(Boutyline & Willer, 2017; Jost, Napier,

Thorisdottir, Gosling, Palfai, & Ostafin, 2007; Stroud, 2008, 2010; Wojcieszak & Rojas, 2011), 정당 소속감이나 정당 정체성, 당파성의 강도를 통해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기도 한다(Barnidge, Ardevol-Abreu, et al., 2018; Gil de Zuniga et al., 2014; Johnson et al., 2009; Stroud, 2008, 2010; Wojcieszak & Rojas, 2011). 나아가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이념 성향을 질문해 측정하기도 한다(Barnidge, Ardevol-Abreu, et al., 2018; Barnidge, Huber, et al., 2018; Hwang, Pan, & Sun,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념 성향을 10점 만점으로 분류할 때,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몇 점입니까?'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자 스스로 본인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에 대해 가장 진보적이면 0점, 중도이면 5점, 가장 보수적이면 1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간 값을 기준으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도록 변환하여 중도일 경우 1점, 가장 진보적이거나 가장 보수적일 경우 6점이 되도록 하여 값이 커질수록 이념 극단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이념 극단성은 2.29(SD = 1.331, n = 1,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관용

관용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너그러운 태도'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 중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해 그 집단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지, 도시에서 집회를 열거나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해 정치적 관용을 살펴보거나(Johnson et al., 2009, 2011; Mutz, 2002a), 다른 사회 구성원과 정치/사회,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다를 경우 그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질문해 사회적 관용을 살펴보았다(Ikeda & Kobayashi, 2010; Kobayashi, 2010).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이나 이슈에 대한 관용이 아닌 일반적인 관용을 측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윤정과 이종혁(2012), 김은미와 이준웅(2006)의 연구에서 쓰인 설문 문항을 참조해 4개 문항을 제시하고, 이를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

였다. 최윤정과 이종혁(2012)의 경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정도와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 정도, 싫어하는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려는 태도를 관용적 태도로 보았고, 김은미와 이준웅(2006)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대상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관용이라 보았는데, 이와 같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타인에 대한 열린 자세를 측정하는 관용 문항이 본 연구에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연구를 참고하여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대하려 노력한다',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등의 네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점수가 높을수록 관용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관용의 평균값은 3.68(SD = .605, Cronbach's α = .798, n = 1,123)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선택적 정보 이용

소셜 미디어 뉴스피드에서 접한 정치 정보가 우연적 노출이라면 그 중에서 '이용자 스스로 특정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은 선택적 정보 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용자가 선택해 이용하는 정보의 내용과 이용 종류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은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은 응답자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거나 반대되는 정보를 선택해 읽어 본 경험을 측정했으며, 선택적 회피는 응답자의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보낸 소셜 미디어 친구를 차단한 경험을 측정했다.

여기에서 각 선택적 정보 이용의 기준이 되는 기존 입장은 응답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하여 과거(이슈 초기) 가지고 있던 태도를 이용하였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과거 응답자가 가졌던 생각 또는 입장에 대해 조사한 문항의 값을 중간 값인 중립을 기준으로 '부정적 입장'과 '긍정적 입장'으로 구분하고, 각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로, 반대되는 정보 이용을 교차 노출로, 반대되

는 정보를 공유한 친구 차단을 선택적 회피로 보았다.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은 카카오톡과 SNS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해 각각 측정하였다. (4개 케이스(2 매체 × 2 이슈)의 선택적 정보 이용의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는 <표3>과 <표7> 참고)

1) 선택적 노출

우선, 선택적 노출은 소셜 미디어에서 접한 정치 정보 중 응답자가 '자신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택적 노출 개념은 부분적으로 방어적 회피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짐크(Ziemke, 1980)의 논의에서와 같이 지지적 선택만을 선택적 노출로 한정해 살펴보았다. 선택적 노출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나 지인이 공유한 정치 정보 중 응답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치인/정당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 반대되는 입장의 정치인/정당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 응답자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대체로 읽어보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대체로 읽어본 편이다, 항상 읽어 보았다)로 질문한 값을 이용하였다. 반대로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이용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정보 이용의 경우, 과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반대로 긍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두 가지 이슈 각각 세 문항의 값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교차 노출

다음으로 교차 노출은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보는 것'을 뜻한다. 교차 노출의 측정은 두 가지 이슈에 대하여, 응답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치인/정당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 반대되는 입장의 정치인/정당을 옹호하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 응답자의 정치적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대체로 읽어보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대체로 읽어본 편이다, 항상 읽어 보았다)로 질문한 값을 이용하였다. 반대로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이용했다.

여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교차 노출의 경우, 과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반대로 긍정

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교차 노출 역시 두 가지 이슈 각각 세 문항의 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선택적 회피

마지막으로 선택적 회피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되는 정보를 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친구를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노출 개념에서 방어적 회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극적 행위로 관찰과 측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와 동료들(Zhu et al., 2017)의 연구와 같이 방어적 회피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선택적 회피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정치적 뉴스, 동영상 등을 받지 않기 위해 친구 관계를 차단하는 것'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회피하는 것을 선택적 회피로 보고, '응답자의 입장과 일치하는 정치인/정당을 비판하는 정보, 반대되는 입장의 정치인/정당을 지지하는 정보, 응답자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공유한 친구를 차단한 경험에 대해 4점 척도(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로 측정하였다.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에 대하여 답한 값을 이용하였다. 반대로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긍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

와 반대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에 대해 동일하게 4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이용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의 경우, 과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이용했고, 반대로 긍정적 입장이었던 사람들의 경우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보내는/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한 값을 이용했다. 선택적 회피 또한 점수가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태도 극단성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이 가져오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태도 극단성과 분노 두 가지 변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태도 극단성은 응답자가 '특정 정치 이슈에 대해 갖고 있는 입장의 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응답자의 입장을 0점부터 10점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사전 입장과 사후 입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과거 입장('2019년 8월, 이른바 조국사태 이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 '2020년 2월 초, 코로나 19의 국내 확산 초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입장')과 현재 입장('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입장',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입장')을 각각 질문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에 쓰인 응답자의 태도 극단성은 응답자의 사후 태도의

극단성으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전체 응답자 1123명의 응답 분포는 <표2>와 같다. 태도 극단성 값은 이슈 각각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일 경우 0점, 매우 긍정적일 경우 10점인 11점 척도로 측정한 태도 값을 이용해 중립인 중간 값을 기준으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쪽으로 값이 커질수록 척도의 값이 커지도록 변환하였다. 이에 따라 태도 극단성 값은 0점부터 5점까지의 값을 가지며 값이 커질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슈1의 태도 극단성 평균은 2.55(*SD* = 1.98, n = 1,123)이며, 이슈2의 태도 극단성 평균은 2.79(*SD* = 1.75, n = 1,123)이다.

<표2> 이슈1(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슈2(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사후 태도 점수

	이슈에 대한 사후 태도										
	부정적 태도					중립	긍정적 태도				
	5	4	3	2	1	0	1	2	3	4	5
이슈1	221 (19.7)	67 (6.0)	73 (6.5)	73 (6.5)	61 (5.4)	295 (26.3)	54 (4.8)	68 (6.1)	69 (6.1)	45 (4.0)	97 (8.6)
이슈2	66 (5.9)	35 (3.1)	53 (4.7)	63 (5.6)	43 (3.8)	172 (15.3)	80 (7.1)	128 (11.4)	143 (12.7)	132 (11.8)	208 (18.5)

주. 숫자는 응답자 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응답자 중 해당 응답자의 백분율(%)를 나타냄.

6. 분노

다음으로 분노는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생각했을 때 화가 나는 감정’을 의미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주로 응답자에게 그 대상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그 뒤에 느껴지는 감정적 반응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측정한다(이준웅, 2007; MacKuen et al., 2010; Song, 2017; Valentino et al., 2011). 예를 들어, 맥킨과 동료들(MacKuen et al., 2010)은 감정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어떤 정책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당신은 오리건 대학 시스템의 긍정적인 행동 방침이 당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화나게 하는 정도에 대해 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분노 정서는 두 가지 이슈 각각에 대하여 화가 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에 대해 질문한 뒤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이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에 대하여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분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슈1에 대한 분노의 평균은 3.27(*SD* = 1.242, n = 1,123)이었고, 이슈2에 대한 분노의 평균값은 2.88(*SD* = 1.249, n = 1,123)이었다.

7. 정치적 참여 행동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카카오톡과 SNS에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을 '읽기' 행위라고 봤을 때, 소셜 미디어의 정치적 표현은 읽기 이후의 '쓰기' 행위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정치 정보를 읽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표현적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치적 표현이 소셜 미디어 내에서의 표현적 행위라면 온라인 정치 참여는 소셜 미디어 범위를 넘어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적 행동을 의미한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친구들이 보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정치적 참여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온라인 공간이지만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에서의 정치적 참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참여를 정치적 표현과 구분되는 참여 행동의 하나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오프라인 정치 참여로 투표와 같은 공식적 정치 참여 활동이 아닌 단체 활동이나 기부금 모금과 같은 정치 참여 활동을 포함한다. 각 참여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소셜 미디어 활동

먼저 소셜 미디어 활동은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참여적 소셜 미디어 이용 행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글쓰기, 정보 공유하기 등과 같은 표현적 이용 행동을 포괄한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견해를 쓰거나 뉴스를 공유하는 것 자체를 정치적 참여의 일부분으로 보기도 하고(Gil de Zuniga et al., 2014),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표현을 다시 노력의 정도에 따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정치 참여와 적은 노력이 필요한 정치 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Heiss & Matthes, 2019; Knoll et al., 2020; Lu & Myrick, 2016). 본 연구에서도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표현 행동을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이 필요한 정치적 표현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정치적 표현을 포함하여 총 여섯 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썼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언론사나 포털 뉴스 링크를 공유했다’, ‘다른 소셜 미디어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등의 활동을 한 경험에 대해 4점 척도(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로 측정하였다. 여섯 개의 문항은 카카오톡과 SNS에서 두 가지 이슈 각각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총 4개 케이스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 값을 구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케이스별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는 <표5>, <표9> 참고) SNS 이용자와 카카오톡 이용자 전체의 평균을 살펴보면, SNS에서 이슈1 관련 소셜 미디어 활동의 평균은 1.60(*SD* = .744, Cronbach’s α = .944, n = 827), 카카오톡에서 이슈1 관련 소셜 미디어 활동의 평균은 1.60(*SD* = .739, Cronbach’s α = .938, n = 1,123)이고, SNS에서 이슈2 관련 소셜 미디어 활동의 평균은 1.69(*SD* = .772, Cronbach’s α = .939, n = 827), 카카오톡에서 이슈2 관련 소셜 미디어 활동의 평균은 1.71(*SD* = .757, Cronbach’s α = .923, n = 1,123)였다.

2) 온라인 정치 참여

다음으로 온라인 정치 참여는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가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는 참여'를 의미한다. 온라인 참여는 두 가지 이슈 각각에 대하여 '인터넷 설문(여론조사) 투표 참여하기', '언론사/포털 뉴스에 댓글 달기',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나의 생각이나 견해 쓰기',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본 내용 공유하기', '인터넷 검색어 운동(특정 단어나 문구 검색하기) 참여하기' 등 다섯 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로 측정하였다. 응답자 전체의 이슈1 관련 온라인 정치 참여의 평균은 1.72(*SD* = .726, Cronbach's α = .903, n = 1,123)이고, 이슈2 관련 온라인 정치 참여의 평균은 1.74(*SD* = .731, Cronbach's α = .900, n = 1,123)였다.

3) 오프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오프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여'를 의미한다. 오프라인 정치 참여는 각 이슈와 관련 있는 네 가지 오프라인 정치 참여 활동의 참여 여부와 2020년 4월 15일 실시되었던 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의향의 합으로 구하였다. 먼저 각 이슈와 관련된 오프라인 정치 참여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이슈1)의 경우 '장외 집회(서초동, 광화문 집회 등) 참석하기', '정치인, 공직자, 언론 기관에 의견 전달하기', '정치 단체 활동(시민 단체, 장외 집회 집행부 등)', '정치 관련 기부 및 모금 활동(후원금, 지지 광고 모금 등)' 등의 네 가지 활동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이슈2)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참여하기', '정치인, 공직자, 언론기관에 의견 전달하기', '사회 단체 활동(방역 활동, 캠페인 활동 등)', '코로나19 관련 기부 및 모금 활동(후원금, 물품 지원 등)'의 활동에 대해 4점 척도로 측정한 뒤, 각 활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 0점과 1점을 부여하였다. 투표 참여의 경우, '귀하께서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 투표하시겠습니까?'에 대해 '투표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총 5개 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합을 구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이슈1 관련 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평균은 2.23(*SD* = 1.77, Cronbach's α = .925, n = 1,123)이고, 이슈2 관련 오프라인 정치 참

여의 평균은 2.40(*SD* = 1.817, Cronbach's α = .913, n = 1,123)이었다.

8.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나이와 뉴스 미디어 이용 정도, 사전 태도의 극단성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나이는 만 나이를 질문하여 그 값을 이용했으며, 뉴스 미디어는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지상파, 케이블 포함), 인터넷 뉴스(포털, 온라인 신문 포함)의 이용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구체적으로,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지상파, 케이블 포함)의 경우 '귀하는 종이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와 '귀하는 텔레비전 뉴스(지상파, 케이블 포함)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에 대해 질문하고 '거의 보지 않음', '1주일에 1일 정도', '1주일에 2-3일 정도', '1주일에 4-5일 정도', '거의 매일'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인터넷 뉴스(포털, 온라인 신문 포함)의 경우 '귀하는 인터넷 뉴스(포털, 온라인 신문 포함)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에 대해 질문하고 '거의 보지 않음', '하루 20분 이내', '하루 20-40분 정도', '하루 40-60분 정도', '하루 60분 이상'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종이 신문 이용의 평균은 1.58(*SD* = 1.16, n = 1,123), 텔레비전 뉴스 이용의 평균은 3.99(*SD* = 1.27, n = 1,123), 인터넷 뉴스 이용의 평균은 3.19(*SD* = 1.13, n = 1,123)이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은 이용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사전 태도 값을 이용해 사전 태도 극단성 값을 만들어 통제변인에 이용하였다. 사전 태도 극단성은 사후 태도 극단성과 같이 11점 척도로 측정된 사전 태도의 값을 중립인 중간 값을 기준으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쪽으로 값이 커질수록 척도의 값이 커지도록 변환하였다. 여기에서 사전과 사후 태도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바뀐 응답자의 경우 사전 태도 극단성 값을 음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1123명 중 이슈1과 관련하여 사전에 긍정적이었던 태도가 사후 부정적으로 변한 응답자는 39명, 사전에 부정적이었던 태도가 사후에 긍

정적으로 변한 응답자는 1명이었고, 이슈2의 경우 사전에 긍정적이었던 태도가 사후 부정적으로 변한 응답자는 12명, 사전에 부정적이었던 태도가 사후 긍정적으로 변한 응답자는 63명이었다. 이에 따라 사전 태도 극단성 값은 -5점부터 5점까지의 값을 가지며 절댓값이 커질수록 사전 태도 극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슈1의 사전 태도 극단성 평균은 2.28(*SD* = 2.16, n = 1,123)이며, 이슈2의 태도 극단성 평균은 2.39(*SD* = 2.11, n = 1,123)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쓰인 주요 변인의 구성과 측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1,123명 중 두 소셜 미디어 각각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이슈1)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이슈(이슈2)를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정치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선택적 정보 이용을 측정하기 위해 과거 태도를 기준으로 각 이슈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이용자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각각 4개의 케이스로 구분하였다. 각 케이스 별 주요 변인의 신뢰도는 <표3>과 같다.

<표3> 주요 변인의 신뢰도

	이슈1 (조국 이슈)		이슈2 (코로나19 이슈)	
	SNS1 (*n*=450)	KKO1 (*n*=500)	SNS2 (*n*=579)	KKO2 (*n*=679)
	Cronbach's α	Cronbach's α	Cronbach's α	Cronbach's α
뉴스 다양성	.80	.79	.87	.86
관용	.79	.75	.80	.77
선택적 노출	.89	.84	.85	.84
교차 노출	.86	.83	.86	.85
선택적 회피	.92	.93	.94	.95
소셜미디어 활동	.94	.92	.93	.91
온라인 정치참여	.89	.88	.89	.89

제 3절.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크게 네 개의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모형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고,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했으며, 전반적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이외에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과 태도 및 분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다중 매개효과 분석이 실시되었다. 나아가 이용자의 개인 내적 특성인 이슈 관여도와 이념 극단성, 관용과 이용자 연령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했으며, 세 가지의 선택적 정보 이용 이외에 총 정보 이용량과 교차 노출 비율과 관련 있는 예측 변인을 확인하기 위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네 가지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먼저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과 분노,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은 변인의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고, 이론적 모형에 대한 통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종속 변인이 하나인 다중 회귀분석과 달리 독립 변인이 하나 이상의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이용자 관련 변인과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 참여의 관계를 바탕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원인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 설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각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방법이 매우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구조 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인 간의 영향력을 살

펴보기 이전에 연구 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추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 포함된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즉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한 뒤에 잠재변수 간의 관계를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편 확인적요인분석에서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과 관련 있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토하였다. 타당성은 연구자의 설문 자료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설문조사를 통해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다면 개념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집중타당성이 높다는 것은 잠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관측변수(observed variable)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표준화 λ값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이하 AVE), 복합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등 세 가지 값을 확인했다(백영민, 2017; 노경섭, 2019). 복합신뢰도(CR)는 변인의 신뢰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크론바흐 알파 값과 비슷하지만 관측변수의 오차항을 고려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크론바흐 알파 값보다 더 정확하다(백영민, 2017).

다음으로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잠재변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내며(우종필, 2012, 169쪽), 판별타당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잠재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낮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판별 타당성 검증을 위해 잠재변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두 잠재변수의 각 AVE 값이 큰가에 대해 확인하였다($AVE > \phi^2$).

2. 다중 매개효과 분석(Multiple medi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과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 사이에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다양성)이라는 매개변수가 있고,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과 종속변수인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 사이에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과 분노가 매개변수로 위치해 있다. 네트워크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이외에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을 거쳐 가는 간접적인 경로와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거쳐 정치적 참여에 이르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와 같이 한 단계에서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있는 모형을 평행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이라고 한다(배병렬, 2015, 391쪽). 평행다중매개모형에서는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특정 매개변수와 관련된 각각의 간접효과(예를 들면, '네트워크 동질성→뉴스 다양성→선택적 노출' 경로와 '네트워크 동질성→의견 균형성→선택적 노출' 경로)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지만 구조방정식 모형 그대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해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경우 간접효과 경로가 2개 이상이더라도 전체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즉 '네트워크 동질성→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선택적 노출' 경로)만 제시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 매개변수에 대한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개별 매개변수에 대한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이용하여 특정 간접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알아보았다(배병렬, 2011, 451-465쪽). 팬텀변수는 관찰된 지표가 없는 가상의 변수로 '유령변수'라고도 하며, 모형 적합도나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중매개모형에서 특정 매개변수의 간접효과와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팬텀변수를 이용해 각각의 매개효과를 판단하는 이유는 만약 팬텀변수 없이 간접효과를 살펴볼 경우 부호가 서로 다른 반대 매개(opposing mediation)가 있을 때 전체 매개효과가 0으로 계산되거나 서로의 효과가 상쇄된 결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없다고 잘못 해석하거나 효과의 크기를 부정확하게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

문이다(노경섭, 2019, 373쪽). 또한 각 매개변수의 효과가 다를 경우 어떠한 간접 효과가 유의미한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정 경로의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의 다중매개효과와 태도 극단성과 분노의 다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하였고,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여, 95%의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 안에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하고, 0을 포함하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백영민, 2017; Lee, Kim & Kang, 2019).

3.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내적 특성인 이슈 관여도와 이념극단성, 관용, 연령대의 조절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조절 변수의 수준에 따라 구분한 두 개 이상의 집단 간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하고,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함으로써 조절 효과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슈 관여도와 이념극단성, 관용은 각 변인의 중위값(median)을 기준(이슈 관여도: SNS1 = 3.50, KKO1 = 3.50, SNS2 = 4.00, KKO2 = 4.00, 이념 극단성: SNS1 = 2.00, KKO1 = 2.00, SNS2 = 2.00, KKO2 = 2.00, 관용: SNS1 = 3.75, KKO1 = 3.75, SNS2 = 3.75, KKO2 = 3.75)으로 두 집단(고·저 집단)으로 구분하고, 연령대의 경우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크게 다집단 확인적요인분석(CFA)과 다집단 경로분석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다집단 경로분석에 앞서 다집단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해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을 검증하게 된다. 서로 다른 집단(이 연구에서는 조절 변수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구분한 고·저 집단과 연령대로

구분한 40대 이하 집단·50대 이상 집단) 간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측정 동일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측정 동일성 검증은 서로 다른 집단에서 잠재 잠재변수에 대한 조사 및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측정 동일성을 만족한다는 것은 두 집단이 측정 문항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측정 동일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구인 편파(construct bias)가 존재하는 것으로 두 집단의 구조방정식모형의 경로계수를 비교하는 이후 분석을 실시할 수 없다(Kline, 2005).

측정 동일성 검증은 크게 다섯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맺음 형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형태(form) 동일성 검증으로 모형적합도가 적합할 경우 형태 동일성을 만족했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는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s) 동일성 검증으로 관측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설명력이 동등한지를 확인한다(백영민, 2017). 다음으로 세 번째는 공분산(covariances)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며, 네 번째는 요인적재치 동일성과 공분산 동일성을 동시에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요인적재치와 공분산, 오차분산(error variances) 동일성을 동시에 검증하게 된다. 다섯 단계의 측정 동일성 검증은 순서대로 앞선 동일성이 만족되어야 이후 동일성 검증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두 번째 단계인 요인적재치 동일성을 만족하면 다집단 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우종필, 2012; 허준, 2013).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치를 비롯한 모든 경로계수와 공분산 등에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unconstrained model)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함으로써 형태동일성을 검증(1단계)했다(백영민, 2017). 이후 두 집단의 잠재변수에서 측정변수에 이르는 요인적재치가 동일한지 살펴보기 위해 모든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한 모형과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 모형 간 x^2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고 적합도 지수 중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의 변화량이 0.1과 같거나 작은지 확인함으로써 요인적재치 동일성을 검증(2단계)했다(Kline, 2005).

측정 동일성을 검증한 이후, 각 조절변인을 기준으로 구분한 고·저 집단의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각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뒤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개별 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비제약 모형 간 x^2값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Lee, Kim & Kang, 2018).

4.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성하고 이러한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모형과 같이 서로 구분된 선택적 정보 이용이 아닌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보 이용량과 전체 정보 이용량 중 교차 정보 이용 비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추가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사람이 정보를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는지, 어떤 사람이 교차 정보를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는지를 예측하는 데 유의미한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종속변인인 총 정보 이용량 고·저 집단은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값의 합(총 정보 이용량)을 구한 뒤에 중위값(median = 6.33)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교차노출비율 고·저 집단은 총 정보 이용량을 교차 노출으로 나눈 뒤에 중위값(median = .50)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총 정보 이용량과 교차 노출 비율 고·저 집단을 구분한 뒤 연령대와 뉴스 미디어 이용,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과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 개인 내적 특성(이슈 관여도, 이념극단성, 관용) 중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을 두 가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SNS, 카카오톡)과 두 가지 이슈(조국 이슈, 코로나19 이슈)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네 가지 분석

을 케이스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즉, 이 연구는 네 개 케이스에 대한 일종의 사례 연구로, 동일한 연구 문제와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네 개의 사례(SNS1, KKO1,, SNS2, KKO2)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다중매개분석, 다집단 분석,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제 4장. 연구 결과

제 1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

본 연구의 대상은 SNS나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전국 거주 만 20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 성인 남녀 1123명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정보 수신 여부, 이슈에 대한 태도는 <표4>와 같다.

먼저 성별을 보면, 남성은 560명(49.9%), 여성은 563명(50.1%)이었고, 평균 연령은 만 43.9세(*SD*=13.73)였다. 전체 응답자 중 카카오톡과 함께 SNS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827명(73.6%)이었고, SNS를 이용하지 않고 카카오톡만 이용하는 사람은 296명(26.4%)이었다. 이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인구사회학적 속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나이와 교육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두 집단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면, 카카오톡과 SNS를 둘 다 이용하는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42.3세(*SD*=13.88), 카카오톡만 이용하는 집단의 평균 연령은 만 48.3세(*SD*=12.26)로 카카오톡만 이용하는 집단의 연령대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7.04, p<.000). 교육 수준 또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5점 척도로 측정된 교육 수준의 평균은 SNS와 카카오톡을 모두 이용하는 집단이 4.98(*SD*=0.56), 카카오톡만 이용하는 집단이 4.88(*SD*=0.63)로 카카오톡과 함께 SNS를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의 학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t=2.61, p<.01).

본 연구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SNS와 카카오톡에서 선택적 정치정보 이용을 살펴보기 위해 특정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보거나 받은 적이

<표4>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속성	이용자 구분		전체 (1123명)
		SNS, 카카오톡 이용 (827명)	카카오톡만 이용 (296명)	
성별	남성	423 (51.1)	137 (46.3)	560 (49.9)
	여성	404 (48.9)	159 (53.7)	563 (50.1)

나이	20대		197 (23.8)	30 (10.1)	227 (20.2)
	30대		192 (23.2)	37 (12.5)	229 (20.4)
	40대		137 (16.6)	77 (26.0)	214 (19.1)
	50대		150 (18.1)	76 (25.7)	226 (20.1)
	60대		151 (18.3)	76 (25.7)	227 (20.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0 (0)	2 (0.7)	2 (0.2)
	중학교 졸업		6 (0.7)	1 (0.3)	7 (0.6)
	고등학교 졸업		119 (14.4)	64 (21.6)	183 (16.3)
	대학교 재학/졸업		585 (70.7)	194 (65.5)	779 (69.4)
	대학원 재학/졸업		117 (14.1)	35 (11.8)	152 (13.5)
소득	100만원 미만		27 (3.3)	7 (2.4)	34 (3.0)
	100-200만원 미만		34 (4.1)	26 (8.8)	60 (5.3)
	200-300만원 미만		142 (17.2)	52 (17.6)	194 (17.3)
	300-400만원 미만		125 (15.1)	46 (15.5)	171 (15.2)
	400-500만원 미만		155 (18.7)	55 (18.6)	210 (18.7)
	500-600만원 미만		99 (12.0)	32 (10.8)	131 (11.7)
	600-700만원 미만		87 (10.5)	28 (9.5)	115 (10.2)
	700-800만원 미만		66 (8.0)	20 (6.8)	86 (7.7)
	800만원 이상		92 (11.1)	30 (10.1)	122 (10.9)
이슈1 수신	SNS	없음	214 (25.9)		510 (45.4)
		있음	613 (74.1)		613 (54.6)
	카카오톡	없음	335 (40.5)	147 (49.7)	482 (42.9)
		있음	492 (59.5)	149 (50.3)	641 (57.1)
이슈2 수신	SNS	없음	136 (16.4)		432 (38.5)
		있음	691 (83.6)		691 (61.5)
	카카오톡	없음	202 (24.4)	107 (36.1)	309 (27.5)
		있음	625 (75.6)	189 (63.9)	814 (72.5)
이슈1 태도	과거	부정적	300 (36.3)	103 (34.8)	403 (35.9)
		중립	242 (29.3)	71 (24.0)	313 (27.9)
		긍정적	285 (34.5)	122 (41.2)	407 (36.2)
	현재	부정적	371 (44.9)	124 (41.9)	495 (44.1)
		중립	218 (26.4)	77 (26.0)	295 (26.3)
		긍정적	238 (28.8)	95 (32.1)	333 (29.7)
이슈2 태도	과거	부정적	262 (31.7)	81 (27.4)	343 (30.5)
		중립	138 (16.7)	55 (18.6)	193 (17.2)
		긍정적	427 (51.6)	160 (54.1)	587 (52.3)
	현재	부정적	201 (24.3)	59 (19.9)	260 (23.2)
		중립	126 (15.2)	46 (15.5)	172 (15.3)
		긍정적	500 (60.5)	191 (64.5)	691 (61.5)

주. 숫자는 응답자 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집단 대비 해당 응답자의 백분율(%)을 나타냄.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이슈1)'과 관련된 정보를 SNS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613명(54.6%)이었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641명(57.1%)였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슈2)' 정보를 SNS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은 691명(61.5%),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814명(72.5%)로 이슈1에 비해 이슈2 관련 정보를 보거나 받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슈에 대한 수신 여부와 별개로 각 이슈에 대한 태도를 이슈 발생 초기와 현재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의 경우 과거 태도에 비해 현재 부정적 태도의 비율이 높고, 긍정적 태도의 비율이 낮으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의 경우 반대로 과거 태도에 비해 현재 부정적 태도의 비율이 낮고, 긍정적 태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SNS나 카카오톡에서 두 가지 이슈 중 하나라도 보거나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구성은 <표5>와 같다. SNS와 카카오톡에서 두 가지 이슈를 보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이용자 집단을 각각 별도의 케이스로 구분하였을 때, 네 케이스의 연령과 교육 수준, 소득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을 제외한 교육 수준과 소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평균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SNS에서 이슈1과 관련된 정보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케이스1: sns1)의 평균 연령은 만43.4세(*SD*=14.04)였고, 이슈2와 관련된 정보를 본 적이 있는 응답자(케이스3: sns2)의 평균 연령은 만 42.4세(*SD*=14.01)였다. 카카오톡에서 이슈1과 관련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케이스2: kko1) 평균 연령은 만 46.19세(*SD*=13.57), 이슈2와 관련된 정보를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들(케이스4: kko2)의 평균 연령은 만 43.9세(*SD*=13.87)로 이들 평균 연령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82, p<.000). 사후 검정 결과, 카카오톡에서 이슈1 관련 정보를 수신한 경우의 평균 연령이 나머지 세 경우의 평균 연령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케이스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태도 구분

변인	속성	이슈1 (조국 이슈)		이슈2 (코로나19 이슈)	
		SNS1 (n=613)	KKO1 (n=641)	SNS2 (n=691)	KKO2 (n=814)
성별	남성	319 (52.0)	344 (53.7)	353 (51.1)	415 (51.0)
	여성	294 (48.0)	297 (46.3)	338 (48.9)	399 (49.0)
나이	20대	136 (22.2)	96 (15.0)	164 (23.7)	162 (19.9)
	30대	132 (21.5)	128 (20.0)	162 (23.4)	181 (22.2)
	40대	103 (16.8)	116 (18.1)	107 (15.5)	141 (17.3)
	50대	115 (18.8)	137 (21.4)	128 (18.5)	158 (19.4)
	60대	127 (20.7)	164 (25.6)	130 (18.8)	172 (21.1)
교육 수준	초등학교 졸업	0 (0)	1 (0.2)	0 (0)	1 (0.1)
	중학교 졸업	3 (0.5)	4 (0.6)	3 (0.4)	4 (0.5)
	고등학교 졸업	87 (14.2)	107 (16.7)	105 (15.2)	122 (15.0)
	대학교 재학/졸업	425 (69.3)	428 (66.8)	482 (69.8)	569 (69.9)
	대학원 재학/졸업	98 (16.0)	101 (15.8)	101 (14.6)	118 (14.5)
소득	100만원 미만	19 (3.1)	13 (2.0)	23 (3.3)	22 (2.7)
	100-200만원 미만	23 (3.8)	26 (4.1)	29 (4.2)	38 (4.7)
	200-300만원 미만	99 (16.2)	109 (17.0)	117 (16.9)	140 (17.2)
	300-400만원 미만	93 (15.2)	101 (15.8)	102 (14.8)	131 (16.1)
	400-500만원 미만	129 (21.0)	124 (19.3)	139 (20.1)	147 (18.1)
	500-600만원 미만	70 (11.4)	80 (12.5)	78 (11.3)	99 (12.2)
	600-700만원 미만	62 (10.1)	60 (9.4)	70 (10.1)	77 (9.5)
	700-800만원 미만	49 (8.0)	52 (8.1)	59 (8.5)	73 (9.0)
	800만원 이상	69 (11.3)	76 (11.9)	74 (10.7)	87 (10.7)
과거 태도	부정적	221 (36.1)	242 (37.8)	220 (31.8)	251 (30.8)
	중립	163 (26.6)	141 (22.0)	112 (16.2)	135 (16.6)
	긍정적	229 (37.4)	258 (40.2)	359 (52.0)	428 (52.6)
현재 태도	부정적	274 (44.7)	289 (45.1)	169 (24.5)	194 (23.8)
	중립	141 (23.0)	127 (19.8)	103 (14.9)	116 (14.3)
	긍정적	198 (32.3)	225 (35.1)	419 (60.6)	504 (61.9)

주. 숫자는 응답자 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집단 대비 해당 응답자의 백분율(%)을 나타냄.

이 연구에서는 SNS와 카카오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이슈1)’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슈2)’ 관련 정보를 보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SNS와 카카오톡, 그리고 이슈에 따라 네 개의 케이스로 구분하고, 각 이슈에 대한 과거 태도를 기준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을 한 이용자를 다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 이용을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선택적 정보 이용의 기

준을 응답자의 기존 태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 태도가 ‘중립적’이었던 응답자를 제외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었던 응답자만을 각 이슈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자로 선정하였다. 과거 태도가 ‘중립적’이었던 응답자의 경우 각 이슈에 대한 정보 이용 중 무엇을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을 볼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뒤, SNS와 카카오톡에서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선택적 정보 이용 집단을 구분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대상이 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6>과 같다.

<표6> 케이스별 최종 분석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	속성	이슈1 (조국 이슈)		이슈2 (코로나19 이슈)	
		SNS1 (n=450)	KKO1 (n=500)	SNS2 (n=579)	KKO2 (n=679)
성별	남성	236 (52.4)	265 (53.0)	296 (51.1)	339 (49.9)
	여성	214 (47.6)	235 (47.0)	283 (48.9)	340 (50.1)
나이	20대	79 (17.6)	62 (12.4)	129 (22.3)	128 (18.9)
	30대	92 (20.4)	92 (18.4)	138 (23.8)	148 (21.8)
	40대	78 (17.3)	92 (18.4)	85 (14.7)	118 (17.4)
	50대	94 (20.9)	111 (22.2)	111 (19.2)	134 (19.7)
	60대	107 (23.8)	143 (28.6)	116 (20.0)	151 (22.2)
교육 수준	중학교 졸업	3 (0.7)	4 (0.8)	3 (0.5)	3 (0.4)
	고등학교 졸업	59 (13.1)	81 (16.2)	86 (14.9)	102 (15.0)
	대학교 재학/졸업	309 (68.7)	331 (66.2)	400 (69.1)	473 (69.7)
	대학원 재학/졸업	79 (17.6)	84 (16.8)	90 (15.5)	101 (14.9)
소득	100만원 미만	10 (2.2)	6 (1.2)	16 (2.8)	14 (2.1)
	100-200만원 미만	13 (2.9)	17 (3.4)	20 (3.5)	26 (3.8)
	200-300만원 미만	69 (15.3)	79 (15.8)	93 (16.1)	111 (16.3)
	300-400만원 미만	67 (14.9)	76 (15.2)	89 (15.4)	111 (16.3)
	400-500만원 미만	94 (20.9)	100 (20.0)	111 (19.2)	123 (18.1)
	500-600만원 미만	58 (12.9)	69 (13.8)	69 (11.9)	84 (12.4)
	600-700만원 미만	52 (11.6)	48 (9.6)	67 (11.6)	70 (10.3)
	700-800만원 미만	36 (8.0)	43 (8.6)	48 (8.3)	59 (8.7)
	800만원 이상	51 (11.3)	62 (12.4)	66 (11.4)	81 (11.9)

주. 숫자는 응답자 수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각 집단 대비 해당 응답자의 백분율(%)을 나타냄.

제 2절. 주요 변인의 특성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모형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인 네트워크 동질성과 네트워크 규모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네트워크 특성이 정보 다양성과 선택적 노출에 미치는 영향, 선택적 정보 이용이 이용자의 태도와 분노 정서,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정보 다양성과 이용자의 태도와 분노 정서의 매개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나이, 뉴스 미디어 이용(종이 신문, TV뉴스, 인터넷 뉴스)과 사전 태도 극단성은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7>과 같다.

응답자의 나이와 뉴스 미디어 이용, 네트워크 규모, 의견 균형성과 사전/사후 태도 극단성, 분노, 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경우 단일 항목으로 구성된 관측변수기 때문에 해당 값을 그대로 구조방정식에 투입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요인 분석 결과 모든 변인이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의 수가 최소 2개에서 최대 6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설문 항목을 그대로 각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로 투입시켰다.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왜곡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케이스 각각 분석에 투입된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으며,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모두 절댓값 2보다 작고 첨도가 절댓값 4보다 작아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7>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이슈1 (조국 이슈)				이슈2 (코로나19 이슈)			
			SNS1 (n=450)		KKO1 (n=500)		SNS2 (n=579)		KKO2 (n=679)	
	최솟값	최댓값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연령	20	69	45.15	13.80	47.44	13.36	42.91	14.07	44.40	13.92
종이신문	1	5	1.86	1.34	1.89	1.36	1.70	1.26	1.71	1.28
TV뉴스	1	5	4.22	1.16	4.23	1.09	4.05	1.23	4.08	1.19
인터넷뉴스	1	5	3.32	1.13	3.32	1.12	3.26	1.12	3.26	1.11
사전 태도	-5	5	3.14	1.87	3.25	1.81	2.87	1.99	2.87	1.98
네트워크 동질성	1	5	3.05	0.79	2.94	0.82	3.00	0.81	2.87	0.83
네트워크 규모	1.61	8.70	4.38	1.37	4.77	1.14	4.38	1.33	4.85	1.07
뉴스 다양성	1	5	3.35	0.76	3.23	0.82	3.34	0.87	3.33	0.88
의견 균형성	1	6	3.73	1.68	3.66	1.64	3.90	1.63	3.81	1.63
선택적 노출	1	5	3.37	0.90	3.42	0.84	3.31	0.88	3.31	0.88
교차 노출	1	5	2.98	0.90	2.98	0.89	2.96	0.91	2.94	0.90
선택적 회피	1	4	1.65	0.80	1.66	0.79	1.52	0.73	1.50	0.73
태도 극단성	0	5	3.30	1.62	3.35	1.64	3.11	1.56	3.14	1.55
분노	1	5	3.59	1.19	3.70	1.13	3.02	1.30	2.96	1.30
소셜미디어 활동	1	4	1.86	0.80	1.99	0.79	1.84	0.79	1.93	0.77
온라인 정치참여	1	4	1.99	0.77	2.05	0.75	1.91	0.76	1.91	0.75
오프라인 정치참여	0	5	2.54	1.83	2.73	1.82	2.64	1.84	2.67	1.85
이슈 관여도	1	5	3.30	1.04	3.44	0.99	4.11	0.91	4.18	0.84
이념 극단성	1	6	2.60	1.35	2.61	1.33	2.43	1.34	2.44	1.32
관용	1	5	3.74	0.60	3.73	0.56	3.75	0.60	3.73	0.59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각 케이스별로 통제변인과 네트워크 특성, 정보 다양성, 선택적 정보 이용, 태도 극단성 및 분노, 정치적 참여 변인과 조절변인인 심리적 특성 전부를 대상으로 영차(zero-order)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계수(r)를 구하였다(<부록1>, <부록2>, <부록3>, <부록4>).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 검증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제시함으로써 변수 간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4개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동질성은 뉴스 다양성과 정적인, 의견 균형성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네트

워크 규모는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네트워크 동질성은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네트워크 규모는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SNS2와 KKO2 케이스에서 선택적 회피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으로 구성된 정보 다양성은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뉴스 다양성은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적인 상관관계였고 의견 균형성은 선택적 노출, 선택적 회피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과 이용자의 태도와 분노 정서 간 상관관계를 보면, 선택적 노출은 태도와 분노 정서 모두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교차 노출과 선택적 회피는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케이스에서 부분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나아가 선택적 정보 이용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오프라인 정치 참여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는 세 가지 정치적 참여 활동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였는데, 특히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용자의 태도와 분노 정서 역시 정치적 참여 활동 중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절변인으로 쓰인 세 가지 심리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이슈관여도와 이념극단성, 관용은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 등 정보 다양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 세 가지 변인은 선택적 정보 이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선택적 노출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였고, 교차 노출은 이슈관여도와 관용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회피는 이슈 관여도와 이념극단성에 한하여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제3절.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검증

1. 분석 1: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1) 측정 모형의 적합도 평가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측정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집중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모형에 포함된 모든 잠재변수와 관측변수를 이용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 통계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여 모형과 자료의 불일치를 과도하게 추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도 함께 살펴보았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χ^2 검증을 이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χ^2 검증의 경우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표본 수가 많은 경우 대부분 p값이 0.05 미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 지수로 유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 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 값을 함께 검토하였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TLI*와 *CFI* 값은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Bentler, 1990), *RMSEA*의 경우 .05에서 .08 사이면 적당한 적합도라고 할 수 있다(Kline, 2005).

*TLI*와 *CFI, RMSEA*의 적합도를 함께 고려한 결과, 네 가지 케이스 모두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SNS 1 : $x^2(df=254)=751.018$, $p<.001$, $TLI=.924$, $CFI=.936$, $RMSEA=.066$, KKO1 : $x^2(df=254)=667.42$, $p<.001$, $TLI=.935$, $CFI=.945$, $RMSEA=.057$, SNS2 : $x^2(df=254)=812.569$, $p<.001$, $TLI=.935$, $CFI=.945$, $RMSEA=.062$, KKO2 : $x^2(df=254)=800.96$, $p<.001$, $TLI=.942$, $CFI=.951$, $RMSEA=.056$). 측정모형의 적합도 이외에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표준화 λ값과 *AVE*, 값 복합신뢰도 값을 확인하였다. 먼저 표준화λ 값은 확인적요인분석의 표준화 회귀 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값이 .5 이상이면 바람직하다.

AVE 값은 잠재변수의 표준회귀계수와 측정오차의 분산인 오차분산을 이용해 계산하며, 이 값이 .5 이상이면 바람직하고, 복합신뢰도는 .7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노경섭, 2019). 본 연구에서 네 개의 케이스 모두 표준화 λ값은 .6 이상이었고, *AVE* 값은 .5 이상, 복합신뢰도는 .7 이상으로 모두 기준치를 충족하여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외에 판별 타당도 검증을 위해 잠재변수의 *AVE*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판별 타당도가 확보되었다(<부록5>부터 <부록12> 참고).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와 함께 측정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으므로 경로계수를 통해 가설을 검증했다.

2) 구조 모형의 적합도 평가와 연구 문제 및 연구가설 검증

이 연구가 제안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네 케이스 모두 적절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ices)를 이용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sm4-sm5), 온라인 정치 참여(on2-on3)의 측정 오차 간 공분산(covariances)을 설정하여 수정과정을 거쳤다. 구조모형의 최종 적합도는 다양한 적합도 지수 중 상대적으로 권고되는 지수(홍세희, 2000)인 *CFI*와 *RMSEA*가 각각 기준치에 부합했다. χ^2 통계량이 유의적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으로 연구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백영민, 2017). 케이스별 구조 모형의 적합도는 <부록13>, <부록14>, <부록15>, <부록16>의 표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은 연구 문제 및 연구가설과 관련된 경로분석 결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케이스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4개의 경로분석 결과표가 있다. 여기에서는 각 케이스에 대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표에 케이스별 결과의 표준화 경로계수(β) 값과 p 값을 정리하였다(<표8>). (각 케이스 별 경로분석 결과는 <부록13>, <부록14>, <부록15>, <부록16> 참고). 네 케이스의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를 세부 경로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표8> 케이스별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경로			이슈1 (조국 이슈)				이슈2 (코로나19 이슈)			
			SNS1 (*n*=450)		KKO1 (*n*=500)		SNS2 (*n*=579)		KKO2 (*n*=679)	
			β	p	β	p	β	p	β	p
종이신문	→	뉴스다양성	.11	.055	.14	.004	.11	.018	.10	.018
TV뉴스	→	뉴스다양성	.07	.170	.23	<.001	.16	<.001	.13	.003
인터넷 뉴스	→	뉴스다양성	.11	.050	.14	.005	.06	.160	.19	<.001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17	.015	.12	.026	.16	.004	.16	<.00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11	.033	-.03	.541	.03	.469	.05	.204
종이신문	→	의견균형성	.00	.932	.02	.683	.01	.899	.03	.492
TV뉴스	→	의견균형성	-.11	.029	-.08	.073	-.02	.614	.00	.944
인터넷 뉴스	→	의견균형성	.05	.274	-.04	.391	-.04	.383	-.12	.003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26	<.001	-.03	.581	-.22	<.001	-.06	.160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5	.321	.08	.082	-.04	.316	.04	.331
나이	→	선택적노출	.24	<.001	.11	.032	.12	.007	.06	.129
종이신문	→	선택적노출	-.07	.134	-.01	.849	-.01	.908	.02	.619
TV뉴스	→	선택적노출	-.05	.236	-.08	.108	.02	.673	.00	.972
인터넷 뉴스	→	선택적노출	.04	.414	.13	.005	.09	.018	.05	.145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32	<.001	.08	.126	.22	<.001	.10	.013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1	.890	.05	.268	.04	.250	.03	.452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51	<.001	.36	<.001	.41	<.001	.49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7	.127	-.21	<.001	-.26	<.001	-.32	<.001
나이	→	교차노출	.00	.965	.03	.506	-.04	.433	-.02	.623
종이신문	→	교차노출	.02	.630	.03	.520	.05	.267	.04	.304
TV뉴스	→	교차노출	.09	.081	-.03	.510	.08	.097	.00	.926
인터넷 뉴스	→	교차노출	.09	.052	.14	.002	.15	<.001	.07	.058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16	.019	.07	.195	.05	.384	.09	.041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	.991	.09	.065	.02	.552	.04	.345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42	<.001	.44	<.001	.43	<.001	.51	<.001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13	.009	.10	.024	.04	.345	.01	.701
나이	→	선택적회피	.17	.001	.12	.017	.14	.002	.09	.044
종이신문	→	선택적회피	.12	.021	.16	<.001	.18	<.001	.17	<.001
TV뉴스	→	선택적회피	-.03	.546	-.05	.324	-.01	.901	.01	.844
인터넷 뉴스	→	선택적회피	-.03	.504	.00	.947	.03	.483	.01	.878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41	<.001	.26	<.001	.36	<.001	.16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11	.024	.00	.923	.12	.003	-.04	.284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2	.741	.19	<.001	.00	.975	.08	.070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3	.609	.08	.090	-.09	.034	-.08	.038
나이	→	태도극단성	.06	.138	.08	.015	-.02	.639	.02	.469
사전태도극단성	→	태도극단성	.59	<.001	.62	<.001	.52	<.001	.49	<.00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31	<.001	.20	<.001	.54	<.001	.41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24	<.001	-.10	.044	-.44	<.001	-.35	<.00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7	.087	-.08	.022	-.07	.047	-.01	.750
나이	→	분노	.21	<.001	.21	<.001	.01	.800	-.03	.438

선택적노출	→	분노	.31	<.001	.18	.005	-.17	.062	-.04	.604
교차노출	→	분노	-.13	.081	-.13	.058	.25	.004	.19	.007
선택적회피	→	분노	-.02	.664	-.09	.066	.14	.002	.05	.209
나이	→	소셜미디어활동	.03	.490	-.04	.371	.06	.119	-.01	.827
종이신문	→	소셜미디어활동	.09	.025	.13	.001	.07	.088	.09	.010
TV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10	.024	-.01	.782	.07	.109	.03	.333
인터넷 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5	.246	.04	.349	.01	.764	.03	.394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1	.879	.04	.259	-.09	.022	-.01	.761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12	.004	.10	.014	.10	.005	.09	.004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29	<.001	.30	<.001	.54	<.001	.47	<.001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	.921	.00	.946	-.24	.004	-.12	.054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42	<.001	.46	<.001	.36	<.001	.42	<.001
나이	→	온라인정치참여	-.07	.137	-.14	.002	-.05	.235	-.07	.059
종이신문	→	온라인정치참여	.12	.012	.12	.008	.08	.072	.10	.007
TV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7	.142	.03	.482	.07	.103	.02	.557
인터넷 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7	.147	.01	.800	.09	.023	.02	.617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1	.921	.05	.211	.00	.960	.05	.173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12	.012	.11	.013	.10	.012	.07	.062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24	.003	.26	<.001	.41	<.001	.35	<.00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6	.473	-.03	.600	-.22	.016	-.07	.319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42	<.001	.45	<.001	.38	<.001	.43	<.001
나이	→	오프라인정치참여	-.05	.329	-.08	.064	.06	.179	.02	.658
종이신문	→	오프라인정치참여	.15	<.001	.12	.006	.10	.019	.11	.003
TV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	.951	-.02	.700	.01	.848	.00	.958
인터넷 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1	.821	.01	.769	-.01	.783	-.02	.567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2	.679	-.02	.566	.00	.968	.02	.588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5	.300	.05	.217	-.03	.416	-.03	.400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3	.682	.07	.249	-.11	.247	-.06	.372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10	.192	-.05	.421	.18	.043	.15	.019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36	<.001	.42	<.001	.37	<.001	.45	<.001

주1.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인식하는 정보 다양성 및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에 뉴스 미디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 가지 뉴스 미디어(종이신문, TV뉴스, 인터넷 뉴스) 이용을 통제변인에 포함하였고, 개인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태도 및 분노, 정치적 참여 행동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응답자의 나이를 통제변인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후 태도'로 측정한 태도 극단성은 과거 태도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사전 태도 극단성을 통제변인에 투입하였다.

$^{*}p < .05$, $^{**}p < .01$, $^{***}p < .001$

(1) 네트워크 특성이 정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검증

구조모형의 세부 경로 중 네트워크 특성이 정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모든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17, p=.015, KKO1: β=.12, p=.026, SNS2: β=.16, p=.004, KKO2: β=.16, p<.001). SNS나 카카오톡 친구들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즉 정치적, 사회적 성향이 비슷할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뉴스의 다양성이 높다는 것으로,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낮을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1-1은 모든 케이스에서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동질성은 SNS1과 SNS2에 한하여 의견 균형성과 부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26, p<.001, KKO1: β=-.03, p=.581, SNS2: β=-.22, p<.000, KKO2: β=-.06, p=.160). 이로써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의견 균형성이 낮을 것으로 보았던 연구가설 1-2는 SNS1과 SNS2 케이스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네트워크 특성 중 소셜 미디어의 친구 수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규모는 SNS1 케이스에서만 뉴스 다양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11, p=.033, KKO1: β=-.03, p=.541, SNS2: β=.03, p=.469, KKO2: β=.05, p=.204). 또한 네트워크 규모는 소셜 미디어에서 보거나 받은 정보의 찬반 비율을 의미하는 의견 균형성과 네 케이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뉴스 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설정한 연구가설 1-3은 SNS1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 모두 기각되었고,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의견 균형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4는 모든 케이스에서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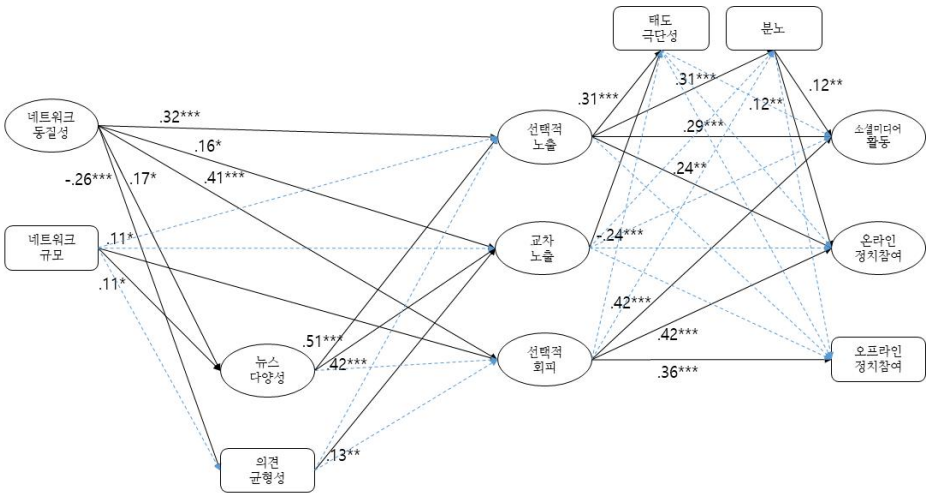
(2)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음으로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뉴스 다양성은 선택적 노출(SNS1: β=.51, p<.001, KKO1: β=.36, p<.001, SNS2: β=.41, p<.001, KKO2: β=.49, p<.001)과 교차 노출(SNS1: β=.42, p<.001, KKO1: β=.44, p<.001, SNS2: β=.43, p<.001, KKO2: β=.51,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적

회피의 경우 KKO1 케이스에 한하여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2, p=.741, KKO1: β=.19, p<.001, SNS2: β=.00, p=.975, KKO2: β=.08, p=.070).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 친구가 공유하거나 전달한 정치 정보가 다양한 언론사, 내용, 관점을 담고 있을수록, 즉 이슈에 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을수록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와 함께 일치하지 않는 정보 또한 많이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1, 2-2는 지지되었고,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3은 KKO1을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정보 다양성 중 의견 균형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를 보면, 의견 균형성은 선택적 노출에 전반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케이스1(sns1)을 제외한 나머지 세 케이스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7, p=.127, KKO1: β=-.21, p<.001, SNS2: β=-.26, p<.001, KKO2: β=-.32, p<.001). 반면 교차 노출로 이어지는 경로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SNS1: β=.13, p=.009, KKO1: β=.10, p=.024, SNS2: β=.04, p=.345, KKO2: β=.01, p=.701). 마지막으로 선택적 회피의 경우,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와 관련 있는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에 한하여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3, p=.609, KKO1: β=.08, p=.090, SNS2: β=-.09, p=.034, KKO2: β=-.08, p=.038). 이로써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4는 SNS1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케이스에 한하여 지지되었고,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5는 조국 이슈와 관련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2-6은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그림2> SNS1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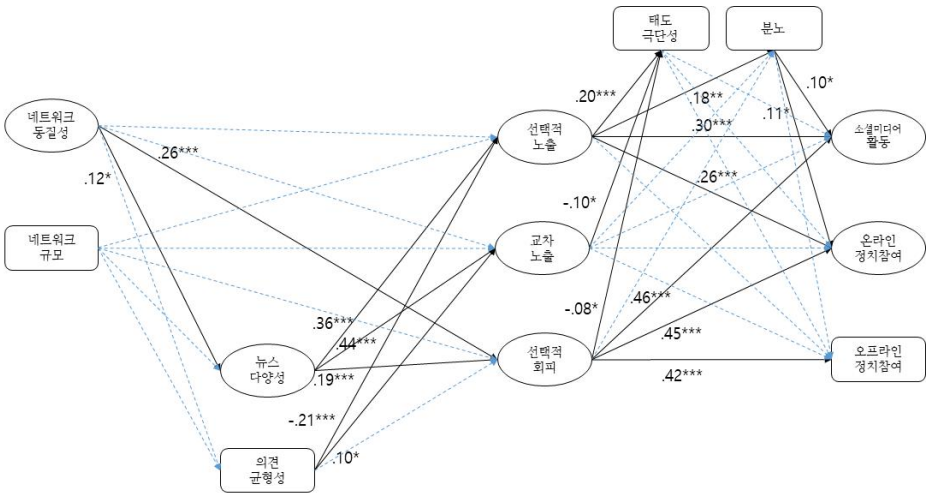


SNS 이슈1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의미함.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통제변인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x^2(df=469)=1123.318$, $p<.001$, $TLI=908$, $CFI=.927$, $RMSEA=.056$

$^{*}p < .05$, $^{**}p < .01$, $^{***}p < .001$

<그림3> KKO1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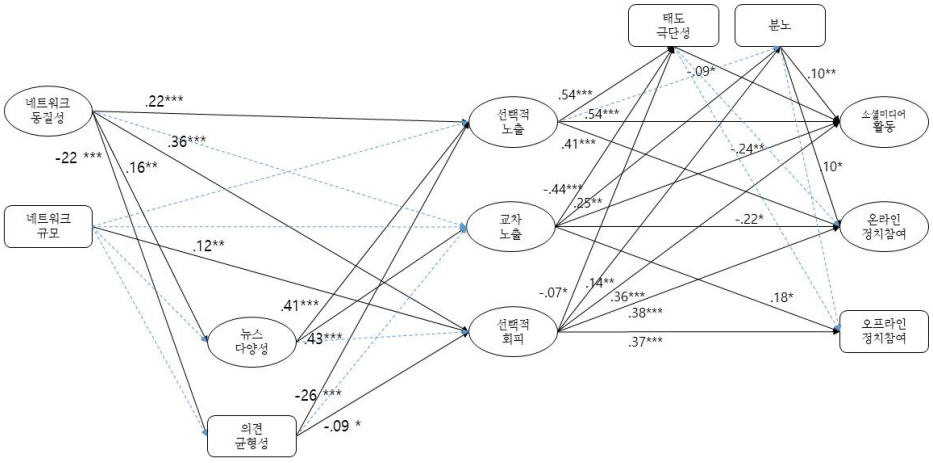


KKO 이슈1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의미함.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통제변인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x^2(df=469)=1147.248$, $p<.001$, $TLI=.903$, $CFI=.924$, $RMSEA=.054$

$^{*}p < .05$, $^{**}p < .01$, $^{***}p < .001$

<그림4> SNS2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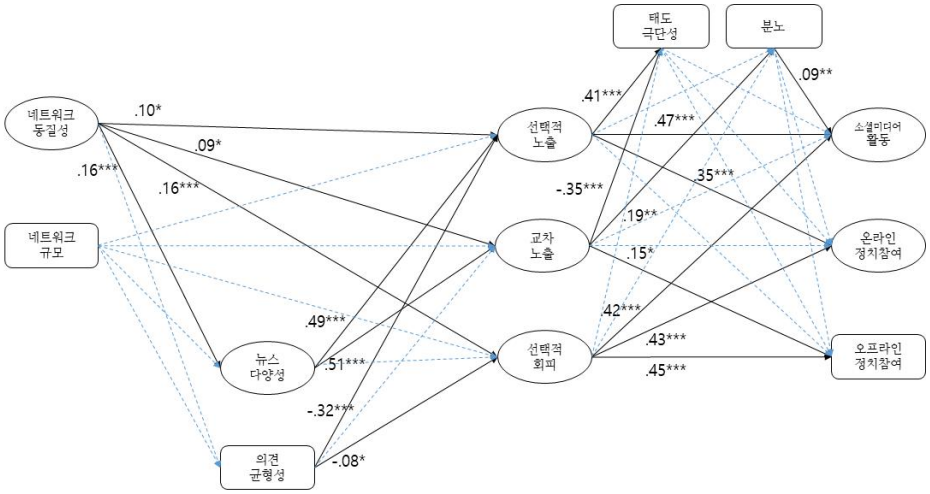


SNS 이슈2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의미함.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통제변인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x^2(df=470)=1205.489$, $p<.001$, $TLI=.919$, $CFI=.936$, $RMSEA=.052$

$^{*}p < .05$, $^{**}p < .01$, $^{***}p < .001$

<그림5> KKO2의 구조모형 분석결과



KKO 이슈2

주. 숫자는 표준화 경로계수를 의미함.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함. 통제변인은 그림에 포함하지 않음, $x^2(df=470)=1291.189$, $p<.001$, $TLI=.918$, $CFI=.935$, $RMSEA=.051$

$^{*}p < .05$, $^{**}p < .01$, $^{***}p < .001$

(3) 네트워크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음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네트워크 특성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 사이의 경로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은 소셜 미디어의 정보 환경의 특징인 뉴스 다양성이나 의견 균형성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네트워크 동질성과 네트워크 규모가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얼마나 동질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지에 따라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동질성은 선택적 노출(SNS1: β=.32, p<.001, KKO1: β=.08, p=.126, SNS2: β=.22, p<.001, KKO2: β=.10, p=.013)과 교차 노출(SNS1: β=.16, p=.019, KKO1: β=.07, p=.195, SNS2: β=.05, p=.384, KKO2: β=.09, p=.041)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선택적 회피(SNS1: β=.41, p<.001, KKO1: β=.26, p<.001, SNS2: β=.36, p<.001, KKO2: β=.16, p<.001)에는 모든 케이스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KKO1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케이스에서 지지되었고,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는 전체적으로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3은 네 개 케이스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한편 네트워크 규모가 선택적 정보 이용에 이르는 경로를 보면, 네 개 케이스 모두에서 네트워크 규모는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선택적 회피의 경우 SNS1과 SNS2의 경우에 한하여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11, p=.024, KKO1: β=.00, p=.923, SNS2: β=.12, p=.003, KKO2: β=-.04, p=.284).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4와 3-5는 전체적으로 기각되었고,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3-6은 SNS 매체에 한하여(SNS1, SNS2) 지

지되었다.

(4)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와 분노에 미치는 영향 검증

다음은 세 가지의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과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태도 극단성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모든 케이스에서 태도 극단성이 높았고(SNS1: β=.31, p<.001, KKO1: β=.20, p<.001, SNS2: β=.54, p<.001, KKO2: β=.41, p<.001),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24, p<.001, KKO1: β=-.10, p<.044, SNS2: β=-.44, p<.001, KKO2: β=-.35, p<.001). 선택적 회피의 경우,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KKO1 케이스와 SNS2 케이스에 한하여 태도 극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7, p=.087, KKO1: β=-.08, p=.022, SNS2: β=-.07, p=.047, KKO2: β=-.01, p=.750).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고,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낮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4-1과 4-2는 모든 케이스에서 지지되었고,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4-3은 전체적으로 기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회피가 선택적 노출과 같은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이라는 점에서 태도 극단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KKO1 케이스와 SNS1 케이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적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 한하여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31, p<.001, KKO1: β=.18, p=.005, SNS2: β=-.17, p=.062, KKO2: β=-.04, p=.604). 교차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된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에 한하여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13, p=.081, KKO1: β=-.13, p=.058, SNS2: β=.25, p=.004, KKO2: β=.19, p=.007). 마지막으로 선

택적 회피가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SNS에서의 코로나19 이슈에 관한 SNS2 케이스의 경우에만 선택적 회피가 분노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2, p=.664, KKO1: β=-.09, p=.066, SNS2: β=.14, p=.002, KKO2: β=.05, p=.209).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5-1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KKO1 케이스에서만 지지되었고,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가 낮을 것이라고 보았던 연구가설 5-2는 전체적으로 기각되었다.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이슈에 대한 이견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분노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5-3은 SNS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에 대한 SNS2 케이스에 한하여 지지되었다.

(5) 태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태도 극단성과 분노가 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및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태도 극단성은 SNS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에 대한 SNS2 케이스에 한하여 소셜 미디어 활동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1, p=.879, KKO1: β=.04, p=.259, SNS2: β=-.09, p=.022, KKO2: β=-.01, p=.761). 다음으로 온라인 정치 참여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이르는 경로를 보면, 네 개 케이스 모두 온라인 정치 참여(SNS1: β=.01, p=.921, KKO1: β=.05, p=.211, SNS2: β=.00, p=.960, KKO2: β=.05, p=.173)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SNS1: β=.02, p=.679, KKO1: β=-.02, p=.566, SNS2: β=.00, p=.968, KKO2: β=.02, p=.588)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6-1, 6-2, 6-3은 네 개

케이스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분노의 경우 모든 케이스에서 분노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12, p=.004, KKO1: β=.10, p=.014, SNS2: β=.10, p=.005, KKO2: β=.09, p=.004). 또한 온라인 정치 참여에 이르는 경로는 카카오톡에서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다룬 KKO2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SNS1: β=.12, p=.012, KKO1: β=.11, p=.013, SNS2: β=.10, p=.012, KKO2: β=.07, p=.062), KKO2 케이스 역시 아주 약한 수준에서(p<.1)에서 온라인 정치 참여와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경우, 모든 케이스에서 분노가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5, p=.300, KKO1: β=.05, p=.217, SNS2: β=-.03, p=.416, KKO2: β=-.03, p=.400).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노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7-1은 모든 케이스에서 지지되었고, 분노가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7-2는 KKO2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케이스에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분노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7-3은 모든 케이스에서 기각되었다.

(6)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검증

연구문제 8-1과 관련하여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가 세 가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택적 노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모든 케이스에서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29, p<.001, KKO1: β=.30, p<.001, SNS2: β=.54, p<.001, KKO2: β=.47, p<.001). 이와 유사하게, 선택적 노출은 온라인 정치 참여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모든 케이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SNS1: β=.24, p=.003, KKO1: β=.26, p<.001, SNS2: β=.41, p<.001, KKO2: β=.35, p<.001). 반면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로 역시 4개 케이스가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SNS1: β=-.03, p=.682, KKO1: β=.07, p=.249, SNS2: β=-.11, p=.247, KKO2: β=-.06, p=.372). 즉, 선택적 노출은 SNS나 카카오톡 상에서의 표현적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에는 도움이 되지만,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차 노출의 경우, 교차 노출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에 이르는 경로는 SNS에서의 코로나19 이슈와 관련 있는 SNS2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케이스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01, p=.921, KKO1: β=.00, p=.946, SNS2: β=-.24, p=.004, KKO2: β=-.12, p=.054). 교차 노출이 온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역시 SNS2 케이스에 한하여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SNS1: β=-.06, p=.473, KKO1: β=-.03, p=.600, SNS2: β=-.22, p=.016, KKO2: β=-.07, p=.319).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이슈와 관련된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에 한하여 교차 노출이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10, p=.192, KKO1: β=-.05, p=.421, SNS2: β=.18, p=.043, KKO2: β=.15, p=.019). 이러한 결과는 SNS나 카카오톡에서 자신과 견해가 다른 정보를 선택해 읽어 보는 것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적 활동이나 온라인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슈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오프라인 참여 활동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회피가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 표현, 온라인 정치 참여 및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모든 케이스에서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β=.42, p<.001, KKO1: β=.46, p<.001, SNS2: β=.36, p<.001, KKO2: β=.42, p<.001). 온라인 정치 참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이러한 결과는 네 개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SNS1: β=.42, p<.001, KKO1: β=.45, p<.001, SNS2: β=.38, p<.001, KKO2: β=.43, p<.001). 마지막

으로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이르는 경로 역시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모든 케이스에서 오프라인 정치 참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SNS1: β=.36, p<.001, KKO1: β=.42, p<.001, SNS2: β=.37, p<.001, KKO2: β=.45, p<.001). 선택적 회피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 중 가장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 유형의 정치 참여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에서 세운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의 결과는 <표9>에 간략히 정리했다.

<표9> 연구 결과의 요약

구분	연구문제/연구가설 내용	이슈 1		이슈 2	
		SNS	KKO	SNS	KKO
연구가설1-1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1-2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의견 균형성이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1-3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뉴스 다양성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1-4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의견 균형성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2-1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2-2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2-3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2-4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2-5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2-6	의견 균형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3-1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3-2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교차 노출이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3-3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3-4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노출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3-5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교차 노출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3-6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4-1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4-2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4-3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태도 극단성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5-1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5-2	교차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낮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5-3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을 것이다.	×	×	○	×
연구가설6-1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	×	×	×
연구가설6-2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	×	×	×
연구가설6-3	태도 극단성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	×	×	×

연구가설7-1	분노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을 많이 할 것이다.	○	○	○	○
연구가설7-2	분노가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	○	○	×
연구가설7-3	분노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할 것이다.	×	×	×	×
연구문제8-1	선택적 노출 → 소셜 미디어 활동	○	○	○	○
	교차 노출 → 소셜 미디어 활동	×	×	○	×
	선택적 회피 → 소셜 미디어 활동	○	○	○	○
	선택적 노출 → 온라인 정치 참여	○	○	○	○
	교차 노출 → 온라인 정치 참여	×	×	○	×
	선택적 회피 → 온라인 정치 참여	○	○	○	○
	선택적 노출 → 오프라인 정치 참여	×	×	×	×
	교차 노출 → 오프라인 정치 참여	×	×	○	○
	선택적 회피 → 오프라인 정치 참여	○	○	○	○

주. 연구가설 1-1부터 7-3에서 ○는 연구가설을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는 연구가설이 기각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연구문제 8-1부터 8-3에서 ○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의미함.

2. 분석 2: 다중 매개효과 분석 결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네트워크 특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이외에 정보 다양성을 거쳐 가는 간접적인 경로와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이외에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거쳐 정치적 참여에 이르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평행다중매개 과정에서 특정 매개변수와 관련된 개별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1000회의 부트스트래핑 검증을 실시하였고, 95%의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 안에 0을 포함하는지 여부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3-2와 3-3을 살펴보기 위한 네트워크 특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에서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의 매개효과 결과는 <표10>과 같다.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는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네트워크 특성(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규모)이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연구가설 3-1부터 3-6)과 함께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을 거쳐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간접 효과와 관련되어 있다.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네 개 케이스 모두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동질성과 선택적 노출의 관계를 뉴스 다양성이 매개했고(SNS1: 비표준화 간접효과 = .111, 95% CI = .010, .242, KKO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58, 95% CI = .007, .139, SNS2: 비표준화 간접효과 = .080, 95% CI = .020, .161, KKO2: 비표준화 간접효과 = .104, 95% CI = .041, .180), 네트워크 동질성과 교차 노출의 관계 역시 뉴스 다양성이 매개하는 것(SNS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88, 95% CI = .012, .219, KKO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72, 95% CI = .007, .175, SNS2: 비표준화 간접효과 = .087, 95% CI = .024, .183, KKO2: 비표준화 간접효과 = .108, 95% CI = .040, .185)으로 나타났다.

매체 별 정보 다양성의 간접효과를 보면, SNS는 네트워크 동질성과 선택적 정보의 관계에 의견 다양성이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만 조국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의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이 교차 노출에 이르는 과정에 의견 균형성의 부분 매개효과(비표준화 간접효과 = -.041, 95% CI = -.530, -.005)가 있었고, 코로나19 이슈와 관련 있는 SNS2 케이스에서는 네트워크 동질성과 선택적 노출 관계(비표준화 간접효과 = .069, 95% CI = .031, .130) 및 선택적 회피 관계(비표준화 간접효과 = .021, 95% CI = .005, .051)에 의견 균형성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규모와 선택적 노출의 관계(비표준화 간접효과 = .035, 95% CI = .004, .072), 네트워크 규모와 교차 노출의 관계(비표준화 간접효과 = .028, 95% CI = .004, .059)는 SNS1 케이스에 한하여 뉴스 다양성이 완전 매개효과가 있었다. 카카오톡의 경우, 이슈의 종류와 상관 없이 네트워크 동질성과 선택적 회피의 관계에 있어 뉴스 다양성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KO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30, 95% CI = .003, .078, KKO2: 비표준화 간접효과 = .014, 95% CI = .001, .034)

<표10>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매개 경로	비표준화 간접효과	S.E.	95%신뢰구간		매개효과
SNS1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선택적노출	.111	.058	.010	.242	부분매개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교차노출	.088	.058	.012	.219	부분매개
	네트워크동질성→의견균형성→교차노출	-.041	.171	-.530	-.005	부분매개
	네트워크규모→뉴스다양성→선택적노출	.035	.017	.004	.072	완전매개
	네트워크규모→뉴스다양성→교차노출	.028	.013	.004	.059	완전매개
KKO1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선택적노출	.058	.032	.007	.139	완전매개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교차노출	.072	.039	.007	.175	완전매개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선택적회피	.030	.018	.003	.078	부분매개
SNS2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선택적노출	.080	.036	.020	.161	부분매개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교차노출	.087	.039	.024	.183	완전매개
	네트워크동질성→의견균형성→선택적노출	.069	.023	.031	.130	부분매개
	네트워크동질성→의견균형성→선택적회피	.021	.012	.005	.051	부분매개
KKO2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선택적노출	.104	.036	.041	.180	부분매개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교차노출	.108	.037	.040	.185	부분매개
	네트워크동질성→뉴스다양성→선택적회피	.014	.008	.001	.034	부분매개

다음으로 연구문제 8-2와 8-3을 살펴보기 위해,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관계에서 이용자의 태도 극단성과 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표11>과 같다. 태도 극단성과 분노의 매개효과는 연구문제 8-1을 통해 살펴본 선택적 정보 이용(선택적 노출,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이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이외에 태도 극단성과 분노를 거치는 간접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다. 조국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 모두 선택적 노출과 소셜 미디어 활동의 관계(SNS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28, 95% CI = .008, .068, KKO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15, 95% CI = .002, .043)와 선택적 노출과 온라인 정치 참여의 관계(SNS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29, 95% CI = .007, .071, KKO1: 비표준화 간접효과 = .017, 95% CI = .001, .050)에서 분노의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와 관련 있는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의 경우 교차 노출과 소셜 미디어 활동의 관계에서 분노가 매개효과가 있는 것(SNS2: 비표준화 간접효과 = .021, 95% CI = .005, .062, KKO2: 비표준화 간접효과 = .013, 95% CI = .001, .037)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카카오톡의 경우(KKO2) 분노가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SNS2 케이스의 경우 교차 노출과 온라인 정치 참여의 관계, 선택적 회피와 소셜 미디어 활동 및 온라인 정치 참여의 관계에서 분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1> 태도와 분노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매개 경로	비표준화 간접효과	S.E.	95%신뢰구간		매개효과
SNS1	선택적노출→분노→소셜미디어활동	.028	.014	.008	.068	부분매개
	선택적노출→분노→온라인정치참여	.029	.016	.007	.071	부분매개
KKO1	선택적노출→분노→소셜미디어활동	.015	.009	.002	.043	부분매개
	선택적노출→분노→온라인정치참여	.017	.011	.001	.050	부분매개
SNS2	선택적노출→태도극단성→소셜미디어활동	-.040	.027	-.114	-.003	부분매개
	교차노출→태도극단성→소셜미디어활동	.032	.022	.002	.090	부분매개
	교차노출→분노→소셜미디어활동	.021	.013	.005	.062	부분매개
	교차노출→분노→온라인정치참여	.022	.015	.004	.073	부분매개
	선택적회피→분노→소셜미디어활동	.013	.006	.004	.028	부분매개
	선택적회피→분노→온라인정치참여	.014	.008	.002	.036	부분매개
KKO2	교차노출→분노→소셜미디어활동	.013	.009	.001	.037	완전매개

3. 분석 3: 다집단 분석 결과

1) 측정 동일성 검증

개인 내적 특성(이슈 관여도, 이념 극단성, 관용, 세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단 간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동일성은 서로 다른 집단 간에 잠재변수에 대한 조사 및 측정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통 다섯 단계의 측정 동일성 검증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요인적재치 동일성까지 만족할 경우 다집단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이슈 관여도, 이념 극단성, 관용과 세대 변인을 이용해 구분한 각각의 고·저 집단을 대상으로 형태동일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요인분석에서 비제약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모두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형태동

일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부록17> 참고). 이후 각 고·저 집단의 요인적재치가 동일한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과 비제약 모형 간 x^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고, CFI 값의 변화량이 0.1보다 같거나 작은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KKO1 케이스에서 관용 고·저 집단과 SNS2 케이스에서 이념극단성 고·저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 간에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부록17> 참고). 총 16개의 고·저 집단 중 2개의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집단의 측정모형 동일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로모형을 검증하고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 다집단 경로분석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 내적 특성인 이슈 관여도, 이념 극단성, 관용, 연령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세 가지 심리적 특성의 중위값(이슈 관여도: SNS1 = 3.50, KKO1 = 3.50, SNS2 = 4.00, KKO2 = 4.00, 이념 극단성: SNS1 = 2.00, KKO1 = 2.00, KKO2 = 2.00, 관용: SNS1 = 3.75, SNS2 = 3.75, KKO2 = 3.75)을 기준으로 고·저 집단으로 구분하고, 연령대를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측정모형 동일성이 검증되지 않아 제외된 2개 경우를 제외한 14개의 고·저 집단의 구조모형을 바탕으로 다집단 경로분석을 실시한 뒤 집단에 따라 경로 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치를 동일하게 제약한 기저모형과 경로모형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경로계수에 개별적으로 동일성 제약을 가한 제약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하여 특정 경로 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지 확인했다(Lee et al., 2018). 각 고·저 집단 별 구조모형의 경로 계수와 집단 간 경로 계수의 차이 비교는 <부록18>에서 <부록31>에 제시되어 있다.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 중 각 고·저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이슈 관여도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가에 대해 질문한 연구문제

9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이슈 관여도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표12>와 같다.

<표12> 이슈 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슈관여도 집단							
				저 집단				고 집단			
				B	*β*	*SE*	*p*	*B*	*β*	*SE*	*p*
SNS1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06	-.05	.11	.607	0.24	.26	.09	.008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31	.12	.25	.227	-0.98	-.40	.22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7	-.10	.05	.146	0.06	.10	.03	.073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47	.36	.15	.002	-0.01	-.01	.12	.923
KKO1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24	.20	.10	.012	-0.05	-.04	.11	.646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6	.33	.08	<.001	0.72	.60	.12	<.00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37	-.16	.12	.003	-0.05	-.03	.08	.542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4	.05	.09	.638	0.34	.37	.07	<.001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5	.55	.05	<.001	0.29	.39	.05	<.00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9	.16	.03	.007	-0.02	-.03	.04	.679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8	-.10	.10	.403	0.35	.38	.08	<.00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1	.25	.10	.044	-0.10	-.13	.06	.122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6	.53	.06	<.001	0.29	.38	.06	<.001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39	.52	.16	<.001	0.69	.32	.16	<.001
SNS2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2	-.03	.03	.599	0.07	.13	.03	.024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1	.34	.06	<.001	0.51	.50	.07	<.001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16	.16	.07	.022	0.74	.62	.15	<.001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1	.45	.05	<.001	0.17	.18	.07	.012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7	-.11	.34	.428	0.89	.41	.30	.003
KKO2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3	-.06	.02	.241	0.05	.10	.03	.082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0	.00	.02	.996	0.07	.17	.02	<.001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52	.53	.05	<.001	0.30	.30	.06	<.001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45	.52	.14	<.001	0.89	.35	.14	<.001

먼저 이슈 관여도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 관련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동질성과 교차 노출 경로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beta_{저}$=.36, p=.002; $\beta_{고}$=-.01, p=.923; $x^2_{diff}(1)$=6.556, p=.010, KKO1: $\beta_{저}$=.20, p=.012; $\beta_{고}$=-.04, p=.646; $x^2_{diff}(1)$=3.867, p=.049). 구체적으로, 이슈관여도가 낮은 집단만 네트워크 동질성이 교차 노출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집단 간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에서의 정보 이용에 관한 KKO1 케이스와 KKO2 케이스에서 선택적 회피와 온라인 정치 참여 경로에 대해 이슈 관여도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KO1: $\beta_{저}$=.53, p<.001; $\beta_{고}$=.38, p<.001; $x^2_{diff}(1)$=4.643, p=.031, KKO2: $\beta_{저}$=.53, p<.001; $\beta_{고}$=.30, p<.001; $x^2_{diff}(1)$=7.837, p=.005). 마찬가지로 선택적 회피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의 경로에서도 이슈 관여도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KO1: $\beta_{저}$=.52, p<.001; $\beta_{고}$=.32, p<.001; $x^2_{diff}(1)$=10.200, p=.001, KKO2: $\beta_{저}$=.52, p<.001; $\beta_{고}$=.35, p<.001; $x^2_{diff}(1)$=7.906, p=.005). 카카오톡에서 친구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정보 회피 행동이 온라인 정치 참여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 관계가 이슈 관여도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슈 관여도가 낮은 경우 선택적 회피가 두 가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13>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념극단성 집단							
				저 집단				고 집단			
				B	*β*	*SE*	*p*	*B*	*β*	*SE*	*p*
SNS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00	.54	.24	<.001	0.38	.22	.13	.004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1.09	-.52	.28	<.001	-0.22	-.13	.12	.077
	선택적노출	→	분노	0.85	.62	.20	<.001	0.15	.11	.14	.291
	교차노출	→	분노	-0.56	-.37	.23	.013	-0.04	-.03	.13	.789
KKO1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2	.27	.10	<.001	0.64	.59	.09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62	-.30	.19	.001	-0.03	-.01	.12	.835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2	.54	.09	<.001	0.15	.17	.07	.027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7	-.21	.08	.044	0.08	.10	.06	.182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9	.46	.10	<.001	0.10	.11	.07	.163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0	-.23	.10	.042	0.08	.10	.07	.242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27	.17	.10	.006	-0.09	-.06	.10	.326
KKO2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05	.04	.07	.470	0.33	.24	.08	<.001

다음으로 연구문제 10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이념 극단성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표13>과 같다. 이념 극단성의 경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의 교차 노출과 태도 극단성의 경로가

이념 극단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NS1: $\beta_{저}$=-.52, p<.001; $\beta_{고}$=-.13, p=.077; $x^2_{diff}(1)$=7.965, p=.005, KKO1: $\beta_{저}$=-.30, p=.001; $\beta_{고}$=-.01, p=.835; $x^2_{diff}(1)$=6.423, p=.011). 이념 극단성 고 집단의 경우 교차 노출이 태도 극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이념 극단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교차 노출이 높으면 태도 극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앞서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정파적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은 이슈에 대한 태도 극단성을 낮추는 역할을 했지만, 이념 극단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교차 노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4>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관용 집단							
				저 집단				고 집단			
				B	*β*	*SE*	*p*	*B*	*β*	*SE*	*p*
SNS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0	.00	.03	.958	0.11	.21	.04	.005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4	.34	.10	<.001	0.78	.62	.10	<.001
SNS2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29	.32	.05	<.001	0.48	.47	.07	<.001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4	.38	.06	<.001	0.53	.49	.08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3	.05	.03	.370	0.11	.21	.03	<.00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45	.71	.22	<.001	0.73	.38	.21	<.001
KKO2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6	-.07	.04	.195	0.09	.13	.04	.027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1	.02	.02	.619	0.07	.16	.02	<.00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1	-.01	.03	.791	0.07	.14	.03	.008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관용 수준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질문한 연구문제 11과 관련해,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관용의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표14>와 같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나 이슈의 종류에 따라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관용의 조절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에서 뉴스 다양성이 선택적 노출에 이르는 경로가 관용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SNS1: $\beta_{저}$=.34, p<.001; $\beta_{고}$=.62, p<.001; $x^2_{diff}(1)$=6.596, p=.010, SNS2: $\beta_{저}$=.32, p<.001; $\beta_{고}$=.47, p<.001; $x^2_{diff}(1)$=5.126, p=024).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선택해 읽게 되는데, 관용 수준이 높을수록 이러한 영향이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12와 관련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세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로는 <표 15>와 같다. 40대 이하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로 구분한 다집단 경로분석 결과를 보면, 조국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서 선택적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SNS1: $\beta_{저}$=.56, p<.001; $\beta_{고}$=.19, p=.054; $x^2_{diff}(1)$=4.644, p=.031, KKO1: $\beta_{저}$=.41, p<.001; $\beta_{고}$=.06, p=.494; $x^2_{diff}(1)$=6.710, p=.010)과 교차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SNS1: $\beta_{저}$=-.42, p=.002; $\beta_{고}$=.03, p=.760; $x^2_{diff}(1)$=7.375, p=.007, KKO1: $\beta_{저}$=-.35, p=.002; $\beta_{고}$=-.01, p=.920; $x^2_{diff}(1)$=5.501, p=.019)이 40대 이하 세대에 한하여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정파적 이슈에 대한 선택적 노출과 분노의 관계에 연령대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앞서 선행연구 검토에서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감정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것과 반대 결과로, 40대 이하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50대 이상 연령층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와 비교해 소셜 미디어 정보에 의해 이슈에 대한 분노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구분한 연령대의 조절 효과는 SNS에서의 선택적 회피와 소셜 미디어 활동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SNS1: $\beta_{저}$=.50, p<.001; $\beta_{고}$=.31, p<.001; $x^2_{diff}(1)$=5.483, p=.019, SNS2: $\beta_{저}$=.44, p<.001; $\beta_{고}$=.24, p<.001; $x^2_{diff}(1)$=6.281, p=.012).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 모두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이 높았는데, 이러한 영향 관계는 연령대로 구분한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40대 이하 집단에서 SNS에서 친구 관계를 끊는 선택적 회피와 소셜 미디어 활동의 정적인 관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집단의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세대 구분							
				40대 이하				50대 이상			
				B	*β*	*SE*	*p*	*B*	*β*	*SE*	*p*
SNS1	선택적노출	→	분노	0.75	.56	.18	<.001	0.27	.19	.14	.054
	교차노출	→	분노	-0.59	-.42	.19	.002	0.04	.03	.13	.760
	선택적회피	→	분노	0.17	.10	.11	.119	-0.22	-.14	.11	.057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094	0.04	.10	.03	.125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5	.50	.05	<.001	0.27	.31	.06	<.001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4	-.08	.03	.207	0.05	.12	.03	.091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8	-.06	.07	.295	0.18	.14	.08	.036
KKO1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9	.09	.08	.226	0.36	.33	.09	<.001
	선택적노출	→	분노	0.61	.41	.16	<.001	0.08	.06	.12	.494
	교차노출	→	분노	-0.49	-.35	.16	.002	-0.01	-.01	.12	.920
SNS2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42	-.17	.16	.011	-1.06	-.40	.27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5	-.30	.03	<.001	-0.06	-.14	.03	.043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2	-.04	.03	.499	0.08	.17	.04	.022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28	.29	.07	<.001	0.59	.53	.13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1.15	-.61	.24	<.001	-0.50	-.26	.17	.003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1	.44	.05	<.001	0.21	.24	.06	<.001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8	.43	.06	<.001	0.26	.27	.07	<.001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10	.07	.077	0.14	.12	.08	.077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40	.17	.35	.250	-0.65	-.26	.30	.027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1	-.09	.34	.550	0.73	.30	.26	.004
KKO2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7	.65	.07	<.001	0.18	.23	.07	.010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9	-.27	.07	.005	0.03	.04	.07	.636

4. 분석 4: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변인을 이용하여 총 정보 이용량 변인을 구성하고, 네트워크 특성과 정보 다양성, 개인 내적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 이용량 고·저 집단을 예측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총 정보 이용량을 교차 노출 값으로 나누어 총 정보 이용량 중 교차 정보 이용량의 비율을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교차정보 추구 고·저 집단을 구분하여 이들을 예측하는 변인이 무엇인지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16> 총 정보 이용량 저 집단 기준 고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총 정보 이용량 저 집단 기준 고 집단 예측																			
	SNS1 (저집단 n=242, 고집단 n=208)					KKO1 (저집단 n=264, 고집단 n=236)					SNS2 (저집단 n=315, 고집단 n=264)					KKO2 (저집단 n=332, 고집단 n=347)				
독립변인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연령대	0.01	0.08	0.01	.932	1.007	-0.03	0.08	0.10	.749	0.974	-0.06	0.08	0.69	.405	0.939	-0.05	0.07	0.45	.502	0.955
종이신문	0.00	0.08	0.00	.959	0.996	-0.05	0.08	0.40	.527	0.951	0.08	0.08	0.86	.354	1.080	0.08	0.07	1.33	.248	1.088
TV뉴스	0.11	0.10	1.21	.271	1.115	0.05	0.10	0.19	.663	1.046	0.10	0.09	1.40	.237	1.109	0.02	0.08	0.05	.832	1.018
인터넷 뉴스	0.03	0.09	0.12	.729	1.033	0.24	0.09	6.58	.010	1.274	0.17	0.09	3.77	.052	1.189	0.19	0.08	5.26	.022	1.207
네트워크 동질성	0.52	0.15	12.62	.000	1.687	0.16	0.13	1.46	.226	1.174	0.41	0.13	10.33	.001	1.512	0.15	0.11	1.79	.181	1.162
네트워크 규모	0.09	0.08	1.33	.249	1.097	0.12	0.09	1.56	.212	1.125	0.07	0.08	0.91	.339	1.075	-0.03	0.09	0.15	.696	0.967
뉴스 다양성	0.70	0.16	19.91	.000	2.023	0.88	0.15	34.46	.000	2.402	0.87	0.14	39.73	.000	2.384	0.85	0.12	51.22	.000	2.331
의견 균형성	0.01	0.07	0.02	.893	1.009	0.01	0.07	0.02	.876	1.010	-0.13	0.06	4.31	.038	0.875	-0.19	0.06	10.45	.001	0.830
이슈 관여도	0.23	0.11	4.25	.039	1.260	0.28	0.11	6.23	.013	1.318	0.34	0.13	6.84	.009	1.398	0.31	0.12	6.85	.009	1.364
이념 극단성	0.03	0.08	0.12	.729	1.029	0.34	0.08	16.70	.000	1.399	0.04	0.08	0.31	.578	1.044	0.00	0.07	0.00	.946	0.995
관용	0.41	0.19	4.52	.034	1.502	0.53	0.20	7.15	.008	1.702	0.62	0.18	11.80	.001	1.859	0.38	0.16	5.40	.020	1.457
	x^2=78.717*** Nagelkerke R^2=.214					x^2=116.788*** Nagelkerke R^2=.278					x^2=149.689*** Nagelkerke R^2=.305					x^2=157.238*** Nagelkerke R^2=.276				

<표17> 교차정보 추구 저 집단 기준 고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교차정보 추구 저 집단 기준 고 집단 예측																			
	SNS1 (저집단 n=200, 고집단 n=250)					KKO1 (저집단 n=249, 고집단 n=251)					SNS2 (저집단 n=245, 고집단 n=334)					KKO2 (저집단 n=289, 고집단 n=390)				
독립변인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B*	*S.E.*	*Wald*	*p*	Exp(B)
연령대	-0.22	0.08	7.46	.006	0.801	-0.03	0.08	0.13	.717	0.973	-0.21	0.07	8.44	.004	0.810	-0.07	0.07	1.07	.301	0.935
종이신문	0.04	0.08	0.22	.640	1.038	0.07	0.07	0.92	.336	1.073	0.02	0.08	0.06	.811	1.019	0.01	0.07	0.01	.929	1.006
TV뉴스	0.21	0.10	4.50	.034	1.228	-0.10	0.10	1.04	.309	0.907	0.19	0.08	5.05	.025	1.207	-0.05	0.08	0.50	.479	0.947
인터넷 뉴스	0.02	0.09	0.04	.834	1.020	0.08	0.09	0.76	.385	1.080	0.07	0.08	0.73	.394	1.075	-0.02	0.08	0.08	.775	0.978
네트워크 동질성	0.01	0.14	0.01	.936	1.011	0.08	0.12	0.47	.493	1.088	-0.34	0.12	7.99	.005	0.712	-0.09	0.10	0.68	.410	0.918
네트워크 규모	0.06	0.08	0.64	.422	1.064	0.08	0.09	0.96	.328	1.088	0.04	0.07	0.26	.607	1.037	0.11	0.08	1.98	.159	1.120
뉴스 다양성	-0.07	0.15	0.20	.655	0.937	0.16	0.13	1.62	.203	1.176	-0.04	0.11	0.12	.728	0.961	0.17	0.10	2.88	.089	1.189
의견 균형성	0.20	0.06	9.88	.002	1.226	0.16	0.06	6.96	.008	1.173	0.29	0.06	23.24	.000	1.339	0.30	0.06	29.04	.000	1.347
이슈 관여도	-0.39	0.11	12.73	.000	0.675	-0.46	0.11	18.88	.000	0.631	-0.16	0.12	1.89	.169	0.853	-0.31	0.11	7.49	.006	0.732
이념 극단성	-0.06	0.08	0.68	.410	0.937	-0.08	0.07	1.10	.295	0.925	-0.11	0.07	2.36	.125	0.897	-0.07	0.07	1.05	.306	0.935
관용	0.03	0.18	0.04	.848	1.035	0.07	0.18	0.16	.692	1.073	0.07	0.16	0.19	.660	1.073	-0.03	0.15	0.05	.827	0.967
	x^2=53.194*** Nagelkerke R^2=.149					x^2=44.884*** Nagelkerke R^2=.114					x^2=70.094*** Nagelkerke R^2=.153					x^2=67.456*** Nagelkerke R^2=.127				

두 가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16>, <표17>과 같다. 먼저 총 정보 이용량 저 집단 대비 고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이슈와 매체에 따라 저 이용량 집단과 고 이용량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동질성은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에 한하여 유의미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동질성이 1 단위 증가하면 저 이용량 집단 대비 고 이용량 집단일 확률이 각각 68.7%와 5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면, 네 케이스 모두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SNS와 카카오톡에서 더 많은 정보를 선택해 읽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견 균형성의 경우 코로나19 이슈 관련 케이스인 SNS2와 KKO2 케이스에 한하여 의견 균형성이 1 단위 커지면 이용량이 높은 집단일 확률이 각각 12.5%, 17%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내적 특성 중 이슈 관여도는 뉴스 다양성과 같이 고 이용량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네 개 케이스 모두 이슈에 대한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체적으로 이슈 관여도가 1 단위 커지면 고 이용량 집단일 확률이 SNS1 케이스는 26%, KKO1 케이스는 31.8%, SNS2 케이스는 39.8%, KKO2 케이스는 36.4%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이념 극단성의 경우 카카오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KKO1 케이스에 한하여 고 이용량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KKO1 케이스에서 이념 극단성이 1 단위 커지면 고 이용량 집단일 확률이 39.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용은 네 케이스 모두 고 이용량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관용이 1 단위 커지면 고 이용량 집단에 속할 확률이 SNS1 케이스는 50.2%, KKO2 케이스는 70.2%, SNS2 케이스는 85.9%, KKO2 케이스는 45.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뉴스 다양성과 이슈 관여도, 관용은 공통적으로 고 이용량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비정파적 이슈이자 공중보건 이슈인 코로나19 이슈의 경우 의견 균형성이 정보 이용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차이를 보면, SNS1과 SNS2 케이스의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이 총 정보 이용량 저 집단 대비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지만, KKO1과 KKO2 케이스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제변인 중 인터넷 뉴스 이용 정도가 오히려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카카오톡의 경우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정도에 있어 카카오톡에서 형성된 네트워크, 즉 카카오톡 친구들 자체가 정보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총 정보 이용량(선택적 노출+교차 노출) 중 교차 노출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한 교차정보 추구 저 집단 대비 고 집단 예측을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동질성은 SNS2 케이스에 한하여 교차 정보 추구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SNS2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동질성이 1 단위 높아지면 교차정보 추구 고 집단일 확률이 28.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다양성 중에서는 의견 균형성이 전반적으로 교차정보 추구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고, 이슈 관여도는 SNS2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 이슈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교차정보를 추구하는 집단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응답자의 연령과 TV 뉴스 이용이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에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 이용자 중 젊은 연령대일수록, 그리고 TV 뉴스와 같이 인터넷 이외의 뉴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SNS에서 더 많은 교차노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교차정보 추구 저 집단 기준 고 집단을 예측하는 변인이 의견 균형성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정보 다양성(뉴스 다양성, 의견 균형성)이 교차 노출에 미치는 영향은 네 케이스 모두 뉴스 다양성이었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읽어 본 경험으로 측정한 교차 노출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얼마나 다양한 내용, 출처, 관점의 정보를 접하느냐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면, 소셜 미디어에서 읽어 본 정보의 총 이용량 중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

지 않는 정보의 비율이 절반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 교차정보 추구에 있어서는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비율, 즉 의견 균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4절. 주요 결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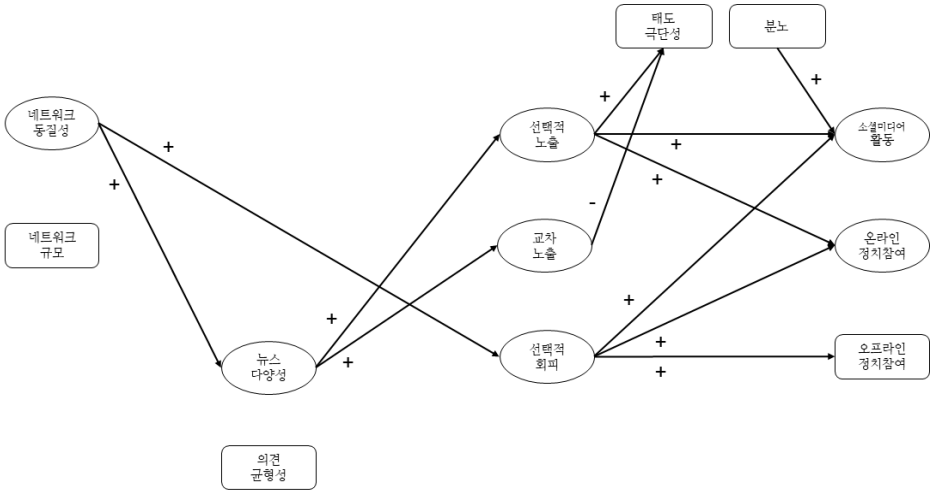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네 개 케이스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다중 매개효과 분석, 다집단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결과와 매체나 이슈에 따라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케이스 간 공통 결과와 매체 및 이슈 간 공통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다중 매개효과 분석과 다집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케이스 간 공통 결과

먼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 케이스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했던 결과를 제외하고,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경로를 정리하면 <그림6>과 같다. 네트워크 특성이 뉴스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네트워크 동질성만이 뉴스 다양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을 통해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낮을 것으로 가정했지만, 이와 달리 소셜 미디어 이용자 본인과 SNS나 카카오톡 친구들이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비슷할수록 SNS 뉴스피드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마주칠 수 있는 뉴스가 내용적인 면에서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네트워크 규모는 뉴스 다양성 및 의견 균형성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이르는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케이스에서 모두 뉴스 다양성이 높을수록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 뉴스피드나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 '다양한 내용의 뉴스', '관점이 다른 뉴스'를 접할수록, 즉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자신의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많이 읽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견해를 많이 읽는 것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뉴스 다양성은 총 정보 이용량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노출에 뉴스 다양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뉴스 다양성이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케이스(KKO1)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환경의 내용적 다양성이 이견을 공유하는 친구를 차단하는 회피적 이용과 일반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6> 구조모형 분석 결과 종합



전체

주. 실선은 4개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의미함.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동질성은 네 케이스 모두 선택적 회피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나 카카오톡 친구들이 자신과 정치적·사회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이견을 공유하는 친구를 차단해본 경험이 많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에서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개인이 이견에 대해서도 좀 더 폐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견해와 다른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친구를 차단함으로써 더욱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규모는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수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과 같은 선택적 정보 노출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선택적 정보 이용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의 크기보다는 '누구와 교류하는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과 분노,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선택적 노출은 태도 극단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차 노출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기존 견해와 같은 정보를 읽는 것이 본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고, 이견에 대한 노출이 양가성을 증가시켜 기존 태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태도 극단성과 분노가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공통적으로 분노만이 소셜 미디어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태도가 얼마나 강화되었느냐보다는 이슈 자체에 대해 화가 나는 감정이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참여적 행동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의 경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선택적 노출은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표현 및 온라인 정치 참여와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정보를 선택해 읽는 것은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돕

지만 실제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교차 노출은 모든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로가 없었고, 선택적 회피의 경우 세 가지 정치적 참여 행동(소셜 미디어 활동,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가장 편향적이고 강력한 선택적 정보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적 회피가 정치적 참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 이슈 별 공통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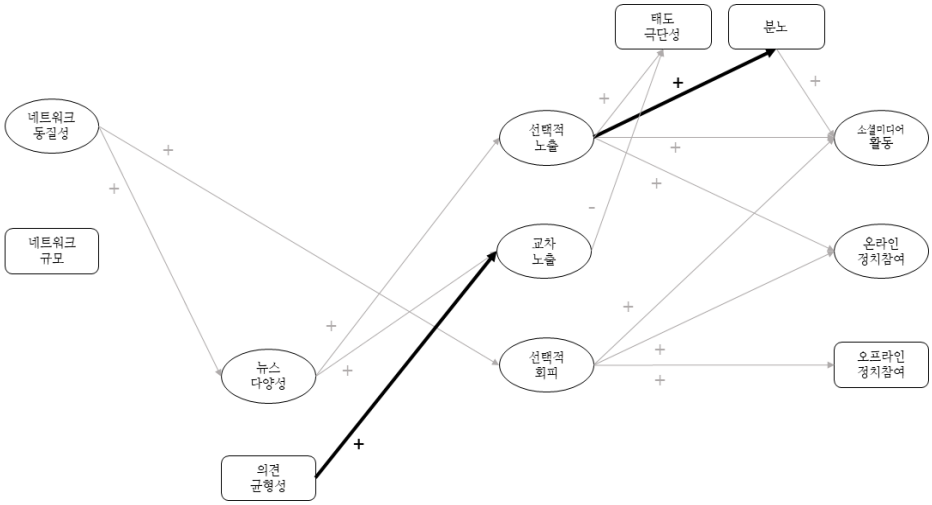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중 네 개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네 가지 케이스의 공통적인 결과 이외에 동일한 이슈와 관련된 케이스에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두 가지 이슈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된 케이스에서만 나타나는 유의미한 결과는 <그림7>과 같다. 해당 그림에서 얇은 실선은 앞서 <그림6>에서 살펴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경로이고, 굵은 실선은 이슈1과 관련된 케이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특성이 정보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다양성 중 뉴스 다양성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미치는 영향은 두 이슈가 공통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 다양성 중 의견 균형성이 교차 노출에 미치는 영향은 이슈1과 관련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나 카카오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접했을 경우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정보라 하더라도 선택해 읽어 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과 태도 사이의 경로에서 조국 이슈와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선택적 정보 이용 중 선택적 노출과 분노 사이의 유의미한 경로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택적 노출이 높을수록 분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광 임명' 이슈의 경우 임명 여부에 대해 자신

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읽어보게 될수록 이슈 자체에 대한 분노 감정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7> 이슈1 관련 케이스(SNS1, KKO1) 구조모형 분석 결과 종합



이슈1 공통점

주. 연한 실선은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짙은 실선은 이슈1 관련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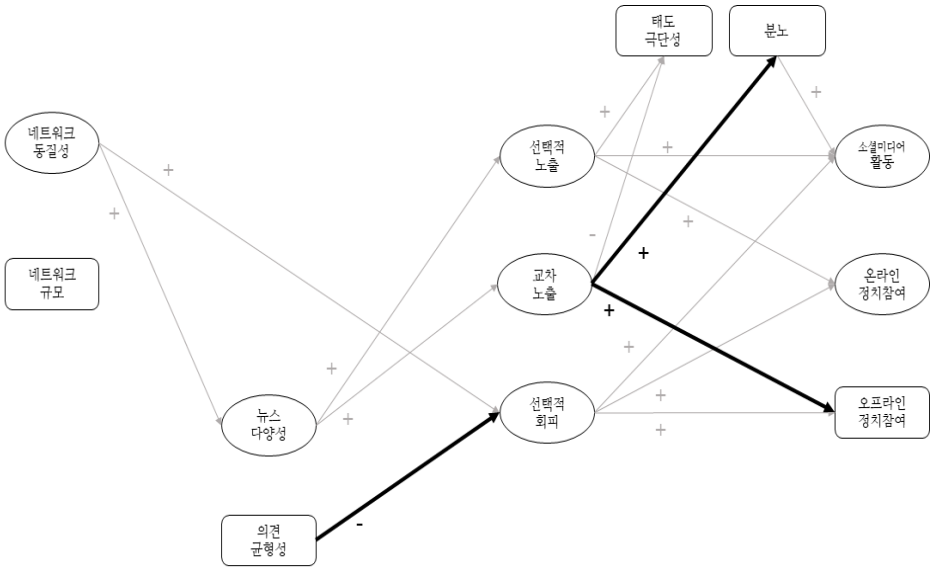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슈1과 관련된 케이스에서 발견되는 유의미한 경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된 케이스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경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8>에서 연한 색의 실선은 앞서 살펴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중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경로(<그림6>의 굵은 선)이고, 굵은 실선은 이슈2와 관련된 케이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경로이다.

먼저 정보 다양성 중 의견 균형성이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찬반 의견을 접할수록 선택적 회피가 낮아진다는 점은 SNS나 카카오톡에서 한쪽 입장의 정보만을 받게 될 때 그러한 불균형한 정보 환경이 친구 차단과 같은 적극적은 회피 행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슈2와 관련된 케이스에 한하여 의견 균형성이 높으면 총 정보 이용량이 낮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관련 정보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슷할수록 총 정보 이용량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와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는데,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이슈2 관련 케이스인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는 의견 균형성이 선택적 노출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교차 노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이슈2 관련 케이스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정보의 의견 균형성이 높으면 선택적 노출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 정보 이용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8> 이슈2 관련 케이스(SNS2, KKO2) 구조모형 분석 결과 종합



이슈2 공통점

주. 연한 실선은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짙은 실선은 이슈2 관련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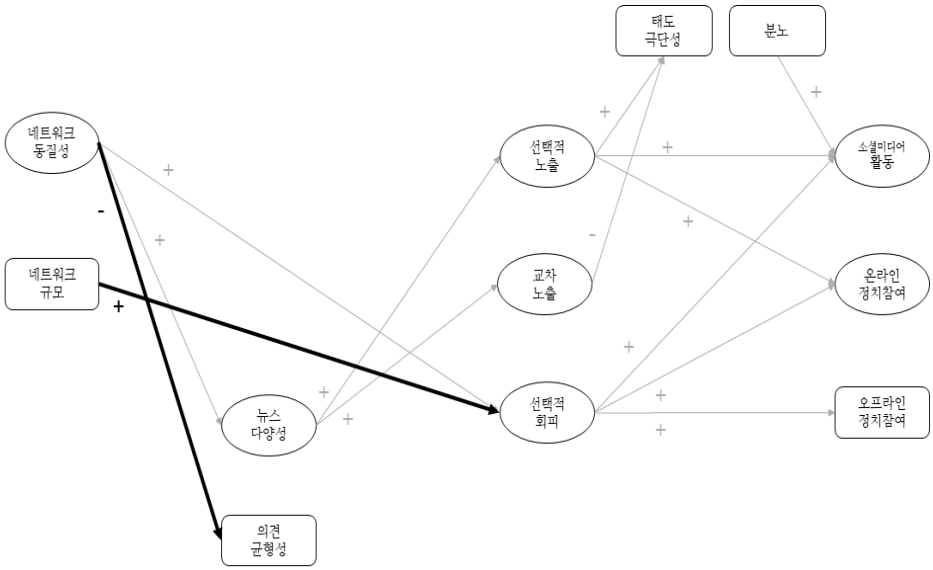
다음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과 태도 사이의 경로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케이스의 경우 교차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조국 이슈의 경우 선택적 노출이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코로나19 이슈의 경우 자신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가 이슈에 대한 분노 정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슈가 개인의 건강과 삶에 직결된 이슈라는 점에서 교차 노출을 통한 정보 접촉이 이슈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을 접하게 하고, 이것이 분노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 자체가 이견을 접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견을 수용할 수 있는 이슈라기보다는 실용적 정보와 사실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 교차 노출이 이처럼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슈에서 교차 노출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감염병이 발병하면 일반인들이 미디어를 통해 더 다양한 정보를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정보 이용이 감염 예방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소셜미디어에서도 교차 노출을 통해 기존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정보를 접하는 것과 같은 폭 넓은 정보 이용이 오프라인 참여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매체 간 공통 결과

다음으로 매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SNS 관련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9>와 같다. SNS 관련 케이스에서는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특성이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SNS 친구들과 정치적·사회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낄수록 조국 이슈와 코로나19 이슈 모두 찬성과 반대 의견 중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뉴스피드에서 볼 수 있었고, SNS에서 더 많은 수의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이견을 공유하는 친구 관계를 더 많이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네트워크 동질성은 SNS 관련 케이스에 한하여 총 정보 이용량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SNS 친구들과 정치적·사회적 동질성이 높은 경우 이들과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양의 정보 이용을 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구조방정식 분석에서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는 네트워크 동질성이 선택적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SNS에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선택적 노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이 전체 정보 이용량에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9> SNS 관련 케이스(SNS1, SNS2) 구조모형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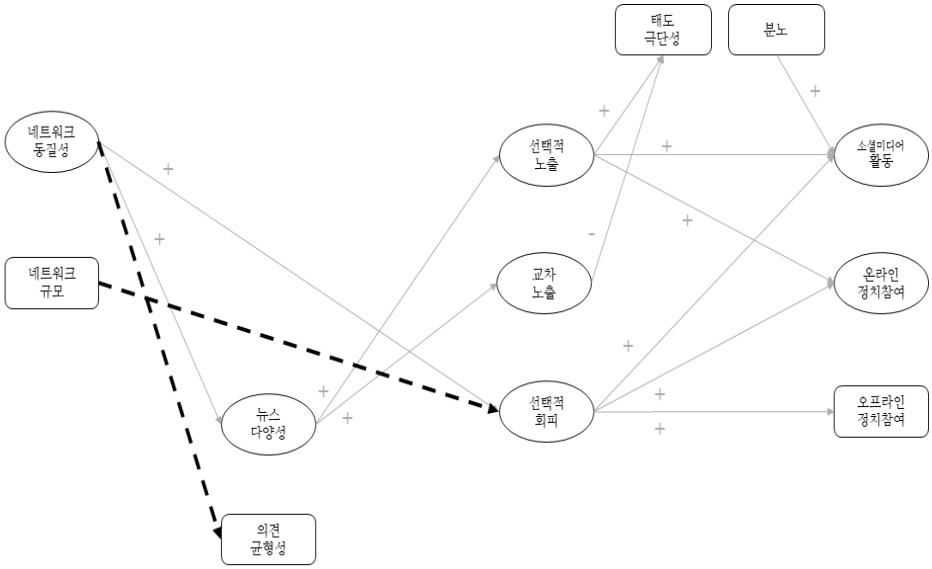
매체1(SNS) 공통점

주. 연한 실선은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짙은 실선은 매체1(SNS) 관련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의미함.

반면 카카오톡 관련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림10>과 같이 네트워크 동질성이 의견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네트워크 규모가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 관련 케이스에

서만 네트워크 특성의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카오톡과 SNS의 정보 교환 구조가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규모나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동질성과 상관없이 부분적이고 한정된 친구로부터 개별 채팅방을 통해 정치 정보를 전달 받는 것이 가능한 반면 SNS에서는 뉴스피드에서 마주치는 정보가 SNS 친구들과 전체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큭 동질성과 네트워크 규모가 의견 균형성 및 선택적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0> KKO 관련 케이스(KKO1, KKO2) 구조모형 분석 결과



매체2(카카오톡) 공통점

주. 연한 실선은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를, 짙은 점선은 매체 2(KKO) 관련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4. 케이스 별 매개효과 특징

전체 연구모형에서 정보 다양성과 태도 및 분노 극단성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동질성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이르는 경로를 뉴스 다양성이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과 정치적·사회적 성향이 비슷한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전달 받는 것이 자신의 기존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와 불일치하는 정보 모두를 선택해 읽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동질성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뉴스 다양성이 강화요인으로 역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뉴스 다양성의 매개효과 결과 중 카카오톡에서 조국 이슈 정보 이용과 관련된 KKO1 케이스의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과 선택적 노출 경로 및 네트워크 동질성과 교차 노출 경로를 뉴스 다양성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정보를 이용할 때, 카카오톡 친구들이 자신과 정치적·사회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하지는 않지만,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이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공유할 경우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자신과 정치적·사회적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카카오톡 친구로 두는 것 자체는 정파적 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그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전달받는 것은 정파적 정보 이용에 있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8>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

	매개 경로			SNS1	KKO1	SNS2	KKO2
공통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O	O	O	O
			→ 교차노출	O	O	O	O
SNS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O			
			→ 교차노출	O			
매체1 (SNS)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O			
			→ 선택적노출			O	
			→ 선택적회피			O	
매체2 (KKO)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O		O

다음으로 정보 다양성 중 의견 균형성의 매개효과는 SNS1과 SNS2의 경우에만 유의미했다. 다만 이슈에 따른 차이점이 있었는데, 조국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의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교차 노출'의 경로를, 코로나19 이슈와 관련 있는 SNS2 케이스의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선택적 노출' 경로와 '네트워크 동질성→선택적 회피' 경로를 의견 균형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에서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사회적 성향의 친구로부터 이슈에 대한 찬반 입장 중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많이 받게 될 경우 정파적 이슈에 대한 이견 노출이 감소하고, 코로나19 이슈와 같은 공중보건 이슈에 대한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SNS1 케이스와 같은 경우 네트워크 동질성은 교차 노출에 직접적으로는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의견 균형성을 매개할 경우 교차 노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SNS에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이들과의 유대감을 바탕으로 정파적 정보에 대한 교차 노출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자신과 비슷한 SNS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SNS 뉴스피드에서 볼 수 있는 정파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의 의견 균형성을 낮추고 이것이 교차 노출을 적게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다양성의 매개효과 중 SNS1 케이스에서만 나타난 매개효과는 다음과 같다. 네 개 케이스 중 네트워크 규모가 선택적 노출에 이르는 경로와 네트워크 규모가 교차 노출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서 뉴스 다양성의 매개효과가 SNS1 케이스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조국 이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때, SNS 친구의 수는 직접적으로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많은 수의 친구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받을 경우 (뉴스 다양성을 매개하여)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는가 보다는 그들로부터 얼마나 다양한 정보를 받는가가 활발한 정보 이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노의 매개효과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슈에 따른 공통점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SNS1케이스와 KKO1 케이스의 경우 분노가 '선택적 노출→소셜 미디어 활동' 경로와 '선택적 노출→온라인 정치 참여' 경로를 부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파적 이슈와 관련된 정보 이용 중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선택해 읽어보는 것이 부정적 정서인 분노를 매개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조국 이슈와 관련된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 활동의 기저에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과 그로 인한 분노 감정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이슈에서는 '교차 노출→소셜 미디어 활동' 경로를 분노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파적 주제이면서 공중 보건, 혹은 건강 관련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을 통한 이견 접촉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와 같은 참여적 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19> 분노의 매개효과

	매개 경로			SNS1	KKO1	SNS2	KKO2
이슈1	선택적노출	→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O	O		
			→ 온라인정치참여	O	O		
이슈2	교차노출	→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O	O

5. 개인 내적 특성과 연령의 역할

먼저 이슈 관여도에 대해 살펴보면, 이슈 관여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서 네트워크 동질성과 교차 노출 경로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케이스에서 이슈 관여도가 낮은 집단만 네트워크 동질성이 교차 노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했는데, 이는 이슈 관여도가 낮은 경우에 한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주제와 관련된 이견을 접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의 경우 이슈 관여도가 높을수록 교차 정보 추구 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연결된다. 두 분석 결과를 통해 조국 이슈에 대한 이슈 관여도가 낮은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오히려 교차 노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이슈 관여도 저 집단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동질성이 교차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슈 관여도가 낮을수록 교차 노출이 높다는 결과는 조국 이슈의 경우 이슈 관여도가 높으면 이슈에 대한 기존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견 노출을 덜 하게 되고, 이슈 관여도가 낮은 사람들은 이슈에 대해 보다 열린 태도로 교차 노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슈 관여도는 카카오톡에서 선택적 회피가 온라인 정치 참여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에서의 정치 정보 이용 과정에서 선택적 회피가 높을수록 온라인 정치 참여와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택적 회피의 영향은 이슈 관여도 저 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소셜 미디어의 정보 이용 과정 중 가장 편향적인 이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슈 관여도가 낮은 집단의 경우 이러한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정보 이용 경험이 보다 적극적인 정치 참여 행동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념 극단성은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조국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서 이념 극단성이 낮은 집단에서 교차 노출이 태도 극단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념 극단성이 높은 경우 기존 태도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견 노출의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이념 극단성은 이들 케이스에서 총 정보 이용량 집단과 교차정보 추구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기존의 선택적 노출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개인의 특성 중 하나가 이념 극단성이었는데, 정파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교차 노출→태도 극단성'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조절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이념 성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의 경우 SNS에서 뉴스 다양성이 선택적 노출에 이르는 경로에 조절

효과가 있었고, 특히 SNS2 케이스의 경우 뉴스 다양성이 교차 노출에 미치는 영향에도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용 수준이 높을수록 SNS에서 더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고, 특히 비정파적 이슈인 코로나19 이슈의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모두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관용은 뉴스 다양성과 선택적 노출 경로에 조절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 총 정보 이용량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모두 포함하여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용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총 정보 이용량인데, 관용 수준이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으로 구분한 다집단 분석의 결과를 보면, 조국 이슈와 관련 있는 SNS1 케이스와 KKO1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선택적 노출과 분노의 경로와 교차 노출과 분노의 경로에 연령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이하 집단에 한하여 선택적 노출이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차 노출이 분노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고 연령층보다 젊은 연령층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편향적 정보 이용으로 부정적 감정을 쉽게 느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SNS에서 선택적 회피가 소셜 미디어 활동에 이르는 경로에도 세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NS1 케이스와 SNS2 케이스 모두 40대 이하 집단에서 선택적 회피가 소셜 미디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소셜 미디어 이용자 중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견해를 접하게 되면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기고, 이견을 접하게 되면 분노 감정을 삭히게 되는 등 부정적 감정의 변화를 더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택적 회피가 소셜 미디어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역시 40대 이하 연령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이하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50대 이상의 이용자보다 친구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강력한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의견을 더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 개인 내적 특성과 이용자의 나이는 서로 다른 측면

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 조절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특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슈 관여도의 조절 효과가 나타났고, 정보 다양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의 관계에서는 관용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에 미치는 영향에는 이념 극단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에는 연령대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회피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연령대와 이슈 관여도가 유의미한 조절변인이었다.

제 5장. 종합 논의 및 결론

제 1절. 연구 내용 및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일종의 반향실(echo chamber)이나 필터버블(filter bubble)이 존재할 것이라는 시각(Pariser, 2011)에서 벗어나 소셜 미디어 내에 이념적 양극화와 함께 이견에 대한 노출이 존재할 것이라는 시각(Barbera et al., 2015; Bright, 2018; Flaxman et al., 2016)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이용을 크게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이견을 피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친구 관계를 끊는 적극적인 정보 회피(John & Dvir-Gvirsman, 2015; Zhu et al., 2017)를 선택적 정보 이용의 하나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의 선택적 정보 이용을 중심으로 어떠한 요인이 선택적 정보 이용을 야기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특성과 소셜 미디어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태도와 분노, 정치적 참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한 개인 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슈 관여도와 이념극단성, 관용과 함께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연령이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시도했다.

우선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특성과 함께 우연적 노출(incidental exposure) 단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을 구분하여 이들 요인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세 가지의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태도와 감정, 정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읽기가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감정,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적 쓰기 활동, 소셜 미디어 범위를 벗어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 행동, 나아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처럼 선택적 정보 이용을 중심으로 선행 요인과 결과 변인을 배치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정보 노출과 정치적 참여의 관계가 아닌, 이용자가 속한 구조적 특성(사회적 관계)과 정보 환경의 특성(정보 다양성), 선택적 정보 이용, 정보 이용에 따른 후속 반응(태도 극단성과 분노),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정치적 참여 행동) 간의 전반적인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정치적·사회적 관심을 이끈 정파적, 비정파적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 정보와 뉴스를 이용한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와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건강 관련 이슈에 따라 선택적 정보 이용이 가져오는 효과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자 했다. 그리고 기존의 소셜 미디어 연구에서 주로 특정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플랫폼으로 역할하고 있는 카카오톡 이용자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 이용 경험을 살펴보고자 시도했다. 이를 통해 선택적 정보 이용과 그 효과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따라, 그리고 서로 다른 성격의 이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봄으로써 소셜 미디어에서의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보 다양성 영향을 주는 요인

먼저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동질성만 뉴스 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사회적 선호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네트워크에서는 유사한 정보만 공유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만, 정치적·사회적 동질성이 높을 경우에는 상호 간에 두터운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다 편하게 다양한 정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사회자본 이론에서 사회 연결망의 폐쇄성이 연결망 내부 구성원 간에 결속력을 높이고, 강한 사적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Coleman, 1988; Newton, 1997). 소셜 미디어에서 교류 대상에 대한 사적 신뢰가 없다면 쉽게 정치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지만 정치적·사회적 성향이 비슷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 폭 넓은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트워크 동질성은 개인의 연령이나 성별, 직업과 같은 사회집단의 측면이 아닌 태도나 이데올로기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소셜 미디어 친구들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느끼는 것, 즉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정치적인 정보 교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상대방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 교환이 가능한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동질성이 뉴스 다양성과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규모는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SNS나 카카오톡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더 다양한 뉴스나 의견을 접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리와 김(Lee & Kim, 2017)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 네트워크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가와 같은 네트워크 형태가 정보의 우연적 노출과 더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2.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선택적 정보 이용 중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뉴스 다양성이었다. 본 연구에서 뉴스 다양성은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와 '다양한 내용의 뉴스', '자신과 관점이 다른 뉴스'를 얼마나 받거나 접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이슈와 관련해 풍부한 내용의 정보를 접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과의 일치 여부에 상관 없이 더 많은 정보 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같이 사회적으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이슈의 경우, 소셜 미디어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등하게 접하는 것이 교차 노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내용적인 면에서 다양성을 의미하는 뉴스 다양성과 함께 찬반 의견의 비율을 의미하는 의견 균형성이 교차 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의 구분 없이 총 정보 이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셜 미디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읽어 보는 데 영향을 주는 개인 내적 요인은 이슈 관여도와 관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슈에 대해 관심이 깊고, 이견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졌을 경우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포함하는 총 정보 이용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정보 다양성 중에서는 뉴스 다양성이 총 정보 이용량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선택적 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교차 노출에 대한 의견 균형성의 영향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의견 균형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케이스에 한하여 교차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총 정보 이용량 중 교차 노출의 비율을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차정보 추구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의견 균형성이 높은 것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보다 이견을 더 많이 읽어보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선택적 정보 이용 중 가장 편향적이고 극단적인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적 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를 보면 이슈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네트워크 동질성이 선택적 회피에 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이견을 공유하는 친구를 차단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적 회피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에서 특정 대상을 정리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보 환경에서 이견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 성향과 일치하는 정보만 접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소셜 미디어에서 이견에 대한 노출을 아예 차단함으로써 기존의 동질적인 네트워크를 더욱 더 동질적인 환경으로 변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NS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규모가 선택적 회피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 많은 수의 친구와 교류할 경우, 그 안에서 자신과 다른 견해를 공유하는 친구를 마주하기 쉬우며 SNS에서의 관계는 카카오톡보다 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친구 관계를 끊는 선택적 회피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 관계를 끊을 때, 자신과 접촉이 없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정리하며(John & Dvir-Gvirsman, 2015), 약한 유대 관계는 정치적 논쟁에서 더 취약하기 때문에(Grevet et al., 2014)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선택적 회피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슈에 따라 의견 균형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정파적 이슈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의 경우 선택적 회피가 교차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의 경우 의견 균형성이 선택적 회피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이견을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친구를 차단하는 것(John & Dvir-Gvirsman, 2015; Zhu et al., 2017)과 같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한쪽으로 치우진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서 접하게 될 경우 선택적 회피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이자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의 경우, 이슈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Yoo et al., 2016)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접할수록 선택적 회피가 낮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우려나 불안이 있을 경우 더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것(Choi, 2014)과 같이 코로나

19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많은 정보 이용을 자극하고, 이 과정에서 의견 균형성이 선택적 회피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태도 극단성과 분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도 극단성은 이슈와 매체에 상관 없이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단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차 노출이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Beam et al., 2018; Garrett et al., 2014)와 같이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치 정보가 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반대로 이견에 대한 노출이 태도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분노의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의 경우 선택적 노출은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이 분노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의 경우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에 노출될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지만, 코로나19 이슈의 경우 이견에 대한 노출이 분노와 관련 있음을 보여준다. 서미혜(2016)는 미디어에서 제공되는 질병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이용자가 위험에 대해 인지하게 하고, 이것이 위험에 대한 분노와 연결된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견해와 다른 질병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한다고 볼 수 있다.

4. 정치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행동을 크게 소셜 미디어 내에서의 참여, 온라인 공간에서의 참여, 오프라인에서의 참여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 즉 읽기 행동이 소셜 미디어에서 표현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소셜 미디어 네트

워크를 벗어난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행동, 가장 적극적인 참여 행동인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의 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표현 활동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 분노였다. 먼저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가 소셜 미디어 활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은 소셜 미디어에서 같은 견해를 가진 개인이 소셜 미디어 친구들과 더 활발히 정치적인 주제를 토론하고 공유한다는 챈 등(Chan et al., 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견에 대한 노출이 아닌, 자신의 기존 입장과 일치하는 정보를 읽는 것, 그리고 이견을 공유하는 친구를 차단하는 것이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소셜 미디어나 온라인 공간에서 활발히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원동력은 결국 소셜 미디어에서 확증 편향적인 정보 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슈에 대한 분노가 높을수록 소셜 미디어 활동이 증가하는 것은 분노를 느끼는 개인은 개인의 신념을 더욱 옹호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이들과 연대하도록 하기 때문에(MacKuen et al., 2010),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에서 더 활발히 정치적 참여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세 가지 정치적 참여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은 유일하게 선택적 회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John & Dvir-Gvirsman, 2015; Zhu et al., 2017)와 같이 이견을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 친구를 차단하는 선택적 회피가 높을 경우, 자신의 신념이나 이슈에 대한 태도가 확고해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적 회피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은 분석 결과에서 경로 계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개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선택적 회피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슈1과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오프라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선택적 회피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이 오프라인 참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증 편향적 정보 이용이 아닌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대책'과 관련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선택해 읽어보는 것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표현적 활동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참여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참여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교차 노출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조국 이슈 관련 케이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정치적 이념 성향이나 지지 정당과 관련이 깊은 이슈의 경우 교차 노출의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올바르게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참여에 선택적 노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과 비슷한 의견을 소셜 미디어서 많이 읽어볼수록 상대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소셜 미디어 활동은 더 많이 하게 되지만, 더 적극적이고 노력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정치 참여는 적게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말만 많고 실제 행동하지는 않는 현상을 이르는 '슬랙티비즘(Slacktivism)'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참여를 돕는 것이 아닌, 손쉽게 소셜 미디어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수준의 참여에 한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함의와 한계

1. 연구의 함의

이 연구는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로부터 형성되는 정보 다양성, 그리고 이용자 개인의 태도 및 부정적 감정, 정치적 참여 행동에 이르기까지 선택적 정보 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 간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통합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소셜 미디어와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소셜 미디어의 일반적인 이용 정도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Huckfeldt et al., 2004; Park et al., 2009; Valenzuela et al., 2009)에 대해 살펴보거나, 이견이

나 정보에 대한 노출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Gil de Zuniga et al., 2019; Heiss & Matthes, 2019; Kim, 2011; Valeriani & Vaccari, 2016)에 관심을 두었을 뿐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의 교류 대상, 교류 내용, 교류 행동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지 못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자인 개인은 고립된 미디어 이용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정보 이용과 참여 간 관계만을 살펴보기보다는 이용자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 환경,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선택적 정보 이용의 원인과 결과 과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통합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을 제안하고,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한 통합적 정치 커뮤니케이션 모형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동안 매스 미디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지만 소셜 미디어 환경의 필수적인 요소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의 네트워크는 곧 정보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 정보 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네트워크 특성 중 네트워크 동질성은 매체나 이슈와 관계없이 모든 케이스에서 뉴스 다양성을 통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포함한 전체 정보 이용량과 관련해, SNS에서 네트워크 동질성은 더 많은 정보 이용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적·사회적으로 비슷한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질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소셜 미디어 친구에 대한 신뢰와 감정적 유대가 보다 자유로운 정보 공유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 연구 결과(김은미 등, 2017; Ha et al., 2015; Phua et al., 2017b)와 같이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이 지지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 모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특성은 매체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SNS에서는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수록 뉴스 다양성이 높고, 의견 균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성향을 가진 친구들과 교류할수록 소셜 미디어에서 찬반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이슈에 대해 한쪽 입장의 견해와 정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동질적인 친구들이 더 풍부하고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에서는 네트워크 동질성이 높을 경우 유유상종의 커뮤니케이션이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폭 넓은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특성이 정보 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카카오톡과 SNS가 지닌 매체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SNS에서는 친구들의 이용 활동이 뉴스피드를 통해 집합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동질성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만 카카오톡은 독립된 채팅창을 통해 특정 개인이나 정해진 멤버와의 채팅으로 정보가 제시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동질성이 정보 환경의 다양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다양성의 역할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정보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뉴스 다양성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읽게 하면서 동시에 이견 노출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소셜 미디어에서 평소에 접하지 못한 다양한 내용을 접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을 증가시켜 전반적으로 뉴스 이용량의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 다양성과 관련된 결과 중 흥미로운 것은 이견에 대한 노출과 회피에 영향을 주는 의견 균형성의 역할이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교차 노출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노출로 정의되었는데, 전체 케이스 중 정파적 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와 관련된 케이스에 한하여 의견 균형성이 교차 노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이슈이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을 소셜 미디어에서 균등하게 접할수록 이견에 대한 노출이 높아진다는 것은 편향되지 않은 견해나 뉴스를 접하는 것이 정파적 정보 이용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이슈와 관련된 SNS2 케이스와 KKO2 케이스에서는 의견 균형성이 선택적 회피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환경의 균형성이 이견 노출 수용뿐 아니라 거부에 유의미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총 정보 이용량 중 교차 노출 이용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교차정보 추구를 기준으로 정보 다양성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의견 균형성은 모든 케이스에서 교차정보 추구 고 집단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될 때,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골고루 접하는 것이 절대적인 교차 노출 이용량이 아닌, 교차 정보 이용 비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결국 찬반 의견 분포가 고른 환경에서 교차 노출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세 번째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태도 극단성과 분노의 역할을 구분하여 살펴봤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 태도 극단성과 분노에 주목하였고, 선택적 정보 이용이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강력하고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되며,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거나 (Stroud, 2010)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Kim, 2015). 이와 함께 선택적 노출은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강화하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정치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Beam et al., 2018; Kim & Chen,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 태도나 감정의 극단화가 있고, 이것이 정치 참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있을 뿐 태도와 감정의 매개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 양극화된 정치적 태도나 분노와 같은 적대적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정치적 참여 행동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점(Miller & Conover, 2015; Johnson et al., 2020)에서 개

인의 정치적 태도와 감정을 정치적 행동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양극화와 정치적 참여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결과물이며,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하는 과정에 대해 이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존슨 등(Johnson et al., 2020)의 시각과 일치한다. 본 연구는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효과 과정에서 태도 극단성과 분노의 역할에 대해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이들을 선택적 정보 이용과 정치적 참여 행동 사이에 위치한 매개변인으로 구성하고 이들의 독립적인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소셜 미디어에서 교차 노출을 하게 되면 탈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Beam et al., 2018)와 같이 교차 노출은 이슈에 대한 태도 극단성과 부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택적 노출은 기존의 정파적 정보 이용과 태도 극단화 연구 결과와 같이 태도 극단성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전체 케이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노는 이슈에 따라 조국 이슈의 경우에는 선택적 노출이, 코로나19 이슈의 경우에는 교차 노출이 분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자신의 의견과 조응하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Choi, 2014), 이슈에 따라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 이슈에 비해 좀 더 정치적이고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입장의 이야기만을 읽어 보는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코로나 19의 경우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이견을 접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방역 대책 이슈에 대한 분노가 증가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정치적 참여 행동 중 인터넷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정치 참여의 단면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유와 같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정치적 행동을 분리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예를 들면, Shin & Thorson, 2017; Weeks et al., 2017; Johnson et al.,

2020). 소셜 미디어 이용자는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정보만을 공유하고, 지지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필터링하는 것과 같은 선택적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함으로써 정파적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Shin & Thorson, 2017), 자신의 소셜 미디어 팔로워에게 공유되는 정치 정보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Singer, 2014). 본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글을 쓰거나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소셜 미디어 활동을 소셜 미디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오프라인 정치 참여와 구분되는 별개의 참여 행동으로 보고, 선택적 정보 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슈나 매체의 차이와 상관 없이 선택적 노출과 선택적 회피, 그리고 분노 감정이 소셜 미디어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타인의 글이나 뉴스,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강한 확신을 갖고, 분노한 개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에 대한 부정과 적대감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보 공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Shin & Thorson,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확증 편향적인 정보 이용과 부정적 감정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적극적인 표현 활동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이후 소셜 미디어 이용자 스스로 정보의 편향을 야기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선택적 정보 이용에서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 이외에 선택적 회피 개념을 포함하여 정치적 효과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택적 노출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선택적 노출에 주목해 정치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노출과 함께 보다 강력한 편향적 정보 이용 행동에 속하는 선택적 회피의 영향력을 동시에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선택적 회피는 세 종류의 정치적 참여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고, 선택적 노출은 소셜 미디어 활동과 온라인 정치 참여에 한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적 노출을 통해 자신과 비슷한 정보만을 접하는 것은 분노를 증가시키고 이와 함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증가시킬 뿐 오프라인 정

치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적 노출이 갖고 있는 제한적인 정치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소셜 미디어 활동은 소셜 미디어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공유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참여 행동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한 새로운 형태의 집단 행동주의이기도 하지만(Choi & Park, 2014),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행동과 연관되지 않은 채 소셜 미디어 공간, 혹은 온라인 공간 내에서만 행해지는 정치 참여를 의미하는 정치적 슬랙티비즘과 연결될 수 있다. 편향적 정보 이용의 하나인 선택적 노출만으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정치 참여 행동을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선택적 회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적극적인 정보 추구 행동과 적극적인 정보 회피 행동이 동시에 정치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정치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NS와 카카오톡이라는 두 가지 매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이라는 두 가지 이슈를 이용해 네 가지 케이스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소셜 미디어에서 선택적 정치 정보 이용과 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일부 연구에서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미국이나 서구 국가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주제의 경우 낙태나 동성 결혼 금지, 난민 이슈와 같은 정치적으로 편광된 주제를 활용해 선택적 정보 이용을 살펴보고 있다(예를 들면, Kim, 2009; Westerwick et al., 2017 등).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일반적인 정파적 주제를 벗어나 지난해와 올해 전 국민의 관심을 이끈 두 가지 이슈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된 선택적 정보 이용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적 참여가 매우 높은 나라이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일찍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나라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두 가지 이슈와 두 가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소셜 미디어에서 일상적으로 정보를 읽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 모두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알아보는 데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연구 방법이 갖는 한계점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선택적 정보 이용과 우연적 노출 단계에서의 정보 다양성을 측정했다는 점이다. 미디어 이용 연구에서 이용자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이용했는가는 점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 이용을 살펴보는 일부 연구들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측정하기 위해 실제 소셜 미디어와 동일한 가상의 페이지를 만든 뒤, 뉴스피드에 여러 개의 게시물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클릭이나 페이지에 머문 시간, 좋아요나 댓글 쓰기와 같은 실제 이용량을 측정하기도 한다(Anspach, 2017; Messing & Westwood, 2014). 또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실제 이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Bright, 2018). 이 연구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기억에 의존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접했던 정보와 읽어보았던 정보에 대해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실험 조건이 아닌 이용자가 실제로 접했던 경험에 대해 살펴보고, 이용자가 인식한 정보 다양성과 태도, 분노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법을 선택했지만, 설문조사 과정에서 정보 다양성이나 선택적 정보 이용과 같은 일부 문항이 실제 경험했던 것보다 과대 혹은 과소 측정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과 같은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경우, 연구자가 제시한 보기에 해당하는 뉴스나 정보를 읽어본 경험을 이용자가 전부 기억해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별개로 이용자가 소셜 미디어에서 실제로 읽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착할 수 있는 별도의 데이터를 얻어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설문 문항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는 방법을 이용해 과거와 현재의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이 값이 실제 태도 변화를 올바르게 측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두 가지 이슈 모두 계획된 일정을 바탕으로 등장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슈 초기에 연구 대상이 되는 패널을 구성하여 종단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설문 문항을 통해 선택적 정보 이용 이전과 이후의 태도 극단성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측정 방법이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써 사후 태도를 정확히 파악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선거와 같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적 이벤트 기간 동안 두 시점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종단 데이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적 정보 이용이 태도 극단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맥클라우드 등이 제안한 O-S-O-R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소셜 미디어 이용자의 네트워크 규모와 네트워크 동질성이라는 네트워크 특성과 뉴스 다양성과 의견 균형성이라는 정보 환경의 다양성이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적 노출이 이용자 개인의 태도극단성과 분노 감정, 나아가 정치적 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 관계에 이슈 관여도와 정치적 이념 성향의 극단성, 관용적 태도, 연령대가 미치는 조절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선택적 정보 이용의 결과로서의 학습과 같은 인지적 과정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O-S-O-R 모델은 메시지 처리(S)와 이용자의 지향성(두 번째 O) 사이에 뉴스 소비의 결과로서 추론 단계(Reasoning)가 도입될 수 있으며(Shah, Cho, et al., 2007), 조와 동료들(Cho et al., 2009)은 이를 반영해 O-S-R-O-R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기존 모델의 S-O 과정에는 메시지 이용을 활용한 지식 형성이나 메시지에 대한 성찰(reflection)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추론 단계(R)를 메시지 이용(S)과 두 번째 O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Cho et al., 2009). 여기에서 추론은 정신적인 정교화 과정으로 합리적인 과정뿐 아니라 비논리적이거나 정서적으로 편향된 과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메시지 노

출의 폭 넓은 영향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특정 이슈와 관련해 경험한 인지적 과정, 학습 등의 합리적 추론 과정뿐만 아니라, 비론리적일지라도 깊이 있는 정서적 과정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보에 대한 추론 단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 정보 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보다 폭 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네트워크 다양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동질성과 네트워크 규모 두 가지 변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셜 미디어 친구들을 정치·사회적 유사성과 양적인 면에서의 규모가 이용자가 마주할 수 있는 정보의 다양성과 선택적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이러한 측정이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다면적인 특성을 잘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소셜 미디어는 약한 유대와 강한 유대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곳으로, 이용자 개인은 고정된 연결망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중적인 연결망에 속한 네트워크화된 개인(networked individual)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 미디어에서 이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인 소셜 미디어 친구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사회·정치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을 측정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다면적인 네트워크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여 연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라자스펠드와 동료들(Lazarsfeld et al., 1944)이 제안한 선택적 노출 개념을 소셜 미디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적 노출과 교차 노출, 그리고 선택적 회피라는 세 가지 선택적 정보 이용을 개념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 선택적 회피는 선택적 노출 개념 중 방어적 회피(defensive avoidance)를 살펴보기 위해, 지지적 선택(supportive selection)에 해당하는 선택적 노출 이외에 추가로 구성한 개념이다. 선택적 노출 개념에 포함된 방어적 회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행위인데다 어떤 정보를 얼마나 의도적으로 회피했는지 살펴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어적 회피 대신 다소 극단적인 회피 행동인 '친구 관계 끊기'를 선택적 회피로 살펴보았다. 이처럼 지지하지 않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다는 점에서 선

택적 노출 개념의 방어적 회피 개념을 적용하고자 했지만, 이 개념은 친구 관계를 끊음으로써 자신의 네트워크 구조를 재조정하는 일종의 관계 조정 행위로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쓰인 선택적 회피 개념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 환경을 의도적으로 관리(managing)하거나 자신의 기호에 맞게 구성(manipulation)하는 행위로 본다면, 이를 선택적 노출이나 교차 노출과 같은 선택적 미디어 이용 변인과 동일한 단계에 구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쓰인 선택적 회피 변인을 선택적 정보 이용 단계가 아닌 별도의 단계로 구분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선택적 노출 논의에서 방어적 회피 개념을 보다 적절히 포착할 수 있도록 선택적 회피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함으로써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 노출에 대해 보다 섬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선호·김위근 (2019).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한국>.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영주·심하영·정재민·양정애 (2019). <2019 언론수용자 조사> (조사 분석 2019-01).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은미 (2018). <연결된 개인의 탄생: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인간관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은미·이동후·임영호·정일권. (2011).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 "토크, 플레이, 러브"의 진화>. 서울: 나남.

김은미·이준웅 (2006). 읽기의 재발견. <한국언론학보>, 50(4), 65-94.

김은미·임소영·박현아 (2017). 관계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뉴스 공유. <한국방송학보>, 31(3), 114-151.

김은진 (2019). 노인들의 SNS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6(4), 188-239.

나은경 (2007a). 다양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한국언론학보>, 51(6), 163-189.

나은경 (2007b).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의 상호작용. <한국언론학보>, 51(4), 385-406.

노경섭 (2019).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서울: 한빛아카데미.

민영 (2019). 시민으로서 노인. <한국언론학보>, 63(1), 80-109.

박아란·이소은 (2020). 인포데믹 탐색하기: 코로나19 관련 뉴스 및 정보 이용에 대한 6개국 조사 [전자매체본]. <Media Issue>, 6(3), 1-11. Retrieved 4/22/20 from https://www.kpf.or.kr/front/research/issueDetail.do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청람.

배병렬 (2015).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백영민 (2017). <R을 이용한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서미혜 (2016).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가 메르스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116-140.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4호, 191-232.

심홍진·황유선 (2010).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사회자본. <한국언론학보>, 54권 5호, 327-347.

양정애·오세욱 (2018). 유튜브 동영상 이용과 허위정보 노출 경험. <미디어이슈>, 4권 8호. 1-17.

양정애·이종혁·정일권·최윤정 (2015). 태도 양가성과 이슈 관여도가 뉴스기사 노출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논쟁적 이슈에 대한 입정 미정자 대 온건 지지자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3), 395-422.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유선욱·박계현·나은영 (2010). 신종플루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반발과 공포감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3), 27-53.

이은주 (2011). 지각된 편향인가 편향된 지각인가? 댓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 지각. <한국언론학보>, 55(3), 179-198.

이재현. (2003). 멀티미디어와 문화 인터페이스. 언론정보연구, 40(), 135-165.

이정권·최영 (2015).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 연구: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1호, 115-148.

이종혁·최윤정 (2018). 세대별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변화 추적. <한국방송학보>, 32(1), 66-95.

이준웅 (2007).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정치적 효과. <한

국언론학보>, 51(6), 111-137.
이준웅·이종혁·이상원·황현정 (2019). 인터넷 대화의 시민성 활성화 효과:언론매체 이용이 인터넷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읽기와 쓰기가 학습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63(2), 77-109.
이창호·정낙원 (2014). 소셜미디어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폐쇄형 소셜미디어 비교. <한국언론정보학보>, 65권, 5-26.
이혜미·김영진 (2015).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의 구조적 내용적 변화와 함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8), 81-121.
정일권·이준웅·배영 (2013). 인터넷 교류범위와 자기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미치는 영향과 세대 효과. <언론과 사회>. 21(2), 160-204.
최영·박성현 (2011).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권 2호, 241-276.
최윤정·이종혁 (2012).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異見)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의견 조정과 의견 공고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301-330.
황용석·박남수·이현주·이원태 (2012).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격차: 세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6(2), 198-225.
허준 (2013). <허준의 쉽게 따라하는 ANOS 구조방정식모형: 고급편>. 서울: 한나래출판사.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nspach, N. M. (2017). The new personal influence: How our Facebook friends influence the news we read. *Political Communication*, 34(4), 590-606.
Aruguete, N., & Calvo, E. (2018). Time to # protest: Selective exposure, cascading activation, and framing in social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68(3), 480-502.
Bakshy, E., Messing, S., & Adamic, L. A. (2015). Exposure to

ideologically diverse news and opinion on Facebook. *Science*, 348(6239), 1130-1132.

Barbera, P., Jost, J. T., Nagler, J., Tucker, J. A., & Bonneau, R. (2015). Tweeting from left to right: Is online political communication more than an echo chamber? *Psychological Science*, 26(10), 1531-1542.

Barnidge, M., Ardevol-Abreu, A., & Gil de Zuniga, H. (2018). Content-expressive behavior and ideological extremity: An examination of the rol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network heterogeneity. *New Media & Society*, 20(2), 815-834. https://doi.org/10.1177/1461444816675183

Barnidge, M., Huber, B., Gil de Zuniga, H., & Liu, J. H. (2018). Social media as a sphere for "risky" political expression: A twenty-country multilevel comparative analysi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3(2), 161-182.

Barnidge, M., & Rojas, H. (2014). Hostile Media Perceptions, Presumed Media Influence, and Political Talk: Expanding the Corrective Action Hypothe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6(2), 135-156.

Baym, N. K., & Boyd, D. (2012). Socially mediated publicness: An introduc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6(3), 320-329.

Beam, M. A., Hutchens, M. J., & Hmielowski, J. D. (2018). Facebook news and (de) polarization: Reinforcing spirals in the 2016 US ele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1(7), 940-958.

Bekafigo, M. A., & McBride, A. (2013). Who tweets about politics? Political participation of Twitter users during the 2011gubernatorial election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1(5), 625-643.

Bennett, W. L., & Iyengar, S. (2008). A new era of minimal effects? The

changing foundations of political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8(4), 707-731.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

Bessi, A. (2016). Personality traits and echo chambers on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5, 319-324.

Bode, L. (2012). Facebooking it to the polls: A study in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political behavior.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9(4), 352-369.

Bode, L. (2016). Pruning the news feed: Unfriending and unfollowing political content on social media. *Research & Politics*, 3(3), 2053168016661873.

Boutyline, A., & Willer, R. (2017). The social structure of political echo chambers: Variation in ideological homophily in online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38(3), 551-569.

boyd, D. M.,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Brannon, L. A., Tagler, M. J., & Eagly, A. H. (2007).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strength i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3(4), 611-617.

Brenes Peralta, C., Wojcieszak, M., Lelkes, Y., & de Vreese, C. (2017). Selective exposure to balanced content and evidence type: The case of issue and non-issue publics about climate change and health car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4(3), 833-861.

Bright, J. (2018). Explaining the emergence of political fragmentation on social media: The role of ideology and extremis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3(1), 17-33.

Brundidge, J. (2010). Encountering "difference" in the contemporary public sphere: The contribution of the Internet to the heterogeneity of political discussion networks. *Journal of Communication*, 60(4), 680-700.

Bryant, J., & Miron, D. (2004). Theory and research in mass communic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4(4), 662-704.

Chan, M. (2018). Reluctance to talk about politics in face-to-face and Facebook settings: Examining the impact of fear of isolation, willingness to self-censor, and peer network characteristics.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21(1), 1-23.

Chan, M., Chen, H.-T., & Lee, F. L. F. (2019). Examining the Roles of Political Social Network and Internal Efficacy on Social Media News Engagement: A Comparative Study of Six Asian Countr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24(2), 127-145.

Chew, C., & Eysenbach, G. (2010). Pandemics in the age of Twitter: Content analysis of Tweets during the 2009 H1N1 outbreak. *PloS One*, 5(11), e14118.

Cho, H., & Boster, F. J.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value-, outcome-, and impression-relevant involvement scales. *Communication Research*, 32(2), 235-264.

Cho, J., Shah, D. V., McLeod, J. M., McLeod, D. M., Scholl, R. M., & Gotlieb, M. R. (2009). Campaigns, reflection, and deliberation: Advancing an OSROR model of communication effects. *Communication theory*, 19(1), 66-88.

Choi, S. (2014). Flow, diversity, form, and influence of political talk in social-media-based public forum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0(2), 209-237.

Choi, S., & Park, H. W. (2014). An exploratory approach to a Twitter-based community centered on a political goal in South

Korea: Who organized it, what they shared, and how they acted. *New Media & Society*, 16(1), 129-148.

Cogburn, D. L., & Espinoza-Vasquez, F. K. (2011). From networked nominee to networked nation: Examining the impact of Web 2.0 and social media o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ivic engagement in the 2008 Obama campaign.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10(1-2), 189-213.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4-121.

Davenport, S. W., Bergman, S. M., Bergman, J. Z., & Fearrington, M. E. (2014). Twitter versus Facebook: Exploring the role of narcissism in the motives and usage of different social media platform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32, 212-220.

Ellison, N. B., & boyd, D. (2013). Sociality through social network sites. In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et Studies*, 151-172.

Ellison, N. B., Vitak, J., Gray, R., & Lampe, C. (2014). Cultivating Social Resources on Social Network Sites: Facebook Relationship Maintenance Behaviors and Their Role in Social Capital Process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4), 855-870. https://doi.org/10.1111/jcc4.12078

Eveland, W. P., & Hively, M. H. (2009). Political Discussion Frequency, Network Size, and "Heterogeneity" of Discussion as Predictors of Political Knowledge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9(2), 205-224.

Eveland Jr, W. P., & Thomson, T. (2006). Is it talking, thinking, or both? A lagged dependent variable model of discussion effects on political knowledge. *Journal of Communication*, 56(3), 523-542.

Festinger, L. (1957). *The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Vol. 2). Stanford university press.

Fiorina, M. P., Abrams, S. A., & Pope, J. C. (2008). Polarization in the American public: Misconceptions and misreadings. *The Journal of Politics*, 70(2), 556-560.

Fishbein, M., & Ajzen, I. (1980).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consumer behavior: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148-172.

Flaxman, S., Goel, S., & Rao, J. M. (2016). Filter bubbles, echo chambers, and online news consump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80(S1), 298-320.

Fletcher, R., & Nielsen, R. K. (2018). Are people incidentally exposed to news on social media? A comparative analysis. *New Media & Society*, 20(7), 2450-2468.

Garrett, R. K. (2009a). Echo chambers online?: Politically motivated selective exposure among Internet news user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2), 265-285.

Garrett, R. K. (2009b). Politically motivated reinforcement seeking: Reframing the selective exposure debate. *Journal of Communication*, 59(4), 676-699.

Garrett, R. K. (2013). Selective exposure: New methods and new directions. *Communication Methods and Measures*, 7(3-4), 247-256.

Garrett, R. K., Gvirsman, S. D., Johnson, B. K., Tsfati, Y., Neo, R., & Dal, A. (2014). Implications of pro-and counterattitudinal information exposure for affective polariz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0(3), 309-332.

Garrett, R. K., & Stroud, N. J. (2014). Partisan paths to exposure diversity: Differences in pro-and counterattitudinal news consump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80-701.

Gastil, J., & Xenos, M. (2010). Of attitudes and engagement: Clarify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civic attitud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0(2), 318-343.

Gearhart, S., & Zhang, W. (2015). "Was it something I said?""No, it was something you posted!" A study of the spiral of silence theory in social media context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8(4), 208-213.

Gibson, J.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MA, US. Houghton, Mifflin and Company.

Gil de Zuniga, H., Diehl, T., Huber, B., & Liu, J. H. (2019). The Citizen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Across Countries: A Multilevel Mediation Model of News Use and Discuss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9(2), 144-167. https://doi.org/10.1093/joc/jqz002

Gil de Zuniga, H., Jung, N., & Valenzuela, S.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36.

Gil de Zuniga, H., Molyneux, L., & Zheng, P. (2014). Social Media, Political Express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anel Analysis of Lagged and Concur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612-634. https://doi.org/10.1111/jcom.12103

Gil de Zuniga, H., & Valenzuela, S. (2011). The mediating path to a stronger citizenship: Online and offline networks, weak ties, and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38(3), 397-421.

Glynn, C. J., Huge, M. E., & Hoffman, L. H. (2012). All news that's fit to post: A profile of news use on social network si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1), 113-119.

Grevet, C., Terveen, L. G., & Gilbert, E. (2014). Managing political differences in social media. Proceedings of the 17th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 Social Computing, 1400-1408.

Gustafsson, N. (2012). The subtle nature of Facebook politics: Swedish social network site user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New Media & Society*, 14(7), 1111-1127.

Gunther, A. C., Miller, N., & Liebhart, J. L. (2009).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a test of the hostile media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36, 747-764.

Ha, Y. W., Kim, J., Libaque-Saenz, C. F., Chang, Y., & Park, M.-C. (2015). Use and gratifications of mobile SNSs: Facebook and KakaoTalk in Korea. *Telematics and Informatics*, 32(3), 425-438.

Hampton, K. N., Shin, I., & Lu, W. (2017). Social media and political discussion: When online presence silences offline convers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20(7), 1090-1107.

Hardy, B. W., Scheufele, D. A., & Wang, Z. (2005). Defining deliberation: Key determinants and distinct dimensions.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New York.

Hart, W., Albarracin, D., Eagly, A. H., Brechan, I., Lindberg, M. J., & Merrill, L. (2009). Feeling validated versus being correct: A meta-analysis of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55.

Heatherly, K. A., Lu, Y., & Lee, J. K. (2017). Filtering out the other side? Cross-cutting and like-minded discussions on social networking sites. *New Media & Society*, 19(8), 1271-1289. https://doi.org/10.1177/1461444816634677

Heiss, R., Knoll, J., & Matthes, J. (2019). Pathways to political (dis-) engagement: motivations behind social media use and the role of incidental and intentional exposure modes in adolescents' political engagement. *Communications*, 1(ahead-of-print).

https://doi.org/10.1515/commun-2019-2054

Heiss, R., & Matthes, J. (2019). Does incidental exposure on social media equalize or reinforce participatory gaps? Evidence from a panel study. *New media & society*, 21(11-12), 2463-2482.

Holbert, R. L., Kwak, N., & Shah, D. V. (2003). Environmental concern, patterns of television viewing,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s: Integrating models of media consumption and effect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2), 177-196.

Huckfeldt, R., Mendez, J. M., & Osborn, T. (2004).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25(1), 65-95.

Huddy, L., Feldman, S., & Cassese, E. (2007). On the distinct political effects of anxiety and anger. In *The Affect Effect: Dynamics of Emotion in Political Thinking and Behavior*, 202-230.

Hughes, D. J., Rowe, M., Batey, M., & Lee, A. (2012). A tale of two sites: Twitter vs. Facebook and the personality predictors of social media us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2), 561-569.

Hutchens, M. J., Hmielowski, J. D., & Beam, M. A. (2019). Reinforcing spirals of political discussion and affective polariz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1-20.

Hwang, H., Pan, Z., & Sun, Y. (2008). Influence of hostile media perception on willingness to engage in discursive activities: An examination of mediating role of media indignation. *Media Psychology*, 11(1), 76-97.

Ikeda, K., & Kobayashi, T. (2010). Making democracy work via the functioning of heterogeneous personal network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Japanese election study. In *Contexts of Social Capital* (pp. 102-120). Routledge.

Iyengar, S., & Hahn, K. S. (2009). Red media, blue media: Evidence of

ideological selectivity in media use. *Journal of Communication*, 59(1), 19-39.

Iyengar, S., Lelkes, Y., Levendusky, M., Malhotra, N., & Westwood, S. J. (2019).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ffective pola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129-146.

Jang, K., & Baek, Y. M. (2019). When information from public health officials is untrustworthy: The use of online news, interpersonal networks, and social media during the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Health Communication*, 34(9), 991-998.

Jang, S. M. (2014). Challenges to selective exposure: Selective seeking and avoidance in a multitasking media environmen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7(5), 665-688.

Jasper, J. M. (2011).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Twenty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285-303.

John, N. A., & Dvir-Gvirsman, S. (2015). "I Don't Like You Any More": Facebook Unfriending by Israelis During the Israel-Gaza Conflict of 2014. *Journal of Communication*, 65(6), 953-974.

Johnson, B. K., Neo, R. L., Heijnen, M. E., Smits, L., & van Veen, C. (2020). Issues, involvement, and influence: Effects of selective exposure and sharing on polarization and particip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04, 106155.

Johnson, B. T., & Eagly, A. H. (1989). Effects of involvement on persuasio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6(2), 290.

Johnson, T. J., Bichard, S. L., & Zhang, W. (2009). Communication communities or "cyberghettos?": A path analysis model examining factors that explain selective exposure to blog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5(1), 60-82.

Johnson, T., Zhang, W., & Bichard, S. (2008). *Revived and refreshed:*

Selective exposure to blogs and political Websit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TBA, Montreal, Quebec, Canada.

Johnson, T. J., Zhang, W., & Bichard, S. L. (2011). Voices of convergence or conflict? A path analysis investigation of selective exposure to political websites.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9(4), 449-469.

Jost, J. T., Napier, J. L., Thorisdottir, H., Gosling, S. D., Palfai, T. P., & Ostafin, B. (2007). Are needs to manage uncertainty and threat associated with political conservatism or ideological extrem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7), 989-1007.

Karnowski, V., Kumpel, A. S., Leonhard, L., & Leiner, D. J. (2017). From incidental news exposure to news engagement. How perceptions of the news post and news usage patterns influence engagement with news articles encountered on Facebook.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6, 42-50.

Kim, J., Wyatt, R. O., & Katz, E. (1999). News, Talk, Opinion, Participation: The Part Played by Conversation in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Communication*, 16(4), 361-385. https://doi.org/10.1080/105846099198541

Kim, Y. (2011). The contribution of social network sites to exposure to political difference: The relationships among SNSs, online political messaging, and exposure to cross-cutting perspectiv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7(2), 971-977.

Kim, Y. (2015). Does disagreement mitigate polarization? How selective exposure and disagreement affect political polariz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2(4), 915-937.

Kim, Y. (2019). How cross-cutting news exposure relates to candidate issue stance knowledge, political polarization, and participation:

The moderating role of political sophisti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31(4), 626-648.

Kim, Y., Chen, H.-T., & Gil de Zuniga, H. (2013). Stumbling upon news on the Internet: Effects of incidental news exposure and relative entertainment use on political engage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6), 2607-2614.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Knobloch-Westerwick, S., & Johnson, B. K. (2014). Selective exposure for better or worse: Its mediating role for online news' impact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2), 184-196.

Knobloch-Westerwick, S., Johnson, B. K., Silver, N. A., & Westerwick, A. (2015). Science exemplars in the eye of the beholder: How exposure to online science information affects attitudes. *Science Communication*, 37(5), 575-601.

Knobloch-Westerwick, S., & Kleinman, S. B. (2012). Preelection selective exposure: Confirmation bias versus informational utility. *Communication Research*, 39(2), 170-193.

Knobloch-Westerwick, S., & Meng, J. (2009). Looking the other way: Selective exposure to attitude-consistent and counterattitudinal political inform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6(3), 426-448.

Knobloch-Westerwick, S., & Meng, J. (2011). Reinforcement of the political self through selective exposure to political messages. *Journal of Communication*, 61(2), 349-368.

Knobloch-Westerwick, S., & Sarge, M. A. (2015). Impacts of exemplification and efficacy as characteristics of an online weight-loss message on selective exposure and subsequent weight-loss behavior. *Communication Research*, 42(4), 547-568.

Knoll, J., Matthes, J., & Heiss, R. (2020). The social media political participation model: A goal systems theory perspective. *Convergence*, 26(1), 135-156.

Kobayashi, T. (2010). Bridging social capital in online communities: Heterogeneity and social tolerance of online game players in Japa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6(4), 546-569.

Kunda, Z. (1990). The case for motivated reasoning.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80.

Kwak, N., Campbell, S. W., Choi, J., & Bae, S. Y. (2011). Mobile communication and public affairs engagement in Korea: An examination of non-linear relationships between mobile phone use and engagement across age group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1(5), 485-503.

Kwak, N., Lane, D. S., Weeks, B. E., Kim, D. H., Lee, S. S., & Bachleda, S. (2018). Perceptions of Social Media for Politics: Testing the Slacktivism Hypothesi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4(2), 197-221.

Kwak, H., Lee, C., Park, H., & Moon, S. (2010). What is Twitter, a social network or a news media?. In *Proceedings of the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World wide web(WWW). ACM*. 591-600.

Kwak, N., Williams, A. E., Wang, X., & Lee, H. (2005). Talking politics and engaging politics: An examination of the interactive relationships between structural features of political talk and discussion engagement. *Communication Research*, 32(1), 87-111.

Kwon, K. H., Moon, S.-I., & Stefanone, M. A. (2015). Unspeaking on Facebook? Testing network effects on self-censorship of political expressions in social network sites. *Quality & Quantity*, 49(4), 1417-1435. https://doi.org/10.1007/s11135-014-0078-8

Lane, D. S., Lee, S. S., Liang, F., Kim, D. H., Shen, L., Weeks, B. E., & Kwak, N. (2019). Social Media Expression and the Political Self. *Journal of Communication*, 69(1), 49-72. https://doi.org/10.1093/joc/jqy064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t, H. (1944).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Columbia University Press.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Lee, C. J., Kim, K., & Kang, B. A. (2019).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social capital, and cancer knowledge. *Health communication*, 34(6), 577-588.

Lee, J. K., Choi, J., Kim, C., & Kim, Y. (2014). Social media, network heterogeneity, and opinion polariz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4(4), 702-722.

Lee, J. K., & Kim, E. (2017). Incidental exposure to news: Predictors in the social media setting and effects on information gain onlin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1008-1015.

Leeper, T. J. (2014). The informational basis for mass polariz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78(1), 27-46.

Levendusky, M. S. (2013a). Why do partisan media polarize view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3), 611-623.

Levendusky, M. S. (2013b). Partisan media exposure and attitudes toward the opposition. *Political Communication*, 30(4), 565-581.

Lu, Y., Heatherly, K. A., & Lee, J. K. (2016). Cross-cutting exposure on social networking sites: The effects of SNS discussion disagreement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9, 74-81. https://doi.org/10.1016/j.chb.2016.01.030

Lu, Y., & Myrick, J. G. (2016). Cross-cutting exposure on Facebook and

political participation: Unraveli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sponses and online incivility. *Journal of Media Psychology: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28(3), 100.

MacKuen, M., Wolak, J., Keele, L., & Marcus, G. E. (2010). Civic engagements: Resolute partisanship or reflective delibe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2), 440-458.

Marcus, G. E., & MacKuen, M. B. (1993). Anxiety, enthusiasm, and the vote: The emotional underpinnings of learning and involvement during presidential campaig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3), 672-685.

Markus, H., & Zajonc, R. B. (1985). The cognitive perspective in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 137-230.

Mcclurg, S. D. (2003).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 of Social Interaction in Explaining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4), 449-464.

McLeod, J. M., & Reeves, B. (1980). On the nature of mass media effects. In *Television and Social Behavior: Beyond Violence and Children*, 17-54.

McLeod, D. M., Kosicki, G. M., & McLeod, J. M. (2002). Resurveying the boundaries of political communication effects. In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215-268).

McLeod, D. M., Kosicki, G. M., & Mcleod, J. M. (2009). Political communication effects. In *Media Effects* (pp. 244-267). Routledge.

McPherson, M., Smith-Lovin, L., & Cook, J. M. (2001). Birds of a feather: Homophily in social network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415-444.

Messing, S., & Westwood, S. J. (2014). Selective exposure in the age of social media: Endorsements trump partisan source affiliation when selecting news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41(8), 1042-1063.

Miller, P. R., & Conover, P. J. (2015). Red and blue states of mind: Partisan hostility and voting in the United Stat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8(2), 225-239.

Mutz, D. C. (2002a). Cross-cutting social networks: Testing democratic theory in practi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1), 111-126.

Mutz, D. C. (2002b). The consequences of cross-cutting network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838-855.

Mutz, D. C. (2006). *Hearing the other side: Deliberative versus participatory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tz, D. C., & Young, L. (2011). Communication and public opinion: Plus ca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75(5), 1018-1044.

Newton, K.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5), 575-586.

Nickerson, R. S. (1998).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2), 175-220.

Niemi, R. G., Weisberg, H. F., & Kimball, D. C. (2001).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CQ Press Washington, DC.

Nir, L. (2005). Ambivalent social networks and their consequences for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7(4), 422-442.

Okdie, B. M., & Wirth, J. H. (2018). Can burdensome Facebook "friends" cause you pain? Self-reported pain as a motivation for exclus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3(6), 313-331.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Penguin UK.

Park, N., Kee, K. F., & Valenzuela, S. (2009). Being immersed in social networking environment: Facebook groups, uses and gratifications,

and social outcomes. *CyberPsychology & Behavior*, 12(6), 729-733.

Pattie, C. J., & Johnston, R. J. (2009). Conversation, Disagre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31(2), 261-285. https://doi.org/10.1007/s11109-008-9071-z

Pettigrew, T. F. (1997). Generalized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73-185.

Petty, R. E., & Cacioppo, J. T. (1979). Issue involvement can increase or decrease persuasion by enhancing message-relevant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0), 1915.

Petty, R. E., & Cacioppo, J. T. (1986).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In *Communication and persuasion* (pp. 1-24). Springer.

Pingree, R. J. (2007). How Messages Affect Their Senders: A More General Model of Message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Deliberation. *Communication Theory*, 17(4), 439-461. https://doi.org/10.1111/j.1468-2885.2007.00306.x

Prior, M. (2013). Media and political polariz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6, 101-127.

Phua, J., Jin, S. V., & Kim, J. J. (2017a). Gratifications of using Facebook, Twitter, Instagram, or Snapchat to follow brand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comparison, trust, tie strength, and network homophily on brand identification, brand engagement, brand commitment, and membership intention. *Telematics and Informatics*, 34(1), 412-424.

Phua, J., Jin, S. V., & Kim, J. J. (2017b). Uses and gratifications of social networking sites for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A comparison of Facebook, Twitter, Instagram, and Snapcha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2, 115-122.

Quan-Haase, A., & Young, A. L. (2010). Uses and gratifications of social media: A comparison of Facebook and instant messaging.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30(5), 350-361.

Quick, B. L., & Heiss, S. N. (2009). An investigation of value-, impression-, and outcome-relevant involvement on attitudes, purchase intentions, and information seeking. *Communication Studies*, 60(3), 253-267.

Rojas, H. (2010). "Corrective" Actions in the Public Sphere: How Perceptions of Media and Media Effects Shape Political Behavi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2(3), 343-363. https://doi.org/10.1093/ijpor/edq018

Roseman, I. J. (1991). Appraisal determinants of discrete emotions. *Cognition & Emotion*, 5(3), 161-200.

Roser, C. (1990). Involvement, attention, and perceptions of message relevance in the response to persuasive appeals. *Communication Research*, 17(5), 571-600.

Scheufele, D. A., Hardy, B. W., Brossard, D., Waismel-Manor, I. S., & Nisbet, E. (2006). Democracy based on difference: Examining the links between structural heterogeneity, heterogeneity of discussion networks, and democratic citizenship. *Journal of Communication*, 56(4), 728-753.

Schmitt, K. M., Gunther, A. C., & Liebhart, J. L. (2004). Why partisans see mass media as biased. *Communication Research*, 31, 623-641.

Sears, D. O., & Freedman, J. L. (1967).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 critical review. *Public Opinion Quarterly*, 31(2), 194-213.

Shah, D. V., Cho, J., Eveland, W. P., & Kwak, N. (2005). Information and Expression in a Digital Age: Modeling Internet Effects on Civic Participation. *Communication Research*, 32(5), 531-565.

Shah, D. V., Cho, J., Nah, S., Gotlieb, M. R., Hwang, H., Lee, N. J., ... &

McLeod, D. M. (2007). Campaign ads, online messaging, and participation: Extending the communication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676-703.

Shah, D. V., McLeod, D. M., Kim, E., Lee, S. Y., Gotlieb, M. R., Ho, S. S., & Breivik, H. (2007). Political consumerism: How communication and consumption orientations drive "lifestyle politic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11(1), 217-235.

Shin, J., & Thorson, K. (2017). Partisan selective sharing: The biased diffusion of fact-checking messages on social media. *Journal of Communication*, 67(2), 233-255.

Singer, J. B. (2014). User-generated visibility: Secondary gatekeeping in a shared media space. *New Media & Society*, 16(1), 55-73.

Signorini, A., Segre, A. M., & Polgreen, P. M. (2011). The use of Twitter to track levels of disease activity and public concern in the US during the influenza A H1N1 pandemic. PloS *One*, 6(5), e19467.

Slater, M. D. (2007). Reinforcing spirals: The mutual influence of media selectivity and media effects and their impact on individual behavior and social identity. *Communication Theory*, 17(3), 281-303.

Smith, C. A., & Ellsworth, P. C. (1985). Patterns of cognitive appraisal in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4), 813.

Song, H. (2017). Why do people (sometimes) become selective about news? The role of emotions and partisan differences in selective approach and avoidance.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20(1), 47-67.

Sotirovic, M. & McLeod, J. M. (2001). Valu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8(3), 273-300.

Stavrositu, C. (2011, March). Mainstreaming: The Cultivation of System Justifying Beliefs. In IAMCR 2011-Istanbul.

Stroud, N. J. (2008). Media use and political predispositions: Revisiting the concept of selective exposure. *Political Behavior*, 30(3), 341-366.

Stroud, N. J. (2010). Polarization and partisan selective expos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0(3), 556-576.

Stroud, N. J. (2011).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Sun, Y., Shen, L., & Pan, Z. (2008). On the Behavioral Component of the Third-Person Effect. *Communication Research*, 35(2), 257-278. https://doi.org/10.1177/0093650207313167

Sunstein, C. R. (2001). *Republic*. Com. Princeton university press.

Sunstein, C. R. (2009). *Going to extremes: How like minds unite and divide*. Oxford University Press.

Tang, G., & Lee, F. L. (2013). Facebook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mpact of exposure to shared political information, connections with public political actors, and network structural heterogeneity.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31(6), 763-773.

Tausczik, Y., Faasse, K., Pennebaker, J. W., & Petrie, K. J. (2012). Public anxiety and information seeking following the H1N1 outbreak: Blogs, newspaper articles, and Wikipedia visits. *Health Communication*, 27(2), 179-185.

Tewksbury, D., Weaver, A. J., & Maddex, B. D. (2001). Accidentally informed: Incidental news exposure on the World Wide Web.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8(3), 533-554.

Thorson, E. (2014). Beyond Opinion Leaders: How Attempts to Persuade Foster Political Awareness and Campaign Learning. *Communication Research*, 41(3), 353-374.

Thorson, K. (2014). Facing an uncertain reception: Young citizens and political interaction on Facebook.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2), 203-216.

Valentino, N. A., Banks, A. J., Hutchings, V. L., & Davis, A. K. (2009). Selective exposure in the Internet age: The interaction between anxiety and information utility. *Political Psychology*, 30(4), 591-613.

Valentino, N. A., Brader, T., Groenendyk, E. W., Gregorowicz, K., & Hutchings, V. L. (2011). Election night's alright for fighting: The role of emotions in political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73(1), 156-170.

Valentino, N. A., Gregorowicz, K., & Groenendyk, E. W. (2009). Efficacy, emotions and the habit of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31(3), 307.

Valenzuela, S., Correa, T., & Gil de Zuniga, H. (2018). Ties, likes, and tweets: Using strong and weak ties to explain differences in protest participation across Facebook and Twitter use. *Political Communication*, 35(1), 117-134.

Valenzuela, S., Kim, Y., & Gil de Zuniga, H. (2012). Social networks that matter: Exploring the role of political discussion for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4(2), 163-184.

Valenzuela, S., Park, N., & Kee, K. F. (2009). Is there social capital in a social network site?: Facebook use and college students' life satisfaction, trust, and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4), 875-901.

Valeriani, A., & Vaccari, C. (2016). Accidental exposure to politics on social media as online participation equalizer in Germany,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New Media & Society*, 18(9), 1857-1874.

Vitak, J., Zube, P., Smock, A., Carr, C. T., Ellison, N., & Lampe, C. (2011). It's complicated: Facebook users'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2008 election.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3), 107-114.

Webster, J. G. (2014). *The marketplace of attention: How audiences take shape in a digital age*. Mit Press.

Weeks, B. E. (2015). Emotions, partisanship, and misperceptions: How anger and anxiety moderate the effect of partisan bias on susceptibility to political misinform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5(4), 699-719.

Weeks, B. E., Lane, D. S., Kim, D. H., Lee, S. S., & Kwak, N. (2017). Incidental exposure, selective exposure, and political information sharing: Integrating online exposure patterns and expression on social medi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2(6), 363-379.

Wells, C., Cramer, K. J., Wagner, M. W., Alvarez, G., Friedland, L. A., Shah, D. V., Bode, L., Edgerly, S., Gabay, I., & Franklin, C. (2017). When we stop talking politics: The maintenance and closing of conversation in contentious times. *Journal of Communication*, 67(1), 131-157.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 56-75). Sage Publications, Inc.

Wojcieszak, M. (2011). Deliberation and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61(4), 596-617.

Wojcieszak, M., & Rojas, H. (2011). Correlates of party, ideology and issue based extremity in an era of egocentric public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6(4), 488-507.

Wong, L. P., & Sam, I.-C. (2010). Public source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needs for pandemic influenza A (H1N1). *Journal of Community Health*, 35(6), 676-682.

Xenos, M., Vromen, A., & Loader, B. D. (2014). The great equalizer? Patterns of social media use and youth political engagement in three advanced democrac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7(2), 151-167.

Yang, Z. J., Ho, S. S., & Lwin, M. O. (2014). Promoting preventive behaviors against influenza: Comparis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4(6), 567-588.

Yoo, W., Choi, D.-H., & Park, K. (2016). The effects of SNS communication: How expressing and receiving information predict MERS-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in South Kore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2, 34-43.

Zajonc, R. B. (1980). Feeling and thinking: Preferences need no inferences. *American Psychologist*, 35(2), 151.

Zhu, Q., Skoric, M., & Shen, F. (2017). I shield myself from thee: Selective avoidance on social media during political protests. *Political Communication*, 34(1), 112-131.

Ziemke, D. A. (1980). Selective exposure in a presidential campaign contingent on certainty and salience.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1), 497-511.

<부록1> SNS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SNS1 (n=45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나이	-																			
2.종이신문	.19***	-																		
3.TV뉴스	.33***	.23***	-																	
4.인터넷 뉴스	.07	.15**	.22***	-																
5.네트워크동질성	-.15**	.17***	.01	.13**	-															
6.네트워크 규모	-.26***	.02	-.08	-.02	.00	-														
7.뉴스다양성	.06	.16**	.11*	.15**	.16**	.10*	-													
8.의견균형성	-.12*	-.07	-.09*	-.01	-.17***	-.04	-.18***	-												
9.선택적노출	.17***	.12*	.06	.14**	.28***	.00	.47***	-.24***	-											
10.교차노출	.03	.16**	.15**	.21***	.18***	.04	.38***	-.01	.60***	-										
11.선택적회피	.08	.22***	.04	.06	.29***	.07	.12*	-.10*	.25***	.13**	-									
12.사전태도	.17***	-.03	.03	.01	.03	-.02	.07	-.44***	.16**	-.08	.06	-								
13.태도	.19***	.00	.05	.08	.02	.03	.10*	-.43***	.20***	-.07	.02	.67***	-							
14.분노	.27***	.13**	.05	.09	.03	-.02	.18***	-.21***	.21***	.08	.05	.30***	.41***	-						
15.소셜미디어활동	.20***	.28***	.17***	.17***	.35***	.07	.31***	-.22***	.40***	.30***	.50***	.14**	.13**	.23***	-					
16.온라인정치참여	.09	.25***	.11*	.15**	.30***	.08	.28***	-.23***	.30***	.19***	.46***	.15**	.12*	.20***	.72***	-				
17.오프라인정치참여	.03	.25***	.05	.07	.25***	.05	.09	-.11*	.15**	.15**	.38***	.05	.03	.09	.52***	.67***	-			
18.이슈관여도	.14**	.11*	.04	.08	.22***	.00	.27***	-.25***	.43***	.15**	.20***	.27***	.25***	.30***	.34***	.34***	.24***	-		
19.이념극단성	.05	.12*	.03	.06	.18***	-.03	.07	-.23***	.21***	.03	.22***	.21***	.16**	.09	.19***	.23***	.16***	.19***	-	
20.관용	.11*	.07	.09*	.14**	-.01	.00	.23***	-.07	.19***	.18***	-.07	.01	.12**	.18***	.08	.08	-.12*	.17***	.07	-
평균	45.15	1.86	4.22	3.32	3.05	4.38	3.35	3.73	3.37	2.98	1.65	3.14	3.30	3.59	1.86	1.99	2.54	3.30	2.60	3.74
SD	13.80	1.34	1.16	1.13	0.79	1.37	0.76	1.68	0.90	0.90	0.80	1.87	1.62	1.19	0.80	0.77	1.83	1.04	1.35	0.60

주: n=450,

$^{*}p < .05$, $^{**}p < .01$, $^{***}p < .001$

<부록2> KKO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KKO1 (n=5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나이	-																			
2.종이신문	.18***	-																		
3.TV뉴스	.32***	.20***	-																	
4.인터넷 뉴스	.02	.09*	.24***	-																
5.네트워크동질성	-.15**	.18***	-.02	.10*	-															
6.네트워크 규모	-.22***	-.04	-.09*	.06	-.13**	-														
7.뉴스다양성	.12**	.19***	.25***	.20***	.11*	-.06	-													
8.의견균형성	-.10*	-.01	-.10*	-.06	-.07	.09*	-.14**	-												
9.선택적노출	.11*	.10*	.09*	.19***	.13**	-.01	.33***	-.23***	-											
10.교차노출	.05	.14**	.12**	.23***	.11*	.06	.38***	.02	.50***	-										
11.선택적회피	.09*	.25***	.06	.07	.22***	-.07	.22***	.03	.16***	.22***	-									
12.사전태도	.09	-.04	.06	.07	.07	-.08	.05	-.44***	.14**	-.12**	-.08	-								
13.태도	.14	-.03	.10*	.10*	.04	-.05	.15**	-.42***	.18***	-.08	-.11*	.69***	-							
14.분노	.22**	.09*	.11*	.02	.11*	.02	.15**	-.25***	.08	-.03	-.07	.34***	.43***	-						
15.소셜미디어활동	.08***	.27***	.07	.15**	.22***	-.03	.33***	-.16***	.36***	.28***	.49***	.05	.09*	.12**	-					
16.온라인정치참여	-.01	.23***	.07	.11*	.28***	-.01	.29***	-.14**	.29***	.20***	.43***	.11*	.10*	.11*	.67***	-				
17.오프라인정치참여	-.01	.21***	.01	.05	.25***	.02	.13**	-.02	.11*	.11*	.42***	-.01	-.05	.01	.47***	.64***	-			
18.이슈관여도	.12**	.08	.03	.02	.10*	.00	.17***	-.28***	.37***	.07	.12**	.25***	.26***	.25***	.30***	.28***	.18***	-		
19.이념극단성	.02	.12**	-.05	.08	.14**	-.04	.08	-.16***	.27***	.11*	.18***	.19***	.13**	.08	.19***	.21***	.19***	.20***	-	
20.관용	.16***	.06	.10*	.03	-.02	.07	.22***	-.02	.18***	.17***	-.05	.04	.13**	.17***	.05	.04	-.10*	.13**	.08	-
평균	47.44	1.89	4.23	3.32	2.94	4.77	3.23	3.66	3.42	2.98	1.66	3.25	3.35	3.70	1.99	2.05	2.73	3.44	2.61	3.73
SD	13.36	1.36	1.09	1.12	0.82	1.14	0.82	1.64	0.84	0.89	0.79	1.81	1.64	1.13	0.79	0.75	1.82	0.99	1.33	0.56

주: n=500,

$^{*}p < .05$, $^{**}p < .01$, $^{***}p < .001$

<부록3> SNS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SNS2 (n=57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나이	-																			
2.종이신문	.26***	-																		
3.TV뉴스	.39***	.26***	-																	
4.인터넷 뉴스	.14**	.19***	.27***	-																
5.네트워크동질성	-.12**	.14**	.01	.05	-															
6.네트워크 규모	-.24***	.03	-.10*	-.03	.00	-														
7.뉴스다양성	.04	.18***	.19***	.13**	.12**	.02	-													
8.의견균형성	-.10*	-.05	-.03	-.05	-.16***	-.04	-.21***	-												
9.선택적노출	.12**	.16***	.16***	.18***	.24***	.02	.45***	-.36***	-											
10.교차노출	.04	.17***	.19***	.22***	.10*	.04	.42***	-.08	.69***	-										
11.선택적회피	.11*	.28***	.09*	.10*	.30***	.10*	.11**	-.20***	.24***	.12**	-									
12.사전태도	.12**	.02	.02	.08*	.10*	-.02	.08	-.38***	.20***	.00	.10*	-								
13.태도	.09*	.02	.01	.03	.09*	.01	.05	-.44***	.24***	-.01	.06	.59***	-							
14.분노	.01	.10*	.03	.10*	-.01	.02	.11**	.03	.07	.12**	.12**	.10*	.01	-						
15.소셜미디어활동	.20***	.26***	.19***	.15***	.28***	.04	.27***	-.27***	.40***	.28***	.49***	.12**	.08	.17***	-					
16.온라인정치참여	.10*	.23***	.15***	.18***	.26***	.07	.22***	-.26***	.32***	.21***	.45***	.18***	.12**	.16***	.69***	-				
17.오프라인정치참여	.12**	.23***	.11*	.07	.19***	-.02	.13**	-.08*	.14**	.17***	.39***	.04	.00	.04	.50***	.66***	-			
18.이슈관여도	.11**	.00	.11**	.15***	.04	-.04	.28***	-.25***	.33***	.19***	-.08	.14**	.21***	.09*	.11**	.13**	-.04	-		
19.이념극단성	.11*	.14**	.06	.05	.20***	-.01	.05	-.27***	.20***	.02	.24***	.25***	.30***	.06	.21***	.23***	.12**	.08	-	
20.관용	.11**	.08	.09*	.11*	-.01	.03	.16***	-.03	.18***	.19***	-.06	.07	.12**	.04	.05	.03	-.11**	.30***	.02	-
평균	42.91	1.70	4.05	3.26	3.00	4.38	3.34	3.90	3.31	2.96	1.52	2.87	3.11	3.02	1.84	1.91	2.64	4.11	2.43	3.75
SD	14.07	1.26	1.23	1.12	0.81	1.33	0.87	1.63	0.88	0.91	0.73	1.99	1.56	1.30	0.79	0.76	1.84	0.91	1.34	0.60

주: n=579

$^{*}p < .05$, $^{**}p < .01$, $^{***}p < .001$

<부록4> KKO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KKO2 (n=67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나이	-																			
2.종이신문	.23***	-																		
3.TV뉴스	.39***	.21***	-																	
4.인터넷 뉴스	.10*	.14***	.21***	-																
5.네트워크동질성	-.10**	.15***	-.01	.07	-															
6.네트워크 규모	-.23***	-.08*	-.14***	.05	-.14***	-														
7.뉴스다양성	.08	.15***	.16***	.22***	.13**	.01	-													
8.의견균형성	-.11**	.00	-.03	-.12**	-.10*	.04	-.13***	-												
9.선택적노출	.11**	.13**	.12**	.21***	.18***	-.01	.48***	-.35***	-											
10.교차노출	.02	.13**	.10**	.20***	.11**	.03	.47***	-.07	.64***	-										
11.선택적회피	.13**	.22***	.10*	.08*	.14***	-.10**	.13**	-.12**	.17***	.16***	-									
12.사전태도	.07	.03	.02	.07	.09*	-.05	.06	-.38***	.27***	.00	.06	-								
13.태도	.10**	-.02	.03	.08*	.04	-.03	.05	-.43***	.24***	-.03	.04	.56***	-							
14.분노	-.02	.11**	-.01	.06	.11**	.03	.13**	.02	.11**	.15***	.07	.05	-.05	-						
15.소셜미디어활동	.13**	.24***	.13***	.16***	.17***	-.06	.33***	-.23***	.43***	.30***	.49***	.14***	.13***	.16***	-					
16.온라인정치참여	.06	.21***	.09*	.13**	.25***	-.06	.26***	-.22***	.35***	.25***	.45***	.18***	.14***	.12**	.70***	-				
17.오프라인정치참여	.10*	.22***	.08*	.05	.17***	-.05	.13**	-.03	.15***	.18***	.48***	.04	.02	.03	.46***	.66***	-			
18.이슈관여도	.12**	-.03	.07	.10*	.02	-.06	.28***	-.22***	.36***	.18***	-.11**	.19***	.25***	.05	.14***	.09*	-.07	-		
19.이념극단성	.07	.10*	.03	.05	.15***	-.05	.05	-.31***	.22***	.06	.20***	.23***	.27***	.01	.17***	.21***	.11**	.07	-	
20.관용	.08*	.04	.07	.07	-.02	.11**	.20***	-.08	.24***	.21***	-.05	.08*	.11**	.02	.07	.01	-.12**	.29***	.05	-
평균	44.40	1.71	4.08	3.26	2.87	4.85	3.33	3.81	3.31	2.94	1.50	2.87	3.14	2.96	1.93	1.91	2.67	4.18	2.44	3.73
SD	13.92	1.28	1.19	1.11	0.83	1.07	0.88	1.63	0.88	0.90	0.73	1.98	1.55	1.30	0.77	0.75	1.85	0.84	1.32	0.59

주: n=679

$^{*}p < .05$, $^{**}p < .01$, $^{***}p < .001$

<부록5> SNS1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1)]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S.E.*	*C.R.*	*p*	*AVE*	복합 신뢰도
네트워크 동질성	n1	1.00	.76				.490	.653
	n2	0.72	.58	0.11	6.52	***		
뉴스다양성	d1	1.00	.71				.625	.833
	d2	1.11	.82	0.08	13.96	***		
	d3	0.98	.74	0.07	13.32	***		
선택적 노출	se1	1.00	.88				.725	.887
	se2	0.92	.77	0.05	19.88	***		
	se3	1.00	.90	0.04	24.76	***		
교차 노출	ce1	1.00	.80				.666	.857
	ce2	1.02	.79	0.06	17.44	***		
	ce3	1.06	.88	0.06	19.27	***		
선택적 회피	sa1	1.00	.89				.841	.941
	sa2	1.02	.86	0.04	24.82	***		
	sa3	1.07	.94	0.04	28.70	***		
소셜 미디어 활동	sm1	1.00	.76				.748	.947
	sm2	1.30	.89	0.06	20.58	***		
	sm3	1.33	.90	0.06	20.77	***		
	sm4	1.22	.85	0.06	19.33	***		
	sm5	1.18	.86	0.06	19.74	***		
	sm6	1.16	.80	0.06	18.00	***		
온라인 정치 참여	on1	1.00	.70				.653	.903
	on2	1.12	.82	0.07	16.09	***		
	on3	1.12	.85	0.07	16.67	***		
	on4	1.04	.79	0.07	15.55	***		
	on5	1.03	.77	0.07	15.32	***		

(SNS1)

$x^2(df=254)=751.018,\ p<.001$

$TLI=.924,\ CFI=.936,\ RMSEA=.066$

*** $p<.001$

<부록6> SNS1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1		2		3		4		5		6		*AVE*
		ϕ^2		ϕ^2		ϕ^2		ϕ^2		ϕ^2		ϕ^2	
1.네트워크 동질성	-												.490
2.뉴스다양성	.204	.042											.625
3.선택적 노출	.376	.141	.580	.336									.725
4.교차 노출	.238	.057	.466	.217	.699	.489							.666
5.선택적 회피	.369	.136	.132	.017	.266	.071	.151	.023					.841
6.소셜 미디어 활동	.451	.203	.360	.130	.442	.195	.328	.108	.526	.277			.748
7.온라인 정치 참여	.404	.163	.313	.098	.331	.110	.226	.051	.510	.260	.773	.598	.653

1) 표에서 C.R.은 Critical Ratio를 의미하며 복합신뢰도(CR)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C.R.은 p값의 유의성을 판단하는 수치로 회귀분석 결과의 t값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부록7> KKO1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S.E.*	*C.R.*	*p*	*AVE*	복합 신뢰도
네트워크 동질성	n1	1.00	.60				.613	.753
	n2	1.39	.90	0.25	5.68	***		
뉴스다양성	d1	1.00	.71				.574	.801
	d2	1.17	.83	0.08	14.27	***		
	d3	0.97	.70	0.07	13.31	***		
선택적 노출	se1	1.00	.81				.657	.851
	se2	0.98	.75	0.06	17.06	***		
	se3	1.02	.83	0.06	18.52	***		
교차 노출	ce1	1.00	.75				.610	.824
	ce2	1.07	.77	0.07	16.12	***		
	ce3	1.09	.85	0.06	17.07	***		
선택적 회피	sa1	1.00	.91				.852	.945
	sa2	1.03	.88	0.04	29.23	***		
	sa3	1.00	.90	0.03	29.91	***		
소셜 미디어 활동	sm1	1.00	.71				.697	.932
	sm2	1.27	.86	0.07	18.59	***		
	sm3	1.26	.84	0.07	18.19	***		
	sm4	1.24	.85	0.07	18.41	***		
	sm5	1.27	.86	0.07	18.48	***		
	sm6	1.17	.76	0.07	16.45	***		
온라인 정치 참여	on1	1.00	.69				.651	.903
	on2	1.17	.80	0.07	16.17	***		
	on3	1.20	.86	0.07	17.12	***		
	on4	1.10	.79	0.07	15.93	***		
	on5	1.05	.76	0.07	15.41	***		

(KKO1)

$x^2(df=254)=667.42,\ p<.001$

$TLI=.935,\ CFI=.945,\ RMSEA=.057$

*** $p<.001$

<부록8> KKO1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1		2		3		4		5		6		*AVE*
		ϕ^2		ϕ^2		ϕ^2		ϕ^2		ϕ^2		ϕ^2	
1.네트워크 동질성	-												.613
2.뉴스다양성	.164	.027											.574
3.선택적 노출	.126	.016	.401	.161									.657
4.교차 노출	.147	.022	.473	.224	.609	.371							.610
5.선택적 회피	.294	.086	.260	.068	.172	.030	.249	.062					.852
6.소셜 미디어 활동	.333	.111	.357	.127	.396	.157	.310	.096	.488	.238			.697
7.온라인 정치 참여	.245	.060	.395	.156	.321	.103	.225	.051	.531	.282	.715	.511	.651

<부록9> SNS2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S.E.*	*C.R.*	*p*	*AVE*	복합 신뢰도
네트워크 동질성	n1	1.00	.72				.492	.659
	n2	0.87	.64	0.12	7.09	***		
뉴스다양성	d1	1.00	.80				.702	.876
	d2	1.07	.88	0.05	21.71	***		
	d3	0.98	.82	0.05	20.60	***		
선택적 노출	se1	1.00	.80				.660	.853
	se2	1.08	.78	0.05	19.92	***		
	se3	1.12	.86	0.05	22.23	***		
교차 노출	ce1	1.00	.80				.667	.857
	ce2	1.09	.78	0.06	19.97	***		
	ce3	1.15	.90	0.05	22.84	***		
선택적 회피	sa1	1.00	.91				.893	.962
	sa2	1.05	.88	0.03	32.60	***		
	sa3	1.08	.95	0.03	38.21	***		
소셜 미디어 활동	sm1	1.00	.74				.734	.943
	sm2	1.27	.86	0.06	21.30	***		
	sm3	1.33	.88	0.06	21.92	***		
	sm4	1.29	.86	0.06	21.22	***		
	sm5	1.29	.88	0.06	21.94	***		
	sm6	1.20	.78	0.06	19.20	***		
온라인 정치 참여	on1	1.00	.74				.655	.904
	on2	1.13	.86	0.06	20.54	***		
	on3	1.07	.85	0.05	20.39	***		
	on4	0.99	.75	0.06	17.74	***		
	on5	0.86	.71	0.05	16.88	***		

(SNS2)

$x^2(df=254)=812.569,\ p<.001$

$TLI=.935,\ CFI=.945,\ RMSEA=.062$

*** $p<.001$

<부록10> SNS2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1		2		3		4		5		6		*AVE*
		ϕ^2		ϕ^2		ϕ^2		ϕ^2		ϕ^2		ϕ^2	
1.네트워크 동질성	-												.492
2.뉴스다양성	.159	.025											.702
3.선택적 노출	.303	.092	.526	.277									.660
4.교차 노출	.120	.014	.465	.216	.790	.624							.667
5.선택적 회피	.372	.138	.124	.015	.253	.064	.144	.021					.893
6.소셜 미디어 활동	.334	.112	.248	.062	.430	.185	.299	.089	.491	.241			.734
7.온라인 정치 참여	.356	.127	.302	.091	.341	.116	.229	.052	.500	.250	.739	.546	.655

<부록11> KKO2 잠재변수의 집중 타당도

잠재요인	측정변수	요인부하량	표준화 요인부하량	*S.E.*	*C.R.*	*p*	*AVE*	복합 신뢰도
네트워크 동질성	n1	1.00	.61				.634	.769
	n2	1.45	.93	0.25	5.75	***		
뉴스다양성	d1	1.00	.77				.666	.856
	d2	1.10	.88	0.05	22.01	***		
	d3	0.97	.80	0.05	20.71	***		
선택적 노출	se1	1.00	.81				.641	.842
	se2	1.01	.75	0.05	20.51	***		
	se3	0.99	.85	0.04	23.39	***		
교차 노출	ce1	1.00	.79				.649	.847
	ce2	1.01	.75	0.05	20.23	***		
	ce3	1.12	.91	0.05	24.12	***		
선택적 회피	sa1	1.00	.91				.908	.967
	sa2	1.09	.92	0.03	39.62	***		
	sa3	1.00	.94	0.02	41.76	***		
소셜 미디어 활동	sm1	1.00	.66				.669	.923
	sm2	1.37	.85	0.07	19.28	***		
	sm3	1.36	.83	0.07	18.85	***		
	sm4	1.32	.84	0.07	19.13	***		
	sm5	1.28	.83	0.07	18.90	***		
	sm6	1.14	.74	0.07	17.16	***		
온라인 정치 참여	on1	1.00	.75				.665	.908
	on2	1.14	.86	0.05	22.52	***		
	on3	1.07	.85	0.05	22.28	***		
	on4	0.99	.75	0.05	19.39	***		
	on5	0.89	.72	0.05	18.72	***		

(KKO2)

$x^2(df=254)=800.96$, $p<.001$

$TLI=.942$, $CFI=.951$, $RMSEA=.056$

*** $p<.001$

<부록12> KKO2 잠재변수의 판별 타당도

	1		2		3		4		5		6		*AVE*
		ϕ^2		ϕ^2		ϕ^2		ϕ^2		ϕ^2		ϕ^2	
1.네트워크 동질성	-												.634
2.뉴스다양성	.179	.032											.666
3.선택적 노출	.195	.038	.560	.314									.641
4.교차 노출	.180	.032	.535	.286	.725	.526							.649
5.선택적 회피	.190	.036	.153	.023	.172	.030	.163	.027					.908
6.소셜 미디어 활동	.280	.078	.295	.087	.472	.223	.330	.109	.497	.247			.669
7.온라인 정치 참여	.207	.043	.379	.144	.376	.141	.268	.072	.517	.267	.745	.555	.665

<부록13> SNS1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경로 (SNS1)			B	β	S.E.	C.R.	p
종이신문	→	뉴스다양성	0.05	.11	.03	1.92	.055
TV뉴스	→	뉴스다양성	0.04	.07	.03	1.37	.170
인터넷 뉴스	→	뉴스다양성	0.06	.11	.03	1.96	.050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17	.17	.07	2.44	.015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5	.11	.03	2.13	.033
종이신문	→	의견균형성	0.01	.00	.06	0.09	.932
TV뉴스	→	의견균형성	-0.16	-.11	.07	-2.18	.029
인터넷 뉴스	→	의견균형성	0.08	.05	.07	1.10	.274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65	-.26	.16	-3.97	<.001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6	-.05	.06	-0.99	.321
나이	→	선택적노출	0.02	.24	.00	4.99	<.001
종이신문	→	선택적노출	-0.04	-.07	.03	-1.50	.134
TV뉴스	→	선택적노출	-0.04	-.05	.03	-1.19	.236
인터넷 뉴스	→	선택적노출	0.03	.04	.03	0.82	.414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41	.32	.09	4.72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0	.01	.03	0.14	.890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66	.51	.07	8.99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4	-.07	.02	-1.53	.127
나이	→	교차노출	0.00	.00	.00	0.04	.965
종이신문	→	교차노출	0.02	.02	.03	0.48	.630
TV뉴스	→	교차노출	0.06	.09	.04	1.75	.081
인터넷 뉴스	→	교차노출	0.07	.09	.04	1.95	.052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20	.16	.08	2.35	.019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0	.00	.03	0.01	.991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53	.42	.08	7.03	<.001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6	.13	.02	2.63	.009
나이	→	선택적회피	0.01	.17	.00	3.18	.001
종이신문	→	선택적회피	0.07	.12	.03	2.31	.021
TV뉴스	→	선택적회피	-0.02	-.03	.03	-0.60	.546
인터넷 뉴스	→	선택적회피	-0.02	-.03	.03	-0.67	.504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45	.41	.09	5.15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6	.11	.03	2.25	.024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2	.02	.06	0.33	.741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1	.03	.02	0.51	.609
나이	→	태도극단성	0.01	.06	.00	1.48	.138
사전태도극단성	→	태도극단성	0.48	.59	.03	16.72	<.00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55	.31	.11	4.83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45	-.24	.12	-3.89	<.00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14	-.07	.08	-1.71	.087
나이	→	분노	0.02	.21	.00	4.62	<.001
선택적노출	→	분노	0.42	.31	.11	3.98	<.001
교차노출	→	분노	-0.19	-.13	.11	-1.74	.081
선택적회피	→	분노	-0.03	-.02	.08	-0.43	.664
나이	→	소셜미디어활동	0.00	.03	.00	0.69	.490
종이신문	→	소셜미디어활동	0.05	.09	.02	2.25	.025
TV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5	.10	.02	2.25	.024
인터넷 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3	.05	.02	1.16	.246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0	-.01	.02	-0.15	.879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7	.12	.02	2.86	.004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2	.29	.05	4.11	<.001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1	-.01	.05	-0.10	.921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7	.42	.04	9.00	<.001
나이	→	온라인정치참여	0.00	-.07	.00	-1.49	.137
종이신문	→	온라인정치참여	0.06	.12	.02	2.51	.012
TV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4	.07	.03	1.47	.142
인터넷 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4	.07	.03	1.45	.147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0	.01	.02	0.10	.92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7	.12	.03	2.52	.012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19	.24	.06	2.95	.003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5	-.06	.06	-0.72	.473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39	.42	.05	8.01	<.001
나이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5	.01	-0.98	.329
종이신문	→	오프라인정치참여	0.21	.15	.06	3.29	<.001
TV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0	.08	-0.06	.951
인터넷 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1	.07	0.23	.821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2	.06	0.41	.679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8	.05	.07	1.04	.300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07	-.03	.17	-0.41	.682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2	.10	.17	1.31	.192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0.90	.36	.12	7.55	<.001

$x^2(df=469)=1123.318,\ p<.001$

$TLI=908,\ CFI=.927,\ RMSEA=.056$

<부록14> KKO1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경로(KKO1)			B	β	S.E.	C.R.	p
종이신문	→	뉴스다양성	0.07	.14	.03	2.91	.004
TV뉴스	→	뉴스다양성	0.15	.23	.03	4.49	<.001
인터넷 뉴스	→	뉴스다양성	0.09	.14	.03	2.83	.005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15	.12	.07	2.23	.026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2	-.03	.03	-0.61	.541
종이신문	→	의견균형성	0.02	.02	.06	0.41	.683
TV뉴스	→	의견균형성	-0.13	-.08	.07	-1.79	.073
인터넷 뉴스	→	의견균형성	-0.06	-.04	.07	-0.86	.391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08	-.03	.14	-0.55	.581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11	.08	.07	1.74	.082
나이	→	선택적노출	0.01	.11	.00	2.15	.032
종이신문	→	선택적노출	-0.01	-.01	.03	-0.19	.849
TV뉴스	→	선택적노출	-0.06	-.08	.04	-1.61	.108
인터넷 뉴스	→	선택적노출	0.09	.13	.03	2.79	.005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1	.08	.07	1.53	.126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4	.05	.03	1.11	.268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0	.36	.07	6.17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0	-.21	.02	-4.53	<.001
나이	→	교차노출	0.00	.03	.00	0.67	.506
종이신문	→	교차노출	0.02	.03	.03	0.64	.520
TV뉴스	→	교차노출	-0.02	-.03	.04	-0.66	.510
인터넷 뉴스	→	교차노출	0.10	.14	.03	3.04	.002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09	.07	.07	1.30	.195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6	.09	.03	1.84	.065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50	.44	.07	7.22	<.001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5	.10	.02	2.26	.024
나이	→	선택적회피	0.01	.12	.00	2.39	.017
종이신문	→	선택적회피	0.09	.16	.03	3.46	<.001
TV뉴스	→	선택적회피	-0.03	-.05	.03	-0.99	.324
인터넷 뉴스	→	선택적회피	0.00	.00	.03	0.07	.947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34	.26	.07	4.80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0	.00	.03	0.10	.923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21	.19	.06	3.57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3	.08	.02	1.70	.090
나이	→	태도극단성	0.01	.08	.00	2.44	.015
사전태도극단성	→	태도극단성	0.53	.62	.03	19.04	<.00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39	.20	.10	3.83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21	-.10	.10	-2.02	.044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17	-.08	.08	-2.29	.022
나이	→	분노	0.02	.21	.00	4.81	<.001
선택적노출	→	분노	0.27	.18	.10	2.79	.005
교차노출	→	분노	-0.18	-.13	.10	-1.90	.058
선택적회피	→	분노	-0.13	-.09	.07	-1.84	.066
나이	→	소셜미디어활동	0.00	-.04	.00	-0.89	.371
종이신문	→	소셜미디어활동	0.06	.13	.02	3.27	.001
TV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1	-.01	.02	-0.28	.782
인터넷 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2	.04	.02	0.94	.349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2	.04	.02	1.13	.259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6	.10	.02	2.46	.014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5	.30	.05	5.07	<.001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0	.00	.05	-0.07	.946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9	.46	.04	9.79	<.001
나이	→	온라인정치참여	-0.01	-.14	.00	-3.16	.002
종이신문	→	온라인정치참여	0.06	.12	.02	2.66	.008
TV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2	.03	.03	0.70	.482
인터넷 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1	.01	.03	0.25	.800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5	.02	1.25	.21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6	.11	.03	2.49	.013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2	.26	.05	4.03	<.00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3	-.03	.05	-0.53	.600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39	.45	.04	8.75	<.001
나이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8	.01	-1.85	.064
종이신문	→	오프라인정치참여	0.16	.12	.06	2.74	.006
TV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3	-.02	.07	-0.39	.700
인터넷 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1	.07	0.29	.769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3	-.02	.05	-0.58	.566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9	.05	.07	1.24	.217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7	.07	.15	1.15	.249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05	.15	-0.81	.421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01	.42	.11	9.18	<.001

$x^2(df=469)=1147.248,\ p<.001$

$TLI=.903,\ CFI=.924,\ RMSEA=.054$

<부록15> SNS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경로(SNS2)			B	β	S.E.	C.R.	p
종이신문	→	뉴스다양성	0.07	.11	.03	2.36	.018
TV뉴스	→	뉴스다양성	0.10	.16	.03	3.38	<.001
인터넷 뉴스	→	뉴스다양성	0.05	.06	.03	1.41	.160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0	.16	.07	2.84	.004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2	.03	.03	0.72	.469
종이신문	→	의견균형성	0.01	.01	.06	0.13	.899
TV뉴스	→	의견균형성	-0.03	-.02	.06	-0.51	.614
인터넷 뉴스	→	의견균형성	-0.06	-.04	.06	-0.87	.383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58	-.22	.14	-4.02	<.001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5	-.04	.05	-1.00	.316
나이	→	선택적노출	0.01	.12	.00	2.69	.007
종이신문	→	선택적노출	0.00	-.01	.03	-0.12	.908
TV뉴스	→	선택적노출	0.01	.02	.03	0.42	.673
인터넷 뉴스	→	선택적노출	0.06	.09	.03	2.37	.018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27	.22	.07	4.10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3	.04	.02	1.15	.250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39	.41	.04	8.97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2	-.26	.02	-6.48	<.001
나이	→	교차노출	0.00	-.04	.00	-0.78	.433
종이신문	→	교차노출	0.03	.05	.03	1.11	.267
TV뉴스	→	교차노출	0.05	.08	.03	1.66	.097
인터넷 뉴스	→	교차노출	0.11	.15	.03	3.63	<.001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06	.05	.07	0.87	.384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1	.02	.02	0.60	.552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3	.43	.05	8.83	<.001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2	.04	.02	0.95	.345
나이	→	선택적회피	0.01	.14	.00	3.06	.002
종이신문	→	선택적회피	0.10	.18	.02	3.99	<.001
TV뉴스	→	선택적회피	0.00	-.01	.03	-0.13	.901
인터넷 뉴스	→	선택적회피	0.02	.03	.03	0.70	.483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39	.36	.07	5.81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6	.12	.02	2.98	.003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0	.00	.04	-0.03	.975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4	-.09	.02	-2.12	.034
나이	→	태도극단성	0.00	-.02	.00	-0.47	.639
사전태도극단성	→	태도극단성	0.40	.52	.03	15.48	<.00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07	.54	.15	6.96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85	-.44	.15	-5.86	<.00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16	-.07	.08	-1.99	.047
나이	→	분노	0.00	.01	.00	0.25	.800
선택적노출	→	분노	-0.28	-.17	.15	-1.87	.062
교차노출	→	분노	0.42	.25	.14	2.89	.004
선택적회피	→	분노	0.26	.14	.09	3.03	.002
나이	→	소셜미디어활동	0.00	.06	.00	1.56	.119
종이신문	→	소셜미디어활동	0.03	.07	.02	1.70	.088
TV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3	.07	.02	1.60	.109
인터넷 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1	.01	.02	0.30	.764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2.30	.022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5	.10	.02	2.84	.005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5	.54	.07	6.04	<.001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0	-.24	.07	-2.86	.004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4	.36	.04	8.46	<.001
나이	→	온라인정치참여	0.00	-.05	.00	-1.19	.235
종이신문	→	온라인정치참여	0.04	.08	.02	1.80	.072
TV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4	.07	.03	1.63	.103
인터넷 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6	.09	.03	2.27	.023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0	.00	.02	-0.05	.960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5	.10	.02	2.52	.012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9	.41	.09	4.36	<.00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0	-.22	.08	-2.41	.016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0	.38	.05	8.27	<.001
나이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6	.01	1.35	.179
종이신문	→	오프라인정치참여	0.14	.10	.06	2.34	.019
TV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1	.07	0.19	.848
인터넷 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1	.07	-0.28	.783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0	.05	0.04	.968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4	-.03	.06	-0.81	.416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5	-.11	.22	-1.16	.247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42	.18	.21	2.03	.043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01	.37	.12	8.61	<.001

$x^2(df=470)=1205.489,\ p<.001$

$TLI=.919,\ CFI=.936,\ RMSEA=.052$

<부록16> KKO2 구조모형 경로분석 결과

경로(KKO2)			B	β	S.E.	C.R.	p
종이신문	→	뉴스다양성	0.06	.10	.03	2.36	.018
TV뉴스	→	뉴스다양성	0.08	.13	.03	3.01	.003
인터넷 뉴스	→	뉴스다양성	0.13	.19	.03	4.54	<.001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1	.16	.06	3.52	<.00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4	.05	.03	1.27	.204
종이신문	→	의견균형성	0.03	.03	.05	0.69	.492
TV뉴스	→	의견균형성	0.00	.00	.06	-0.07	.944
인터넷 뉴스	→	의견균형성	-0.17	-.12	.06	-3.00	.003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16	-.06	.12	-1.41	.160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6	.04	.06	0.97	.331
나이	→	선택적노출	0.00	.06	.00	1.52	.129
종이신문	→	선택적노출	0.01	.02	.02	0.50	.619
TV뉴스	→	선택적노출	0.00	.00	.03	-0.04	.972
인터넷 뉴스	→	선택적노출	0.04	.05	.03	1.46	.145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3	.10	.05	2.49	.013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2	.03	.03	0.75	.452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9	.49	.04	11.19	<.00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6	-.32	.02	-8.99	<.001
나이	→	교차노출	0.00	-.02	.00	-0.49	.623
종이신문	→	교차노출	0.03	.04	.02	1.03	.304
TV뉴스	→	교차노출	0.00	.00	.03	-0.09	.926
인터넷 뉴스	→	교차노출	0.05	.07	.03	1.90	.058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12	.09	.06	2.05	.041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3	.04	.03	0.94	.345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51	.51	.05	10.75	<.001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1	.01	.02	0.38	.701
나이	→	선택적회피	0.00	.09	.00	2.01	.044
종이신문	→	선택적회피	0.09	.17	.02	4.12	<.001
TV뉴스	→	선택적회피	0.01	.01	.02	0.20	.844
인터넷 뉴스	→	선택적회피	0.00	.01	.03	0.15	.878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18	.16	.05	3.54	<.00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3	-.04	.03	-1.07	.284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7	.08	.04	1.81	.070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3	-.08	.02	-2.07	.038
나이	→	태도극단성	0.00	.02	.00	0.72	.469
사전태도극단성	→	태도극단성	0.37	.49	.02	15.38	<.00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75	.41	.11	6.64	<.00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64	-.35	.11	-5.73	<.00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02	-.01	.07	-0.32	.750
나이	→	분노	0.00	-.03	.00	-0.78	.438
선택적노출	→	분노	-0.06	-.04	.11	-0.52	.604
교차노출	→	분노	0.30	.19	.11	2.71	.007
선택적회피	→	분노	0.09	.05	.08	1.26	.209
나이	→	소셜미디어활동	0.00	-.01	.00	-0.22	.827
종이신문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2.58	.010
TV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2	.03	.02	0.97	.333
인터넷 뉴스	→	소셜미디어활동	0.02	.03	.02	0.85	.394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0	-.01	.01	-0.30	.761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2.89	.004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35	.47	.05	7.04	<.001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9	-.12	.05	-1.93	.054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6	.42	.03	10.72	<.001
나이	→	온라인정치참여	0.00	-.07	.00	-1.89	.059
종이신문	→	온라인정치참여	0.05	.10	.02	2.71	.007
TV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1	.02	.02	0.59	.557
인터넷 뉴스	→	온라인정치참여	0.01	.02	.02	0.50	.617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5	.02	1.36	.173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4	.07	.02	1.87	.062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0	.35	.06	5.01	<.00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6	-.07	.06	-1.00	.319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3	.43	.04	10.50	<.001
나이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2	.01	0.44	.658
종이신문	→	오프라인정치참여	0.15	.11	.05	2.97	.003
TV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0	.06	0.05	.958
인터넷 뉴스	→	오프라인정치참여	-0.03	-.02	.06	-0.57	.567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2	.04	0.54	.588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4	-.03	.05	-0.84	.400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3	-.06	.15	-0.89	.372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34	.15	.15	2.36	.019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21	.45	.10	12.40	<.001

$x^2(df=470)=1291.189,\ p<.001$

$TLI=.918,\ CFI=.935,\ RMSEA=.051$

<부록17> 개인 내적 특성과 연령대 고·저 집단 측정 동일성 검증에 대한 합치도 지수

케이스	집단	모형	x^2	df	TLI	CFI	RMSEA	df차이	x^2차이	p
SNS1	이슈관여도	1	1024.261	508	0.919	0.931	0.048			
		2	1050.399	526	0.921	0.930	0.047	18	26.138	.097
	이념극단성	1	1075.869	508	0.913	0.926	0.050			
		2	1084.333	526	0.917	0.928	0.049	18	8.463	.971
	관용	1	1041.156	508	0.919	0.931	0.048			
		2	1067.637	526	0.920	0.930	0.048	18	26.481	.089
	세대	1	1118.031	508	0.909	0.923	0.052			
		2	1145.339	526	0.91	0.921	0.051	18	27.308	.073
KKO1	이슈관여도	1	983.396	508	0.924	0.936	0.043			
		2	1004.431	526	0.926	0.935	0.043	18	21.035	.278
	이념극단성	1	967.090	508	0.928	0.939	0.043			
		2	991.157	526	0.929	0.938	0.042	18	24.067	.153
	관용	1	1031.174	508	0.919	0.931	0.045			
		2	1068.673	526	0.919	0.929	0.046	18	37.499	.005
	세대	1	1025.039	508	0.92	0.933	0.045			
		2	1046.521	526	0.923	0.932	0.045	18	21.482	.256
SNS2	이슈관여도	1	1077.071	508	0.934	0.944	0.044			
		2	1101.239	526	0.935	0.943	0.044	18	24.168	.150
	이념극단성	1	1168.063	508	0.923	0.935	0.047			
		2	1197.98	526	0.924	0.933	0.047	18	29.917	.038
	관용	1	1225.477	508	0.917	0.93	0.049			
		2	1242.483	526	0.92	0.93	0.049	18	17.006	.523
	세대	1	1161.996	508	0.924	0.936	0.047			
		2	1185.466	526	0.926	0.935	0.047	18	23.469	.173
KKO2	이슈관여도	1	1095.264	508	0.938	0.947	0.041			
		2	1118.517	526	0.94	0.947	0.041	18	23.253	.181
	이념극단성	1	1154.135	508	0.931	0.942	0.043			
		2	1170.268	526	0.934	0.942	0.043	18	16.134	.583
	관용	1	1145.654	508	0.933	0.943	0.043			
		2	1163.036	526	0.935	0.943	0.042	18	17.382	.497
	세대	1	1186.418	508	0.929	0.94	0.044			
		2	1209.525	526	0.931	0.939	0.044	18	23.107	.187

주: 모형1은 형태동일성을 알아보기 위한 비제약 모형이며, 모형2는 요인적재치 동일성을 살펴보기 위한 요인적재치 제약 모형임.

<부록18> SNS1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슈관여도 집단 (SNS1)								경로 차이	
			저 (n=203)				고 (n=247)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06	-.05	.11	.607	0.24	.26	.09	.008	4.392	.036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6	.12	.04	.122	0.04	.10	.03	.159	0.093	.761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31	.12	.25	.227	-0.98	-.40	.22	<.001	13.954	.000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3	-.03	.09	.698	-0.06	-.06	.07	.366	0.073	.788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43	.32	.15	.004	0.33	.30	.10	.001	0.300	.58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7	-.10	.05	.146	0.06	.10	.03	.073	4.747	.029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52	.40	.10	<.001	0.74	.61	.10	<.001	2.669	.102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6	-.12	.04	.082	0.00	.00	.03	.982	1.752	.186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47	.36	.15	.002	-0.01	-.01	.12	.923	6.556	.010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4	-.06	.04	.419	0.03	.05	.04	.488	1.105	.293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6	.37	.10	<.001	0.64	.48	.11	<.001	1.419	.234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0	.00	.04	.976	0.07	.14	.04	.039	1.888	.169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31	.29	.12	.008	0.52	.45	.13	<.001	1.470	.225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3	.06	.04	.396	0.08	.14	.04	.035	0.793	.373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8	.08	.08	.296	-0.07	-.06	.10	.491	1.378	.240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5	.11	.03	.118	-0.01	-.02	.04	.810	1.238	.266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12	.60	.56	.045	0.59	.30	.13	<.001	0.605	.437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1.29	-.67	.57	.024	-0.25	-.14	.11	.026	0.373	.54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33	-.14	.15	.030	-0.03	-.01	.10	.784	2.875	.090
선택적노출	→	분노	0.76	.55	.48	.111	0.31	.20	.13	.017	0.591	.442
교차노출	→	분노	-0.64	-.44	.49	.194	-0.11	-.07	.12	.360	0.794	.373
선택적회피	→	분노	-0.01	-.01	.13	.918	-0.06	-.04	.10	.526	0.084	.772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2	-.06	.02	.360	0.00	-.01	.02	.936	0.284	.594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7	.14	.03	.029	0.05	.09	.03	.110	0.216	.642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4	.36	.22	.257	0.23	.28	.06	<.001	0.001	.977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4	-.20	.22	.531	0.05	.07	.06	.361	0.357	.550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7	.44	.06	<.001	0.34	.43	.05	<.001	0.186	.666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5	.03	.492	0.00	.00	.03	.985	0.232	.630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9	.15	.04	.043	0.06	.10	.03	.110	0.310	.577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1	-.01	.29	.985	0.23	.26	.07	.002	0.242	.623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4	.05	.30	.895	-0.02	-.02	.07	.774	0.017	.897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1	.40	.08	<.001	0.38	.45	.06	<.001	0.099	.753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1	.08	.939	0.01	.01	.08	.892	0.019	.890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3	-.02	.11	.809	0.12	.07	.10	.225	0.877	.349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35	-.16	.74	.637	0.02	.01	.20	.922	0.147	.701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4	.11	.77	.756	0.31	.14	.18	.086	0.006	.937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05	.38	.20	<.001	0.82	.35	.15	<.001	0.820	.365

<부록19> KKO1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슈관여도 집단 (KKO1)								경로 차이	
			저 (n=279)				고 (n=221)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04	.04	.09	.606	0.16	.15	.09	.084	0.856	.355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2	−.03	.04	.605	−0.02	−.03	.05	.683	0.000	.988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13	.05	.19	.501	−0.16	−.06	.21	.443	0.981	.322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9	.07	.08	.266	0.13	.09	.10	.178	0.099	.753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0	.08	.10	.312	0.09	.09	.10	.335	0.001	.971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2	.04	.819	0.08	.14	.05	.069	1.432	.231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34	.30	.08	<.001	0.39	.41	.09	<.001	0.206	.650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6	−.13	.03	.040	−0.08	−.19	.03	.005	0.263	.608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24	.20	.10	.012	−0.05	−.04	.11	.646	3.867	.049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4	.07	.04	.280	0.09	.11	.05	.105	0.429	.512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6	.33	.08	<.001	0.72	.60	.12	<.001	7.248	.007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2	.04	.03	.483	0.05	.10	.03	.118	0.569	.451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45	.38	.09	<.001	0.22	.18	.11	.048	2.364	.12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2	.03	.04	.605	0.00	.00	.05	.976	0.100	.752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18	.17	.07	.012	0.32	.28	.10	.002	1.264	.261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2	.04	.03	.514	0.04	.09	.03	.199	0.390	.532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29	.13	.24	.229	0.36	.19	.12	.002	0.071	.790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28	−.12	.25	.263	−0.08	−.05	.09	.382	0.475	.49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37	−.16	.12	.003	−0.05	−.03	.08	.542	4.399	.036
선택적노출	→	분노	−0.17	−.11	.19	.373	0.17	.11	.14	.221	1.898	.168
교차노출	→	분노	0.09	.06	.19	.646	−0.07	−.05	.11	.538	0.450	.502
선택적회피	→	분노	−0.13	−.09	.10	.176	−0.18	−.13	.10	.070	0.116	.733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2	.06	.02	.258	0.00	−.01	.03	.905	0.509	.476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4	.08	.03	.140	0.03	.05	.03	.383	0.086	.770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4	.05	.09	.638	0.34	.37	.07	<.001	6.321	.012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0	.13	.09	.261	0.01	.01	.06	.905	0.728	.393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5	.55	.05	<.001	0.29	.39	.05	<.001	5.440	.020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4	.02	.449	0.00	.00	.03	.984	0.191	.662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9	.16	.03	.007	−0.02	−.03	.04	.679	3.975	.046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8	−.10	.10	.403	0.35	.38	.08	<.001	10.998	.00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1	.25	.10	.044	−0.10	−.13	.06	.122	5.954	.015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6	.53	.06	<.001	0.29	.38	.06	<.001	4.643	.031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0	.06	.968	−0.07	−.05	.09	.419	0.376	.540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7	.04	.09	.476	0.01	.00	.11	.945	0.161	.689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3	−.05	.29	.658	0.18	.07	.22	.416	0.667	.414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0	.04	.30	.738	−0.12	−.06	.18	.521	0.357	.550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39	.52	.16	<.001	0.69	.32	.16	<.001	10.200	.001

<부록20> SNS2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슈관여도 집단 (SNS2)								경로 차이	
			저 (n=319)				고 (n=260)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15	.13	.08	.063	0.27	.19	.13	.041	0.550	.458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1	-.02	.04	.717	0.06	.11	.04	.098	2.075	.150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39	-.18	.15	.009	-1.00	-.34	.28	<.001	3.435	.064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3	.02	.07	.691	-0.15	-.12	.08	.053	2.980	.084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23	.22	.07	.001	0.39	.31	.12	.002	1.246	.26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2	-.03	.03	.599	0.07	.13	.03	.024	3.940	.047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32	.35	.06	<.001	0.40	.44	.06	<.001	1.017	.313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2	-.25	.03	<.001	-0.07	-.17	.03	.010	1.830	.176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11	.10	.08	.156	0.00	.00	.13	.987	0.493	.483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1	-.01	.03	.854	0.03	.05	.04	.442	0.480	.488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1	.34	.06	<.001	0.51	.50	.07	<.001	4.423	.035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1	-.02	.03	.718	0.05	.09	.03	.157	1.596	.206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16	.16	.07	.022	0.74	.62	.15	<.001	16.979	.000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4	.07	.03	.208	0.10	.20	.03	.003	1.928	.165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2	-.03	.05	.683	0.03	.03	.06	.670	0.341	.559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6	-.13	.03	.029	0.00	-.01	.03	.929	1.770	.183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09	.53	.23	<.001	1.04	.50	.25	<.001	0.013	.909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96	-.48	.23	<.001	-0.78	-.42	.21	<.001	0.276	.599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09	-.04	.11	.383	-0.14	-.07	.14	.309	0.072	.789
선택적노출	→	분노	-0.37	-.22	.21	.082	-0.32	-.17	.27	.227	0.023	.881
교차노출	→	분노	0.34	.21	.21	.105	0.51	.30	.22	.022	0.278	.598
선택적회피	→	분노	0.39	.22	.11	<.001	0.19	.09	.15	.216	1.229	.268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3	-.08	.02	.123	-0.04	-.09	.03	.144	0.041	.839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5	.09	.02	.047	0.05	.11	.03	.042	0.035	.851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3	.51	.10	<.001	0.63	.71	.13	<.001	1.166	.280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8	-.21	.10	.075	-0.32	-.40	.11	.004	0.691	.406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1	.45	.05	<.001	0.17	.18	.07	.012	8.763	.003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4	.02	.431	0.02	.04	.03	.556	0.786	.375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5	.08	.03	.107	0.06	.11	.03	.070	0.091	.763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6	.39	.12	.003	0.44	.43	.16	.005	0.143	.705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0	-.22	.12	.089	-0.21	-.23	.13	.102	0.002	.964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2	.42	.06	<.001	0.33	.31	.08	<.001	0.715	.398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6	-.05	.07	.368	0.08	.07	.07	.258	1.883	.170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3	.02	.08	.761	-0.11	-.09	.07	.133	1.482	.224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31	.12	.34	.367	-0.57	-.24	.35	.104	2.797	.094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7	-.11	.34	.428	0.89	.41	.30	.003	5.699	.017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07	.38	.16	<.001	0.92	.36	.18	<.001	0.388	.533

<부록21> KKO2 이슈관여도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슈관여도 집단 (KKO2)								경로 차이	
			저 (n=359)				고 (n=320)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1	.18	.07	.003	0.16	.13	.09	.074	0.170	.68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0	.00	.04	.955	0.09	.13	.04	.041	2.059	.151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04	−.02	.14	.786	−0.43	−.16	.19	.021	2.746	.098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8	.05	.08	.331	0.01	.01	.09	.923	0.335	.563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3	.11	.06	.042	0.18	.16	.08	.026	0.279	.598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3	.04	.04	.390	0.03	.05	.04	.410	0.000	.987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4	.45	.06	<.001	0.44	.46	.06	<.001	0.001	.980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6	−.32	.02	<.001	−0.12	−.27	.02	<.001	1.181	.277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10	.09	.07	.148	0.13	.10	.10	.177	0.076	.783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7	.09	.04	.077	−0.01	−.02	.04	.791	1.822	.177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8	.49	.06	<.001	0.53	.48	.07	<.001	0.302	.583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3	−.06	.02	.241	0.05	.10	.03	.082	4.239	.040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19	.18	.06	.003	0.12	.11	.08	.141	0.442	.506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4	−.06	.04	.312	−0.04	−.06	.04	.307	0.002	.961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11	.13	.05	.030	0.11	.11	.06	.071	0.007	.935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5	−.12	.02	.023	−0.04	−.09	.02	.125	0.232	.630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92	.49	.18	<.001	0.50	.25	.17	.002	2.296	.130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82	−.44	.18	<.001	−0.48	−.27	.14	<.001	1.798	.180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08	−.04	.10	.407	0.15	.07	.11	.181	2.367	.124
선택적노출	→	분노	−0.03	−.02	.17	.869	−0.12	−.06	.18	.493	0.135	.713
교차노출	→	분노	0.36	.23	.17	.034	0.23	.14	.15	.124	0.317	.574
선택적회피	→	분노	0.16	.09	.10	.111	0.01	.00	.12	.945	0.924	.336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0	.00	.02	.971	0.00	.01	.02	.926	0.002	.963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0	.00	.02	.996	0.07	.17	.02	<.001	6.276	.012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8	.39	.07	<.001	0.38	.46	.07	<.001	0.812	.368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1	−.02	.07	.836	−0.12	−.17	.06	.044	1.193	.275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8	.46	.04	<.001	0.32	.37	.05	<.001	0.840	.359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3	.07	.02	.124	0.03	.06	.03	.335	0.033	.856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1	.01	.02	.755	0.05	.11	.03	.054	1.509	.219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17	.20	.09	.046	0.42	.43	.09	<.001	3.227	.072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2	.03	.09	.795	−0.12	−.14	.08	.130	1.280	.258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52	.53	.05	<.001	0.30	.30	.06	<.001	7.837	.005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3	.02	.06	.647	0.05	.04	.06	.441	0.049	.825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1	.07	.908	−0.07	−.06	.07	.276	0.411	.522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0	−.04	.25	.692	0.01	.00	.21	.982	0.087	.769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8	.11	.25	.264	0.28	.13	.18	.128	0.000	.998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45	.52	.14	<.001	0.89	.35	.14	<.001	7.906	.005

<부록22> SNS1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념극단성 집단 (SNS1)								경로 차이	
			저 (n=231)				고 (n=219)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17	.17	.10	.103	0.24	.22	.11	.031	0.178	.673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8	.19	.03	.009	0.01	.02	.04	.755	2.052	.152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80	−.31	.25	.001	−0.32	−.12	.24	.188	1.457	.227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9	−.08	.07	.202	−0.04	−.03	.09	.671	0.231	.631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54	.41	.14	<.001	0.29	.20	.13	.021	1.782	.182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2	.04	.715	−0.01	−.01	.04	.898	0.108	.742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66	.51	.10	<.001	0.68	.52	.10	<.001	0.034	.855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1	−.01	.03	.836	−0.06	−.11	.03	.074	1.026	.311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34	.29	.13	.007	0.15	.10	.13	.273	1.137	.286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2	−.03	.04	.643	0.02	.02	.05	.729	0.301	.583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55	.48	.10	<.001	0.53	.41	.11	<.001	0.016	.900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10	.21	.03	.003	0.04	.08	.04	.201	1.181	.277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46	.44	.12	<.001	0.51	.40	.14	<.001	0.078	.780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5	.11	.03	.105	0.08	.12	.04	.088	0.175	.676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6	−.06	.08	.461	0.07	.06	.10	.475	1.022	.312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5	.11	.03	.133	−0.03	−.07	.03	.322	2.772	.096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00	.54	.24	<.001	0.38	.22	.13	.004	4.678	.03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1.09	−.52	.28	<.001	−0.22	−.13	.12	.077	7.965	.005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30	−.13	.14	.029	−0.02	−.01	.10	.815	2.606	.106
선택적노출	→	분노	0.85	.62	.20	<.001	0.15	.11	.14	.291	8.200	.004
교차노출	→	분노	−0.56	−.37	.23	.013	−0.04	−.03	.13	.789	4.029	.045
선택적회피	→	분노	0.06	.03	.12	.630	−0.08	−.05	.11	.456	0.733	.392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0	.00	.03	.985	0.00	.00	.03	.943	0.001	.971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3	.06	.04	.334	0.08	.14	.03	.013	0.879	.349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35	.47	.11	.002	0.18	.24	.07	.007	1.350	.245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6	−.19	.12	.191	0.06	.07	.07	.384	2.030	.154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9	.42	.06	<.001	0.34	.40	.06	<.001	0.331	.565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5	.03	.519	0.02	.04	.03	.593	0.621	.43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9	.14	.04	.047	0.04	.07	.04	.268	0.570	.450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3	.40	.14	.015	0.08	.10	.08	.308	2.282	.131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18	−.19	.15	.238	0.01	.01	.07	.896	1.026	.311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1	.39	.07	<.001	0.38	.45	.06	<.001	0.102	.749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7	−.06	.08	.368	0.09	.07	.08	.292	1.728	.189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20	.12	.11	.077	−0.03	−.02	.10	.726	2.235	.135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8	.09	.35	.598	−0.22	−.11	.21	.281	0.900	.343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05	.38	.761	0.36	.18	.20	.068	1.074	.300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0.97	.35	.18	<.001	0.82	.36	.16	<.001	0.407	.523

<부록23> KKO1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념극단성 집단 (KKO1)								경로 차이	
			저 (n=255)				고 (n=245)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4	.17	.12	.040	0.13	.11	.08	.089	0.597	.440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3	-.05	.04	.450	0.00	.00	.04	.948	0.226	.634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39	-.11	.27	.145	0.20	.08	.17	.223	3.506	.061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3	.02	.09	.740	0.17	.12	.09	.065	1.068	.301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5	.09	.13	.250	0.03	.02	.08	.728	0.639	.42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7	.11	.05	.104	0.01	.01	.04	.895	1.183	.277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5	.38	.09	<.001	0.37	.38	.09	<.001	0.435	.510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8	-.17	.03	.006	-0.08	-.17	.03	.011	0.019	.889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26	.16	.14	.066	0.03	.02	.08	.738	2.057	.151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9	.14	.05	.051	0.03	.04	.04	.484	0.929	.335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2	.27	.10	<.001	0.64	.59	.09	<.001	6.390	.011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5	.10	.03	.116	0.06	.12	.03	.052	0.060	.806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20	.14	.12	.105	0.42	.31	.09	<.001	2.233	.135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3	-.04	.04	.545	0.01	.01	.04	.823	0.337	.562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11	.11	.08	.167	0.29	.26	.08	<.001	2.218	.136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6	.13	.03	.039	0.01	.03	.03	.673	1.114	.291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68	.34	.18	<.001	0.29	.14	.13	.029	2.735	.098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62	-.30	.19	.001	-0.03	-.01	.12	.835	6.423	.01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25	-.11	.12	.043	-0.11	-.06	.10	.249	0.769	.380
선택적노출	→	분노	0.39	.27	.16	.014	0.10	.06	.13	.462	1.948	.163
교차노출	→	분노	-0.31	-.21	.17	.059	-0.11	-.08	.12	.364	0.944	.331
선택적회피	→	분노	-0.21	-.12	.11	.059	-0.08	-.06	.10	.410	0.776	.378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1	.01	.02	.806	0.03	.07	.02	.219	0.466	.495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7	.12	.03	.037	0.04	.08	.03	.178	0.200	.655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2	.54	.09	<.001	0.15	.17	.07	.027	5.908	.015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7	-.21	.08	.044	0.08	.10	.06	.182	5.356	.021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3	.48	.06	<.001	0.37	.47	.05	<.001	0.707	.401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1	-.03	.03	.634	0.05	.13	.03	.034	2.930	.087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9	.15	.04	.016	0.04	.07	.03	.270	0.858	.354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9	.46	.10	<.001	0.10	.11	.07	.163	5.227	.022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0	-.23	.10	.042	0.08	.10	.07	.242	5.024	.025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3	.44	.07	<.001	0.38	.49	.06	<.001	0.398	.528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11	-.09	.07	.127	0.04	.04	.07	.531	2.076	.150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27	.17	.10	.006	-0.09	-.06	.10	.326	6.207	.013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05	.25	.645	0.06	.03	.20	.747	0.025	.875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4	-.06	.26	.580	0.02	.01	.19	.906	0.243	.622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03	.38	.17	<.001	0.98	.45	.15	<.001	0.056	.813

<부록24> KKO2 이념극단성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이념극단성 집단 (KKO2)								경로 차이	
			저 (n=381)				고 (n=298)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0	.14	.09	.024	0.22	.17	.08	.005	0.026	.87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2	.02	.04	.680	0.06	.08	.04	.162	0.449	.503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10	−.04	.16	.511	−0.08	−.03	.17	.648	0.015	.903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0	.00	.08	.987	0.13	.08	.09	.156	1.167	.280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4	.09	.08	.076	0.10	.08	.07	.176	0.143	.705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6	.07	.04	.132	−0.02	−.03	.04	.585	2.096	.148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55	.53	.06	<.001	0.45	.48	.07	<.001	1.384	.239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6	−.30	.03	<.001	−0.12	−.27	.02	<.001	1.831	.176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16	.11	.08	.041	0.08	.06	.08	.347	0.551	.458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7	.09	.04	.060	−0.02	−.03	.04	.607	2.648	.104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53	.54	.06	<.001	0.52	.49	.08	<.001	0.026	.873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0	−.01	.03	.922	0.03	.07	.03	.224	0.922	.337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05	.04	.07	.470	0.33	.24	.08	<.001	7.280	.007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3	−.06	.03	.268	−0.02	−.03	.04	.576	0.046	.830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7	.09	.04	.106	0.06	.05	.07	.430	0.022	.882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1	−.03	.02	.617	−0.05	−.10	.03	.089	1.080	.299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98	.56	.19	<.001	0.51	.25	.15	<.001	3.067	.080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89	−.48	.20	<.001	−0.40	−.23	.13	.001	3.521	.06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09	.04	.12	.456	−0.15	−.08	.09	.110	2.435	.119
선택적노출	→	분노	−0.08	−.05	.17	.639	−0.08	−.04	.17	.647	0.000	.986
교차노출	→	분노	0.33	.21	.18	.065	0.26	.16	.15	.071	0.085	.770
선택적회피	→	분노	−0.07	−.03	.11	.529	0.22	.13	.11	.037	3.565	.059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1	−.02	.02	.699	0.01	.01	.02	.780	0.196	.658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048	0.05	.10	.02	.036	0.034	.853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38	.57	.08	<.001	0.37	.41	.07	<.001	0.008	.927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3	−.19	.08	.089	−0.06	−.08	.06	.254	0.417	.519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5	.38	.05	<.001	0.35	.44	.04	<.001	0.004	.952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0	.01	.02	.902	0.05	.09	.03	.082	1.379	.240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2	.04	.03	.418	0.05	.10	.03	.064	0.655	.418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5	.45	.10	<.001	0.27	.27	.08	.001	0.328	.567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12	−.15	.10	.215	0.01	.01	.07	.943	0.929	.335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4	.41	.06	<.001	0.39	.42	.05	<.001	0.446	.504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1	.06	.785	0.06	.05	.07	.380	0.637	.425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2	.07	.713	−0.05	−.03	.07	.518	0.046	.829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08	−.04	.24	.735	−0.27	−.10	.21	.199	0.286	.593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35	.15	.25	.164	0.39	.17	.18	.030	0.020	.887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41	.46	.15	<.001	1.09	.46	.13	<.001	2.632	.105

<부록25> SNS1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관용 집단 (SNS1)								경로 차이	
			저 (n=241)				고 (n=209)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0	.20	.10	.044	0.16	.17	.10	.094	0.075	.784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0	.00	.03	.958	0.11	.21	.04	.005	4.561	.033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67	−.26	.24	.004	−0.71	−.31	.23	.002	0.010	.920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14	−.12	.08	.060	0.05	.04	.09	.541	2.813	.094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55	.44	.14	<.001	0.35	.29	.11	.001	1.343	.246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2	.04	.733	0.00	.00	.04	.981	0.062	.803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4	.34	.10	<.001	0.78	.62	.10	<.001	6.596	.010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5	−.10	.03	.144	0.00	.00	.03	.950	0.843	.358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27	.22	.13	.034	0.14	.12	.12	.241	0.520	.471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1	−.02	.04	.811	0.01	.02	.05	.814	0.111	.739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4	.36	.10	<.001	0.58	.46	.11	<.001	0.963	.326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6	.13	.03	.059	0.07	.14	.04	.054	0.029	.865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35	.32	.12	.004	0.53	.51	.12	<.001	0.928	.335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5	.09	.04	.202	0.08	.14	.04	.038	0.505	.477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5	−.05	.09	.551	0.11	.10	.09	.189	1.762	.184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6	.14	.03	.049	−0.03	−.07	.03	.349	3.723	.054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40	.21	.16	.014	0.56	.33	.16	<.001	0.439	.507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35	−.17	.17	.044	−0.50	−.29	.15	<.001	0.414	.520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19	−.09	.11	.100	−0.03	−.02	.12	.777	0.898	.343
선택적노출	→	분노	0.36	.25	.16	.023	0.34	.26	.15	.020	0.008	.927
교차노출	→	분노	−0.04	−.03	.17	.812	−0.25	−.19	.14	.073	0.916	.339
선택적회피	→	분노	−0.07	−.04	.11	.506	0.05	.03	.11	.674	0.591	.442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3	−.06	.02	.276	0.02	.05	.03	.441	1.506	.220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8	.16	.03	.005	0.07	.11	.04	.070	0.121	.728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6	.33	.08	<.001	0.25	.32	.08	.002	0.006	.938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2	−.15	.08	.134	0.05	.07	.08	.500	2.057	.151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0	.46	.05	<.001	0.32	.36	.06	<.001	1.167	.280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4	−.09	.03	.142	0.04	.08	.03	.229	3.159	.076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7	.13	.04	.050	0.08	.13	.04	.053	0.046	.830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5	.30	.09	.007	0.20	.24	.10	.033	0.095	.758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1	−.25	.10	.028	0.04	.05	.09	.624	3.313	.069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39	.42	.06	<.001	0.39	.40	.07	<.001	0.000	.997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0	.08	.957	0.07	.06	.08	.394	0.380	.538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6	.04	.10	.523	0.16	.10	.10	.127	0.391	.532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05	.25	.648	−0.04	−.02	.23	.868	0.184	.668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0	−.04	.27	.703	0.41	.20	.22	.060	1.968	.161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0.98	.37	.17	<.001	0.72	.31	.16	<.001	1.165	.280

<부록26> SNS2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관용 집단 (SNS2)								경로 차이	
			저 (n=298)				고 (n=281)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1	.15	.11	.066	0.23	.20	.09	.010	0.032	.859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1	−.02	.04	.763	0.05	.09	.04	.170	1.403	.236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73	−.27	.22	<.001	−0.50	−.20	.19	.009	0.556	.456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4	−.03	.07	.601	−0.06	−.05	.08	.425	0.062	.803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29	.24	.10	.003	0.25	.21	.09	.003	0.106	.745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2	−.03	.03	.568	0.06	.10	.03	.069	2.973	.085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29	.32	.05	<.001	0.48	.47	.07	<.001	5.126	.024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5	−.33	.03	<.001	−0.09	−.19	.03	<.001	2.455	.117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03	.02	.10	.808	0.10	.08	.10	.286	0.292	.589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2	−.04	.03	.549	0.05	.07	.04	.236	1.655	.198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34	.38	.06	<.001	0.53	.49	.08	<.001	4.049	.044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2	−.03	.03	.582	0.06	.12	.03	.050	3.138	.077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33	.29	.10	.001	0.47	.44	.08	<.001	1.002	.317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3	.05	.03	.370	0.11	.21	.03	<.001	4.030	.045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1	−.02	.05	.795	0.01	.02	.06	.801	0.130	.719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2	−.06	.03	.355	−0.04	−.10	.02	.070	0.250	.617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45	.71	.22	<.001	0.73	.38	.21	<.001	4.444	.035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1.16	−.55	.22	<.001	−0.59	−.34	.19	.002	3.120	.077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27	−.12	.12	.023	−0.03	−.02	.12	.787	1.983	.159
선택적노출	→	분노	−0.29	−.17	.20	.145	−0.30	−.17	.24	.211	0.002	.969
교차노출	→	분노	0.41	.24	.20	.038	0.41	.25	.21	.057	0.000	.989
선택적회피	→	분노	0.23	.13	.11	.040	0.30	.15	.13	.022	0.193	.660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5	−.12	.02	.051	−0.03	−.06	.02	.228	0.282	.595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2	.04	.03	.382	0.07	.15	.02	.003	2.057	.151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52	.63	.11	<.001	0.39	.46	.10	<.001	0.578	.447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9	−.35	.11	.005	−0.11	−.14	.09	.240	1.423	.233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0	.34	.05	<.001	0.38	.39	.06	<.001	1.041	.308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4	.03	.496	−0.02	−.03	.03	.579	0.677	.41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2	.03	.03	.576	0.08	.15	.03	.006	2.189	.139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3	.34	.13	.012	0.42	.44	.13	<.001	0.203	.652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17	−.18	.13	.169	−0.19	−.22	.11	.086	0.011	.917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37	.36	.06	<.001	0.42	.39	.07	<.001	0.291	.589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1	.08	.903	0.03	.02	.07	.682	0.113	.736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9	−.06	.09	.271	0.00	.00	.07	.992	0.716	.397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6	−.06	.35	.641	−0.36	−.16	.29	.217	0.160	.689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30	.12	.34	.372	0.58	.27	.27	.030	0.348	.555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0.95	.35	.17	<.001	1.04	.40	.16	<.001	0.150	.699

<부록27> KKO2 관용 고·저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관용 집단 (KKO2)								경로 차이	
			저 (n=360)				고 (n=319)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0	.13	.08	.018	0.24	.19	.09	.004	0.154	.695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6	−.07	.04	.195	0.09	.13	.04	.027	6.092	.014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00	.00	.16	.989	−0.34	−.13	.17	.045	2.105	.147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11	.07	.08	.183	0.02	.02	.09	.797	0.537	.464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21	.15	.07	.005	0.02	.02	.07	.761	3.105	.078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2	.04	.752	−0.01	−.01	.04	.878	0.111	.739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0	.42	.06	<.001	0.56	.54	.06	<.001	3.793	.05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5	−.32	.02	<.001	−0.16	−.33	.02	<.001	0.089	.766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10	.07	.07	.194	0.14	.10	.09	.117	0.118	.731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2	.03	.04	.575	0.01	.01	.04	.849	0.056	.813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8	.50	.06	<.001	0.48	.46	.07	<.001	0.000	.985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2	.04	.02	.408	−0.01	−.03	.03	.606	0.849	.357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22	.19	.07	.001	0.15	.13	.08	.050	0.469	.49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4	−.07	.04	.249	−0.01	−.01	.04	.904	0.483	.487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6	.08	.05	.196	0.09	.10	.06	.134	0.120	.729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2	−.06	.02	.274	−0.05	−.10	.02	.057	0.466	.495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95	.50	.15	<.001	0.47	.25	.17	.005	3.508	.06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84	−.44	.15	<.001	−0.38	−.21	.16	.018	3.602	.058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01	.00	.11	.963	−0.01	−.01	.10	.903	0.013	.908
선택적노출	→	분노	−0.11	−.07	.14	.423	0.05	.03	.19	.771	0.488	.485
교차노출	→	분노	0.35	.23	.14	.011	0.22	.13	.18	.222	0.345	.557
선택적회피	→	분노	−0.05	−.03	.10	.632	0.22	.12	.11	.049	3.166	.075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1	.01	.02	.793	−0.01	−.02	.02	.709	0.183	.669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1	.02	.02	.619	0.07	.16	.02	<.001	3.996	.046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8	.39	.06	<.001	0.39	.50	.07	<.001	0.992	.319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6	−.08	.06	.357	−0.10	−.13	.07	.148	0.179	.672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1	.48	.05	<.001	0.30	.35	.05	<.001	3.787	.052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3	.06	.02	.221	0.02	.03	.03	.525	0.095	.758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1	−.01	.03	.791	0.07	.14	.03	.008	4.325	.038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33	.38	.08	<.001	0.27	.29	.09	.004	0.174	.677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6	−.08	.08	.399	−0.03	−.03	.09	.785	0.097	.755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3	.44	.05	<.001	0.39	.38	.06	<.001	0.325	.568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1	.06	.816	0.06	.05	.06	.309	0.691	.406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08	.07	.096	0.04	.03	.06	.519	2.755	.097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3	.05	.21	.549	−0.43	−.19	.22	.049	2.826	.093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9	.08	.21	.360	0.58	.26	.21	.006	1.468	.226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33	.47	.14	<.001	1.00	.40	.13	<.001	2.804	.094

<부록28> SNS1 40대 이하, 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세대 집단 (SNS1)								경로 차이	
			40대 이하 (n=249)				50대 이상 (n=201)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2	.23	.09	.016	0.10	.10	.11	.342	0.637	.425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3	.06	.04	.374	0.10	.20	.04	.007	1.618	.203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58	−.23	.21	.006	−1.00	−.41	.27	<.001	1.078	.299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8	−.06	.08	.349	−0.10	−.08	.08	.226	0.032	.858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49	.39	.12	<.001	0.32	.27	.13	.010	1.167	.280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1	.04	.839	0.00	.00	.04	.961	0.045	.833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60	.46	.10	<.001	0.70	.60	.09	<.001	0.646	.421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03	−.06	.03	.350	−0.04	−.08	.04	.238	0.089	.765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23	.19	.11	.046	0.16	.14	.13	.221	0.434	.510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3	−.04	.04	.516	0.02	.03	.04	.673	0.502	.479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53	.42	.10	<.001	0.49	.42	.10	<.001	0.055	.815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3	.05	.03	.419	0.11	.22	.04	.004	2.365	.124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42	.39	.11	<.001	0.56	.51	.15	<.001	0.358	.550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8	.14	.04	.048	0.04	.08	.04	.279	0.408	.523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4	−.04	.08	.604	0.15	.14	.09	.095	2.209	.137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0	.00	.03	.974	0.03	.07	.04	.368	0.331	.565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68	.37	.20	<.001	0.43	.24	.13	.001	0.991	.319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63	−.33	.22	.004	−0.28	−.15	.13	.030	1.834	.176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12	−.05	.12	.328	−0.13	−.07	.11	.244	0.000	.997
선택적노출	→	분노	0.75	.56	.18	<.001	0.27	.19	.14	.054	4.644	.031
교차노출	→	분노	−0.59	−.42	.19	.002	0.04	.03	.13	.760	7.375	.007
선택적회피	→	분노	0.17	.10	.11	.119	−0.22	−.14	.11	.057	5.741	.017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094	0.04	.10	.03	.125	4.382	.036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5	.10	.03	.087	0.06	.10	.04	.115	0.002	.964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32	.43	.10	<.001	0.25	.32	.07	<.001	0.183	.669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6	−.21	.10	.095	0.06	.08	.07	.360	2.525	.112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5	.50	.05	<.001	0.27	.31	.06	<.001	5.483	.019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4	−.08	.03	.207	0.05	.12	.03	.091	3.902	.048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8	.13	.04	.052	0.06	.09	.04	.158	0.155	.694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0	.24	.12	.095	0.21	.26	.08	.009	0.010	.919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8	−.09	.13	.534	−0.02	−.03	.08	.754	0.073	.787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1	.41	.07	<.001	0.36	.40	.07	<.001	0.285	.593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8	−.06	.07	.295	0.18	.14	.08	.036	4.569	.033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2	.01	.10	.830	0.10	.06	.11	.338	0.250	.617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11	.05	.31	.721	−0.07	−.03	.21	.732	0.157	.692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01	.01	.32	.967	0.29	.13	.20	.144	0.365	.546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0.95	.37	.17	<.001	0.78	.33	.17	<.001	0.509	.475

<부록29> KKO1 40대 이하, 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세대 집단 (KKO1)								경로 차이	
			40대 이하 (n=246)				50대 이상 (n=254)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10	.07	.11	.326	0.21	.16	.08	.014	0.560	.454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1	.01	.05	.862	-0.03	-.05	.04	.438	0.367	.545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19	-.06	.23	.396	0.10	.03	.19	.614	0.940	.332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18	.11	.11	.090	0.05	.04	.09	.579	0.913	.339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3	.09	.11	.230	0.07	.05	.09	.445	0.171	.679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6	.08	.05	.208	0.02	.04	.04	.565	0.336	.562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38	.36	.08	<.001	0.42	.36	.10	<.001	0.076	.782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2	-.26	.03	<.001	-0.06	-.13	.03	.032	1.568	.211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05	.03	.11	.651	0.12	.09	.09	.195	0.215	.643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10	.13	.05	.040	0.03	.04	.04	.525	1.434	.231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6	.42	.09	<.001	0.54	.48	.10	<.001	0.423	.515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3	.07	.03	.280	0.07	.14	.03	.028	0.555	.456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38	.25	.11	<.001	0.32	.23	.09	<.001	0.173	.677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2	.03	.05	.621	-0.03	-.05	.04	.436	0.775	.379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9	.09	.08	.226	0.36	.33	.09	<.001	5.485	.019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2	.04	.03	.569	0.04	.09	.03	.142	0.382	.536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36	.17	.17	.037	0.41	.21	.13	.002	0.040	.841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28	-.14	.17	.093	-0.12	-.06	.13	.363	0.556	.456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23	-.11	.11	.046	-0.13	-.06	.10	.226	0.412	.521
선택적노출	→	분노	0.61	.41	.16	<.001	0.08	.06	.12	.494	6.710	.010
교차노출	→	분노	-0.49	-.35	.16	.002	-0.01	-.01	.12	.920	5.501	.019
선택적회피	→	분노	0.02	.02	.10	.834	-0.21	-.14	.10	.036	2.551	.110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1	.02	.02	.733	0.04	.10	.02	.087	0.932	.334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4	.07	.03	.245	0.07	.11	.03	.044	0.287	.592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5	.30	.08	.002	0.25	.30	.07	<.001	0.006	.936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00	.00	.08	.995	-0.01	-.01	.06	.938	0.002	.961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4	.52	.06	<.001	0.34	.40	.05	<.001	1.993	.158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5	.03	.375	0.05	.12	.03	.052	0.543	.461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2	.04	.04	.581	0.09	.15	.04	.010	1.597	.206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6	.29	.09	.006	0.20	.24	.07	.005	0.266	.606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02	.02	.09	.833	-0.07	-.08	.07	.307	0.522	.470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0	.45	.06	<.001	0.38	.44	.06	<.001	0.038	.846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4	-.03	.07	.606	0.07	.06	.07	.344	0.965	.326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9	-.06	.10	.367	0.17	.11	.10	.068	3.223	.073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51	.21	.25	.038	0.03	.01	.19	.865	2.151	.142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9	-.12	.24	.238	-0.07	-.03	.18	.718	0.476	.490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14	.47	.16	<.001	0.92	.38	.15	<.001	0.948	.330

<부록30> SNS2 40대 이하, 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세대 집단 (SNS2)								경로 차이	
			40대 이하 (n=352)				50대 이상 (n=227)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12	.10	.09	.151	0.26	.20	.13	.038	0.769	.381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2	.03	.04	.550	0.02	.03	.04	.637	0.006	.936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42	−.17	.16	.011	−1.06	−.40	.27	<.001	3.885	.049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02	−.01	.07	.821	−0.16	−.14	.08	.036	1.969	.161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21	.17	.08	.007	0.45	.38	.12	<.001	2.981	.08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2	.03	.672	0.05	.09	.03	.145	0.527	.468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1	.42	.06	<.001	0.38	.40	.07	<.001	0.108	.742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5	−.30	.03	<.001	−0.06	−.14	.03	.043	3.966	.046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00	.00	.08	.980	0.17	.14	.13	.194	1.162	.281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1	.01	.03	.796	0.02	.04	.04	.579	0.050	.824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5	.45	.06	<.001	0.41	.42	.08	<.001	0.164	.685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2	−.04	.03	.499	0.08	.17	.04	.022	4.760	.029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28	.29	.07	<.001	0.59	.53	.13	<.001	4.850	.028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5	.09	.03	.094	0.09	.18	.03	.006	0.849	.357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0	.01	.05	.934	0.01	.01	.07	.864	0.008	.927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4	−.09	.02	.090	−0.01	−.03	.03	.680	0.348	.555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1.35	.70	.24	<.001	0.79	.39	.19	<.001	2.872	.090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1.15	−.61	.24	<.001	−0.50	−.26	.17	.003	4.637	.031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20	−.09	.11	.078	−0.11	−.05	.13	.411	0.294	.588
선택적노출	→	분노	−0.51	−.32	.22	.020	−0.20	−.11	.21	.352	1.017	.313
교차노출	→	분노	0.65	.42	.22	.002	0.28	.16	.19	.142	1.650	.199
선택적회피	→	분노	0.19	.10	.11	.081	0.36	.18	.15	.016	0.880	.348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3	−.08	.02	.127	−0.05	−.11	.03	.086	0.167	.683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4	.09	.02	.059	0.07	.15	.03	.011	0.538	.463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9	.64	.11	<.001	0.45	.55	.10	<.001	0.063	.802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26	−.35	.11	.015	−0.17	−.22	.08	.037	0.353	.552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41	.44	.05	<.001	0.21	.24	.06	<.001	6.281	.012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2	−.04	.03	.433	0.03	.07	.03	.313	1.449	.229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4	.07	.03	.186	0.09	.17	.03	.007	1.183	.277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43	.47	.14	.002	0.40	.43	.11	<.001	0.018	.894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22	−.24	.14	.116	−0.27	−.30	.10	.006	0.088	.766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8	.43	.06	<.001	0.26	.27	.07	<.001	5.063	.024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12	−.10	.07	.077	0.14	.12	.08	.077	5.527	.019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0	.07	.968	−0.09	−.06	.08	.304	0.615	.433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40	.17	.35	.250	−0.65	−.26	.30	.027	4.299	.038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1	−.09	.34	.550	0.73	.30	.26	.004	3.871	.049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0.96	.34	.15	<.001	1.13	.43	.20	<.001	0.504	.478

<부록31> KKO2 40대 이하, 50대 이상 다집단 분석 결과

경로			세대 집단 (KKO2)								경로 차이	
			40대 이하 (n=394)				50대 이상 (n=285)					
			B	β	SE	p	B	β	SE	p	$x^2_{diff}(1)$	p
네트워크동질성	→	뉴스다양성	0.23	.13	.08	.007	0.23	.16	.09	.010	0.003	.960
네트워크규모	→	뉴스다양성	0.05	.06	.05	.292	0.02	.03	.04	.683	0.322	.570
네트워크동질성	→	의견균형성	−0.20	−.06	.15	.180	0.09	.03	.19	.628	1.422	.233
네트워크규모	→	의견균형성	0.10	.06	.09	.261	0.02	.02	.08	.778	0.381	.537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노출	0.10	.06	.07	.120	0.08	.05	.08	.357	0.067	.796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노출	0.01	.01	.04	.778	0.03	.04	.04	.486	0.072	.788
뉴스다양성	→	선택적노출	0.46	.49	.05	<.001	0.58	.53	.07	<.001	1.853	.173
의견균형성	→	선택적노출	−0.17	−.35	.02	<.001	−0.13	−.28	.03	<.001	1.634	.201
네트워크동질성	→	교차노출	0.16	.10	.07	.029	0.06	.04	.09	.476	0.751	.386
네트워크규모	→	교차노출	0.04	.05	.04	.334	0.00	.00	.04	.958	0.467	.494
뉴스다양성	→	교차노출	0.45	.46	.05	<.001	0.60	.56	.08	<.001	3.106	.078
의견균형성	→	교차노출	−0.01	−.02	.02	.684	0.02	.04	.03	.465	0.647	.421
네트워크동질성	→	선택적회피	0.20	.16	.06	.001	0.23	.15	.09	.009	0.044	.834
네트워크규모	→	선택적회피	−0.01	−.02	.04	.696	−0.05	−.09	.04	.139	0.622	.430
뉴스다양성	→	선택적회피	0.04	.05	.04	.340	0.13	.13	.07	.058	1.203	.273
의견균형성	→	선택적회피	−0.02	−.05	.02	.323	−0.06	−.15	.03	.014	1.733	.188
선택적노출	→	태도극단성	0.76	.42	.15	<.001	0.67	.35	.17	<.001	0.136	.713
교차노출	→	태도극단성	−0.60	−.34	.15	<.001	−0.62	−.31	.17	<.001	0.005	.942
선택적회피	→	태도극단성	−0.14	−.06	.10	.159	0.12	.06	.11	.286	2.942	.086
선택적노출	→	분노	−0.13	−.08	.15	.393	0.07	.04	.17	.696	0.705	.401
교차노출	→	분노	0.35	.24	.15	.017	0.16	.09	.17	.347	0.729	.393
선택적회피	→	분노	0.22	.11	.10	.032	−0.07	−.04	.12	.550	3.416	.065
태도극단성	→	소셜미디어활동	0.00	−.01	.02	.871	0.00	.00	.02	.995	0.009	.924
분노	→	소셜미디어활동	0.05	.10	.02	.023	0.03	.08	.02	.117	0.151	.698
선택적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47	.65	.07	<.001	0.18	.23	.07	.010	7.143	.008
교차노출	→	소셜미디어활동	−0.19	−.27	.07	.005	0.03	.04	.07	.636	4.707	.030
선택적회피	→	소셜미디어활동	0.37	.41	.05	<.001	0.41	.49	.05	<.001	0.384	.535
태도극단성	→	온라인정치참여	0.01	.01	.02	.821	0.05	.11	.03	.067	1.390	.238
분노	→	온라인정치참여	0.03	.05	.03	.259	0.04	.09	.03	.118	0.140	.709
선택적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40	.47	.08	<.001	0.16	.18	.09	.072	3.245	.072
교차노출	→	온라인정치참여	−0.11	−.13	.08	.205	−0.01	−.01	.09	.934	0.589	.443
선택적회피	→	온라인정치참여	0.48	.45	.06	<.001	0.39	.41	.06	<.001	1.368	.242
태도극단성	→	오프라인정치참여	0.00	.00	.06	.953	0.05	.04	.07	.448	0.335	.563
분노	→	오프라인정치참여	−0.07	−.05	.07	.316	−0.01	−.01	.07	.929	0.382	.537
선택적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04	−.02	.21	.847	−0.31	−.13	.23	.176	0.611	.435
교차노출	→	오프라인정치참여	0.22	.10	.21	.303	0.57	.23	.22	.009	1.140	.286
선택적회피	→	오프라인정치참여	1.20	.43	.14	<.001	1.27	.49	.14	<.001	0.125	.724

<부록32> 설문지

소셜 미디어 이용과 정치적 참여

뉴스 미디어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는 종이 신문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거의 보지 않는다
② 1주일에 1일 정도
③ 1주일에 2-3일 정도
④ 1주일에 4-5일 정도
⑤ 거의 매일

2. 귀하는 텔레비전 뉴스(지상파, 케이블 포함)를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거의 보지 않는다
② 1주일에 1일 정도
③ 1주일에 2-3일 정도
④ 1주일에 4-5일 정도
⑤ 거의 매일

3. 귀하는 인터넷 뉴스(포털, 온라인 신문 포함)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① 거의 보지 않는다
② 하루 20분 이내
③ 하루 20-40분 정도
④ 하루 40-60분 정도
⑤ 하루 60분 이상

소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4. 귀하께서는 카카오톡이나 SNS를 이용하십니까? 카카오톡이나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등)에서 글이나 사진을 올리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것("눈팅")만도 이용에 해당됩니다.

① 카카오톡와 SNS 둘 다 이용한다
② 카카오톡만 이용한다
③ SNS만 이용한다
④ 카카오톡과 SNS 둘 다 이용하지 않는다

카카오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지금부터는 귀하의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의 답변을 위해 카카오톡 앱을 실행한 후, 친구 목록을 보면서 응답해주셔도 됩니다.

5. 귀하의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　　)명

6. 귀하의 카카오톡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음 항목에서 귀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카오톡에 등록된 친구나 지인은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비슷하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와 **정치적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카카오톡을 통한 정치 정보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 지금부터는 카카오톡에서 정치 정보를 받은 경험에 관한 설문입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일대일 채팅이나 단체 채팅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란 카카오톡 친구가 공유하는 뉴스, 타인의 글, 유튜브 링크를 포함합니다.

[이슈1: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7.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귀하는 카카오톡의 일대일/단체 채팅에서 이와 관련된 개인 의견이나 뉴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받은 적이 없다 (→ 12번으로 이동)
② 아주 가끔 받은 적이 있다
③ 종종 받은 적이 있다
④ 자주 받았다
⑤ 매우 자주 받았다

8. [7번 문항 2번-5번 응답 시] 그렇다면, 당시에 카카오톡 일대일/단체 채팅에서 받았던 정보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9. 카카오톡의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받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정보**에서 찬성(임명 지지)과 반대(임명 반대)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전부 반대하는 입장 (**임명 반대**)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반쯤					전부 찬성하는 입장 (**임명 지지**)
0	1	2	3	4	5	6	7	8	9	10

●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귀하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친구가 보내준 글이나 뉴스는 제목(미리보기)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제목을 클릭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10. 귀하는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친구가 보내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셨습니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나 지인이 보내준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대체로 읽어보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대체로 읽어본 편이다	항상 읽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카카오톡 친구가 보내준 글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거나 읽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1. 귀하는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받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글을 쓰거나 정보를 공유한 경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2. 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썼다	①	②	③	④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언론사/포털 뉴스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이슈2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13.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카카오톡의 일대일/단체 채팅에서 이와 관련된 개인 의견이나 뉴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받은 적이 없다 (→ 18번으로 이동)
② 아주 가끔 받은 적이 있다
③ 종종 받은 적이 있다
④ 자주 받았다
⑤ 매우 자주 받았다

14. [13번 문항 2번-5번 응답 시] 그렇다면, 카카오톡 일대일/단체 채팅에서 받았던 정보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카카오톡의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나 지인에게 받았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관련 정보**에서 찬성(정부 지지)과 반대(정부 비판)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전부 반대하는 입장 (**정부 정책 비판**)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반쯤					전부 찬성하는 입장 (**정부 정책 지지**)
0	1	2	3	4	5	6	7	8	9	10

●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귀하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친구가 보내준 글이나 뉴스는 제목(미리보기)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제목을 클릭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16.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관련하여, 카카오톡 친구가 보내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셨습니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나 지인이 보내준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대체로 읽어보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대체로 읽어본 편이다	항상 읽어 보았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 카카오톡을 이용할 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카카오톡 친구가 보내준 글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거나 읽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17.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받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일대일/단체 채팅방에서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보내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이번에는 카카오톡에서 글을 쓰거나 정보를 공유한 경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18.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썼다	①	②	③	④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언론사/포털 뉴스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SNS에 관한 질문입니다.

- 지금부터는 귀하의 SNS 이용에 대하여 설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등 타인과 친구가 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SNS에서 글이나 사진을 올리지 않고 SNS 뉴스피드를 보는 것("눈팅") 만도 이용에 해당됩니다

19.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무엇입니까? (이용하는 SNS가 여러 개일 경우, 정치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SNS를 선택해 주세요.)

① 페이스북
② 트위터
③ 카카오스토리
④ 인스타그램
⑤ 네이버 밴드
⑥ 기타 (　　)

- 지금부터는 귀하의 SNS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의 답변을 위해 SNS 앱을 실행한 후, 친구 목록을 보면서 응답해주셔도 됩니다.

20.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SNS(19번 응답)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 수는 대략 몇 명입니까? (주 이용 SNS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일 경우 '친구 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일 경우 '팔로잉 수')

(　　)명

21. 귀하의 SNS(19번 응답)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다음 항목에서 귀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SNS에 등록된 친구나 지인은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비슷하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와 **정치적 이념 성향**이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관심사나 취미**가 비슷하다	①	②	③	④	⑤

SNS를 통한 정치 정보 이용 관련 질문입니다

- 지금부터는 SNS에서 정치 정보를 본 경험에 관한 설문입니다.
  SNS를 이용할 때, 뉴스피드에서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보란 SNS 친구가 공유하는 뉴스, 타인의 글, 유튜브 링크를 포함합니다.

[이슈1: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22.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귀하는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이와 관련된 개인 의견이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본 적이 없다 (→ 27번으로 이동)
② 아주 가끔 본 적이 있다
③ 종종 본 적이 있다
④ 자주 보았다
⑤ 매우 자주 보았다

23. [22번문항 2번-5번 응답 시] 그렇다면, 당시에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보았던 정보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24.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 친구나 지인이 올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정보**에서 찬성(임명 지지)과 반대(임명 반대)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전부 반대하는 입장 (**임명 반대**)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반쯤					전부 찬성하는 입장 (**임명 지지**)
0	1	2	3	4	5	6	7	8	9	10

● 이번에는 SNS에서 귀하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SNS를 이용할 때, 뉴스피드에서 친구가 올린 글이나 뉴스는 제목(미리보기)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제목을 클릭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25. 귀하는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SNS 친구가 올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셨습니까?

뉴스피드에서 친구나 지인이 올린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대체로 읽어보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대체로 읽어본 편이다	항상 읽어 보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 SNS를 이용할 때, 뉴스피드에서 카카오톡 친구가 보내준 글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거나 읽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26. 귀하는 작년 가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SNS 친구가 올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뉴스피드에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비판**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지지**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이번에는 SNS에서 글을 쓰거나 정보를 공유한 경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27. 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SNS(19번 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썼다	①	②	③	④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언론사/포털 뉴스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카카오톡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이슈2 :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28.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습니다. 귀하는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이와 관련된 개인 의견이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본 적이 없다 (→ 33번으로 이동)
② 아주 가끔 본 적이 있다
③ 종종 본 적이 있다
④ 자주 보았다
⑤ 매우 자주 보았다

29. [28번문항 2번-5번 응답 시] 그렇다면,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보았던 정보와 관련해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소 잘 보지 않던 언론사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아주 다양한 내용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30.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 친구나 지인이 올렸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관련 정보**에서 찬성(정부 지지)과 반대(정부 비판) 비율은 어떠했습니까?

전부 반대하는 입장 (**정부 정책 비판**)					찬성과 반대 입장이 반반쯤					전부 찬성하는 입장 (**정부 정책 지지**)
0	1	2	3	4	5	6	7	8	9	10

● 이번에는 SNS에서 귀하가 어떠한 정보를 이용하셨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SNS를 이용할 때, 뉴스피드에서 친구가 올린 글이나 뉴스는 제목(미리보기)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은 채 넘어갈 수도 있고, 반대로 제목을 클릭해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31.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SNS 친구가 올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어떤 내용인지 읽어 보셨습니까?

뉴스피드에서 친구나 지인이 올린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대체로 읽어보지 않은 편이다	절반 정도	대체로 읽어본 편이다	항상 읽어 보았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를 읽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 SNS를 이용할 때, 뉴스피드에서 SNS 친구가 올린 글이나 뉴스를 더 이상 보거나 읽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2.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SNS(19번 응답) 뉴스피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지 않기 위해 친구를 차단한 경험이 있습니까?

뉴스피드에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정부의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부의 방역대책을 **지지**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비판**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야당(미래통합당)의 대응을 **지지**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반대**되는 정보를 올리는 친구를 차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이번에는 SNS에서 글을 쓰거나 정보를 공유한 경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33.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SNS(19번 응답)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전혀 없었다	없었던 편이다	어느 정도 있었다	자주 있었다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글로 썼다	①	②	③	④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언론사/포털 뉴스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카카오톡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①	②	③	④

귀하의 정치 의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번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4. 귀하는 다음 이슈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정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는 나에게 중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이슈는 나에게 중요했다	①	②	③	④	⑤

35. 귀하는 이 이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이슈에 관심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 <과거>에 귀하가 가졌던 생각 또는 입장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36.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사태 이전, 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당시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매우 부정적 입장					중립			매우 긍정적 입장		
0	1	2	3	4	5	6	7	8	9	10

37. 2020년 2월 초,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초기, 귀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당시 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매우 부정적 입장					중립			매우 긍정적 입장		
0	1	2	3	4	5	6	7	8	9	10

● 이번에는 앞서 제시된 두 가지 정치적 이슈에 대해 <현재> 귀하가 가지고 있는 생각 또는 입장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38. 현재, 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매우 부정적 입장					중립			매우 긍정적 입장		
0	1	2	3	4	5	6	7	8	9	10

39. 현재, 귀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현재 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매우 부정적 입장					중립				긍정적 입장	
0	1	2	3	4	5	6	7	8	9	10

● 다음은 귀하가 느끼는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40. 귀하는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나는 정도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 이슈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항목 각각에 대하여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1.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싫어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대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어떤 의견이라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이념 성향을 아래와 같이 10점 만점으로 분류할 때, 귀하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몇 점입니까? ('가장 진보적'이면 0, '가장 보수적'이면 10)

가장 진보적					중도					가장 보수적
0	1	2	3	4	5	6	7	8	9	10

귀하의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번에는 귀하의 정치 참여 경험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각의 행동에 대하여 귀하의 경험을 답변해 주십시오.

43. 귀하는 '조국 법무부 정관 임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인터넷 설문(여론조사) 투표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언론사/포털 뉴스에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나의 생각이나 견해 쓰기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본 내용 공유하기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검색어 운동 참여하기 (특정 단어/문구 검색하기)	①	②	③	④	⑤
장외 집회 참석하기 (서초동/광화문 집회 등)	①	②	③	④	⑤
정치인, 공직자, 언론기관에 의견 전달하기	①	②	③	④	⑤
정치 단체 활동 (시민 단체, 장외 집회 집행부 등)	①	②	③	④	⑤
정치 관련 기부 및 모금 활동 (후원금, 지지광고 모금 등)	①	②	③	④	⑤

44. 귀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인터넷 설문(여론조사) 투표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언론사/포털 뉴스에 댓글 달기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나의 생각이나 견해 쓰기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게시판에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본 내용 공유하기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 검색어 운동 참여하기 (특정 단어/문구 검색하기)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관련 자원봉사 참여하기	①	②	③	④	⑤
정치인, 공직자, 언론기관에 의견 전달하기	①	②	③	④	⑤
사회 단체 활동 (방역 활동, 캠페인 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코로나19 관련 기부 및 모금 활동 (후원금, 물품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45. 귀하께서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에 투표하시겠습니까?

① 투표할 것이다
②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통계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46. 귀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만 (　　)살

4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48.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⑤ 대학교 재학/대학교 졸업
⑥ 대학원 재학/대학원 졸업

49. 귀 댁(가정)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800만원 미만
⑨ 800만원 이상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Abstract

The Political Effect of Selective Information Use in Social Media: Proposal for an Integrated Political Communication Model

Hana Lee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ocial media users selectively use information from the media that is consistent with their political views to reduce cognitive dissonance through defensive avoidance. They also experience cross-exposure to political information that is inconsistent with their views because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ir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focused on the selective use of politic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and aimed to explore the political effects of three types of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selective exposure, cross-exposure, and selective avoidance.

First, we looked at network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diversity as predictors of the use of selective information since it takes place

within the social media networks. Social media users receive political news and opinions on political issues from their friends' newsfeeds on social media platforms or messenger rooms. Therefore, the diversity of the information environment, such as news diversity and balanced viewpoints, along with network characteristics such as network homogeneity and network size as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the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by social media users were considered. This study validated the direct effects of the political and social homogeneity of social media friends and network size on the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information diversity that users might unintentionally encounter on social media.

Furthermore, the study assumed that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affects not only political attitudes and negative emotions of social media users but also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Use of information by selective exposure or selective avoidance based on confirmation bias can further strengthen the individual's attitude, whereas cross-exposure can weaken the intensity of the attitude toward the issue. This study also examined how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affects users' feelings of anger toward issues because sharing political information on social media can spread negative feelings. Moreover, it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attitudes and anger on issues. Political participation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social media activities,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t examined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selective information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their attitude and feelings of anger. Moreover, the moderated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ideological extremity, issue involvement, tolerance, and age, on selective

information use and political influence on social media were also analyze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an online survey of adults aged 20-60 years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and political views varied depending on the media platform or issues, we asked users of Kakao Talk and SNS whether they had used information on two specific issues: one political and one health-related. With these two issues and the two social media platforms, we had a total of four cases to examine. To examine the full structural model of integrated political communicati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This study also conducted multiple mediation, multi-group,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four cases network homogeneity had an indirect impact on selective exposure and cross-exposure through news diversity, and a direct impact on selective avoidance. There were positive effects of selective exposure and negative effects of cross-exposure on attitudes. Selective exposure positively affected social media activities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selective avoidance also positively affected political participation. Only attitude and anger had a positive impact on social media activities.

The difference between issu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are as follows: In the political issue (issue 1), balanced viewpoints had a positive effect on cross-exposure, and in the health-related issue (issue 2) balanced viewpoints had a negative effect on selective avoidance. Moreover, for issue 1, selective exposure had a positive effect on anger, and for issue 2 cross-exposure had a positive effect on anger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Finally, the negative impact of network homogeneity on balanced viewpoints and the positive

impact of network size on selective avoidance were found only in cases related to SNS.

As for the moderating effect, issue involvemen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homogeneity and cross-exposure in the case of issue 1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ive avoidance and online/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case of Kakao Talk. Moreover, ideological extrem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exposure and attitude in the case of issue 1, and tolerance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ws diversity and selective exposure in the case of SNS. Finally, age moderated the effect of selective and cross-exposure on anger in case of issue 1,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ective avoidance and social media activity in the case of SNS.

The study is useful as it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s that individuals are exposed to, the information diversity provided from network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involved in the use of selective information, ranging from user attitudes and anger to political participation. This study recognized the role of networks based on the use of information in social media environments. Although network characteristics have different effects on information diversity and selective use of information depending on media, network homogeneity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selective and cross-exposure by mediating news diversity regardless of media or issue. It is noteworthy that the balanced viewpoints have an impact on exposure to different opinions.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mediation effects of anger, depending on the type of issue.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issue engagement, ideological extremity, tolerance, and age have different moderating effect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social media, selective information use, network characteristics, information diversity, selective exposure, cross-exposure, selective avoidance, political attitude, anger, political participation,

Student Number : 2010-30064